

군선교 신학

12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MEAK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8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군부대 내의 각종 총기난사 및 폭행사망 사건 사고가 뉴스에 보도됨에 따라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져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더욱 꺼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너진 가정, 지식만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에 더해져 저출산과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입영자원의 부족으로 현역 복무자 선발 기준이 완화되면서 관심병사가 많아지는 등 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마저 추락하면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면서 청년 전도는 물론 불신자 전도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의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군선교 사역이라 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전개되고 있는 군선교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군을 향한 우리의 사명감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선교는 청년 전도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길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군선교 사역은 교회부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으로도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전력화로 강군육성의 중심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치관 혼란시대에 바른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온전한 가치정립을 가능케 해 모범국민육성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장병들의 복음화와 신앙전력화의 구체적인 열매는 세계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군선교연합회가 조직한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매년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군선교신학 논문을 공모하는 등 군선교신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군선교 사역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및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뜻깊은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심오함이 지대한 가운데 어느덧 제14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제14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은 병영문화 혁신과 국민의 사랑받는 건강한 병영을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진중교회 예배와 설교, 대대급교회 부흥을 위한 네트워크 동역 등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집 12권이 출판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1004군인교회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섬김을 다해주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판되도록 함께 동역해 주신 쿤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본회 사무처 상근 사역자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 독자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곽선희 목사

((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최근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논의가 군 안팎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이성적 판단보다 탈 이성적 폭력이 앞서 가고 있는 오늘의 청소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 해답은 분명하다.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꿈으로 재범률을 줄인 사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때려서 고쳐 보겠다는 형무소는 인간개조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어느 무명의 목사님의 제안으로 교도소를 만들어 운영함으로 엄청난 개선의 결과를 가져와 우리나라도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므로 아직도 재범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군대에는 군목제도가 있다. 사람의 영을 다스리고 도와주는 군목이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병영문화는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리개혁, 예배개혁 그리고 생활개혁을 단행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성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중 생수 문제(교리), 남편문제(생활), 예배처소문제(예배)를 다루신 것을 근거로 16세기 개혁자들이 결국 교리, 예배, 생활을 성경으로 돌이키려는 노력과 운동을 한 것이다.

본 신학논문집 12권에서는 군인교회의 예배와 설교, 찬양 모범을 주제로 다루었다.

인본주의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 군대사회의 특수 목회라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편하게 따를 수 있는 번두리 식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변화를 받아 선샤인 운동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병영생활

은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후방에서 수고하시면서 깊은 기도와 연구와 사역에 전념하시는
군목과 군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과 함께 귀한 글을 써 주신 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0월 7일

이종윤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서울교회 원로목사)

비전202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머리말 | 곽선희 목사 ... 4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11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찬양의 모범

- 기조강연 | 이종윤

38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 발제 1 | 김진섭·이승진·민상기

86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 논찬 1 | 최희범

91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 발제 2 | 김동연

118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 논찬 2 | 최석환

127 구약 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 김진섭

193 항거할 수 없는 은혜 | 정성구

209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 김성봉

233 폭력에서 사랑으로 | 안명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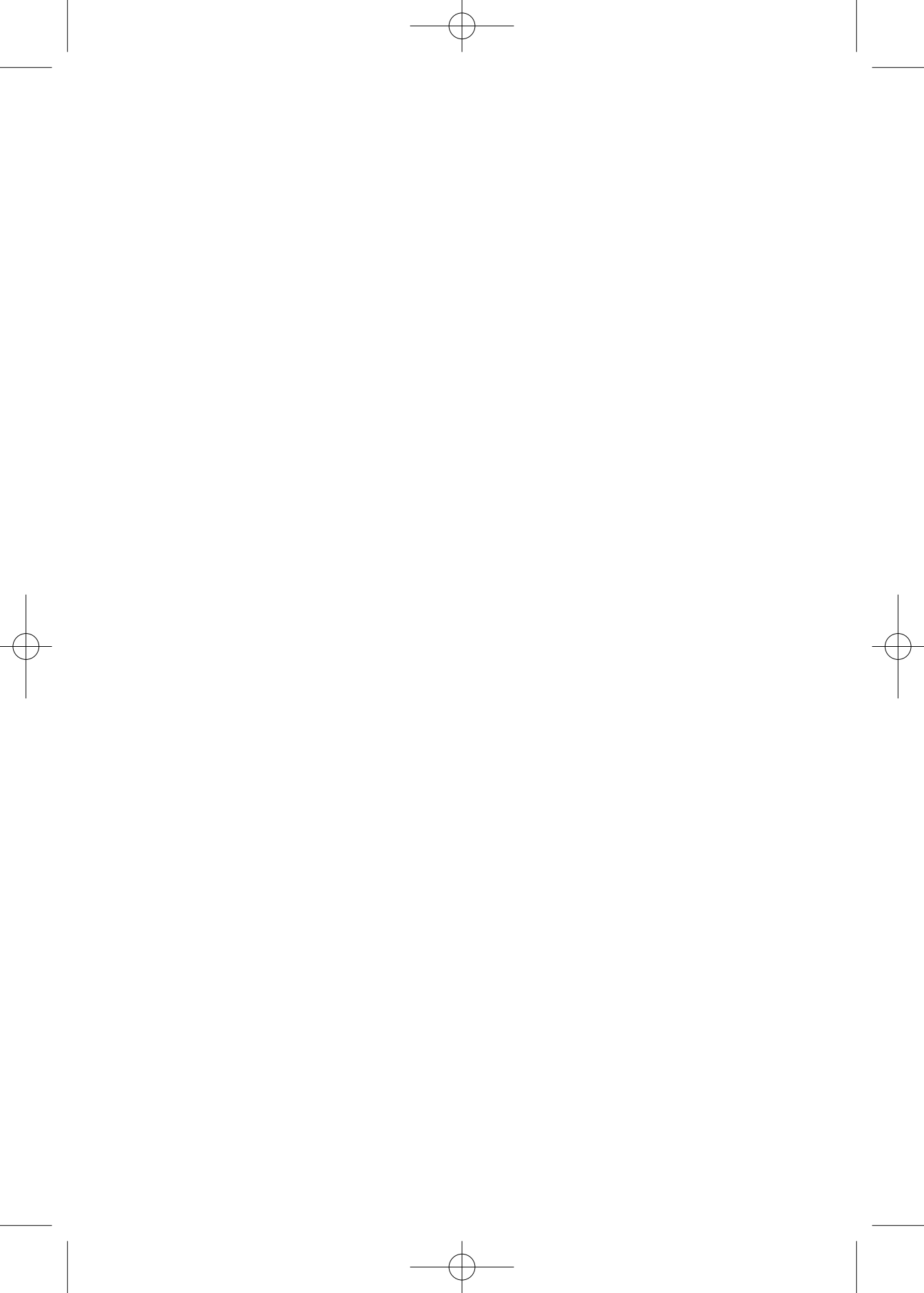
253 군선교를 위한 ‘뱃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 최석환

286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On Ps. 38. 13)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 이규철

318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 김상만

335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 김현택

36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 과제
- 군선교신학 논문(1~11권) 내용을 중심으로 | 신종훈 — 제11회 군선교신학 논문공모우수작



군선교신학 제12권 제14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기조강연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찬양의 모범

The Model for mature worship : Preaching and Hymns are Changing

■ 이종윤 Lee, Jong Yun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 Div., D. D.)
 - 영국 Univ. of St. Andrews(Ph. D.)
 - 독일 튀빙겐 대학교
 - 장로회 신학대학교(D. D.)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학술위원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서울교회 원로목사



2010년 12월 18일(토) 논산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이 있었다. 필자는 그 세례식 집례를 맡고 사전답사를 위해 논산에 두 차례 방문을 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담임목사 부재로 예비사단(?)교회 군목의 안내를 받았다. 그는 “목사님, 우리가 남의 다리를 굽고 있었습니다”라는 놀라운 보고를 했다. ‘훈련병들이 입소하여 각 연대로 배속받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단(?)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첫 번째 주 수요일에

는 입소자의 70% 이상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에 비해 연대별로 배속을 받은 후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병사는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군목이 그 이유를 말하면서 '훈련병들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 군대라는 낯선 세계에 들어와 두려움과 이질감에 위로와 안정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으나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고 의지하기보다 기타를 들고 알지 못하는 복음송을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으로 부르면서 박수를 강요하는 교회의 모습에 열렸던 마음이 닫혀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리개혁, 생활개혁뿐만 아니라 예배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톨릭의 미사 중심적 제사제도를 예배로 개혁한 것이다. 예수님은 수가 성에 물 길러 온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 생수를 마실 것이라는 교리를 가르치셨고, 그녀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으나 남편이 아니라시면서 생활개혁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리스 산이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새 언약 백성의 예배를 강조하셨다.

이같이 예수님은 교리, 삶과 예배를 연결시키고 계심을 발견한다. 가령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진리(교리)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이 표현된다. 이 셋은 분리될 수 없다.

어거스틴(Augustine)의 『고백록』을 보면, 그는 지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도덕적으로 육에 속한 옛 습관과 악을 버리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돌아섰고, 성례전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예배공동체에 들어왔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교리, 삶, 예배의 개혁을 개혁의 본질로 삼았다.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는 당시에 21명의 성인을 선택하여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3명의 성인에게 기도를 드렸다. 특별히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피조물에게 드린 것은 우

상승배다. 그들이 하고 있던 미사는 형식의 틀에 박힌 위선 또는 습관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 같은 잘못된 예배를 성경적 예배로 개혁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생활, 예배는 성경적인가? 소위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면서 교리적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낙태, 마약, 동성연애, 혼전섹스 등을 반대하면서 도덕적 우위성도 과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에 대한 포괄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현대예배, 특히 설교와 찬송이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미국의 소위 대형교회들이 하고 있으니 비판 없이 수용해도 좋은 것인가?

1. 예배가 변하고 있다(Changes in Worship)

1) 최근 예배실험이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한 현상을 보여준다.

첫째, 개혁교회의 예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 둘째, 예배에 영적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 하이 처치(High church) 개념을 갖고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카리스마틱(charismatic) 신오순절파와 같은 로우 처치(Low church) 입장을 강조하면서 Liturgy 예배의식이 없는 교회까지 있다. 변하고 있는 오늘의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많은 교회들이 그들 예배에 다양한 새로운 요소들을 첨가하고 있다.

어떤 교회에서는 소위 성령춤 또는 드라마, 유머가 담긴 촌극 등을 회중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첨가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시청각적인 것을 첨가한다. 형상물을 세우거나 필름을 보여준다. 어떤 교회에서는 오순절 체험을 첨가한다. 성령 안에서 웃음(한바탕 웃는 시간?). 어떤 교회에서는 팝콘을 먹으면서 또는 슈퍼볼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이나 야구

경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예배를 대치한다. 이런 변질된 예배형태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예배를 고안할 수 있다는 루터의 입장을 반대하면서, 요한 칼빈은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예배에 첨가하거나 빼는 것은 죄라고 했다.

(2)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에는 크게 네 종류의 예배 형태가 있다.

첫째, 성례전(미사)적 예배(정교회)

둘째, 말씀과 성찬의 균형을 지키는 예배(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말씀을 회복한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셋째, 성례전을 연 2-4회 지키면서 설교 중심 예배(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넷째, 예배 격식이나 절차의 필요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예배(침례교, 오순절)

그런데 이 네 번째 유형과 같은 유의 축제적 예배형태는 실은 예배라기보다는 집회라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집회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과 서부개척기에 있었던 변방예배(Frontier worship)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 제1차 대각성운동)나 찰스 피니(1792-1875, 제2차 대각성운동) 같은 이들이 중심이었다. 예배 전통 가운데 설교사역이 뜨거워지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지만 천막을 치고 하는 야영 집회를 예배로 대치하는 것은 탈예전적인 것으로 심한 갈등들이 있었다.

예배 분위기를 기도, 찬양, 심지어 성경봉독까지도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행위로 격하시키고, 그 외 모든 것은 경험이나 회심의 황홀경을 함께하도록 강조하는 위험한 경지를 보편화시켰다. 그들의 관심은 예배보다 복음을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오지의 생명들에 있었다. 18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참석하

고 경험했던 집회의 기도, 찬송, 성경봉독보다 설교가 전부라는 변방예배를 그대로 이 땅에 이식했다. 이 변방예배가 한국교회의 예배 모델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알고 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처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배라는 말을 멀리했다.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읽혀진 개역성경(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배, 섬김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신약에서 겨우 14번 찾아진다).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흠정역(KJV)에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115회(O.T.), 75회(N.T.)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예배라는 이름을 난발하고 있다. 돌예배, 생일예배, 회갑예배, 개업예배, 축하예배, 기공예배, 출판예배 등, 이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무지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문제이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event)이다. 하나님의 창조 은총과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들이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나 예배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것이 현대인 예배에서 종종 나타난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환자 위해 기도하면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라고 한다.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명령하는가? 또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등 기도자가 축복의 근원자로 변신하기도 한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봉헌 그리고 참회와 간구의 행동을 말씀을 받고 쏟아내는 참 예배와 혼돈하고 있다. 그것을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이때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리면서 그분만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나

찬양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오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뿐이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주장이나 설득은 있을 수 없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한을 풀려는 행위도 개입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모든 응답 행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청탁하고, 주시는 성찬 예식에서 주님과 연합됨을 확인하고 새롭게 감격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3) 샤머니즘적 예배 형태는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종교 한복판에 심겨진 샤머니즘에는 정령(精靈)과 악령이 있어 그 정령이 자연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정령을 달래기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무당이 있었다. 그 무당은 가무(歌舞)를 통해 그리고 제물을 바침으로 정령의 노를 풀었다. 소원 성취, 무병장수를 비는 무당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나 불교와는 다르다. 그 내용과 신앙 양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삶을 다짐한다. 자신의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는 샤머니즘과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간 행복을 추구하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을 미끼로 삼는 오늘날의 변형된 예배행위, 즉 집회는 바른 예배가 아니다.

(4)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 예배의 특성을 변경시켰다.

강단에서 성경봉독과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짧게 한다. 설교는 신학적 교리설교나 주석적 강해설교보다는 심리적, 실제적 내용과 방법으로 한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시간과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주제가 설교에서 주를 이룬다. 성찬식은 새로운 축제나 상징성으로 대치

하거나 생략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2) 대부분의 교회가 음악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Many churches have seen major changes in the area of music).

(1) 성가대와 찬양대는 다르다.

어거스틴은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 정의했다.¹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방법이고 도구다. 한국교회에서 성가대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학적으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찬양대로 불러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노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엡 1:6, 14; 시 18:3; 삼하 22:4).

(2)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여기서 ‘시’는 시편을, ‘찬송(찬미)’은 기독교 교리를 중심한 찬송을, ‘신령한 노래’는 자신의 신앙 간증과 신앙 격려를 위한 노래를 뜻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19절에서 마음에 시(말씀)가 있고, 입술에 구원의 찬송(찬미)이 있고, 생활에 신령한 고백이 있는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임을 가르친다.

칼빈은 그의 시편 강해 서문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시편)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없다” 한 어거스틴의 말이 옳다 했다. 기독교 근본 교리들(하나님의 성호, 속성, 삼위일체, 예지와 예정, 창조, 섭리, 그리스도의 명칭들, 처녀 탄생, 대리적 죽음, 믿음으로 구원, 이신칭의, 중생, 신앙, 회개, 성화, 헌신,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영생 등)을 작시, 작곡한 노래들을 찬미(찬송)라 하였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복음송을 신령한 노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

¹ Charles J. Ellicot, *St. Paul's Epistle to the Ephesians* (BiblioBazaar, 2009), 125.

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령한 노래는 시와 찬미를 제외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노래를 말한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복음찬송은 존재하지 않았다.

(3) 복음송은 이 시대의 철학,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속화된 교회의 유행가로 분류해야 한다.

많은 복음송의 가사 내용이 성경적이지 못하거나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곡은 세상의 록 음악이나 팝 음악과 구별이 안 된다. 이 시대 문화를 여과 없이 교회에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노래를 교회가 쉽게 수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현대 복음송 중 일부는 흑인들을 중심으로 부른 브루스 음악의 가사들에서, 그리고 그 곡들은 재즈의 형태를 취한다.

(4) 현대교회의 음악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먼저, 악기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기타, 키보드, 징, 장구, 팽과라……). 시편 150편에는 7개의 악기가 나열되어 있다. ‘이 악기들로 찬양하라’고 했다. 그러나 성전예배에 사용된 악기는 수금(하프, 거문고), 비파(하프), 나팔(트럼펫), 제금(Cymbals)이고 성전예배 시 사용되지 않은 악기로는 양각나팔(Horn), 경쇠(삼현금), 소고(작은북), 피리(통소), 방울(bell) 등이다.

전통적 민속신앙이었던 샤머니즘이나 불교에서 사용된 악기들을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할 경우 예배자에게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악기나 예배에 동원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음악 스타일이 달라졌다. 전통적 찬송가나 클래식 음악의 분위기보다는 팝 또는 록 음악으로 변했다. 2010년 10월에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로잔 대회에서 기독교 목사인 필자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변질된 예배 형태로 시종일관 세계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 소란했다. 아프리카 흑인 특유의 몸 춤과 괴성으로 예배가 아닌 광란의 도가니였다. 회의 도중 WRF(세계개혁주의연맹) 모임이 있

어 필자는 국제회의에 어울리는 예배의식을 WRF가 개발하여 제시하자고 발의한 바 있다. 어느 틈에 개척교회 예배는 고물 취급을 당하고, 신오순절파의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거나 온갖 몸짓을 다하면서 반복되는 가사를 외치고 “We have a hope”을 연창하는데, 그것은 자기도 취에 빠진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WCC 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찬송가를 펴냈다. SARANAM(사라남, 살아남)이라는 이 노래집에 한국이 제시한 한국 찬송가도 23곡이 들어 있다. 그중 75장(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같은 노래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전혀 없다.

“어디로 가려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여,
있는 곳 여기가 마을이다. 희망을 만든다. 역사를 만든다.
사람을 찾는다. 사람을 만난다. 촛불을 밝히는 마을, 민들레 피
는 마을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마을이 보인다.”

전통적 교회음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기도를 찬양으로 드려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의 음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는 새로운 성례식이 되었다.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하려 한다. 눈을 감고 손을 공중에 뻗치고 황홀경에 몰입한다. 단순히 시구를 반복적으로 부름으로 무슨 주문을 암송하듯 한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아름다운 찬송은 회중을 연합시켜 하나님을 높인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인도를 위해 안수 받은 목사 대신 찬양인도를 하는 사람을 동원하고 있다. 찬송가사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곡도 세속적, 정욕적인 것이 아닌 성경적이어

야 한다. 찬송에는 법, 질서, 조화, 미, 목적이 있어야 한다.

(5) 현대 복음송의 특징들은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다.

‘손뼉 치며 노래한다’(신오순절 계통에서 시작). 유대인들의 구약예배 의식(제사)에서 손뼉 치는 일은 없었다. 회당예배, 사도들의 예배, 기독교 2천 년 교회 예배도 광란적으로 소란하게 춤추거나 손뼉 치는 예배는 없었다.

손뼉 치라(시 47:1)는 것은 기쁨의 한 외적 표현이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시를 읊을 때 고저나 리듬이 없는 단조로운 음으로 노래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떨림으로 예배할 때 기쁜 마음을 갖고 마음껏 찬양하라는 것이다. 손바닥을 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환영, 존경, 지지, 보답을 의미한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다.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한 로마 가톨릭과 문자적 의미를 추구한 루터나 과격파들과 달리 칼빈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원리 하에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방법을 채택하였다. 가령, ‘좁은 길로 가라’ 했다고 뒷골목만 찾아다니는 우를 범치 않아야 하듯 성경을 자구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뜻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6) 찬송 부르는 자의 자세

소위 열린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에 찬양자가 스스로 도취되어 몸 춤과 괴상한 제스처를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가는 것은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없다.

①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출 15:1-“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시 148:1-“여호와를 찬양하며”)이시기 때문에, 즉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적 행위이니만큼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또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 ② 중생한 영이 찬송을 불러야 한다(시 103:1-“내 영혼아……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 ③ 성령 충만한 자로 찬송을 불러야 한다(엡 5:18-19).
- ④ 마음 중심으로 찬양해야 한다(고전 14:15).
- ⑤ 맑은 정신을 갖고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전 14:15.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말은 정신을 차려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찬양하라는 것이다).
- ⑥ 피차 덕을 세우며 찬양하라(고전 14:26. 복장, 몸가짐, 곡에 맞게, 광신적 발성 등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
- ⑦ 새 노래로 찬송하라(시 149:1. 새 마음(깨달은 마음)으로 부르는 구원받은 자의 노래여야 한다).

2. 설교의 모범

1) 목회자의 사역 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역은 없다 할 수 있다.

성령께서 목회자의 설교사역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자에게 있는 시험이 있다.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 선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다. 교회성장 세미나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은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리적 무거운 설교보다 간증, 특히 자기 가족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함으로 자신은 적용을 바르게 하는 설교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하도록 성도들을 이끄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목사의 주관적 경험이나 간증보다 도덕적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 성공적 삶, 행복을 얻는 비결, 스트레스 해소법과

같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는 것은 아니나 설교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2) 강해설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 1:25).

강해설교는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생각과 직접 그리고 계속적으로 접촉하여 설교자는 성령의 생각을 실행한다. 따라서 강해설교자는 성경의 영감을 믿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강해설교는 설교자를 변화시키고, 설교자는 회중을 변화시킬 것이다.

(1) 강해설교의 재발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 8:11).

첫째, 설교명령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진리를 외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

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딤후 4:13).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딤후 2:1).

둘째, 설교방법

프리드리히(Friedrich)는 성경적 설교를 신약에서 적어도 37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hrussw(I preach, I proclaim) 딤후 4:2

Euvaggelizw(I preached the gospel) 행 15:35

Marture,w(I testify, I bear witness) 요 1:7-8

Dida,skw(I teach) 마 28:20

dhge,w(I lead, I guide) 행 8:31

dierhhneu,w(I explained, I interpreted) 눅 24:27

parakale,w(I exhort, I comfort) 딤후 4:13

이 모든 용어들의 공통점은 설교자의 메시지 중심에는 하나님과 성령이 있다는 것이다.

² Gerhard Friedrich, “Κηροσσω”,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T*,³ (Grand Rapids: Eerdmans, 1966), 703.

(2) 강해설교란 무엇인가?

설교 유형에는 주제설교(topical), 본문설교(textual), 그리고 강해설교(expository)가 있다. 주제설교는 주제에 연결된 성경을 접목시킨 메시지다. 본문설교는 설교자가 선택한 짧은 본문을 택하여 본문이 말하게 하는 설교다. 강해설교는 상황(context)을 고려한 본문을 갖고 성경 전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해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먼저 부정적 표현으로 강해설교를 정의해 보자.

- ① 상호 연결이 없이 단어와 단어, 절과 절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철저한 주석과 논리적 순서의 배경 없이 구절에 관한 어물쩍 넘어가는 주해가 아니다.
- ③ 문단의 표면적 의미에 근거한 추론이나 제안이 아니다.
- ④ 주제와 전체 개요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이 결여된 순수한 주해가 아니다.
- ⑤ 수사학적 설교적 요소가 없이 단순한 주석이 아니다.
- ⑥ 문장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주제설교가 아니다.
- ⑦ 주일학교 토론 제목처럼 내용의 개요나 문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³

웹스터(Webster) 사전에 의하면, 강해란 정보(information)를 전달하는 강화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설교에 적용하면 강해자는 텍스트(text)의 의미를 캐어 회중에게 열어 주는, 즉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적당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칼빈은 설교란 '성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성경말씀이 설교

³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Merriam-Webster, 1988), 438.

의 소스(source)요 내용'이라고 하였다. 강해자로서의 칼빈은 인본주의 학자의 모든 기술을 설교의 과제로 끌어 들였다. 해석자로서의 칼빈은 텍스트를 설명하고 성경의 의미, 성경, 진리를 찾았다. 설교란 성경의 설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적용이다. 칼빈은 성경을 단어와 단어를 설명하듯 문장과 문장을 설명하면서 자기 회중의 삶과 경험에 적용했다.

강해설교는 메시지의 양식(form)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강해설교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고, 성경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강해설교는 성경 중심의 설교(bible-centered preaching)다.⁴ 강해설교는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영적 의미를 찾아 거기서부터 성경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설교자의 삶에 먼저 적용시키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 그의 회중에게 적용시키신다. 진정한 강해설교는 그런고로 교리적 설교다(doctrinal preaching).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특정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강해설교자는 자기 연구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전달해 주는 대사로 메신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해설교 요소는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메시지의 자료는 성경에서만 찾는다.
- ② 메시지는 철저한 주해를 통한 성경 말씀에서 추론한다.
- ③ 메시지는 성경의 정상적 의미와 상황에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준비된다.
- ④ 하나님이 정확히 의도하신 본래 뜻을 성경에서 찾아 설명하는

⁴ Merrill F. Unger,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55), 33.

것이다.

- ⑤ 성경이 오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강해설교의 정신은 두 개의 성경 텍스트에 예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 8:8).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행 20:27).

누가복음 4장 16-2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2절 말씀을 강해하신 적이 있었다. 그리고 후엔 엠마오 도상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제로 해석해 주셨다(눅 24:27, 32, 44-47). 사도 행전 8장 27-35절에서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 7-8절을 강해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 유대인들에게 역사적, 전

(3) 강해설교의 과정

강해자의 준비, 성경 텍스트의 해석, 메시지를 찾는 일을 한 후 강해 설교를 하게 된다. 메시지가 하나님과 회중에게 둘 다 효과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의 네 가지 단계가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준비된 설교자

강해설교의 소스(source)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기를 즐겨 해야 한다. 이 길만이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강단에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7가지 준비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체험이 있는 자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요1:12-13).

② 설교자로 그리고 선생으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라야 한다(엡 4:11-16; 딤후 3:2).

③ 하나님 말씀의 생도가 되어 훈련을 받은 자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딤후 2:15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

④ 경건한 성품을 가진 성숙한 신자여야 한다(딤후 3:2-3).

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위해 성령께 의존된 자여야 한다(고전 2:14-15). 성령의 조명과 권능이 없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무력해진다.

⑥ 말씀의 충격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 교제를 지속해야 한다(시 119:18). 성경의 원저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본래의 뜻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⑦ 설교할 수 있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통해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스 7:10).

둘째, 성경 텍스트 해석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하나님이 본래 하신 의도를 찾는 과정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합한 원리와 적용을 찾는 것을 말한다.

① 텍스트 과정-성경 텍스트를 갖고 부지런히 철저하게 해석하는 작업 없이 효과적인 설교는 만들 수 없다.

② 텍스트 적용화-설교자는 본문 분해, 역사적 연구, 문화와 풍습을 연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본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낸 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Drive-in을 하라).

셋째, 메시지를 찾는 일

제목, 개요, 서론, 본문, 결론에 이르기까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생각

하되 청중을 무시하면 안 된다. 메이어(F. B. Meyer)는 성공적 설교를 위한 5가지 요소를 지적했다. ① 이성 ② 양심 ③ 상상력에 ④ 감성에 ⑤ 의지에 호소해야 한다.⁵

넷째, 강해 설교자

설교자의 기억이나 노트에서 가져온 자료를 갖고 마지막 설교를 꾸미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아무리 잘 정리된 설교라 할지라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메시지와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적절한 대답을 끌어내어 주지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있다.⁶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다. 그것은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적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나는 성경적 용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술어로 가득 채워진 오늘의 설교가 현대인들에게 신비롭게 들릴지 모르나 그것들은 성령께서 효과적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언어의 역동성이 중요하다. 청중과의 관계와 전달의 효용성 문제다.

강단으로부터 효과적 전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logos(이성), ethos(윤리성), pathos(정서)와 같은 3요소가 필요하다. 이것은 주관적 지식을 포함한다. 철저한 주석만으로 대치할 수 없다. 설교자의 청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성실성을 갖고 설교해야 하고, 회중은 설교자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회중의 지식도 필요하다. 그들이 설교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 위에 설교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⁵ F. B. Meyer, *Expository Preaching Plans and Methods* (New York: George H. Duran, 1912), 100.

⁶ J. I. Packer, "Why Preach?", *The Preacher and Preaching*, ed. by Samuel T. Logan (Phillipsburg, N. 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6), 9.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1-5).

바울은 굉장한 웅변가나 학자로서 설교한 것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나 경험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으로 했다. 강해설교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4) 강해설교의 장점

강해설교는 내용과 스타일이 가장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그밖에 많은 장점이 있다.

- ① 강해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이 의도한 대로 끌어내는 최선의 것이다.
- ② 강해설교는 성경적으로 권위 있는 설교를 추진한다.
- ③ 강해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한다.
- ④ 강해설교는 설교자료 창고를 제공한다.
- ⑤ 강해설교는 목사를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개발시킨다.
- ⑥ 강해설교는 양들에게 높은 성경지식을 확신케 한다.
- ⑦ 강해설교는 성경적 사고와 삶으로 인도한다.
- ⑧ 강해설교는 깊고 넓은 삶을 격려한다.
- ⑨ 강해설교는 난해 구절을 취급한다.

- ⑩ 강해설교는 넓은 신학적 주제를 다룬다.
- ⑪ 강해설교는 설교자를 틀에 박힌 형식에서 탈피케 한다.
- ⑫ 강해설교는 인간적 생각을 끼워 넣는 일을 방지한다.
- ⑬ 강해설교는 성경 텍스트의 잘못된 해석을 막는다.
- ⑭ 강해설교는 예수와 사도들의 설교를 모방한다.
- ⑮ 강해설교는 주석가의 최선을 택한다.

과학시대 정신이 편만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강해설교의 방법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 전체를 그리고 특정한 부분을 심도 있게 주해하여 실제적 문제에 적용시키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청중의 구미에 따라 현대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강해설교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강해설교가 중요한 것이다.

주님은 설교를 통해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설교자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도록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전도자(evangelist)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전령사(herald)가 되어야 하며,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대사(ambassador)가 되어야 하고, 매일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shepherd)가 되어야 하며, 청중의 모든 필요를 적당한 말씀의 공급을 통해 채워 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청지기(steward)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witness)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감독관(overseer)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종(minister)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과업이다.

3. 깊은 생각 없이 변하고 있다(Change without reflection)

왜 예배 특히 설교와 음악이 이같이 쉽게 여러 면에서 변하고 있는가?

1)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것이 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시·공간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2)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공예배를 목회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주변적인 것(marginal), 심지어 무익한 것(ineffective), 지루한 것(dull), 부적절한 것(irrelevant)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많은 복음주의자 목사들이 공예배를 축소시키기 위해 전체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이므로 전체 모임보다 소그룹(small group)으로 모여 성경공부, 친교, 기도회를 갖는 것도 예배의 다른 형태라고 강조한다. 소그룹 모임으로 공예배를 대체함으로써 더 친근함이 있고 의미 있는 교제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이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다. 실용적 차원에서 공예배보다 소그룹 모임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설교를 듣는 것이 영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현대인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예배와 소그룹 집회는 다르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3)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한다는 이유로 공예배를 많이 변질시키고 있다.

전도하기 위해 드라마나 댄싱 같은 것을 예배에 첨가하고 있다. 전도가 지상명령이라 하면서 청년층과 세상 사람들을 얻기 위해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이라 한 것은 성경만으로 예배, 전도, 사회변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오늘날 TV와 영상물은 거의 전능자처럼 힘을 가지고 등장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흥미 중심, 오락처럼 재미있는 흥행물처럼 변모하고 있다.

5) 강단, 특히 설교자가 전문적인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채워지고 있다.

6) 신오순절 카리스마틱 교회로부터 예배형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계획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스타일, 다양한 리더십(찬양사역자), 개인의 생각과 느낌의 표현으로 예배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들이 신오순절파와 실제로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7) 현대문화는 민주화되고 개인주의적이고 반지성적이며(Post-modernism), 실용주의적 그리고 낙천주의 속에서 예배를 이해하려고 한다.

낙천주의 문화풍토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죄, 심판, 지옥에 대한 설교는 들을 수 없다고 한다. 실용주의적으로 교회는 실제로 성장했는지, 얼마나 전도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예배로 하나님 중심예배가 변한 것이다.

8) 전도중심 목회를 하려는 이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어떤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것, 흥분시킬 만한 음악, 전도에 성공할 만한 예배 형태로 변신한 것이다. 성경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묻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한 생각 없는(신학 없는) 이들에 의해 계속 변할 것이다.

4. 예배신학과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

1) 성경적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성경은 예배라는 단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1) 예배는 삶 전체를 바치는 것(롬 12: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마음과 뜻과 힘, 즉 인격을 바치는 것 또는 헌신(신 6:4-9)

(3)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공적 모임(행 2:42; 히 10:25)

첫째, 공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시편 84편 8절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예배 특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특별한 시간과 기회가 요청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후엔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모였다.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새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히 10, 12장). 이와 같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벧엘-장막-성전-예수 그리스도-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둘째,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 영원한 교제를 하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것을 항상 무겁게 다루신다. 율법에서, 바울 서신에서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이었다(1-4 계명, 신 4장; 레 10장; 대하 26장; 히 12:28-29). 장난처럼 흥미 중심의 하나의 행사가 아니다.

2) 그러므로 현대예배에 첨가된 새로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혁해야 한다.

가시적 요소들, 즉 드라마, 댄스, 영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들은 제2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죽은지라”(레 10:1-2).

성경의 하나님은 예배를 창조적으로 만들거나 혁신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 인위적으로 준비한 다른 향로로 분향하는 것은 거절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진실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엘리야 때에 바알의 제사장들은 진실했다. 사마리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들도 신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1, 2계명을 범한 예배로 거절하셨다. 신실함이 거짓 예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단순하고 영적인 예배는 훈련되고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격려한다. 이 같은 예배는 성경으로 돌아가 교리와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허는 자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3) 성경적 예배요소를 변경시킨 것을 개혁해야 한다.

설교는 가급적 강해설교를 하여 성도들이 인간의 견해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 성경은 예배의 중심으로 읽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감사와 존경으로 받아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말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다. 성례전을 시행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성경이 요구한 것 외에 예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죄라 했다.

역사적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대하심을 체험한다. 인간 중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한다.

4) 음악은 예배에서 예배자의 감성표현의 열쇠다.

그러나 현대인의 예배에서는 매우 피상적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사용한다. 성경은 물론 기쁨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외도 강조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 2:11). 존경과 기쁨은 예배에서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 의와 자비,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기쁨만 예배에서 표출되면 하나님의 속성 중 받은 비우는 것이 된다. 즉 빼앗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참된 찬양이 될 수 없다.

5) 아무나 강단에 올라가는 것 아니다.

적당한 교육이나 부름 받지 않은 이가 민주주의 문화나 만민제사라는 이유로 목사의 역할을 하려 하면 안 된다. 예배소서 4장에서 하나님은 각각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 받고, 은사 입은 이가 교회를 각각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오늘날 권위의 상실의 시대를 혼란에 빠뜨린다. 부모, 교사, 사장, 정부의 책임자, 심지어 교회를 위해 세움 받은 직분이 무시되면 안 된다.

6) 예배의 날 변경은 위험하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의 날은 예배하는 날로 정해졌다. 그날은 복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날로 예배일이다. 편리주의 따라 주 5일제 시행 이후 황금 같은 토요일, 주일 연휴를 성도들이 즐기 위해 금요일 밤 예배 또는 주일 늦은 밤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가 있다. 성경이 정한 주의 날을 성수해야 한다.

5. 맺는말

1) 종교개혁자들은 은혜 구원이 아닌 공로와 행위로 구원이 온다는 잘못된 교리를 개혁하고, 변질된 미사를 성경적 예배로 돌려놓고, 형식적·위선적 삶을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개혁해 놓았다.

2) 오늘의 예배 초점이 인간의 필요에 맞춰져 있고 흥미에 맞춰져 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개혁해야 한다. 눈치를 보거나 체면을 차려서는 안 된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아론의 아들들처럼 그 불이 그들을 삼키기 전에 성경적 예배로 돌려줘야 한다.

3)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예배자를 변화시킨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는 맥도날드(McDonald)처럼 대중적이고 싸구려 시한 소위 Mc-Worship으로 전락했다.

(1) 록 문화, 기계문명에 익숙한 세대들이 예배도 오락처럼, 기계처럼 하려 한다. 노래방 수준만도 못한 현대(?)예배 음악을 우리는 개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2) 인간 중심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예배순서가 변질되고 있다(설교는 짧고, 쉽고, 재미있어야 하고, 성경말씀보다 잡담으로 채워지며, 찬양은 자기도취에 빠져 자기 흥을 돋우는 도구가 되었다).

(3) 성경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성경보다 세상적 어젠다(agenda)를 더 선호한다.

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주님 말씀(요 4:24)을 따라 형식, 습관적 예배가 아닌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예배는 느낌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이 감성도 의지도 지성도 변화시킨다.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

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배는 The most momentous(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urgent(가장 긴급한 것), The most glorious(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개혁이 한국교회에서 꾸준히 있어야 한다.

5)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찬성 그리고 이웃 사랑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보고,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과장되고 형식적인 요소들이 예배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찬양에서 불필요한 동작이나 행위,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 흉내를 내면서 불경건한 언어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배에서 찬양의 내용이나 방법을 인위적으로 고안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 소위 열린 예배의 인간 중심적 인위적 예배나 찬양은 성경이 제시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예배갱신 특히 찬양개혁을 교회갱신의 우선 순위에 놓고 성경이 명한 바른 예배, 바른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국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Soli Deo Gloria!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A Proposal For the Effective Preaching

Ministry For the Military Mission

■ 김진섭 Kim, Jin Sup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B. S.)
- 고려신학대학원(M. Div.)
- 미국 Covenant 신학대학원(구약학 전공, Th. M.)
- 미국 Dropsie 대학원(고대근동학 전공, M. A., Ph. D.)
- 백석예술대학교 기획조정 부총장
-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이승진 Lee, Seung Jin

- 합동신학대학원, 예배설교학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민상기 Min, Sang Gi

- 특전사령부 사자군인교회 담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I. 들어가는 글

1. 본 주제 연구 배경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본 논문의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군선교신학회 제16차 정기회의(2013. 11. 18)에서 ‘제14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2014. 10. 7.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대주제를 “비전 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2개의 세부 주제가 결정되었다: ① 1004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모범 ②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MCF 임역원, 신우회원 등 네트워크 동역 모색-대대급교회 사역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가장 효율적인 훈련병 수세자의 자대배속 후 정착과 지역교회 결연 및 양육 방안.

따라서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의 발제자로서 한국군선교신학회 위원인 김진섭 교수(백석대 구약학), 이승진 교수(합신대 예배설교학)가 선정되었고, 연구 논문에 대한 논찬자로서 최희범 목사(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가 각각 위촉되었으며, “1004개 군인교회의 주일 예배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평가를 통해 군인교회의 예배 현장 이해와 바람직한 현장 중심의 예배 내용을 통해 군인교회 예배의 통일성과 단순화를 목표”로 민상기 군종목사(특전사 사자교회 담임)께서 각 교회 후보 및 자료 수집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2013년 12월 18일 주어진 과제의 기초 작업을 위하여 ‘예배학’ 분야의 주 전공학자로서 개혁주의생명신학회(회장: 김진섭)의 지회인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실천신학회 지도교수로 있는 김상구 박사(백석대)와 ‘설교학’ 분야의 주 전공학자로서 본 공동연구자인 이승진 박사(합신대)와 논의 끝에 먼저 민상기 군종목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가 더욱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 주제 범위와 연구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예배모범”의 과제는 차후에 계속 연구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이란 주제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김진섭 교수와 이승진 교수의 공동 연구 끝에 본 논문이 완성되었으니, 과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전 4:9-12)는 성경의 진리를 체득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 셈이다.

2.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예배모범”의

예비적 고찰: 구약 절기와 신약 교회력을 중심으로

여기서 차후에 다루고자 하는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예배모범”의 과제와 관련하여 ‘예배모범’과 직결되어 있는 ‘교회력’의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7대 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에 대한 논의가 군인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력’(Church Year 혹은 Liturgical Year)과 교회력에 따라 성경읽기를 배치한 ‘성경정과’(Lectionary)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국 교회의 최근 동향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계시된 보다 더 분명한 ‘교회력’의 본질과 그 의미를 공유해야 할 시점에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한다.¹

¹ 군인교회의 연중행사로서 교회력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올바른 인식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인식된다. 잠정적 논의를 위해 김진섭, “쉐마 절기 교육과 교회력의 만남”, 『쉐마교육학회 제10회 정기학술대회(2014. 7. 7) 자료집』(서울: 쉐마교육학회, 2014), 45-82; 김진섭, “구약의 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기독교연합신문』(2014. 6. 22부터 매주 계속 연재 중, ‘성령강림주일’을 그 구체적인 실례로 하여 8회까지 게재되었고, 12회까지 계속할 계획이며, 아마도 이 논고가 『군선교신학』 12에 게재될 즈음에는 ‘나팔절’, 즉 구약과 현 이스라엘의 ‘로쉬 하샤나’(새해)로 시작되는 가을-겨울 절기들과 교회력의 상관성에 대해 논고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구약 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상관성 논의를 위해 다음의 책들은 유용한 안내가 될 것이다: Richard Booker, *Celebrating Jesus in the Biblical Times* (Shippensburg: Destiny Image Publishers, 2009); Ron Cantrell, *The Feast of the Lord: the Feasts, Fasts and Festivals of the Bible* (San Antonio: Inspired Creative Expressions, 1999, 2008, 2013 rev.); Breda and Dan Cathcart, *Reasons for Christians to Celebrate the Biblical Feasts* (Auburn: Moed Ministries, 2010); Kimberlee Conway Ireton, *The Circle of*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생활로 형성된 노예근성(불평·원망·불신앙·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을 12가지 ‘표적(오토)과 기사(모페트)’(출 7:3; 흔히 10가지 ‘재앙’이란 표현보다 더 성경적인 이유는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애굽 술객이 만든 뱀을 잡아먹어 애굽 왕조의 상징물인 코브라 뱀을 죽이며,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 두 가지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며’(하카그; 출 5:1; 12:14), 그분을 ‘섬기는’(아바드; 출 7:16, 8:1, 20, 9:1) ‘독수리 민족’(출 19:4; 신 32:11-12), ‘제사장의 왕국과 거룩한 백성’(출 19:6)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는 ‘기념물’(작카론)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후카트 올람)이기에(출 12:14; 참조. 고전 10:24-26), 본질상 신약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벧전 2:9). 여기에 모든 구약 절기의 진정한 ‘시작자요, 완성자’(히 12:2, 원어)이신 신약 모든 교회력의 왕·구주 예수 그리스

Seasons Meeting God in the Church Yea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8); Daniel Fuchs, *Israel's Holy Days in Type and Prophecy* (Neptune: Loizeaux Brothers, 1985); Kevin Howard and Marvin Rosenthal, *The Feast of the Lord: God's Prophetic Calendar from Calvary to the Kingdom* (Nashville: Thomas Nelson, 1997); Barney Kasdan, *God's Appointed Times: A Practical Guide For Understanding and Celebrating the Biblical Holy Days* (Baltimore: Messianic Jewish Publishers, 1996); Zola Levitt, *The Seven Feasts of Israel* (Dallas: Zola, 1979); Sam Nadler, *Messiah in the Feast of Israel* (Word of Messiah Ministries, 2011 Kindle ed.); Michael Norten, *Unlocking the Secrets of the Feasts: The Prophecies in the Feasts of Leviticus* (Bloomington: West Bow Press, 2012); Robin Sampson and Linda Pierce, *A Family Guide to the Biblical Holidays* (Woodbridge: Heart of Wisdom, 2001); Michael Smith and Rami Shapiro, *Let Us Break Bread Together: A Passover Haggadah for Christians* (Brewster: Paraclete, 2005); Robin Knowles Wallace, *The Christian Year: A Guide for Worship and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11); Martha Zimmerman, *Celebrating Biblical Feasts in Your House or Church* (Minneapolis: Bethany House, 20042). 최근 「기독교교보」에 특집 시리즈로 소개된 절기와 교회력에 관한 7편의 논고들의 필독을 추천한다: 김하연, “절기와 교회력 1”, 1106호(2014. 2. 8), 2; 김하연, “절기와 교회력 2”, 1107호(2014. 2. 15), 2; 황원하, “신약의 절기”, 1108호(2014. 2. 22), 2; 이기업, “교회력의 형성”, 1109호(2014. 3. 1), 2; 이성호, “한국교회의 절기들, 어떻게 볼 것인가?”, 1110호(2014. 3. 8), 2; 안재경, “교회력과 성도의 삶”, 1111호(2014. 3. 15), 2; 채경락, “교회절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112호(2014. 3. 29), 2.

스도가 우뚝 서 계신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봄-여름의 ‘유월절’(페싸흐) 사이클에 ‘유월절-무교절-초실절’과 가을의 ‘장막절’(숙코트) 사이클에 나팔절(새해, 로쉬 하샤나)-대속죄일(욤 키푸르)-장막절[=수장절(하그 아시프)]이 있고, 그 양 쪽을 연결하는 중심 고리로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초실절에서 50 일째에 놓여 있다.

신약 교회력은 두 개의 사이클로 대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초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 사이클’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 사이클’로 구성되어, 성탄절 사이클의 ‘대강절-성탄절-주현절’이 그리스도의 ‘자아희사’(自我喜捨, *condescension*)와 관련된다면, 부활절 사이클의 ‘사순절-부활절-성령강림절’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승귀’(昇貴, *exaltation*)하심과 관련이 있다.

세계 교회가 공교회적 성격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교회의 3대 절기(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가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와 어떤 약속과 성취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목회자와 설교자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성수(聖守)의 관계와 함께 근원적으로 우리의 논의에 사활적인 것이다. 제한된 지면으로 상론할 수 없지만, 특별히 가장 시급한 성령강림절(오순절)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교회력은 매우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²

² 유월절(페싸흐; 니산월 14일) // 예수님 십자가 죽음(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오후 3시) 무교절(하그 하맛쯔트; 니산월 15-21일) // 예수님 장사지냄[요나처럼 3일 3야(마 12:40)] 초실절(레쉬트 카찌르; 니산월 17일; 대맥(보리)추절) //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고전 15:20) 초실절에서 50일째인 오순절(펜테코스테) 시내 산 성령 강림(출 19:16-20, 20:18-20)으로 시내 산 율법 수여 및 신정국이 탄생[=칠칠절(샤부오트)=소맥(밀)추절(하그 카찌르); 시반월 6일] // 예수님 부활하신 50일째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행 2:1-4)으로 초대교회 탄생

3.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의 예비적 고찰

한국군의 복음화를 위한 군선교의 역사는 1948년 전북 군산 지역에 주둔하던 보병 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하여 종교집회의 필요성을 깨닫고 매 주일에 민간 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³ 군선교 역사의 배태기에 한국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손원일 제독은 서구 열강들이 20세기에 부강한 나라를 이룩한 배경에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탄탄한 토양을 제공했음을 직시하면서, 1949년에 이화여고 교목으로 시무하던 정달빈 목사를 정훈장교로 임관시키고, 삼각지의 미군 교회를 시간제로 빌려 삼군(三軍) 중에 가장 먼저 해군에서부터 군중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1950년 3월에는 한국군 내에 군중제도의 설립을 상부에 건의하였다.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1년 2월 7일 “육군 일반명령 제31호”에 의하여 한국군 내에 군중제도가 창설되고 1960년대 이후 “전군신자화운동”과 한국교회 내에서 군복음화를 위한 수많은 후원회들의 조직,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출범, 진중세례식과 진중 교회당 건축, 그리고 비전2020운동을 통한 한국군의 군복음화운동과 군선교운동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199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세속화와 물질만능주의가 점차 팽배해져 가면서 한국교회 역시 이전의 부흥과 성장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침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한국군의 복음화와 군선교를 위한 동력도 점차 식어 가고 있다.

³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신학정론』 20/2(2002), 482.

⁴ 김기태, “한국 전쟁과 군선교”, 『선교와 신학』 26(2010), 44-45.

다소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군선교 사역의 현실은, 한국 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군장병 대상 진중세례식이 세례 이후의 체계적인 기독장병 양성과 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에서 발견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세례운동'으로 대표될 만큼 훈련소에 입소하여 군복무 환경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신병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공중 앞에서 확고하게 고백하게 하는 진중세례식을 통한 전군신자화운동에 주력해 오고 있다. 그래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사역은 장병 전도와 진중세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

하지만 최근의 군선교 사역은 그동안 진력해 온 진중세례식만으로는 바람직한 군복음화와 비전2020실천운동의 결실을 제대로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자각과 반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례식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양육 시스템이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⁶ 그래서 진중세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기독장병들을 대대급 군인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군선교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⁷ 또한 진중세례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독장병 양육 패러다임을 위하여 후원교회의 지원 아래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과 교리에 관한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진중세례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진중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초신자 장병들에게 세례식 이후에 곧바로 성만찬

⁵ 이종윤, 김대덕,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 비평적 연구”, 『군선교신학』 11(2013), 29.

⁶ 정재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군선교신학』 11(2013), 85.

⁷ 정비호,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군선교신학』 8(2010), 73-75; 오희준,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 『군선교신학』 10(2012), 250-254.

예식을 제공하여 세례식과 성찬식이 결합된 온전한 성례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성찬식이 포함된 온전한 성례식 역시 실제 군선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선교신학회’는 1004군인교회에서 군목 사역을 감당하는 군목 및 군선교사들이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여 군복음화 및 군선교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II. 본 주제의 연구방법론

연구자들은 본 논문에서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설교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설교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기본요소를 고찰함으로써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설교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는 설교 메시지가 선포되는 설교의 환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교자, 청중, 성경해석 그리고 설교의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다섯 가지 요소를 거론할 수 있다.⁹ 설교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설교의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⁸ 정비호,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82.

⁹ 설교를 설교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설교학자로는 Rudolf Bohren(1974)을 비롯하여 Van der Geest(1981), Don Wardlaw(1983), Daniel Patte(1984), Fred Craddock(1985), Raymond Bailey(1991) 그리고 Johan Cilliers(2004)가 있다. Rudolf Bohren, *Predigtlehre* (München: Kaiser, 1971), 547; Van der Geest, *Presence in the pulpit: The impact of personality in preaching* (Atlanta: John Knox, 1981), 62; Don M. Wardlaw, *Preaching biblicall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64; Daniel Patte, *Preaching Pau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21ff; Fred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85), 22ff; Raymond Bailey, *Paul the preacher* (Nashville: Broadman Press, 1991), 60; Johan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 of preaching* (Stellenbosch: SUN Press, 2004), 22ff. 또한 실천신학 분야에서 전체 체계를 구성요소들의 조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기체로 작용하는 지역 교회”에서 발견된다. Cf. Alvin J. Lindgren and Norman Shawchuck, *How to Realize Your Church's Potential*

접근할 때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먼저 “군대사회라는 독특한 설교 환경에 대한 고찰”^①로부터 시작하여, “(군선교를 위한 군목과 민간 사역자로서의) 설교자의 자기 정체성 이해”^②,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의 기독교 군장병 이해”^③,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설교 메시지”^④, “설교 소통을 통하여 달성할 설교의 목표”^⑤를 통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군선교라는 구체적 특수상황이 요청하는 ‘군설교’(military preaching)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고찰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무작위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프락시스(praxis) 중심의 실천신학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의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한다.

최근 20세기 후반에 들어 일단의 실천신학자들은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에서 발견되는 이론과 실천의 균열과 분리 현상을 극복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서, 문제로부터 해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지속적인 해석학적인 과정을 밟아 가는 탐구인 ‘비평적인 성찰에 근거한 행동’으로서의 프락시스를 강조한다.¹⁰ 실천신학자 리처드 오스머(Richard Osmer)에 의하면,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적인 과정은 다음 네 가지의 핵심적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¹¹

① 서술적 과제—군선교를 위한 설교 현장은 어떠한가? 이론과 실천

through a System Approach, 『교역관리론』,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38-39.

¹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실천신학자로는 Don Browning(1996), Gerben Heitink(1999)와 Gijisbert D. Dingemans(1996)이 있다. D. Browning, *A Fundament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7-8. Gerben Heitink,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9), 10ff. Gijisbert D. J. Dingemans, “Practical Theology in the Academy: A Contemporary Overview,” *The Journal of Religion*, 76/1(January 1996), 82-96.

¹¹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김현애, 김정형 공역 (서울: WPA, 2012), 27-59.

사이의 지속적이고 나선형의 해석학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서 문제로 부터 해결로 진행되는 실천신학적인 연구방법론의 첫째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단계로 군선교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군 선교 현장에서 설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② 해석적 과제-군선교 현장에서 발견되는 독특성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서술적 단계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군선교 현장에서 발견되는 독특성의 배경과 그 원인을 종교심리와 조직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③ 규범적 과제-군선교를 위한 바람직한 설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군선교를 위한 바람직한 설교의 방안을 모색하는 셋째 단계에서는 군선교에서의 설교의 목표를 규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군선교를 위한 바람직한 설교 방안을 위하여 먼저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닌 설교자와 군장병의 설교에 대한 종교심리적인 기대, 그리고 군장병의 종교심리에 부응하는 설교의 목표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④ 전략적 과제-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의 방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마지막 넷째 전략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군 전역에 세워진 1004군인교회에서 군선교 사역이 좀 더 효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설교의 방안과 관련하여 해당 군부대의 특성에 맞게 복음전도와 진중세례식을 이후의 체계적인 기독교장병의 성품 함양을 위한 기독교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연간목회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연간목회계획과 교회력 일정에 근거하여 연간설교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군인교회에서의 설교 사역 현황

2014년 현재 군인교회에서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교 사역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승진(외 2명)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지원을 받아 군장병을 대상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군목을 포함한 127명의 군선교 사역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주당 설교 횟수 및 설교 시간

주당 설교 횟수와 설교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매 주일 1회만 설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에 불과하고, 주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수요일의 3회(26%)가 가장 많았고, 2회(11%)에서 4회(16%) 사이에 해당한다는 응답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10회 설교하는 경우(10%)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설교 시간은 군장병들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20분(31%)에서 25분(28%), 또는 30분(26%)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군선교 사역자들의 주당 설교 사역이 민간 교회의 목회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설교의 주된 목적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군선교 사역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설교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복수의 응답을 허용했을 때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을 가장 주된 설교의 목적으로 응답하였고(27%), 이어서 '기독교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20%), '전역 이후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20%),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군복무를 잘 감당하도록 교육하는 것'(19%),

‘군장병들이 당장 직면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것’(10%), ‘피곤한 중에 참석한 군장병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오락 시간을 제공하는 것’(2%)의 순서로 응답하여, 군장병 대상의 설교의 목적 역시 일반 신자들 대상의 민간 목회자들의 설교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성경 강해와 교리 교육 그리고 영적인 위로와 성숙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군장병 대상의 차별화된 설교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일반 민간 신자들과 차별화된 설교를 준비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차별화된 설교 준비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역자는 69%, 차별화된 설교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역자는 28%, 무응답자는 4%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군장병 대상 설교 시간에 차별화된 설교를 전달한다고 응답한 군선교 사역자는 31%에 불과한 반면에, 차별 없이 설교한다고 응답한 사역자는 68%로 나타나서 군장병 대상의 차별화된 설교가 설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민간 신자들과 차별이 없는 설교를 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설교를 듣는 회중에 군장병과 일반 신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43%)과 ‘군장병도 일반 신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31%)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군장병 대상 설교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9%)이거나, 또는 ‘군장병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몰라서’(8%)거나, ‘군장병이 처한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3%)이라고 솔직하게 응답한 비율도 11%를 차지하여, 군장병 대상의 차별화된 설교 전략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또 일반 민간 신자들과 동일한 방식의 설교에 대한 군장병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군장병들도 익숙하게 잘 경청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0%를 차지하였고, ‘군장병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장 필요한 설교 준비 자료

군선교 사역자로서 군장병 대상의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설교 준비 자료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군장병들이 부대에서 감당하고 있는 과업이나 군부대의 상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38%)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군장병 대상 장기적인 설교 계획과 시리즈 설교 자료’(25%)와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서나 주해서’(22%), 그리고 ‘군장병들 개개인의 문제점에 대한 기독교 상담 기법’(13%)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결국 군장병 대상의 설교 사역에 관여하고 있는 군선교 사역자들에 대한 설교 사역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좀 더 군장병들 대상의 차별화된 설교 전략이나 설교 방법을 교육하고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선교 사역자들이 군선교의 차원에서 군부대 장병들이 처한 선교적인 상황의 독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회 계획이나 설교 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군장병 대상의 차별화된 설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장병들이 처한 선교적인 상황의 독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선교적인 독특성을 고려하여 설교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차례이다.

IV. 군선교와 설교 환경의 독특성과 그 배경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방안을 모색하는 첫째 단계는 군복음화를 위한 군부대 현장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2006년 9월에 윤병국 군종목사는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 선교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군종장교로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이 현역 군종목사들을 대상으로 “군종목사는 군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만이 자신을 군대로 파송된 선교사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군종목사들은 군선교 현장을 문화가 전혀 다른 독특한 선교지가 아닌 단순한 목회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그렇다면 군선교 사역자들과 군 설교자들이 고려해야 할 군선교와 설교 환경의 독특성은 무엇일까? 정성구 교수는 “군선교 신학의 정립”이라는 논문에서 군선교 환경의 특수성을 의무복무제와 엄격한 계급 사회, 상명하복의 소통구조의 관점에서 간단히 고찰하였다.¹³ 또 이석우 군종목사는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라는 논문과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란 논문을 통하여 군 환경의 특수성을 ‘근원적인 물음을 묻는 사회’와 ‘공동운명체 사회’, ‘계급과 명령의 사회’, ‘다종교 공존의 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¹⁴ 연구자는 군선교 사역자들이 고려해야 할 군부대에서의 군선교와 설교 환경의 독특성을 크게는 종교심리와 조직사회의 두 차

¹² 윤병국,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선교신학』 5(2007), 137-139.

¹³ 정성구, “군선교 신학의 정립”, 『군선교신학』 1(2004), 104-106.

¹⁴ 이석우,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군선교신학』 2(2004), 197-201; 이석우,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군선교신학』 8(2010), 323-327.

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종교심리 차원의 독특성

1) 생사관의 진리 탐구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군선교 환경의 첫 번째 독특성은 생과 사에 관한 극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군대사회의 독특성은 평상시에는 전쟁의 비극을 억제할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팽팽한 긴장감과 아울러 유사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다는 극한의 불안감과 절망감을 늘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물론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늘 접하면서 살아가는 각종 총기나 화포류 그리고 철저한 상명하복의 명령과 계급구조에 의하여 유지되는 군부대의 일상생활이나 과업은 그 자체로 팽팽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초래하기 마련이며, 때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긴장과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나 국면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돌파할 수 없다는 절망감마저 안겨 주기 마련이다.¹⁵

이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극한의 본질적인 질문이나 긴장감, 불안감, 또는 절망감에 직면하게 되는 군장병은 그러한 긴장과 불안, 혹은 절망으로부터의 안전이나 구원을 갈망하기 마련이다. 총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매 시간 팽팽한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군부대 장병들이라면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¹⁵ 박영주, “병사의 군 부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2006), 73-93.

2) 스트레스 극복의 필요성

둘째로 현실적으로는 군장병들이 매일 전쟁의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군부대 부적응 사례로 나타나기도 한다. 박영주의 연구에 의하면, 병사들의 군 부적응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로 복무기간과 계급, 입대 전의 학력, 가족의 경제 수준, 입대 태도, 제대 후의 진로에 따른 개인적인 특성 요인, 둘째로 자기 주장성, 감각 추구 경향 자존감과 충동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체에 관한 심리적인 특성 요인, 셋째로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의 지지와 같은 가족환경요인, 넷째로 부대시설과 상관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부대환경요인이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¹⁶

이렇게 군장병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군부대 내에서 다양한 차원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군선교 사역자들과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관심을 갖는 군장병들에게 군복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무복무의 가치와 의미 추구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볼 군선교 환경의 세 번째 독특성은 의무복무제에 대한 병사들 자신의 의미와 가치 추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철영이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한국군 22개 부대의 448명의 병사와 7개 대학교 대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군복무 가치 인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무복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91.4%에 달하지만, 의무복무를 개인 차원의 이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55.5%에 불과하여, 의무복무자

¹⁶ Ibid., 76-79; 김동연, “자살생각을 가진 병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군선교 신학』 8(2010), 152.

들이 대체로 의무복무제도의 중요성은 공감하더라도 의무복무의 합리성이나 개인 차원의 유익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병사 개인이 자신의 군부대 내에서의 여러 행동이나 과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적절한 보상이나 이익도 없고, 군조직이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자발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병사들의 자발적인 군복무 수행을 이끌어내려면 병사들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군복무가 중요한 가치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복무 역시 개인 차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¹⁸

정철영의 연구에 의하면, 군복무를 통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자질/품성, 능력 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행히 대부분의 영역에서 입대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9%에서 최고 92.6%로 나타났다.¹⁹ 이러한 결과는 군복무가 사병 개인에게 분명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제대 후에라도 자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 ‘군복무가 더욱 가치 있게 인식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병사들은 본인의 삶과 진로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군부대 안의 병사들도 일반적으로 군부대 바깥의 일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 진로

¹⁷ 정철영, “병사들의 군복무 가치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1(2013년 9월), 147-179; 김동연, 156.

¹⁸ 정철영, 170. 정철영 외(2009b)의 연구에서도 전체 조사된 병사 및 남녀 대학생들 중 90%가 넘는 응답자들은 군 생활이 초래하는 개인의 경쟁력 저하, 경제적 손해, 군 복무 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의무복무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정철영, 최동선, 김재호,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서울: 국가보훈처, 2009): 71-72, 100.

¹⁹ 정철영, “병사들의 군복무 가치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 173.

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만일에 군복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진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다면 군복무 기간을 가치 있는 기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따라서 군선교 사역자들은 체계적인 설교와 신앙 교육을 마련하여 사병들이 군복무 기간이 결코 자신의 인생에 있어 공백기나 퇴보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질과 품성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좋은 기회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선교 환경의 독특성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면, 군선교 환경의 독특성은 생사관의 진리 탐구와 스트레스 극복 방안 모색 그리고 의무복무의 가치와 의미 추구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조직사회 차원의 독특성

조직사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군선교 환경의 독특성은, 첫째로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점과 둘째로 비록 출신 배경이나 내면의 종교심이나 가치관은 다양할지라도 군부대 집단 전체가 공통의 상황에 처하여 공통의 운명을 추구하는 획일화된 운명공동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개인의 가치나 종교적인 신념보다 군부대의 공동의 가치와 필승의 신념을 우위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 통제 아래에서의 개인의 종교나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종교 공존 사회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

크건 작건 모든 군부대 조직이 작동되는 기본적인 방식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회사와 같이 일반 사회의 다른 조직체에서 발견되는 수평적이고 대화적인 의사소통 구조와는 전혀 다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군부대는 지휘관과 장교단 하사관 및 사병이라는 계급적인 상하관

²⁰ Ibid., 173.

계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직선형의 계급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소통 구조는 상관의 명령과 그 아래 부하들의 일사불란한 복종의 획일적인 구조이다.²¹

이렇게 철저한 계급적인 수직구조와 상명하복의 획일화된 소통구조 속에서 모든 군부대는 지휘관이나 상관으로부터 하달된 명령이나 규율, 원칙 또는 군부대의 존재 가치를 따라서 모든 군부대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는 만일에 사병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지휘관의 명령이나 군부대의 존재 가치와 위배되거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사병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관심사는 철저하게 무시될 수밖에 없다.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와 관련하여 군선교 사역자가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군부대 지휘관의 종교이다. 만일에 지휘관의 종교가 기독교라면 그 지휘관은 군선교 사역자의 선교 사역에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반대로 지휘관이 기독교에 배타적인 무종교인이거나 타 종교인인 경우에 군부대 내에서의 군선교 사역자와의 다양한 유형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²²

예를 들자면, 군선교 사역자가 기독장병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리 교육이나 성경공부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일요일의 정해진 종교활동 시간의 원칙만을 고집하거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외의 그 어떤 성경공부 모임이나 신우회 모임도 금지한다면, 군선교 전략을 모색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지휘관이 보기에 군선교 사역자들의 역할이 상명하복의 철저한 지휘계통을 무시하거나 어

²¹ 이석우,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325.

²² 홍석균,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군선교신학』 10(2012), 309.

지럽힌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지휘관과 군선교 사역자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군선교 사역자들은 자신이 사역하는 군부대 지휘관과 선의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선교 사역이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구조와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독교나 군선교 사역에 비협조적인 지휘관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지휘관의 업무 협조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지혜를 신중하게 모색해야 한다.

2) 끈끈한 운명공동체

군대사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종교심리적인 욕구를 자극하지만, 일반 사회처럼 어떤 질문이나 욕구를 즉시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질문이나 욕구 해소를 뒤로 미루고 군부대 공동의 과제나 업무, 또는 운명에 집중해야만 하는 확실적인 운명공동체이다. 달리 말하자면, 특정한 군부대는 지휘관으로부터 말단의 사병에 이르기까지 그 부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공유하는 운명공동체이다.

이런 이유로 군부대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집단적인 결속력과 단결력을 요구하며, 동기들 간에는 강력한 전우애를 요구한다. 군사적인 운명공동체로서 지휘관과 장병 전체가 혈연 이상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연대감이나 결속력은 무형의 정신전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군선교 사역자가 이러한 결속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군선교 사역은 심각한 장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²³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각종 전투 훈련이나 교육 및 경계 근무의 일정으로 인하여 군부대 내에서 군선교

²³ 이석우,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324.

사역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병사들을 만나서 종교 활동이나 예배, 혹은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²⁴

3) 다종교 공존 사회

조직사회의 관점에서 고려할 군선교 환경의 셋째 독특성은 다종교 공존 사회이다. 군선교에 헌신한 군목이나 민간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군부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은 지상의 교회처럼 기독교적인 진리의 수용과 보급, 또는 확산 및 계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억제력을 유지하고 유사시의 필승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이다. 군부대의 존재 이유나 군장병의 역할이 교회나 신자의 존재 이유나 역할과 다르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군부대 존립의 이유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 기독교의 가치는 쉽게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한국군은 기본적으로 군장병 개개인의 여러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²⁵ 하지만 한국군이 군종장교제도를 도입하여 군부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공인하고 지원해 주는 목적은, 장병들의 종교활동이 신앙심에 근거한 사생관을 분명하게 확립하게 함으로써 무형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인화단결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²⁶

이렇게 종교를 통한 정신전력 강화의 기능을 긍정하여 한국군 내에서 비록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종교의 자유와 다양한 종교활동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군선교 사역자가 군부대 안에서 타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군부대 장병들에게 타 종교에

²⁴ 홍석균,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310.

²⁵ 김충거부 안식교의 경우는 군대의 존재 목적과 개인의 종교가 대립되는 경우의 전형을 보여준다.

²⁶ 이석우,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327.

대한 배타성을 주입하여 부대 안에서 종교 간 갈등이나 사병 간에 종교적인 대립이 발생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군선교 자체에도 전혀 유익이 없다. 이러한 군선교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목이나 민간 사역자들이 군선교 현장을 편협한 교세확장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설교 시간이나 여러 모임 시간에 혹은 사적인 대화의 자리에서 타 종교 군목들이나 불신자 지휘관, 또는 불신 장병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언행을 보이거나 그들의 처신들에 대하여 정죄하며 비난하고, 또 그러한 배타성을 다른 기독교장병들에게 주입하려 드는 처신은 군선교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²⁷

그렇다면 군선교 사역자들은 마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군부대 내의 다종교 공존의 조직사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로 군선교 사역자들은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대항하여 기독교와 복음의 신학적인 독특성과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구원의 배타성에 관하여 사역자 자신의 내면세계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확신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종교적인 관용과 타협의 옷을 입고서 접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유일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대조류와 세속적인 세계관을 직시해야 하고, 군선교 사역자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학적인 확신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로 군선교 사역자가 자기 내면의 기독교적인 유일성과 절대성을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하여 표현하고 선포할 때에는, 다종교가 공존하

²⁷ 이석우,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192-201; 이석우,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318. 이석우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군부대 내에서 타 종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군선교 사역자들이 타 종교 지휘관이나 타 종교 군목들과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참조. 이석우,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334-338.

는 조직사회로서의 군선교 현장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타 종교인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종교인들과의 다양한 전략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절대적인 기독교 진리를 선포할 시점이 도래하기까지 다양한 전략적인 선교적인 대화(missional dialogue)를 모색해야 한다.²⁸ 말하자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군부대 내에서 군선교 사역자들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확산시키려고 노력할 때, 군선교 사역자들은 자기 내면세계에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견지해야 하지만,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는 타 종교인과의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복음전도나 선포 방식에서 지나치게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 더 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관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석우 군종장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군선교 사역자들이 타 종교 군장병들이나 군종들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선교적인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예를 들자면, 군부대 내에서 타 종교 경축절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군종목사나 군선교 민간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화환이나 축의금을 보내서 함께 축하해 줄 수는 없더라도, 타 종교 경축절 행사에 참가하는 같은 군부대의 타 종교 군장병들을 위하여 교회 이름으로나 개인 이름으로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타 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여 미래 선교적인 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²⁸ 강찬영, “다종교 다원주의와 군선교”, 『군선교신학』 8(2010), 317-318.

²⁹ 이석우,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354-356. 이석우에 의하면, 타 종교 군종장교가 공식인 부대의 타 종교 시설이나 타 종교 장병들에 대해서도 해당 종교의 신도회 회장 장병과 적극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또 타 종교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기독교나 군선교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군선교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한다.

3. 군부대와 장병들의 다양한 과업들

군부대 안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군목과 민간 사역자들은 앞서 살펴본 군선교를 위한 일반적인 특수 상황과 자신이 사역하는 해당 부대의 주된 임무나 역할, 해당 부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과업들과 부대교회를 방문하는 장병들의 다양한 근무 환경이나 근무 상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³⁰

또한 군선교 사역자는 자신이 사역하는 군부대가 속한 해당 군부대의 특성이나 기본 병과들—육군의 전투병과(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항공), 기술병과(화학, 병기, 병참, 수송), 행정병과(부관, 헌병, 경리, 정훈), 특수병과(의무, 수의, 간호, 법무, 군종)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 산하의 여러 병과들—에 대한 이해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군부대의 기본적인 교육훈련이나 기동훈련, 사격훈련, 수색정찰, 경계근무, 동계훈련, 정기 점검, 대민 봉사활동, 행정 보급, 수송 관리 등등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군부대원들의 근무 및 배치 상황을 파악하여 예배나 설교에 참석한 군장병의 신체 및 심리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금 자대배치를 받고 부임한 신병이라면 극도의 긴장감이나 초조함, 혹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수 있고, 또 방금 전에 유격훈련을 마치고 예배에 참석한 사병들의 경우에는 과중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가 딱딱하거나 어려우면 금방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상의 첫 번째 논의를 통해서 군부대 선교 환경의 독특성을 종교심리와 조직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군선교 환경의 독특성을 종교심리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군부대 장병들은 생사관의 진리를 탐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³⁰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느끼며, 특히 사병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의무복무제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조직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군부대 장병들은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끈끈한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부는 다종교 공존 사회로서 다양한 교육, 훈련, 과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V. 군선교를 위한 설교자의 이중적인 정체성

이렇게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독특하고도 특수한 선교 환경 속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중재자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윤병국 군종목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군종목사들(61%)은 군선교를 위한 책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란을 갖고 있으며, 일반 목회자가 아닌 군선교사로서의 확고한 정체성 확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의 군선교 사역에서 군목회와 군종업무 사이에 갈등을 느끼거나 이중직을 수행하는 데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³¹

따라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매우 특수하고 복잡한 군선교 환경 속에서 군장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려면, 설교자는 “군장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자는 군선교 사역자의 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군선교를 위한 설교자의 기본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성직자와 참모장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겸비한 존재로 이해하고자 한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군종업무지침」에 의하면, 군종장교를 가리켜서

³¹ 윤병국, *op. cit.*, 137.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군종장교는 고매한 성품과 투철한 군인 정신을 소유한 성직자, 장병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계급이나 다른 전문 직위에 관계없이 목사, 신부 및 법사 등 소속 종단의 명칭으로 호칭되며, 그 신분은 장교단의 일원으로 참모장교로서의 신분과 소속 종단으로부터 파송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지닌다.”³²

국방부가 군종장교로 임관한 군목이거나, 또는 군목이 부족한 대대급 이하의 군인교회의 경우에 해당 군부대 지휘관이 위촉하여 군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목회자의 경우거나, 모든 군선교 사역자들은 앞의 군종장교에 관한 국방부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속 교단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목회자인 동시에 국방부나 예하 군부대의 참모 장교단의 이중적인 신분을 갖는다.

군선교 사역자들이 이중적인 신분을 갖는다는 사실은 효과적인 군선교 사역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암시한다. 첫째로 군목(과 민간 사역자)은 목회자의 신분으로 군장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효과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선포해야 한다. 둘째로 목회자인 군선교 사역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동시에 국방부나 군부대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참모장교의 일원으로서 국방부나 군부대 지휘관이 군목(또는 민간 사역자들)에게 기대하는 군부대원들의 (인화단결을 포함하여) 정신전력 강화라는 핵심 가치를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 때문에 군목(과 민간 사역자)은 성직자와 참

³² 국방부군종실, 「군종업무지침」(국방부, 1999), 17. 「국방부훈령 제1070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장 7조, “군종장교의 신분”(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 7. 1 개정). “군종장교는 국군장교단의 일원으로 참모장교로서의 신분과 소속 종단으로부터 파송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진다.” Department of the Army, US, *Religious Support FM 1-05*, “Chaplain Corps Capabilities” (Department of the Army, Oct. 2012), chapter 1, 1-9. “The Army requires the capability to provide religious support and the capability to advise commanders on the impact of religion. These two required capabilities reflect the dual role of the Chaplain Corps: religious leader and religious staff advisor.”

모장교의 이중적인 신분과 역할을 유지함에 있어서 고도의 균형감각을 발휘해야 한다. 만일에 군목(과 민간 사역자)이 자신의 우선적인 역할을 성직자로만 이해할 뿐 국방부와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참모장교의 신분임을 망각하거나, 다종교 공존 사회 속에서 강력한 인화단결을 요구하는 군부대의 선교적인 독특성을 무시하고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로 군선교에 임한다면, 일부 기독교장병들로부터는 인정받을는지 몰라도 조만간에 국방부나 해당 부대의 지휘관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군선교 사역 자체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자신의 역할을 해당부대 지휘관의 통제를 따르는 참모장교로만 이해하고 장병들의 종교적인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면, 장병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결국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만다. 따라서 군선교 사역자들은 성직자와 참모장교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고 치우침 없이 고도의 균형감각을 발휘해야 한다.

군선교 사역자의 이중적인 정체성이 특히 중요한 토대로 작용해야 하는 분야가 국방부 소속 군목과 군선교에 참여하는 민간 목회자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이다. 2010년 현재 군인교회는 전후방 각지에 육군 849동, 해군 35동, 공군 85동, 국직 35동, 총 1004개의 교회로 집계되고 있으며, 군종장교의 숫자는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육군 191명, 해군 29명, 공군 44명으로 모두 264명이 종군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국방부훈령과 육군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군선교 민간 교역자는 2013년 현재 총 578명(군인교회에서 군선교만을 전담하는 민간 교역자 362명과 민간 목회 사역과 병행하는 비전담 사역자 216명)으로,³³ 전체 군목의 숫자를

³³ 주연중,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군선교신학』 11(2013), 108, 123.

합하더라도 1004개 군인교회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군선교 사역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군목의 두 배에 육박하는 민간 목회자들이 군선교 사역에 전임으로든 비전임으로든 참여하고 있는데, 박기영 군종목사가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안”을 위하여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군부대 내의 군종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선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국방부 소속 군목들과 종종 지휘계통 준수 여부나 혹은 소속 부대 군목과의 업무 협조와 관련하여 여러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³⁴

특히 군부대 지휘관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군선교 사역자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는 민간인 성직자나 목회자로서 군선교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열악한 경우에는, 군인교회에 대한 자기주장이 더욱 강해지거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목과 지휘계통이나 재정지출 혹은 사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군선교에 참여하는 민간 목회자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 방안을 마련하여 군선교 현장에서 군목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상의 두 번째 논의를 통해서 군선교를 위한 설교자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군부대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지휘관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참모장교의 이중적인 신분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고찰할 사항은 설교를 듣는 청중이다. 설교는 일종의 청중이

³⁴ 박기영,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안”, 『군선교신학』 1(2004년), 311-315. 박기영에 의하면 민간인 성직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민간인 사역자가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목과 사전 협조 없이 월권하여 장관급 지휘관을 면지 독대하거나, 민간 사역자가 관여하여 민간 교회의 후원으로 군부대 내에 군인교회를 건축한 경우에 교회 건축의 공로를 근거로 군인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군인교회 안에서 특정 교단의 명칭을 부각시키거나 자신이 참여하는 군인교회에 대한 소속 부대 군목의 영향력을 배척하는 경우 그리고 군인교회의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부당 지출하는 경우라고 한다. *Ibid.*, 313-314, 326.

라는 과녁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 메시지를 수납하는 청중이라는 과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중적인 신분을 지닌 군선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선행하여 해결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청중은 과연 누구이며, 이들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설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VI. 설교에 대한 청중의 기대와 설교의 목적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의사소통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설교자는 설교단 앞에 앉은 청중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설교(자)에 대한 청중의 기대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군선교 환경에서 설교자가 파악해야 할 청중의 기대는 과연 무엇인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군장병들은 종교심리와 조직사회의 차원에서 매우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비록 군부대의 독특한 조직사회로부터 군장병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애로사항들을 설교 메시지만으로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군선교 환경 속에서 군장병들이 느끼는 종교심리의 욕구나 필요감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분명한 해답이나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종교심리와 관련하여 군부대 장병들은, 첫째로 생사관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품고서 그 해답을 탐구하고 있으며, 둘째로 각종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셋째로 사병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군복무 기간에 대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군선교에 참여하는 설교자들은 군장병들이 느끼는 이상의 종교심리에 대하여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연구자는 군장병의 세 가지 필요감에 대하여 설교자는 각각 사생관을 확립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복음전도 설교와 신앙의 능력으로 각종 난관을 극복한 성경의 등장인물들에 관한 내러티브 설교 그리고 인격과 성품 계발을 위한 기독교 교리에 관한 시리즈 설교의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생관을 확립하는 복음전도 설교

국방부는 정신전력을 가리켜서 “모든 장병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 지휘관을 중심으로 군계 뭉쳐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으로 신념, 사기, 단결 및 군기를 그 핵심 요소로 한다”고 정의한다.³⁵ 군부대의 존재 이유가 평상시의 전쟁억제력 유지와 유사시 전쟁에서의 승리에 있다면, 이러한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굳건한 정신전력과 인화단결이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군장병들은 평상시에는 최상의 전쟁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팽팽한 군사적인 긴장감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다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즉각 결정되는 전쟁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각종 인마 살상용 총기류나 화포류 그리고 철저한 상명하복의 계급구조 속에서 모든 과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끝 모를 긴장과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나 국면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마저 느끼기 마련이고, 이렇게 극한의 본질적인 질문이나 긴장감, 불안감, 또는 절망감에 직면하여 군의 정신전력은 크게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군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선교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³⁵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국방부, 1984), 38.

군장병들의 종교심리는 기독교의 복음이나 설교 메시지와 적절한 접촉 점을 제공한다.³⁶

군장병들이 느끼는 깊은 불안감과 절망감을 설교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하여 군장병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에 관한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도록 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완전히 초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군장병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라는 진리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분명한 사생관(死生觀)을 확립할 수 있다.³⁷

군장병의 사생관을 확립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복음전도 설교는, 진중세례식과 결합될 때 상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진중세례식을 준비하는 설교자는 진중세례식과 중간의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장병 자신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이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장병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사건임을 분명히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장병 자신의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

2. 성경인물설교를 통한 스트레스 극복 방안 제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군입대 이전에 자유롭고 아무런 구속이나

³⁶ 안광춘, “군목과 지도력”, 『군선교신학』 9(2011), 270.

³⁷ 김기태, “한국 전쟁과 군선교”, 『선교와 신학』 26(2010), 58-59.

속박이 없는 개인생활에 익숙한 신세대 사병들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와 규율과 질서 중심의 조직사회 그리고 획일적이고 비민주적인 집단생활에 노출되면, 군복무 과정에서 다양한 정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한 방식으로 극복되거나 해소되지 않을 때는 업무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 저하로부터 시작하여 명령 불복종, 무관심, 타인에 대한 폭언, 폭행, 구타, 탈영, 혹은 충기사고나 극단적으로 자살과 같은 여러 군부대 부적응 현상들이 발생한다.

박영주에 의하면 병사들의 군 부적응 스트레스 요인으로서는 (입대 전의 학력, 가족의 경제 수준, 입대 태도, 군복무 기간과 계급, 제대 후의 진로에 관한) 개인적인 특성 요인, (자기 주장성, 감각 추구 경향 자존감과 충동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관한) 심리적인 특성 요인,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의 지지 정도에 관한) 가족환경 요인 그리고 (부대시설과 상관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 관한) 부대환경요인이 작용한다고 한다.³⁸ 또 김현택 목사의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신세대 장병이 군생활 중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임무(직책)에 대한 부담감과 내무생활과 선임병과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³⁹ 그리고 남궁승필이 2011년 9월에 전북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하는 241명의 군전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군부대 내에서의 주요 상담문제로 군의 일상생활 문제(부대적응)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전역 후 진로 문제(28.6%)와 신체 및 건강 문제(14.5%), 이성문제(5%), 가정문제(3.3%), 대인관계(2.9%), 도덕 및 종교문제(2.9%), 성격문제(2.9%)를 고민하여 상담

³⁸ 박영주, *op. cit.*, 76-79; 김동연, “자살생각을 가진 병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군선교신학』 8(2010), 152, 165.

³⁹ 김현택,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 『군선교신학』 5(2007), 369.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요인과 군부대 바깥의 가족들과의 관계 요인 때문에, 군장병 개인의 계급이나 지위, 직무, 과업,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개인적인 특성 요인 때문에 그리고 군부대 안에서의 부대시설이나 상관 또는 동료들과의 다양한 인간 관계 요인 때문에 군복무 중인 군장병들은 각종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또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관에 봉착하여 우울 증에 걸릴 수 있다. 또한 군생활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되고 자신의 문제가 앞으로도 전혀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절망감까지 가중되어 극단적으로 자살충동에도 내몰릴 수 있다.⁴¹

이렇게 군복무 중인 군장병들이 주로 군부대 내의 일상생활이나 과업과 관련하여 여러 고민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이러한 종교심리에 응답할 수 있는 설교의 목표와 방안은 무엇일까? 한 가지 효과적인 설교 방법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고난의 과정에 휘말렸지만 그 속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앙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극복한 인물들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자신의 미래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을 거절하여 다시 옥중에 갇히고 말았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억울하고, 심지어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마저도 해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⁴⁰ 남궁승필, “군장병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상담만족도와 조직 내 지지가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복지학회』 13 (2011년 12월), 109.

⁴¹ 박영주, *op. cit.*, 165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구원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기 위하여 요셉을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과정이었다(창 45:7).

기독교장병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시기하고 음해한 사람들은 마치 고약한 선임병처럼 생각되겠고, 하루빨리 벗어나고픈 애굽의 감옥은 자신이 군복무하는 군부대처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총리의 신분에 까지 올라서 7년의 극심한 기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당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구원을 예비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였음을 깨닫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요셉이 자신의 처지와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군장병들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 45:8)고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신앙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군부대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이는 국방부나 군부대 선임병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요셉 이외에도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세레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등 수많은 인물들 역시 극한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성경의 등장인물에 관한 내러티브 설교는 등장인물에 대한 청중의 관심과 동일시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므로, 군부대 내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한 군장병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성경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파악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효과적이다.⁴²

따라서 군선교 설교자들은 성경의 등장인물들에 관한 내러티브 설교를 준비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에 직면한 군장병들에게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비판하거나 주변의 선임병이나 후임병들, 혹은 부정적인 군부대 상황을 탓하지 말고 군장병 자신이 처한 상황과 난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극복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군복무의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는 성화(聖化) 설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복무제에 의하여 입대한 다수의 의무복무 사병들은 의무복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의무복무제의 합리성이나 개인 차원의 유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제에 근거하여 입대한 사병의 입장에서 군복무의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하여 의미 있는 시간들이 제공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군생활을 일종의 공백기나 퇴보기간으로 생각하고 군생활에 대하여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다.⁴³ 하지만 군 전역 이후에는 군복무를 통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자질/품성, 능력 면에서 입대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9%에서 최고 92.6%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⁴²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관한 내러티브 본문의 해석과 설교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04). Overstreet, R. Larry, *Biographical Preaching: Bringing Bible Characters to Life*, 『인물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07). Richards L. Pratt, Jr., *He Gave Us Stories*,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이승진 외 역 (서울: CLC, 2007). D. F. Tolmie, *Narratology and Biblical Narratives: A Practical Guide*, 『서사학과 성경 내러티브』, 이상규 역 (서울: CLC, 2008).

⁴³ 김동연, “자살생각을 가진 병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156.

⁴⁴ 정철영, “병사들의 군복무 가치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 173.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병사들의 경우 의무복무제 때문에 입대하였더라도 2년의 군복무 기간 중에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고, 또 자기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나 교육 여건이 제공된다면 이를 통해서 충분히 군복무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군복무의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가치인식은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병사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군생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⁴⁶

그렇다면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기대하는 군장병들에게 군선교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종교심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군선교 사역자들과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군장병들에게 군복무의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중세례식을 받은 군장병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병전도와 진중세례식으로 대표되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세례식 이후의 지속적인 양육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군복음화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병전도와 진중세례식 이후에 기독교장병으로 하여금 군복무가 자신의 인격과 성품의 계발과 성숙에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려면, 군선교에 참여하는 설교자들은 신앙 인격이 성숙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군복무 동안에 군인교회에 출석하여 지속적으로 설교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지속적인 성숙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설교 방법은 기독교의 핵심교리에 관한 연속설교(doctrinal sermon)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후에 이어지는 성화에 관한 연속설교(sanctification sermon)이기

⁴⁵ Ibid., 173.

⁴⁶ Ibid., 151.

때문이다.⁴⁷

이를 위하여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복음과 점진적 성화론과 긴밀히 결부된 결정적인 성화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자의 성화의 필연성과 그 확실한 가능성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설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기독장병들이 진중세례식에서 군복무 중의 신앙생활에 중언을 고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앙인격의 형성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의 사망과 새 사람의 탄생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소명과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자의 성화의 확실성에 대하여,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에 관하여 연속 시리즈 설교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의 세 번째 논의를 통해 군선교 사역자들과 설교자들에 대한 군장병들의 설교학적인 기대사항을 종교심리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그에 따른 설교의 목표나 전략을 모색하였다. 종교심리의 관점에서 볼 때 군장병들은 사생관 확립의 필요성과 군복무 스트레스를 극복할 방안 그리고 군복무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일 방안을 찾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군선교 사역자들과 설교자들은 사생관을 확립하는 복음전도 설교와 군복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인물설교 그리고 군복무의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는

47 이승진, “구속사를 구원의 서정에 적용하는 성화설교”, 『신학정론』 30/2(2012, 11), 697-720. Bryan Chapell, 『성화의 은혜』,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05) 등 참고.

성화설교를 제시해야 한다.

VII.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전략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군선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장병 대상의 설교 사역 현황을 살펴보고, 군장병 대상의 차별화된 설교 방안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한 다음에, 군선교 사역의 선교적인 독특성을 종교심리와 조직사회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이어서 군선교 현장에서 설교 사역에 임하는 설교자를 목회자와 군종업무를 위한 참모장교의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규명하였으며, 설교자에 대한 군장병의 기대심리를 사생관 확립과 군복무 업무에 따른 과중한 스트레스 해소와 군복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의 차원에서 규명하였고, 이에 대한 복음전도 설교와 성경인물 설교 그리고 지속적인 인격 형성과 성숙을 위한 성화설교를 군장병의 기대심리에 부응할 수 있는 설교학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상의 설교학적인 논의를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 집약하여, 군선교를 효과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설교 전략은 무엇일까? 연구자는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전략을 위하여 귀납적인 설교 전개, 복음전도와 기독교교육의 조화, 연간목회계획에 근거한 연간설교 계획 수립, 연간 예배 및 설교 모범 발간 그리고 군선교 사역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설교 세미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귀납적인 설교 전개

주일예배나 수요일예배에 참석하는 군장병들은 과중한 과업과 업무 및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30분 이상의 설교 메시지에 쉽게 지루해하거나 졸음에 빠지기 쉽다. 그렇다고 예배와 설교 시간을 심신

지친 군장병을 위로하기 위한 오락시간으로 바꿀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설교학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귀납적인 설교 형식이다. 귀납적인 설교 형식(inductive sermon form)이란 설교의 서론부가 청중이 관심을 갖는 문제점이나 실존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교자가 청중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기독교적인 복음이나 해답에 도달하는 설교 전개 형식을 가리킨다.⁴⁸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설교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군장병들이라든가 설교자가 설교 서론부에서 그들의 종교심리적인 기대사항들이나 체감필요(felt need) 혹은 관심사항들이나 질문들을 제시한다면, 설교자의 메시지를 쉽게 거부하려고만 하는 않을 것이다. 군장병들이나 사병들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생관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군부대 안팎의 군사적인 상황들, 북한의 최근 동향들이나 남북관계의 흐름, 자신이 맡은 업무나 과업의 현황이나 앞으로의 개선방향들 그리고 선임병이나 동료 또는 후임병과의 다양한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군부대 바깥의 가족들이나 애인 그리고 친구들의 근황이나 안부에 대하여, 그들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에 대하여, 전역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그리고 전역 이후에 자신이 살아갈 한국사회 일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상황들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을 품고 그런 이야기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의 서론에서 군장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들이나 군장병들이 현재 고민할 만한 질문거리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귀납적 설교 형식은 단순히 문제로부터 해답의 순서로 진행되는 논리적인 배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설교자가 자

⁴⁸ Fred B. Craddock, 『권위 없는 자처럼- 귀납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Eugene, Lowry, 『이야기식 설교구성』,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신의 우월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청중이 위치한 심리적인 자리나 실존적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인격적인 동일시를 이루어 복음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신학적 탐구과정도 암시한다.⁴⁹

신세대 장병들 역시 군입대 이전에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으며 솔직한 방식의 의사소통 구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 역시 상명하복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설교 전달 방식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고 수평적인 설교 전달 방식을 모색해야 하며, 때로는 시청각이나 파워포인트, 또는 동영상상을 삽입한 설교 형식을 활용해야 한다.⁵⁰

2. 복음전도와 기독교교육의 조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전2020실천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장병 대상의 진중세례식이 자대배치 이후의 지속적인 양육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도 한국군 내에서는 매년 약 18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부대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병사들의 기독교 정체성과 세례의 상관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⁵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교육받은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을 기록해 달라는 요청에 군대 바깥의 사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았던 대상자는 48%가 그 내용을 기억한다고 응답했지만, 군부대에서 세례를 받았던 대상자는 18%만이 그 내용을 기억하며, 교육받은 적이 없다거나(11%)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6%)는

⁴⁹ Lucy Atkinson Rose, 『하나님 말씀과 대화 설교-변혁적 설교로서의 대화 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10).

⁵⁰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 *Old Wine in New Wineskins: Doctrinal Preaching in a Changing World*,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이승진 역 (서울: CLC, 2005), 259-378.

⁵¹ 오희준, “대대급 군인교회에서의 기독교장병 양육 연구”, 『군선교신학』 10(2012), 265.

응답자도 적지 않으며, 무응답자도 49%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해당 신앙인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 사회에서 세례를 받은 응답자는 6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군부대에서 세례를 받은 응답자는 겨우 13%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⁵²

이렇게 진중세례식이 점차 기독교장병의 기독교적인 정체성 형성이나 인격 함양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2020실천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진중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예정이거나 방금 세례를 받은 초신자들에 대한 초신자 교육과 설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어서 자대배치를 받은 이후의 군복무 동안에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장병들의 신앙 인격과 성품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리교육이나 성경공부에 관한 기독교교육 체계를 예배 시간의 설교 내용과 서로 연계시켜서 반복적인 기독교교육과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기독교장병의 양육 훈련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진중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예정이거나 방금 세례를 받은 초신자들에 대한 5주 연속 초신자 교육과 설교를 위해서는 다음의 주제로 진행할 수 있다.

- ① 초신자 교육 1: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로 말미암은 죄 용서(고전 6:11)
- ② 초신자 교육 2: 하나님의 구원 세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요 3:5)
- ③ 초신자 교육 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의 동참(로마 6:3-5)
- ④ 초신자 교육 4: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내주하심(고후 1:12-22)
- ⑤ 초신자 교육 5: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공동체적인 연합(엡 4:4-6)

⁵² 홍석균, *op. cit.*, 298.

초신자 대상의 세례 교육이 끝나면, 이어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군복무의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기독교장병들의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과 설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구원 이후의 성화 과정에 관한 기독교 핵심 교리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방향으로 교육한다.⁵³

- 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 ② 현재 이 세상에 나타난 인간의 해답 없는 죄악들과 영적 전쟁의 실상
- ③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시작
- ④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
- ⑤ 성령 강림과 내주를 통한 구속 사역의 적용
- ⑥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 ⑦ 결정적 성화론과 점진적 성화론의 필연적인 연결
- ⑧ 이신구복(以信求福)의 인본주의적인 거짓 복음과 이신성화(以信聖火)의 참 복음
- ⑨ 신자에 대한 마귀의 속임수와 영적 전쟁과 이단의 왜곡된 복음
- ⑩ 성령의 내주에 의한 신자의 거룩한 삶의 능력과 그 증거들
- ⑪ 동북아 정세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와 한국교회의 위치
- ⑫ 타락한 문명사의 흐름과 미래 동향 속에서 구속 역사의 진행의 모습
- 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군선교 사역자들은 이외에도 군장병들이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나 ‘신자의 시간관리’, 혹은 ‘결혼예비학교’, ‘가족들과의 갈등 해결 방법’ 등등의 관심을 끌 만한 목회 주제들을 선정하고, 그

⁵³ 이승진, *op. cit.*, 697-720.

주제들과 행사들을 연간목회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 계획에 따라서 기독교장병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해당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1년 반 정도의 제한된 기간에 기독교 핵심 교리나 신자로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기독교적인 주제들을 섭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연간목회계획과 설교계획 수립

기독교장병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훈련과 설교 사역을 통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군선교 사역자들이 담당하는 특정한 군인교회에서의 군선교 사역 전반에 관하여 연간목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⁵⁴ 군선교 사역에 헌신한 군목/군선교사가 연간설교계획과 연간예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군인교회가 속한 군부대의 주된 특성과 규모, 1년 동안 진행되는 각종 과업 훈련 및 교육 내용이나 주기, 그리고 자대배치의 주기나 기간 및 인원 규모 전반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1년 동안의 목회 계획과 예배 및 교육, 상담, 그리고 설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목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와 비중을 따라서 수립한다. 첫째, 1년 동안 진행되는 각종 교회력(성탄절과 부활절)의 비중을 먼저 정하고, 이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목회적인 (인적 및 물적인) 자원의 형편과 규모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각종 교회 행사들(각종 지정 예배 및 교회 행사와 수련회)과 그 규모 및 횟수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주제 및 그 내용들을 결정한다.⁵⁵

⁵⁴ Stephen Nelson Rummage, *Planning Your Preaching* (Grand Rapids: Kregel, 2002), 144.

⁵⁵ 이승진, “목회 계획에 따른 설교하기”, 『목회와 신학』 285(2013), 184-191.

4. 연간 예배 및 설교 모범 발간

군인교회에서의 효과적인 연간 설교 사역을 위해서는 해당 군인교회를 목양하는 군선교사역자가 해당 군인교회의 고유한 환경이나 특성에 맞게 연간목회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간설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군선교 사역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연간목회계획이나 설교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1004개의 군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군선교 사역자들을 위하여 공통의 연간예배 및 설교 모범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그다음에는 공통의 군인교회를 위한 연간예배 및 설교 모범의 일부분만을 각각의 군인교회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좀 더 편리하게 연간목회 및 설교 사역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매년 1004개 군인교회 전체에 적합한 공통의 연간 예배 및 설교 모범집 제작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범집 제작비를 지원하여, 모든 군선교 사역자들이 공통의 군목회 모범집에 따라서 예배와 교육 및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5. 정기적인 설교 세미나 개최

마지막으로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선교 사역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설교 및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군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과 장애물에 직면한 군선교 사역자들에게 군선교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해야 한다.

VIII. 나가는 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진중세례식을 정점으로 놀라운 군복음화의 결

실을 안겨 주고 있다. 하지만 획일주의보다는 다원주의와 위계구조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앞세운 포스트모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러한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은 신세대 장병들이 군대로 유입되어 예전처럼 권위적인 통제 방식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수의 감소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외교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들이 고효율의 군사력 증강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현재와 같이 사병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 기술집약형의 첨단 구조로 전환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 관리체제로 혁신하려는 국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⁵⁶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국방부는 2020년까지 현재 75%에 이르는 사병을 60%로 줄이고, 간부의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4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런 전반적인 군사적인 상황과 전략의 변화 속에서 한국군의 복음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추구하는 군선교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진중세례식을 통한 다수의 기독장병 복음화 전략을 앞으로는 내실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기독장병 양육의 방향으로 군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구자들은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술로부터 시작하여 해석과 규범, 전략의 4단계로 진행되는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을 따라서 현재 군선교를 위한 설교 사역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종교심리와 조직사회의 관점에서 군선교 현장의 독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군부대 장병들은 생사관의 진리를 탐구할 수밖에 없는 긴장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특히 사병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의

⁵⁶ 김성봉, “군선교: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군선교신학』 6(2008), 31, 44-45.

무복무제의 의미를 모색하는 상황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조직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군부대 장병들은 상명하복의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끈끈한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다종교 공존 사회로서 다양한 교육, 훈련, 과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두 번째로 군선교 사역에 임하는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군부대의 정신전력 강화를 기대하는 지휘관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참모장교의 이중적인 신분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군선교 설교자들에 대한 군장병들의 종교심리적인 기대 사항들을 사생관 확립의 필요성과 군복무 스트레스를 극복할 방안 그리고 군복무의 의미와 가치 추구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복음전도 설교와 성경인물설교 그리고 성화설교를 청중의 기대심리에 부응하는 설교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전략을 위하여 귀납적인 설교 전개, 복음전도와 기독교교육의 조화, 연간목회계획에 근거한 연간설교계획 수립, 연간 예배 및 설교 모범 발간 그리고 군선교 사역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설교 세미나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1004개 군인교회에서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목양하는 군선교 사역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pursues a proposal for the effective preaching ministry for the military mission. We start with the preliminary considerations

of the background of the original topic, such as “A Model of the Mature Worship and Preaching in the 1,004 Military Churches”, reason for the co-authors, and the brief touch on the encounter between the Old Testament 7 Festivals and the New Testament Church Calendars as an illustration of “the Effective Worship Model for the Military Missions” (Part I).

In order to settle up an effective preaching ministry for the military mission, this study follows the four steps of description, investigation, normative model, and the practical strategy as suggested in the practical theological methodology (Part II).

As for the first stage of our research, this study conducts a general survey of the current preaching ministry situation in the Korean military mission, and investigates the missional uniqueness of the Korean army in terms of the religious mentality and the society of organization (Part III). The most Korean soldiers are presently so stuck under the severe military strain, the they are seeking the truth of life and death, how to overcome the various stress, and the meaning of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ranks. If we investigate the military missional situation in terms of the society of organization, w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Korean soldiers are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in the multi religious military society with the various military tasks and on-the-job training (Part IV).

In the military preaching ministry, preacher’s identity should keep the dual position of the Christian minister who delivers the Word of God and the staff officer who should be under the commanding

officer asking for the empowerment of the spiritual combat power of the military camp (Part V). Then this paper investigates soldiers' religious expectation in the preaching situation in terms of the felt-need of the truth of life and death, solution to the various stress, and the meaning of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order to answer these three religious felt-need of the Korean soldiers, the military preacher needs to proclaim "evangelical" sermon, "biblical biographical" sermon and "sanctification" sermon for the progressive character building and personality maturity of the Korean soldiers (Part VI). Lastly, this study suggests inductive preaching form, harmony of evangelism and the Christian education, annual preaching planning based upon the annual ministry planning, annual Christian worship and preaching manual, and regular preaching seminar for the effective preaching ministry in the military churches (Part VII), and concludes with a final summary remarks.

주제어(Key words)

구약절기와 교회력(Old Testament 7 Festivals and Church Calendar)

군인교회 설교(Preaching in the Military Church)

종교심리(Religious Mentality), 귀납법 설교(Inductive Preaching)

인물설교(Biographical Preaching), 연간설교계획(Annual Preaching Planning)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A Proposal For the Effective Preaching Ministry
For the Military Mission

■ 최희범 Choi, Hee Bum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한기총 총무

■ CTS 상임고문

■ 희망봉사단 총무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장 및 연구위원



A. 방법론 면에서

1. 연구자들은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프락시스(praxis) 중심의 실천신학연구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처드 오스머(Richard Osmer)의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에 근거하여 논제의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서술적 과제로 군선교를 위한 현장의 문제를 다루었고, 둘째, 해석적 과제로 군선교 현장에서 발견되는 특성과 배경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범적 과제로 군선교를 위한 바람직한 설교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넷째, 전략적 과제로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기초에서 첫째 서술적 과제는 ‘제3장 군인교회에서의 설교사역 현황’으로, 둘째 해석적 과제는 ‘제4장 군선교와 설교 환경의 독특성과 그 배경’, 셋째 규범적 과제는 ‘제6장 설교에 대한 청중의 기대와 설교의 목적’에서, 넷째 전략적 과제는 ‘제7장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전략’에서 다룸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방법론이 연구과정에서 완벽하게 서술되고 있어 독자에게 이해의 용이함과 쉽게 감명과 공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3.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논거로 삼아 연구자의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미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활용하고 있어 연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과 그들의 저술을 각주(foot note)에 담아냄으로 이 분야에 대하여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① 구약절기와 교회력 ② 군인교회설교 ③ 종교심리 ④ 귀납법설교 ⑤ 인물설교 ⑥ 연간설교계획 등 6가지 주제어(Key words)를 설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읽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영문으로 요약(abstract)을 달아 이 연구논문의 세계화를 이루도록 함으로 연구결과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B. 내용 면에서

1. 제3장은 설문조사에 근거하였는 바 설문지 문항이 매우 적절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네 개의 소제목(節)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설교자의 고민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설교 횟수에 대한 지적은 설교의 목적에 대한 부분과 대상에 대한 특화된 설교에 충실하기가 매

우 난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타개책은 여전히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음은 설교자에게 짐으로 남게 됩니다.

2. 제4장은 종교심리적 차원의 독특성과 조직사회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군선교 현장을 완벽하게 분석함으로 비단 설교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군선교 전반에 걸쳐 정책과 전략을 세워나가는 데 가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제5장에서 군선교를 위한 설교자의 정체성과 함께 설교자가 어느 한쪽에 경도될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일깨우며, 성직자로서 그리고 참모장교로서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 연구자는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생관의 확립, 스트레스 해결, 군복무의 긍정적 가치'를 설교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복음전도설교', '성경인물을 통한 내러티브 설교', '성화설교'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적절하며, 설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4. 제7장 효과적인 설교전략에서 설교자에게는 설교방법, 설교의 커리큘럼화(curriculum), 설교계획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선교연합회(MEAK)가 감당해야 할 과제로 연간 설교모범집 발간과 정기적 설교 세미나 개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선교연합회 안에 있는 '군선교신학회'와 '군선교연구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5. 발표된 본 논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완벽한 논지와 논리로 엮여져 있으며, 독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며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C. 부연하고 싶은 말

1. 설교자의 자기성찰에 대한 내용이 더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설교자에 대하여 ① 정확한 성경적 해설 ② 완전하고 익숙한 수사학의 활용 ③ 올바른 인격의 중요함 등을 말하였습니다. 스펔전은 설교자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준비한 것을 설교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설교의 생명과 능력을 그들 자신이 체험한 대로 설교해야 한다는 확신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행위(사건)이며, 또한 설교자의 인격과 감화력은 메시지의 의상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바탕은 ① 수련된 정신 ② 준비된 마음 ③ 회중을 아는 통찰력 ④ 체험을 통한 생생한 능력 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다”(고전 9:27)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이야기할 때 설교자 자체에 대한 논의는 간과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연구자는 아마 이 부분을 향후 정기적 설교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2. 설교는 예배와 함께 가는 것인 바 원래 주어졌던 주제 “1004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모범”에서 예배모범의 과제를 차후로 미룬 것은 아쉽습니다. 예배모범을 요구하였던 것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진중세례와 성만찬 문제 등 그 후의 관리 등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이 밝힌 바대로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 모범’은 차후에라도 꼭 연구되고 발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연구자들로부터 한국군선교연합회에 주어진 과제는 즉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설교 세미나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군목단에서도 시행할 수 있겠지만 군선교연합회가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으며, 연간예배 및 설교모범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군인교회의 특성에 맞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MEAK와 군목단이 함께 이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주제 발표 논문은 MEAK의 기존 비전2020실천운동을 점검하며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상당한 기여가 되었고, 군선교 현장 사역자들과 군선교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과 군선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침이 되었고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선교신학 제12권 발제2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 육군1군 지역을 중심으로 -

Battalion-level church revitalization plan and Networking

- Focus on the area of Froka

■ 김동연 Kim, Dong Yeon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Th. 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M. A.)
 - 미 육군 군종학교 OAC 수료
 - 리더십 센터 상담교관
 - 육군제15사단 군종참모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비전2020운동의 성공적 수행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대대급교회 사역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대대급교회 사역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이 2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실제적인 장(場)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작금 군(軍)내(內)에서 복음을 전하여 국군장병들을 교회로 인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 여건이 가중

되고 있다.¹ 어느 면에서는 지난날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일컬어진 군 선교의 현장이 내외적 요인에 의해 너무나 그물이 찢겨 있고 상해 있어 더 이상 지난날의 영광을 논하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군선교 일선 현장에 선 군종목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토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주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대급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육군에 있어 대대는 실제 전투를 치르는 전력 단위이듯이, 군선교의 견지에서 볼 때 대대 또한 전략적 복음 전도를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 편제(編提)이다. 따라서 비전2020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대급교회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대대급교회를 섬기고 있는 군선교교역자²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며, 이들의 역할이 대대급교회 활성화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작금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추락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심려가 증대되고 있는 이때에 국군장병들의 실제 생활의 장인 대대교회 활성화를 통해 군

¹ 논자가 보기에 작금의 군내 정황은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 선교의 황금어장이라 칭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상황임에 틀림없다. 특히 군 입대 전 자유분방하게 지내던 신세대 장병들 중 일부는 강한 훈련과 엄격한 질서 체계에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심적 압박과 복무 부적응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아주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과 임무완수를 추구하는 군 간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때때로 일종의 문화충돌이 빚어지곤 한다. 여기에는 입대 전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젊은이들의 내적 미성숙의 문제와 타인을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인격의 빈약성이라는 문제의 상충이 빈번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더욱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군인들이 더 이상 종교를 가지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탈종교적 내지 비종교적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젊은 장병들 사이에서는 '종교를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것으로 여기고, 종교를 갖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며, 종교를 의지하는 것은 의지가 빈약한 자들이나 하는 일'로 여기는 세상의 풍조가 강화되고 있다. 군선교 현장의 이 같은 현실은 일선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사역자)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군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난맥상이다.

² 군선교교역자는 '군선교사'로 호칭이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군선교교역자로 칭한다.

선교의 추진 동력 확보 및 사고 예방을 통한 부대 기여를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지혜로운 처사라고 사료된다.

덧붙여 논자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대교회 활성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문을 살펴본 바,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논문이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비록 대대급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이론과 개념 위주의 정리가 많았고, 실사례를 통해 검증된 군선교 활성화 방안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군선교 사역에 있어 대대급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차체에 절실한 사안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향후 군선교신학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논자는 먼저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인 진중세례의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해 군선교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시사점을 체크해 본다. 그리고 대대급교회 활성화 주역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하는 군선교교역자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동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대대급교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가 제시하는 대대급교회의 활성화 방안은 논자가 근무하는 15사단 내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들이 수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도출해 낸 사안임을 밝혀 둔다.

2. 진중세례 진단과 시사점

진중세례는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군선교의 결정적 과제이다.³ 아래의 <표 1>에 따르면, 진중세례는 그간

³ 이종윤, “21世紀를 向한 韓民族 敎會의 使命: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군선교신학』 1(2004), 48-50. 이종윤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모든 사람(Whole People)에게,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힘을 다하여 전함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이 한국교회가 지녀야 할 목표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군선교를 통해 2020년까지 ‘민족 75%를 그리

여러 악조건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155,767	161,825	162,260	154,808	153,220	174,550	171,435	182,614	184,320	177,110

〈표 1〉연도별 기독교 수세 실적 현황

무엇보다도 연도별 기독교 수세 실적 현황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이 진중세례운동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진중세례운동의 성공을 위해 군인교회는 전도와 세례운동에 집중하고, 일반교회는 기도와 물질 후원에 힘쓰며, 군선교연합회는 세례 받은 군인신자를 일반교회와 연결시켜 관리하도록 제반 역할 분담⁴을 균형감 있게 추진한다면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는 성취된다고 이종윤은 역설한다.⁵

‘이종윤’에 따르면, 진중세례를 강화해 나감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주 문제점은 ‘세례식에 치중하여 양육과 신자관리 소홀, 세례식의 과시용 행사(이벤트화)로의 변질 우려, 부실신자 양산 우려, 타 종파와의

스도에게로’ 인도하자는 비전2020을 공감하여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침묵하고 순종함으로써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을 교훈 삼아 전 교회 사명자들이 각 교단 및 지 교회 중심에서 탈피하여 오직 민족복음화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는 연합 및 일치가 요구된다.

⁴ 비전 2020실천운동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군인교회-진중세례식 진행(매년 22만 명), 수세 후 자대 배치 받은 전입병 교육, 전역감사예배
- 2) 기독교간부-부대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 및 증거, 모범적인 군복무와 신앙생활, 군선교에 유익한 제도적 장치 강구를 위해 각자의 직책과 영향력을 활용
- 3) 민간교회-육군 훈련소 및 사단 신병교육대의 진중합동세례식 소요경비 지원, 군인교회 성전 개축 및 건축비 후원, 군인교회 장병 위문예배 및 찬양예배 지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선교후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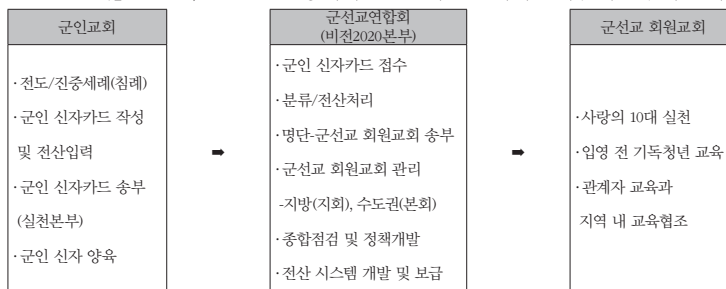
⁵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4(2006), 56. 이종윤에 의하면, 민간교회 전도가 현상 유지 내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복음화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비전2020을 세운 것은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 전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2020년 3,700만(전 국민의 75%) 성도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갈등 및 경쟁 초래' 등이다.⁶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아래 유연하고 지혜롭게 세례운동이 진행되도록 전 군중 요원들과 군인교회 그리고 기독교전우회(MCF)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단순히 진중세례운동을 펼치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장병들을 양육하고 관리하여 민족복음화에 이르기 위해 민간교회와의 결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민상기'에 의하면, 군인교회에서 세례 받은 병사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일에 있어 민간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민간교회에는 군선교를 위해 망원경적 상황 인식과 현미경적 상황 분석을 토대로 한 전략적 협력자세가 요청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복음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한 예로 진중세례식에 소요되는 1인 비용은 평균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소요된다. 이런 점에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선교적 열매를 창출하는 것이 군선교의 장점이자 특성이다.⁷

⁶ 이종윤, "21世紀를 向한 韓民族 敎會의 使命: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190-217.

⁷ 민상기,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4(2006), 397-401. 진중세례 군인신자 연결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구분	합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무종교
신자인원	630,000	180,497	58,754	84,215	1,620	722	325,808
종교대비	100%	55.4%	18%	25.8%	0.5%	0.2%	48.2%
신자대비	100%	28.6%	9.3%	13.3%	0.2%	0.1%	48.2%

〈표 2〉종교별 비교 현황(국방부 전수조사, 2012)

그런데 아래의 국방부 전수 조사에 따른 종교별 비교 현황 〈표 2〉에 따르면, 무종교라고 응답한 장병의 수가 50%에 가깝다.

〈표 2〉가 방사하는 시사점은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도 위 결과는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과 정체감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물론 세례를 받은 자는 언젠가는 그가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독교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진중세례자에 비해 무종교 장병의 비율이 높은 불균형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안남기’에 따르면, 진중세례 장병과 무종교 장병의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는 기형적 현상의 직접적 요인은 외부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무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 그리고 포스트모던적 사고의 영향 등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서 여기에는 진중세례 장병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과 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한 내재적 요인이 자리한다.⁸

‘박종화’에 의하면, 군신자화통계의 실적 약화는 한국교회가 처한 일반적 상황에 대한 반향이다.

“군복음화의 실체는 군신자화의 통계가 말하는 ‘양적 성장’에

⁸ 안남기, “군선교교역자 스트레스 경험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1-12.

머물 수는 없다. 이것은 군신자화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 기독교가 보여주고 또 사회가 보는 기독교교회의 위상과 역할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하락되는 평가에 걸맞게 양적 성장마저도 쇠락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바로 그 증거이다.”⁹

이런 상황인식에 근거한 박종화는 “군복음화의 실체가 양적 성장의 담론을 넘어 ‘질적 성숙’의 단계로 속히 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곧 박종화에게 있어 군선교가 지향해야 할 선교 방향은 ‘질적 성숙 지향의 선교 운동’이다.¹⁰

진중세례에 관한 이종윤의 평가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진중 수세신자 수는 355만 명이라는 놀라운 외형적 열매를 맺은 반면,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그 문제는 첫째, 진중세례자의 소수만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점, 둘째,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연계성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점, 셋째, 진중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숫자가 다소 감소하고 질적으로 퇴보되었다는 점, 넷째, 군목 등 목회 지도자가 부족하여 군인교회의 체계적인 양육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이종윤은 냉철한 관점에서 이 같은 군내 상황이 유발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입대자원만을 놓고 볼 때, 비전2020사역의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연 35만 명이 입대하였으나, 지금은 약 28만 명이다. 무려 약 8만 명이 줄었다. 군복무 기간도 처음 계획이 진행될 때에는 육군 기준 복무기간이 30개월이었으나 지금은 21개월이다. 병영 생활관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는 군선교

⁹ 박종화,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군선교신학』 10(2012), 40.

¹⁰ *Ibid.*, 41.

전략과 전술도 현장 맞춤형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군종목사 인원도 당시에는 약 350명이었으나 지금은 약 260명으로 90여 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대대급교회에서 사역하는 군선교교역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 탈바꿈하였다. 교역자의 연령이 65세 이하로 젊어졌으며, 전문교육을 받는 등 정예화가 되고 있다. 대대급교회에서의 양육과 기간병 전도세례도 그 바탕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국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물론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 지휘관과 장병 구령열정이 강한 군종목사가 콤비를 이루면 최고의 결실을 맺는다. 반면에 지휘관이 반기독교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에 군종목사 또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주의적이면 세례 결실은 최악을 맞는다. 그러나 아무리 지휘관이 냉소적이라 할지라도 군종목사가 중심을 잡고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지휘관의 반대적 영향도 능히 다스리면서 소정의 목표성취를 이루어 내게 된다.”¹¹

이상의 언급에서와 같이 이종윤은 위축되고 있는 진중세례와 장병 양육 그리고 민간교회와의 연결 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완회시킬 수 있는 주력 인사로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영적 지도력을 꼽았다. 나아가 이종윤은 이상의 핵심 이슈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하나, 비전2020실천운동이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룩한 사역임을 믿고, 열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새 마음과 각오로 2020년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자. 다시 한 번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사명감을 회복하고 결단하여 더 강하게 실천하자. 둘, 1004군인교회는 군종목사, 군선교교역자, MCF 임직원 및 회원, 군종병을 비롯한 신우형제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¹¹ 이종윤, 김대덕,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군선교신학』 11(2013), 29.

세례를 집례하고 명단을 수집하여 군선교연합회로 보내고, 전 입 오는 군세례 신자 신병이 자대에서의 빠른 정착과 지역교회로 연결을 위해 군인교회용 비전2020실천 프로그램인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자. 특별히 신자카드, 즉 교적부 관리를 확실히 하고, 완전한 행정업무 관리로 비전2020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 진중세례신자를 지역교회로 연결할 때 부대주소가 있는 자료만을 연결하도록 하자.

셋, 약 4,000 군선교 회원교회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제직들과 군선교 사역 담당자들이 비전2020사역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만들자. 청년전도가 유일하게 살아 있는 곳임을 알고 고린도전서 3장 6-9절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넷, 진중세례 신자 수, 장병 종교전수조사 수, 명단수집 및 연결 신자 수, 결연된 신자 수가 동일하게 되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매뉴얼대로 책임 있는 임무수행에 최고, 최상의 역할을 반드시 실천하자.

다섯, 장병영혼구원 사역인 ‘비전2020실천운동’과 ‘좋은 군사’로 만들자는 ‘선샤인 사역’이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한국교회 재부흥의 역사를 창출하는 선교적 전략전술이 되도록 기도사역을 실천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자. ‘비전2020사역’과 ‘선샤인 사역’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하자. 그 중심에 우리가, 내가 있도록 하자.

여섯, New Vision 2020운동 ‘ABC 3-Pr원리’¹²를 실천하여 2020년까지 민족 75%를 복음화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일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죽도록 충성하자.”¹³

¹² ‘ABC 3-Pr원리’는 Ardent Prayer(열렬한 기도), Biblical Preaching(성경적 설교), Consistent Program(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Ibid.*, 42.

¹³ *Ibid.*, 47-48.

이상의 분석에서와 같이 갈수록 군선교 환경이 평탄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비전인 비전2020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대교회 활성화’라는 군선교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활성화로 인해 장병들을 양육하고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위부대가 대대이고, 그 선교의 중심에는 대대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3. 군선교교역자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동역

현 한국군의 상황에서 대대급교회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사역자는 군선교교역자이다. 군선교교역자는 ‘군종목사의 군종업무 지도를 받아 대대급교회를 목양하고 섬기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위촉된 군선교교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전군에서 활동 중인 군선교교역자는 ‘군종목사과송 11개 교단에 속한 교역자(목사, 전도사) 및 필요 시 별도심사를 거친 건전한 교단(한기총, KNCC 가입교단) 소속 교역자’들이다. 이들은 만 60세 이하에 지원¹⁴하여 선발¹⁵된 후에는 만 65세까지 일선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전도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군선교교역자는 632명으로서, 그 세부 현황은 다음과¹⁶ 같다.

¹⁴ 국방부 법령 및 군선교연합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군선교교역자로 봉사하기 원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민간성직자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선발기관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이력서 2부, 성직자 증명서(교단장 발행) 2부, 교단장 추천서(교단장 발행) 2부, 후원자 약정서 1부(별지 서식), 주민등록등본 2부, 반명함판사진 5매(최초 3개월 이내 촬영 사진에 한함), 서약서 2부, 신학관련 최종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통(교육인적자원부에 정식 등록된 학교/ 비인가 학교 제외).

¹⁵ 군선교교역자 선발은 ‘서류심사(소속 교단, 선교비, 신원 확인, 연령) 및 필요 시 면접’과 ‘선교비 후원 약정 여부’ 확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¹⁶ 국방부 법령 및 군선교연합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위촉권자는 소속 종단의 해촉요청이 있는 경우와 민간성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종참모의 건의하에 해당 군선교교역자를 해촉할 수 있다: ① 군 신앙전력 증강에 저해 요인이 되는 행위 ② 군에 해를 끼친 행위 ③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④ 신

구분		지역구분별							전체 인원	서류 제출	선교 활동비 지원	직분별				
		전담 (교육원)		비전담 (교육원)		65세 초과자	부교자	불명				목사	강도사	전도사	기타	
군	고신	15	(12)	6		1	·	·	21	18	12	21	·	·	·	
총	기감	88	(67)	24	(9)	1	1	·	112	104	64	95	·	17	·	
목	기성	4	(4)	8		2	·	·	12	6	2	12	·	·	·	
사	기장	·		6		3	·	1	7	2	·	7	·	·	·	
파	기침	33	(24)	10	(1)	2	·	3	46	29	19	45	·	1	·	
송	기하성	15	(9)	7	(3)	5	·	2	24	22	4	23	·	1	·	
교	대신	32	(26)	5	(1)	3	·	1	38	32	11	37	·	1	·	
단	백석	40	(30)	9	(4)	3	·	5	49	41	17	44	2	3	·	
	예성	14	(13)	4	(1)	·	·	1	19	17	5	18	·	1	·	
	통합	72	(61)	40	(10)	8	1	3	116	104	41	109	·	7	·	
	합동	66	(52)	44	(11)	15	1	10	121	99	41	116	·	5	·	
	기타	41	(30)	23	(5)	16	·	3	67	47	12	64	1	2	·	
	합계	446 (328/73.5%)		186 (45/24.2%)		59	3	29	632	521	228	591	3	38	0	

〈표 3〉 군선교교역자의 교육원 수료 현황(2014년 9월 1일 기준)

구분	총계	중앙 본부	중부	부산	대경	광주	동부	제주	전북	충북	울산	경남	강원	전남	강원	충남	경북	경인
전담	466	245	6	9	-	3	28	-	6	14	2	6	27	5	5	5	3	26
비전담	173	76	7	4	-	11	15	-	9	1	-	2	11	4	10	5	4	14

양적 또는 교리적 위배행위 ⑤ 성직자로서 도덕적, 금전적 또는 윤리적 지탄행위 ⑥ 위촉 당시 소속 종단의 징계 또는 소속단을 이탈한 행위를 했을 경우 ⑦ 이단 및 사이비 신앙 전파로 군내 갈등 유발 및 전투력 손실 행위 ⑧ 혼령 및 군법 위반 행위 ⑨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케 하는 행위 ⑩ 소속 및 상급부대 군중참모(장교)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는 행위 ⑪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확인되었을 경우 ⑫ 대인관계 물의 및 군 계급 사창 등 기타 행위로 군 기강 문란 시 ⑬ 군부대지휘관 및 간부와 갈등 및 마찰 발생 시 ⑭ 사병으로부터 군선교교역자로서 지탄을 받을 시 ⑮ 선교비 모금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⑯ 소속 교단으로부터 해촉 의뢰 시 ⑰ 도덕적, 윤리성의 문제 발생 시 ⑱ 기타 지탄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발생, 해촉하여야 할 경우.

합계	639	321	13	13	0	14	43	0	15	15	2	8	38	9	15	10	7	40
----	-----	-----	----	----	---	----	----	---	----	----	---	---	----	---	----	----	---	----

〈표 4〉군선교교역자 지회별 현황

〈표 4〉에 따르면, 군선교교역자는 전후방지역에서 골고루 활약을 하고 있으나 병력이 집결되어 있는 전방지역에는 비교적 소수 인원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전방지역 및 해안선 등 장병이 집결된 곳들은 접근성이 어려운 관계로 군석교교역자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장병들이 집결되어 있는 전방지역이나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는 장병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에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요충지이다. 따라서 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긴밀히 공조하고 협조하여 선교 전략적 부대에 적절한 군선교교역자가 배치되어 목회 돌봄 사역이 가능하도록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분	인원	목사	강도사	전도사	기타	전담	비전담	부교역자	불명	서류제출
20대	·	·	·	·	·	·	·	·	·	·
30대	59	48	·	11	·	52	7	·	1	55
40대	93	88	·	5	·	52	41	1	3	66
50-54세	126	119	1	6	·	95	31	2	·	103
55-59세	161	153	·	8	·	107	54	1	2	139
60-64세	134	126	2	6	·	100	34	·	4	105
65세 이상	59	58	·	1	·	48	11	·	19	49
합 계	632	592	3	37	0	446	186	3	29	521

〈표 5〉군선교교역자 연령대별 현황(2014년 9월 1일 기준)

〈표 5〉에 따르면, 군선교교역자 연령대의 50%가 55세 이하이다. 이는 젊은 장병들과 친화하기에는 고무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봉사의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바, 규정에 맞게 인력이 수급 되도록 하는 행정력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특히 군장병의 주 연령층이 20대의 젊은이들이기에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욱 강력하게 진중세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개인의 실존에 터치하고 접촉점¹⁷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종목사는 물론이고 대대급교회를 섬기는 군선교교역자와 신자장병들의 ‘현존’(presence)¹⁸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군선교교역자는 그 본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네트워크¹⁹를 잘 형

17 ‘접촉점’(the point of contact)은 기독교 복음 전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에 따르면,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인생관을 제시할 때 불신자들의 가슴과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이 전도는 불가능하다. 많은 전도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성경의 진리를 출발점으로 삼느냐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상식에서 시작하느냐를 망설인다. 이는 불신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들에게도 절실한 문제이다. 성경의 진리를 무조건 전달하면 너무 종교적이 되고, 그들의 상식과 상황에서 시작하면 진리에서 이탈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전달에는 인격적 접촉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신학적으로 타당한 이론을 기초로 하지 않을 때 자신 있는 설교와 교육은 불가능하다. 크래머에 따르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접촉사상은 단호히 거부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 종교 속의 진리나 교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Hendrik Kraemer, *The Christian Message in a Non-Christian Religions* (Grand Rapids: Kregel Pub., 1977), 137.

18 ‘키타리’(David Kitari)에 따르면, 현존이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있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현 신분 그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또 비인간화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열렬하게 투쟁하게 하며, 마귀적 세력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며, 버림받은 자와 하나가 되어 현대의 이상과 새로운 신화를 무자비하게 조소한다. ‘현존’이라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의 복판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존이란 우리 사회의 구체적 구조에 참여를 뜻한다. 그것은 우선권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업을 명확하게 보기 전에 그곳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존은 증거에 앞선다. 바꾸어 말하면, 현존 자체가 바로 증거이다. David Kitari, “Theology of Presence, Dialogue, and Proclamation,”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 1975.), 116-117.

19 ‘노암’(E. Noam)에 따르면,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학문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력과 공유’²⁰로써 동역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네트워크 동역이라는 관점에서, 군선교교역자는 무엇보다도 군종목사와의 동역정신을 공유하고 업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이 필요하다. ‘주연중’은 “군종활동은 군종목사 중심으로, 선교와 목양은 군선교교역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인다.²¹

군선교교역자에게 있어 군종목사는 군내 군종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실제 군종업무에 있어서 군종목사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때문에 군선교교역자가 대대급교회에서 신앙적 목양의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종목사의 직간접적 후원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선교교역자는 군종목사의 직책과 군 안에서의 그의 위치를 존중해 주고, 사랑의 마음과 기도로써 친화적 협력을 아끼지 않는 마음의 섬김과 배려가 중요하다. 군종목사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대대급교회를 진중하게 돌보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학자 혹은 사회인류학자들에게 네트워크란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들은 상호작용으로 맺어지는 조직이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서열(hierarchy), 상호작용, 게이트키퍼 등을 설명할 때 네트워크 개념을 이용한다. 수학자들에게 있어 네트워크는 위상(位相, topology)을 뜻하며, 생물학자들에게는 셀의 구조를 뜻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화학자들에게는 분자의 행렬 구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E. Noam, “A theory for the instability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ystems,” C. Antonelli, Ed.,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Networks* (New York: North-Holland, 1994), 107. 최영, 『뉴미디어 시대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11에서 재인용.

²⁰ 최배근, 「대변환의 시작」 (서울: 집문당, 2009), 310-311. ‘최배근’에 의하면, 협력은 모든 단위에서 요구된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과소비(excessive consumption)에서 비롯한 기후변화는 고소비의 조절로 해결할 문제이지 기술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과 어울리는 경제를 만들려면 개발로 대변되는 환경의 파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자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은 인간과 자연만이 아니다. 녹색과 생명은 기업이나 개별 국가만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 국제 공조와 협력은 금융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협력은 모든 단위에서 요구되고 있다.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분리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²¹ 주연중,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군선교신학』 11(2013), 123.

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종목사들이 감당해야 할 대대교회 사역의 무거운 짐을 현실적으로 함께 나누어 지고 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군종목사들은 군선교교역자를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하여 존중하고, 서로 사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나가는 것이 복음의 증진을 이루는 첩경이 될 것이다.

또한 군선교교역자는 기독교인연합회(MCF)²²와도 긴밀한 네트워크와 동역의 정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군선교의 현장에서 대대급교회가 자리한 부대의 기독교간부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기독교간부는 여타 동료 간부들에게 군선교교역자의 개인적인 입장과 교회의 사정을 이해시킬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의 팔을 보태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군선교교역자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을 실천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목회사역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 한국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교역자를 행정적 체계 내에서 돕고 있기 때문이고, 군선교교역자와 일반교회와의 실질적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가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군선교회 지회들 또한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군선교교역자들의 후생복리의 증대를 위해 좀 더 선교적 지원책을 모색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서 군선교교역자들은 기도와 물질로써 그들을 직접 후원하

²² 기독교인연합회(MCF)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For God, For Country)를 표어로 하여 ‘기독교장병의 신앙 활동을 지원하여 군전투력 향상과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모든 군부대에 MCF를 조직하여 전 장병을 복음화’하는 것에 매진하고, ‘회원 친교 활동을 통해 신앙심을 배양하고 부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는 한국교회와도 네트워크 동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대대급교회에
로의 진중세례 전입 장병들과 일반교회를 연결시키는 결연사업은 군선
교교역자들의 직접적 헌신이 동반된 각고의 작업 수행으로써만 가능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군선교교역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대대교회에 직접적으로 지
휘권을 행사하는 대소지휘관들과 그 밖의 간부들과도 전우애가 깃든
네트워크를 형성함이 필요하다. 이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
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는 성경의 말씀처럼,
대대교회가 속한 부대의 간부들이 종교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복
음사역을 위하는 군선교교역자들과 대대교회에 긍정적 유익을 줄 개
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협력과 공유’를 기본 정신으로 삼은 네
트워크 동역의 정착은 경쟁과 견제가 날로 가중되는 일반 사회의 현실
적 장애를 능히 극복하고 군선교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군선교교역자는 대대급교회 활성화의
주역이다.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선교교역자들은 대내적으
로는 군종목사와 MCF 그리고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과 긴밀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동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군선교연합회와 각 지회 그리고 한국교회와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군선교교역자는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를 통한
복음의 증진을 위해 네트워크상의 주요 관계성과 동역의 체제를 잘 구
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지혜의 성실함과 영성의 열정을 더욱 강화해 나
감에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대대급 교회 활성화 방안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대대급교회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대대급교회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논자는 15사단 내 대대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여 본다.

1) 군선교교역자들의 보임 안정

주지의 사실인 바, 한국군내에서는 군종목사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그나마도 군종목사들과 동역하는 군선교교역자들이 3군 지역과 후방에 편중되어 있기에 1군지역의 대대급교회에는 1교회 1목회자 체제가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건강한 목회자가 1개 대대급 내지는 연대급 교회를 전담 사역하는 것이 책임성 있는 대대교회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군선교교역자의 수급 불균형은 매우 불안정한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군선교교역자가 비어 있는 부대가 없도록 양질의 인적 자원을 보충하는 일이 대대급교회 활성화의 첫 단추라고 사료된다.

2) 부대 지휘관의 신앙전력화 의지와 세심한 관심 필요

때론 군내에서 교역자의 영향력보다 지휘관의 역량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계급사회의 특수성이 다분한 군 선교 현장의 실상이기도 하다. 더욱이 동일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대별 지휘관의 신앙전력화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대대급 교회의 기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대급교회 활성화에 있어 부대 지휘관의 종교관 내지 종교 철학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교회가 헌병대, 경찰서 10곳보다 더 유익하다”는 김구 선생이나 한신 장군의 말씀처럼, 부대의 지휘관들이나 고급 간부들이 ‘장병의 신앙무장이 성공적인 작전 수행과 부대 운영에 매우 중요한 보탬이 됨’을 인지하는 공감대의 확산작업이 필요하다. 곧 부대 지휘관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건강한 군인이다”라는 인식 아래 군내 종교 활동에 대한 의지를 부대 지휘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신앙이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에 절대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²³ 장병들의 종교 활동 빈도가 활발한 부대일수록 사고율이 낮은 것은 이미 상식이다. 따라서 국군의 정신전력 강화와 안전 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군의 인사정책 담당자들은 과거 ‘장병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 군에 미친 긍정적 사안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신앙 전력화’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재인식이 시급히 필요하기에 군종목사들과 한국군선교연합회는 이에 대한 정책 개발과 담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신실한 군종병들과 기독장병들의 헌신

얼마 전만 해도 헌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대교회 내 중대급 군종병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대 전체를 통틀어도 신실한 믿음을 지닌 군종병 요원 1명을 찾기 힘든 현실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구원을 간구할 때 의인 열 명이 필요했으나 그들을 찾지 못한 것 같은 사태와 방불하다면 너무 과언일까! 물론 강원도 전방사단에 국한된 특수성이거나, 혹은 입대 장병들 대부분이 자신의 입영부대를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기에 타군지역은 사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위주의 도시교회들의 미흡한 청년 양육으로 인해 많은 기독장병들이 신앙의 기본골격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입대한 영향도 없지 않다. 이런 장병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조차 등한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많은 전방 대대교회의 군선교교역자들로부터 고무적인 내용을 들곤 한다. 곧 입대하여 군인교회에서

²³ 국방부 편, 『신앙이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 성모출판사, 1989)을 참고하라.

신앙생활의 기본을 재정립하고 민간교회로 복귀한 후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이 그것이다. 이는 군인교회가 예배생활에 중점을 두고 말씀 교육과 기도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을 더하여 건강한 신우회(청년회)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군선교의 시너지 증대는 기대 가능한 현실임을 시사해 준다. 이런 점에서 신실한 신앙을 지닌 대대급(중대급) 군종병을 양성하는 일은 군선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양질의 군종병 육성은 짧게는 군인교회 활성화의 기초이자, 길게는 좋은 목회자 내지는 교회 일꾼 양성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논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신학생들을 선별하여 예배 사회, 기도, GOP 소초교회 예배 인도 등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 주면 확실히 교회 부흥의 속도가 상승한다. 단, 군종병의 미숙함을 고려하여 세심한 신앙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논자의 경우 건강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간부가 교사나 찬양팀 간사로 봉사하고 군종병을 신우회 교사로 활용하였을 경우 장병들의 참여도가 확실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방 GOP 연대의 경우 그 특성상 작전소요와 불규칙한 병력보충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위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었더니 넘치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대구·경북 군선교지회의 위 사진과 같은 GOP 소초교회 건축 사업²⁴은 GOP 근무로 인해 지치고 힘겨운 장병에게 주 안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해갈의 기쁨과 즐

²⁴ 대구경북군선교연합회는 15사단 내 19개 동의 소초교회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였다.

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는 한 군종목사의 기쁨 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기대된다.

4) 심령이 가난한 장병 중심 활동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사단 군종목사(군선교교역자) 회의에 따르면, FEBA 지역 대대보다는 GOP 대대의 장병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사랑의 말씀에 더욱 감동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아무래도 근무 여건상 매우 힘이 들기에 심령이 가난해진 장병들이 교회의 사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최근 선한 사마리아인(선샤인) 운동²⁵의 실천을 통해 심령이 지치고 혈벗은 장병들을 돌보아 주고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신앙 전력화에도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점에서 선샤인 운동은 대대급 교회의 본질적 복음사역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장병들에게 생일과 진급을 챙겨 주고, 자유시간에 생활관을 심방하는 '선행하기'²⁶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 그리고 장병 사생관 교육과 부대 안전기도회 등 공식적인 군종교육과 종교 활동 시간에 각 중대별 지휘관의 협조를 얻어 관심장병과 복무부적응 장병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 주는 것 또한 대대교회로 장병들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²⁵ 최석환,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군선교신학』 10(2012), 51. ‘최석환’에 따르면, ‘선샤인 캠페인’은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의 애칭이다. 선샤인 캠페인은 대한민국 1004군인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기독교장병들이 병영생활에서 천사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전우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병영 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있다면 올바르게 개선시키는 등 더 좋은 군사가 되어 사고 없는 건강한 병영을 만들자는 캠페인이다. 즉 선샤인 캠페인은 육·해·공군·해병대 1004군인교회와 기독교장병들이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대 사고 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기독교 실천운동이다.

²⁶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하기, 둘째, 경청하기, 셋째, 동행하기, 넷째, 칭찬하기, 다섯째, 선행하기. *Ibid.*, 62-67.

5)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용

대대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몇몇 대대교회에서는 예배 후 성경암송대회, 설교말씀을 활용한 빙고게임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병들에게 흥미 유발의 계기가 되어 성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촉과 교육이 이루어짐은 물론이고, 예배 출석률 또한 상당히 상승하였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동아리활동 시간에 밴드 및 코러스를 구성하여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장려한 결과 군중병과 일반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와 부흥의 전기가 되었다.

특히 아직 성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장병들을 위해 「생명의 삶」의 묵상 코너를 주보에 기재하고 매주 토요일 군중 모임에서 군중병들로 하여금 QT 시간을 갖도록 독려한 결과 군중병들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심지어는 군중병들과 기독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연등시간에 간부연구실을 이용하여 말씀묵상 시간을 갖는 등 영적 토양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대급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음(선교)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히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군중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는 긴밀히 협조하여 대대급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전 진중교회가 공유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장병 복음화를 위해 더없이 좋을 것이다.

6) 기독간부 및 군인가족들의 봉사 권장

대대급 간부들과 그 가족들은 통상 4세 미만의 어린 자녀로 인해 봉사에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실제 대대급교회의 신앙 환경 자체가 열악하여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대대급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하고 장려함이 필요하다. 실제로 ○○연대 교회의 경우 찬양사역의 경험이 있

는 한 집사를 찬양팀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선교단체 출신의 한 집사를 신우회 TEE 교재 교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군무원으로 섬기는 한 집사를 재정담당으로 각각 임명하고 봉사하도록 하였더니 교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물론 대대급교회에서는 기독교부나 군인 가족들의 신앙 성숙 여하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동원 가능한 유능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와 목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 신교대 세례자의 추적 관리 및 양육-민간교회와의 네트워크 동역은 필수적

대대교회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매주 새 신자 장병의 전입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교대 세례자의 추적 관리와 양육에 있어 민간교회와의 결연사업이 그리 원활하지 않다. 여기에는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들의 명단이 대대급교회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물론 신병교육대교회와 일반교회와의 직접 연결은 더더욱 난망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타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대대급교회를 섬기는 군선교교역자들의 헌신적 섬김이다. 곧 군선교교역자들은 매주 대대급교회를 새로 찾는 전입신병들에 대한 기본적 신앙을 파악하고 일반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서류를 새롭게 작성해서 군선교연합회로 이첩을 시켜 준다.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교역자들이 수집하여 보낸 정보를 신속하게 전산처리를 하여 해당 일반교회에 알려준다. 일반교회는 위촉된 기독장병의 부대주소와 부모의 현주소 파악을 잘 활용하여 지혜롭게 선교의 접촉점을 형성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렇게 대대급교회와 군선교연합회 그리고 군선교연합회와 일반 연결 교회, 나아가 일반 연결 교회와 대대급교회의 네트워크 동역

은 전입 기독교신병들을 효율적으로 양육하는 일²⁷이며, 동시에 그 장병의 전역 후 일반교회 정착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해 신교대 카페 활동도 추천할 만하다. 대대 카페는 장병들의 부모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부대와 부모들의 소통의 장소인 대대 카페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다.

나아가 전입장병들이 이등병과 일병 초기 시절까지는 복음에 매우 친화적인 경향이 강한 점을 잘 활용하여 신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곧 대대교회 공통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교재를 잘 준비하여 교육한다면, 신병들은 복음의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종내 대대교회의 출석 향상과 신앙 활성화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8) 대대 지휘부와 좋은 유대관계 형성과 부대 유익을 제공

대대 지휘부와 좋은 유대 관계성을 구축하는 것²⁸은 대대급교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고 견인차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대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적시 적절하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대대원들의 신앙 활동을 돕는 좋은 바탕과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보편적 측면에서 군인교회가 대대(부대) 운영과 활동에 유익을 주고 사랑의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 활동을 반

²⁷ 전입 세례 장병들에 대해 3-4주 고정출석의 제도화를 실시하고, 주차별 교사를 선정하여 그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것은 복음화의 구체적인 실천인 동시에 출석률 안정화 및 증가의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 확신한다.

²⁸ Dale Carnegie,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강성복 역 (서울: 리베르, 2011), 355-403.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는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안한다. 첫째,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둘째, 원망 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도록 하라. 셋째,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얘기하라. 넷째, 명령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라. 다섯째, 체면을 세워 줘라. 여섯째,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을 모색하라. 일곱째, 개에게도 착한 개라고 말해 줘라. 여덟째, 고치기 쉬운 잘못이라고 말하라.

대하지 않을 뿐더러 복음 증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대교회가 대대의 훈련과 활동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없는 군용차량 운전병을 위해 ‘아이스 스카프’를 선물한다든지, 험한 지형(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경계병 등을 위해 무릎보호대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장병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사랑의 봉사와 섬김은 못 장병들에게 감화를 줄 뿐 아니라 복음 활성화의 분위기 조성에 매우 유익하리라 판단된다. 나아가 관심장병 관리가 이슈가 된 요즘 ‘힐링 콘서트’, 혹은 ‘문화 활동을 통한 건강한 문화사역’을 보급하는 것 또한 복음화를 위한 객토작업이라 할 수 있다.

논자의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대 장병을 돕고자 하는 군종부(군인교회)의 노력은 현지 부대 지휘관과 부대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아름다운 협조 관계를 형성하여 복음의 증진을 이루는 선순환을 이룬다고 사료된다.

9)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동역 필요

대대급교회를 담당하는 군선교교역자는 부대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견지에서 전담목회적인 마인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대대급교회를 섬기는 군선교교역자는 가족 같은 마음의 관심을 가져 대대의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훈련 등을 위해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돌보며 협조하는 좋은 협력 관계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중대장, 행정보급관)과 좋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맺고 그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 군선교교역자는 부대원들로부터 단지 교회의 예배만을 지원하는 인사가 아니라 대대의 일원으로 여겨 존경을 받고 함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파트너이자 동지라는 인식을 득할 필요가 있

다. 군선교교역자는 이를 위해서 더더욱 대대원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열정을 가속화하여 활동하는 사역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주중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형제들을 파악하여 생활관으로 찾아가서 만남의 네트워크를 갖는 심방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보다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 그리고 성경말씀을 암송했을 때 주는 세안 도구와 같은 작은 선물을 전한다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군선교교역자가 대대 관심장병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상담 사역들을 진행해 간다면 지휘관들로부터 매우 큰 신뢰를 받아 군종병을 운용하거나 장병들의 예배 참석 증대와 같은 대대교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리라 여겨진다.

4. 나가는 말

최근 ‘GOP 총기난사 사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고’ 등 군내 좋지 않은 내용들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대대원들에게 전파되어 영향력을 미치게 했다면 이 같은 군내 악성 사건과 사고는 미연에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군장병들이 실제적으로 집결된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물론 어떻게 무신론자들과 타 종교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라는 난제가 남아 있지만, 대대교회가 장병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과 충성된 열정을 대대에 잘 정착시키고 접목시키기만 하면 대대의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부대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증대를 이루는 대대급교회 활성화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이다.

많은 이들이 가진 편견 중에 하나가 ‘대대교회는 많은 활동들이 제한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대교회의 활동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부대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대대교회 여건에 맞게 기본적인 예배활동과 전도활동 그리고 위문활동을 구상하고 단계별로 진행해 나간다면 대대교회는 여타 레벨의 군인교회나 일반교회 못지않게 황금 같은 20대의 청년들을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가 되게 하는 복된 역할의 주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고 군종목사들과 한국군선교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부 지원책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협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선교교역자들은 주의 나라 확장 과 나라에 애국하는 최전선에 선 복음의 일등 역군임을 자각하고 사명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영적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대대급교회 활성화는 이상의 제반 방안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복음의 네트워크 동역을 이룰 때 군내 지평에서 강력하게 진행되리라 확신한다.

Abstract

The Korean church has declined seriously since 1990. In recent situation the military missions is a very effective mission strategy in Korea for a Korean church's future. The young people of the first 20th age are serving for the country in the Korean military bases where are every unique, separated from society, and a special group. It is a very strategically good chance to reach this young people

group while they are staying in the special environment, If they meet Jesus Christ when they are serving as military, not only they can be a God's child, but also they can be an useful instrument for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the God in the future.

This 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Battalion-level church revitalization plan and Networking. This topic is a very crucial issue in terms of the Korean church missions toward Korea society. The writer dealt with this significant issu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rea of Froka.

주제어(Key words)>

군선교(Military Mission), 군선교교역자(the military mission ministry),
대대급 교회(Battalion-level church), 네트워크 동역(Network-ministry fellowship),
GOP 소초교회(a picket church at GOP)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 육군1군 지역을 중심으로-

Battalion-level church revitalization plan and Networking

- Focus on the area of Froka

■ 최석환 Choi, Sok Hwan

- 총신대 신학과 졸업(B. A., M. DIV., Th. M.)
 -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B. A.)
 - 총신대 철학박사(Ph. D.)
 - 미국 자살예방센터(SPC) 수료
- 육군 수방사 군종참모, 충성교회 담임목사
 - 한국군종목사단 선사인 캠페인 TF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MEAK 한국군상담심리교청학회 연구위원
- MEAK 한국군선교연구소 연구위원 및 협동총무



1. 내용 요약

김동연 군목은 본 논고의 들어가는 말에서 탈종교적 내지 비종교적 현상 속에서도 비전2020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대급교회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통해 군선교의 추진

동력 확보 및 사고 예방을 통한 부대 기여를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처사라고 역설한다. 본론에서 진중세례 진단과 시사점, 군선교교역자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동역, 대대급교회 활성화 방안을 상론한다. 그 논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진중세례 진단과 시사점

연도별 기독교 수세 실적 현황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이 진중세례운동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방부 전수 조사에 따른 종교별 비교 현황에 따르면, 무종교라고 응답한 장병의 수가 50%에 가깝다. 이는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과 정체감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진중세례자에 비해 무종교 장병의 비율이 높은 불균형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2) 군선교교역자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동역

군선교교역자는 ‘군종목사의 군종업무 지도를 받아 대대급교회를 목양하고 섬기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위촉된 군선교교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군선교교역자의 교육원 수료 현황(2014년 9월 1일 기준, 632명), 군선교교역자 지회별 현황(639명), 군선교교역자 연령대별 현황(2014년 9월 1일 기준, 632명)에서 볼 수 있듯이 군선교교역자는 대대급교회 활성화의 주역이다.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선교교역자들은 군종목사, MCF, 부대지휘관 및 간부들, 한국군선교연합회와 각 지회, 한국교회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를 통한 복음의 증진을 위해 네트워크상의 주요 관계성과 동역의 체제를 잘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지혜의 성실함과 영성의 열정을 더욱 강화해 나감이 필요하다.

3) 대대급 교회 활성화 방안

15사단 내 대대급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군선교교역자

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대대급교회 활성화 방안 아홉 가지를 제시한다.

(1) 군선교교역자들의 보임 안정

군선교교역자들이 3군 지역과 후방에 편중되어 있기에 1군 지역의 대대급교회에는 한 교회 한 목회자 체제가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군선교교역자의 수급 불균형은 매우 불안정한 요인이기에 군선교교역자가 비어 있는 부대가 없도록 양질의 인적 자원을 보충하는 일이 대대급교회 활성화의 첫 단추이다.

(2) 부대 지휘관의 신앙전력화 의지와 세심한 관심 필요

제대별 지휘관의 신앙전력화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대대급교회의 기본 출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한 신앙인이 건강한 군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군 내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의지를 부대 지휘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신실한 군종병들과 기독장병들의 헌신

대대 전체를 통틀어도 헌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군종병 한 명을 찾기 힘든 것이 군선교 현장의 현실이다. 양질의 군종병 육성은 군인교회 활성화의 기초이자 목회자 내지는 교회 일꾼 양성의 출발점이 된다. 예배 생활에 중점을 두고 말씀 교육과 기도생활을 통한 건강한 신우회 운영이 바탕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심령이 가난한 장병 중심 활동

FEBA 대대보다는 GOP 대대의 장병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사랑의 말씀에 더욱 감동하고, 심령이 가난한 장병들은 더욱 교회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심령이 지치고 헐벗은 장병들을 돌보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선샤인) 운동의 실천, 생일자와 긴급자 축하, 생활관 심방 등으로 힘들어 하는 장병들을 만나는 것은 대대급교회로 장병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5)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용

성경암송, 설교말씀을 활용한 빙고게임, 토요일 동아리 활동시간을 활용한 밴드 및 코러스팀 연습, 토요일 군중모임시간을 활용한 성경묵상 등 대대급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음 및 선교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좋은 내용들을 알려 줌으로써 대대급교회가 더욱 활력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기독간부 및 군인가족들의 봉사 권장

대대급 간부들과 그 가족들은 통상 4세 미만의 어린 자녀로 인해 봉사에 소극적일 수 있고, 환경 자체가 제한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대대급교회에서는 간부 및 가족들의 신앙 성숙에 따라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신교대 세례자의 추적 관리 및 양육

군선교교역자들은 매주 대대급교회를 찾는 전입신병들에 대한 기본적 신앙을 파악하고, 일반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서류를 새롭게 작성해서 군선교연합회로 이첩한다. 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교역자들이 수집하여 보낸 정보를 신속하게 전산처리하여 해당 일반교회에 알려 준다. 일반교회는 위촉된 기독장병의 부대주소와 부모의 현주소 파악을 잘 활용하여 선교의 접촉점을 형성한다. 전입신병 중 세례자들에 대한 3-4주 고정출석의 제도화, 주차별 교사 선정 및 양육, 신교대 카페 활동, 이등병과 일병 초기까지의 신앙교육 등은 대대급교회의 출석 향상과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8) 대대 지휘부와 좋은 유대관계 형성과 부대 유익을 제공

대대에 꼭 필요한 지원과 위문활동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대대 지휘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결국 교회 활동 지원에 밑거름이 되었다. 에어컨, 아이스 스카프, 무릎보호대 등 부대의

필요를 채워 주고, 힐링 콘서트 및 문화 활동을 통한 건강한 문화 사역은 복음화를 위한 객토작업이라 할 수 있고, 부대는 좋은 평가로 반응할 수 있다.

(9)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동역 필요

대대급교회 군선교교역자가 대대의 일원으로 여겨 존경을 받고 함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파트너로서 대대장, 중대장, 행정정보관 등 대대 간부들과 좋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맺고 그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논평

1) 훌륭한 점

(1) 김동연 군목이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이라는 연구를 통해 군선교 전략의 중심에는 대대급교회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은 고무적인 논고로 치하할 수 있겠다. 김동연 군목은 본 논고의 들어가는 말에서 대대는 전략적 복음전도를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 편제이기에 비전 2020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대급교회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통해 군선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통하여 부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군선교교역자의 교육원 수료 현황(2014년 9월 1일 기준, 632명), 군선교교역자 지회별 현황(639명), 군선교교역자 연령대별 현황(2014년 9월 1일 기준, 632명) 등 최신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대대급교회 활성화의 주역으로서 군선교사¹를 부각시키며 논의를 전개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¹ 제16차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정기회의(2013. 11. 18) 시 군선교교역자를 ‘군선교사’로 통일하여 호칭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본 논찬자는 ‘군선교사’로 기술하고자 한다.

(2) 김동연 군목이 논고에서 제시한 대대급교회 활성화 제한사항들은 미래 군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귀하게 활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예를 들어, 군선교사들의 3군사령부 지역 편중 배치로 인해 한 동의 군인교회에 한 목회자가 시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 예전에는 대대급교회 안에 헌신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중대급 군종병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대 전체를 통틀어도 한 명을 찾기 힘든 것이 군선교 현장의 현실이라는 점, 대대급 간부들과 그 가족들은 통상 4세 미만의 어린 자녀로 인해 봉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3) 대대급교회 활성화 방안으로 군선교사들의 보임 안정, 부대 지휘관의 신앙전력화 의지와 세심한 관심 필요, 신실한 군종병들과 기독장병들의 헌신, 심령이 가난한 장병 중심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용, 기독간부 및 군인가족들의 봉사 권장, 신교대 세례자의 추적 관리 및 양육, 대대 지휘부와의 좋은 유대관계 형성과 부대 유익을 제공,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동역 필요 등 아홉 가지로 제안한 것은 이 논고의 백미로 추천할 만하다.

(4) 대대급교회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은 본 논고의 실천적 논의를 확장하여 진행하는 데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선샤인) 운동의 실천, 생일자와 진급자 축하, 생활관 심방, 성경암송, 설교말씀을 활용한 빙고게임, 토요일 동아리 활동시간을 활용한 밴드 및 코러스팀 연습, 토요일 군종병 모임시간을 활용한 성경묵상과 영성훈련, 세례자들에 대한 3-4주 고정 출석의 제도화와 주차별 교사 선정 및 양육, 신교대와 민간교회의 연결, 신교대 카페 활동, 힐링 콘서트 및 건강한 문화사역 등이다. 특히 GOP 대대 교회사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례로 제시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대구경북지회가 후원한 제15보병사단의 열아홉 동

의 GOP 소초교회 건축사업은 대대급교회의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5) 마지막으로 김동연 군목이 본 논고를 통하여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과 공유’를 기본 정신으로 삼은 네트워크 동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통찰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종목사, 군선교사,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대대 장병, 군중병, 신우회, 여전도회, MCF,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각 지회, 군선교를 후원하는 민간교회, 군선교 유관기관 등은 모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대대급교회를 담당하는 군선교사는 부대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닌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전담목회적인 마인드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가족 같은 대대 분위기와 상황, 훈련 등을 위해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돌보며 협조하는 좋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지는 매우 타당하다. 특별히 군종목사는 대대급 군선교사들이 군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움을 주며 동역해야 할 것이다.

2) 제안할 점

상기한 김동연 군목의 논고의 훌륭한 점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논찬자의 제안할 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1)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논문 형식을 갖춘 객관적인 테이터를 추가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본 논고에는 “15사단 내 대대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군선교교역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볼 때”라고 말한 후 방안들을 제시한다. 본 논고에는 연구설계를 위한 연구질문 검토,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질문자료 수집절차, 연구질문자료 분석 등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본 논고의 부제 ‘1군 지역을 중심으로’를 ‘15사

단을 중심으로'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네트워크 동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에 추가하여 대대급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1:1 자매결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약 650여 개의 대대급 군인교회를 민간교회와 1:1로 연결하여 현실적인 선교비를 지원해 주고 실제적인 양육과 위문과 세례식 등을 후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군선교를 위해 민간교회들이 여러 군데의 군인교회들을 산발적으로 후원해 주었다면, 이제는 한 민간교회가 한 대대급 군인교회를 전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연구소의 올해 11월 '대대급 군인교회 활성화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소망한다.

(3) 김동연 군목은 본 논고를 준비하면서 대대급교회 활성화에 대한 논문이 매우 빈약하며, 대부분 이론과 개념위주의 정리가 많았고 실사례를 통해 검증된 군선교 활성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기에 향후 군선교신학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무적인 일은 최근에 대대급 군인교회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군선교사의 논문이 나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희준 목사의 “대대급 군인교회에서의 기독교장병 양육 연구”(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²와 김창제 목사의 “종교활동을 통한 새로운 병영문화 모델 제시”³라는 논문이다. 이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대

² 오희준, “대대급 군인교회에서의 기독교장병 양육 연구”(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10(2012), 245-270. 대대급 군인교회인 산돌교회에는 2012년 5월 현재 9명의 군종병과 5명의 신우회원이 병사들을 섬기고 있으며, 평균 150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희준 목사는 군종병의 교사화, 새신자 양육,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제자 양육,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활동 등을 소개하며, 대대급에 맞는 다양한 양육 교재와 양육 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 군종병과 신우들을 위한 교사 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 무종교를 선택하는 장병들을 위한 효과적인 전도방법에 대한 연구,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연합된 양육 체계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³ 김창제, “종교활동을 통한 새로운 병영문화 모델 제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 세미나」(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4), 28-50. 대대급교회인 백마기드온교회를 담임하는 김창제 목사는 대대급 민간성직자에 대한 후원체계 개선방안과 대대급 초신자를 위한 기초단계 맞춤형 양육교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대급 군인교회 사역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을 제안한다. 대대급 군인교회를 지원하는 군선교사가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대대급 군인교회 사역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란다.

(4) 김동연 군목이 논고에서 제시한 대대급교회 활성화 제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연구소의 각 분과 연구위원들의 역동적인 역할을 제안한다. 연구위원들이 군선교사들이 3군사령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을 막는 군선교사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중대급 군종병들의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대급 군인교회 사역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구축하는 등 창조적인 아이디어 बैं크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김동연 군목이 논고의 나가는 말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 영혼이 천 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도록 국군장병들이 실제로 집결된 대대급교회의 활성화는 필요하며, 대대급교회가 장병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과 충성된 열정을 대대에 잘 정착시키고 접목시키기만 하면 대대의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부대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동감한다. 이제는 대대급 군인교회의 동역자인 군종목사, 군선교사,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대대 장병, 군종병, 신우회, 여전도회, MCF,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각 지회, 군선교를 후원하는 민간교회, 군선교 유관기관 등은 모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때이다. 이런 동역을 통해 대대급 군인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기를 소망한다. 다시 한 번 탁월한 논문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를 제공한 김동연 군목에게 감사드린다.

군선교신학 제12권

구약 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¹

Encounter of the Old Testament Feasts with the New Testament

Church Calendar

- Focused on the Pentecost -

■ 김진섭 Kim, Jin Sup

■ 서울대학교 농화학과(B. S.)

■ 고려신학대학원(M. Div.)

■ 미국 Covenant 신학대학원(구약학 전공, Th. M.)

■ 미국 Dropsie 대학원(고대근동학 전공, M. A.; Ph. D.)

■ 백석예술대학교 기획조정 부총장

■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A: 구약 7대 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²

구약의 3대 절기(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반드시

¹ 본 논고는 본래 한국군선교신학회 제16차 정기회의(2013. 11. 18)에서 ‘제14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의 대 주제를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설정하고, 발제자로서 필자에게 위촉된 “1004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모범”의 주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에 주력하여 발표하게 되었기에,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예배모범”의 주어진 과제에 대한 예비적 고찰의 실례로서 집필하게 되었다.

²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공간’(한세공)에 의한 7편의 연속 논고가 예장교신의 교단지인 「기독교보」에 게재되어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김하연, “절기와 교회력 1”, 1106호 (2014. 2. 8), 2; 김하연, “절기와 교회력 2”, 1107호 (2014. 2. 15), 2; 황원하, “신약의 절기”, 1108호 (2014. 2. 22), 2; 이기업, “교회력의 형성”, 1109호 (2014. 3. 1), 2; 이성호, “한국교회의 절기들, 어떻게 볼 것인가?”, 1110호 (2014. 3. 8), 2; 안재경, “교회력과 성도의 삶”, 1111호 (2014. 3. 15), 2; 채경락, “교회절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112호 (2014. 3. 29), 2.

시 성막/성소의 하나님께 ‘빈손’이 결코 아니게 나아와야 한다.³ 구약에 명시된 7대 절기는 크게 두 사이클을 가지는 바, 봄-여름의 유월절(페사흐) 범주에 유월절-무교절-초실절과 가을의 장막절 범주에 나팔절(새해, 로쉬 하샤나)-대속죄일(욥 키푸르)-장막절(숙코트=수장절(하그 아시프))이 그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이클의 중심점에 오순절(=칠칠절, 맥추절)이 놓여 있다는 것과 세계 교회가 공교회적 성격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교회의 3대 절기(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가운데서도, 성경적 이해가 가장 시급한 것이 성령강림절(오순절)이라는 두 가지 이유와 함께 본 논고를 시작하고자 한다.

서론 B.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된 질문들⁴

한국교회는 교회력을 따라 금년에도 6월 8일 주일을 ‘성령강림주일’로 지켰다. 이는 ‘기독교 유월절’이라 불리는 부활절(4월 20일)로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일요일이 바로 ‘교회탄생기념일’이자 ‘성령강림일’로 규정한 교회사적 전통을 따른 것이다.⁵

지난 6월 8일 성령강림주일을 나와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는 어떻게

³ 출 23:14-17, 34:23-24; 신 16:1-17; 대하 8:13.

⁴ ‘신약의 절기’에 관한 논고에서 황원하 박사는 다음과 같은 혼란스런 현실적 질문을 소개한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7월 초순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킨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11월 중순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일부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더욱이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 부활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과 같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신약성경이 절기에 대하여 무엇이냐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적실하다”(앞의 논고).

⁵ 니케아 종교회의(주후 325)는 알렉산드리아 계산법을 따라 춘분점 이후 첫 만월 직후의 일요일(3월 22일과 4월 25일 사이)을 부활절로 지키도록 결정하였고,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전통 위에 서 있다. “적어도 3세기 초부터는 부활에 대한 축제가 ‘50일간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4세기부터 그 이후 계속적으로 ‘50일째 되는 그날 자체’가 특별한 날로 지켜졌다. 이것은 부활절의 절기의 기간을 의미한다. 부활절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일요일이 성령강림일이 된다. 성탄절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다”(이기업, “교회력의 형성”, 앞의 논고).

보내었는가? 성령강림주일이 품고 있는 구약과 신약성경의 풍성한 예 언들과 그 성취에 대해 얼마나 시의적절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왔는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약의 교회력을 따라 구약의 절기와 맞물려 얼마나 적절하게 교육시키고 있는가?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성령강림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사 임직을 받은 지 거의 38년이 가까워 오는 필자의 기억에는 교회력을 따라 성령강림주일을 지키거나 이에 합당한 메시지나 특별행사를 정례화한 교회들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최근까지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 왔다.

이제 ‘교회력’(Church Year 혹은 Liturgical Year)과 교회력에 따라 성경읽기를 배치한 ‘성경정과’(Lectionary)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국교회의 최근 동향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계시된 보다 더 분명한 ‘교회력’의 본질과 그 의미를 공유해야 할 시점에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구신약⁶ 성경으로 읽는 성령강림주일”의 논의는 근원적인 여러 질

6 구약성경을 ‘히브리 성경’(Hebrew Bible)이라 표현하는 국제적 관행과 함께 ‘신구약 성경’이란 한국어 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신약’으로 바뀌어야 한다: (1) 오리겐(185-284)이 ‘구약’과 ‘신약’을 각각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동일시하여, 구약성경은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의 정경이며, 신약성경은 새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정경이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잘못된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고, (2) 따라서 예레미야 31장 31-34절에 유일하게 사용된 ‘새 언약’(베리트 하다샤)이 일차적으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역사적 문맥을 무시하여, 31a절(“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이 지적하는 기존의 옛 언약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마치 부정과 불륜으로 결혼언약 증서가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것으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되고, 각기 차례대로 멸망되었지만, 다시 미래의 통일된 이스라엘로 부활되어 그들에게 주실(겔 37:1-14, 15-28) ‘새 출발’, ‘새 관계’로서의 ‘새 언약’이라는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신약교회에게만 주신 것으로 알레고리 해석을 해왔으며, (3) ‘새 언약’을 헬라어 70인 역본이 ‘디아제케 카이네’로 번역한 것은 ‘언약’이란 단어인 ‘순제케’가 안고 있는 ‘동위’(순) 조약의 문제점보다는 차라리 ‘유언’(디아제케)이란 의미이지만(히 9:16-22 참조), 어디까지나 ‘일방적’(디아) 계약임을 강조하는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된 신학적 이해를 갖지 못하고, 라틴어 성경이 testamentum(유언)으로 잘못 번역한 것을 영어성경이 그대로 사용하여(Testament)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며, (4) 한국어로 성경을 가리키는 관행이 순서대로 ‘구신약성경’이 아니라 ‘신구약성경’이 되어, 마치 성경을 읽는 방식이나(‘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는다’), 선호도나(‘구약보다 신약을 선호한다’; 따라서 교회 출석 시 신약성경만 달랑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 내용상의 우월(‘신약이 구약보다 신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우월하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들을 안고 있다. 첫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행 2:1)로 소개를 시작하는 ‘성령 강림’과 ‘신약교회 탄생’이 ‘오순절’(Pentecost)에 일어났다면, 구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오순절’이란 용어는 언제,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둘째, ‘오순절’은 오순(50일)이 되는 날, 즉 ‘50번째’(Pentecost의 헬라어 어원 ‘펜테코스테’의 의미)의 날이라면, 어느 날을 기준하여 50번째인가와 ‘50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쇄적 호기심을 낳는다.

셋째, ‘50일’은 ‘유월절’(페싸흐)이라는 통칭 아래 그 구성요소로서의 3절기인 유월절(니산월 14일), 무교절(니산월 15-21일), 초실절(니산월 17일)⁷ 중에 정확히 어느 절기로부터 50째 일이 ‘오순절’(시반월 6일)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넷째, ‘50일째’라는 한정어가 요구하는 유월절과 오순절의 불가분리적 상관성 때문에, 오순절 이후의 ‘초막절’(숙코트)이라는 통칭 아래 ‘나팔절(새해)-대속죄일-초막절’로 구성된 절기들과의 관계, 즉 구약의 대표적인 3대 절기(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와 교회력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왜 교회력은 구약의 7대 절기와는 상당히 괴리된 형태로 지난 2천 년을 지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 ‘절기’(모아담)는 궁극적으로 우주창조 넷째 날의 “징조와 ‘계절’(모아담)과 날과 해”(창 1:14)

을 심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류호준, “예레미야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해설”, 『성경의 구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황창기 교수 고희(古稀) 기념 논문집』, 한국동남성경연구원 편 (서울: 그리심, 2012), 173-194, 특히 182-185; 김진섭, “이스라엘 신앙공동체 회복과 성령님의 사역: 이사야 44:1-5를 중심으로”, 『성경의 구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43-172, 특히 146-153.

⁷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하미שמ 욥)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레 23:15-16)의 ‘안식일’이 ‘대안식일’(High Sabbath; ‘샤바트 하가들’)인지, ‘주간 안식일’(Week Sabbath)인지에 따라 초실절의 정확한 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본 논문 5.3. 참조), 유대인 역사에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 주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경우에 정확한 일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일간 초실절을 지켜온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절기의 의미를 해마다 주기적으로 깊이 체득하도록 지구를 23.5도 의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신 것과 상관된다면, 그레고리안 태양력의 교회력과 유대인 월력의 구약 절기,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교회력의 쌍생아'(부활절과 성탄절)를 중심한 모든 교회력의 구약 절기의 관점에서의 평가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초실절'부터 49일간 매일 보리 이삭 한 '단'(오메르)을 하나님께 '요제'(테누파)로 드리고(레 23:9-14), 그 이튿날 첫 '밀' 이삭을 드리는 구약의 '칠칠절'(혹은 '맥추절')과 오순절은 메시아 신학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여섯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 분부하여 이르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는 말씀은 동일한 저자가 밝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두나민 엑스 힘수스; 참조, Salkinson-Ginsburg Hebrew N.T., 오즈 밌마롬)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눅 24:49)는 말씀과 함께 읽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행 2:33)의 실체는 다름 아닌 ‘위로부터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그 당시의 땅 끝인 로마와 스페인(롬 15:23-24)은 물론, 21세기의 전 지구촌에 증거되는 원동력은 성령님의 권능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놀라운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란 고정문구는 바로 “마침내 ‘위로부터 영’(루아흐 밌마롬; 참조, LXX, 프뉴마 아프 힘셀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사 32:15)는 말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

가 오순절 당일의 설교에서 요엘 2장 28-32절을 인용하여 확증한 것처럼(행 2:17-21), 즉각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구약성경 전체의 예언과 더 나아가 구약이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우주창조, 인간창조, 신앙공동체 창조, 왕-선지자-제사장 등의 신앙공동체의 리더십 창조) 전반을 살펴보게 만든다.

일곱째,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되었다면(행 2:1-4), 개혁주의 언약신학이 강조하는 대로 신약교회와 동일한 언약 실체⁸로서의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탄생 역시 오순절로 이해하는 랍비 전통에 대한 자세한 주석을 요한다.

2. 구약의 ‘절기’와 ‘오순절’ 관련 용어들 이해

구약의 ‘절기’를 가리키는 세 개의 용어가 있다: (1) 가장 보편적으로 ‘예정하다’(야아드)란 동사의 파생어인 ‘모에드’(223회)는 ‘예정된 시간’이라는 점에서 여호와께서 ‘정한 절기’의 일반적 통칭이다. 따라서 ‘초하루’(민 28:11), ‘안식일’(출 20:8-11), ‘새해’(나팔절, 레 23:23-25), ‘대속죄일’(레 16장, 23:26-32), ‘희년’(레 25:8-55) 등에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정해진 장소’의 의미도 있어, 성막을 ‘회막’(오헬 모에드, meeting tent)이라 부른 것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야아드) 때문이다(출 29:43).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교회를 ‘Church’라는 이교도적 기원의 용어를 피하고 ‘Meeting House’로 지칭한 것도 이러한 구약배경의 충실한 반영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당

⁸ 참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은혜 언약, 하나님 백성, 율법과 복음, 종말론’의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그 본질적 정체성이 동일하다는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통일신학’(Unity Theology) 논의를 위해, Richard Pratt, “첫째는 유대인에게: 개혁주의 관점”, Darrell L. Bock, et al. *To the Jew First: The Case For Jewish Evangelism in Scripture and History* (Grand Rapids: Kregel, 2008), 김진섭 역, 『첫째는 유대인에게』 (서울: 이스트윈드, 2012), 251-282.

⁹ ‘절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는 성경본문을 위해 참조. 레 23장; 민 28-29장; 신 16장.

은 정한 시간과 장소에 성삼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사 55:6; 고후 6:2; 히 10:25); (2) ‘둘러 춤추다’(하카그)란 동사와 연계된 ‘하그’(62회)는 주로 반드시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는 ‘순례 절기’(유월절-무교절, 맥추절-오순절, 수장절-초막절)에 사용된다(출 23:14-17, 34:18-23). 따라서 ‘둘러 춤추는’ 절기 때에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뻐한다(출 12:14; 레 23:39; 민 29:12); (3) ‘달다, 멈추다’(아짜르)라는 동사의 파생어인 ‘아짜라(5회)-아째레트(6회)’는 ‘절기 회집’을 강조한다(사 1:13; 레 23:36).

애굽의 430년 노예생활에서 형성된 노예근성의 불평-원망-불신앙-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을 12가지 ‘표적(오트)과 기사(모페트)’(출 7:3; 히 10 가지 ‘재앙’이란 표현보다 더 성경적인 이유는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애굽 술객이 만든 뱀을 잡아먹어 애굽 왕조의 상징물인 코브라 뱀을 죽이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두 가지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며’(하카그; 출 5:1, 12:14), 그분을 ‘섬기는’(아바드; 출 7:16, 8:1, 20, 9:1) ‘독수리 민족’(출 19:4; 신 32:11-12), ‘제사장의 왕국과 거룩한 백성’(출 19:6)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는 ‘기념물’(직카론)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후카트 올람)이기에(출 12:14), 본질상 신약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벧전 2:9). 여기에 모든 구약 절기의 진정한 ‘시작자’(아르케고스) 겸 ‘완성자’(텔레이오테스)이신(히 12:2) 신약 모든 교회력의 왕-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계신 것이다.

절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이 있다. 그것은 구약의 농사 월력의 첫 달은 ‘티셔리’(현 9-10월)이기에, 그 1일은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새해(로쉬 하샤나)로서 ‘양의 뿔’(쇼파르 혹은 요벨) 나

팔을 ‘부는 날’(욥 테루아)이다(레 23:24). 새해 10일은 지난 1년의 죄를 금식하며 회개하기에 한국교회의 송구영신예배와 맥을 같이하는 ‘대속죄일’(욥 키푸르)이요, 그 달 15-21일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쉬는 ‘초막절’(숙코트), 즉 ‘수장절’(하그 아시프)이다.

그러나 출애굽의 결정적 계기가 된 유월절은 농사력의 일곱째 달인 니산월 혹은 아빍월(현 3-4월) 14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달을 종교력 ‘해의 첫 달’로 삼으셨다(출 12:2). 따라서 에스겔이 이상 중에 새 성전을 본 연대(주전 573년 4월 28일)는 바빌론 포로 된 지 25년째 해, 예루살렘 함락 후 14년째 해의 ‘첫째 달’(로쉬 하사나; 겔 40:1)로 밝히지만, 이것은 농사력보다 더 오래된 기원의 종교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순절’(펜테코스테)이란 헬라어 용어는 구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하미십 욥)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레 23:15-16)의 ‘오십’(구약 헬라어 70인경, ‘펜테콘타’)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구약의 ‘칠칠절’(하그 사부오트), 곧 맥추의 초실절¹⁰(빅쿠레 케찌르 히팀, 출 34:22)이나 ‘맥추절’(하그 카찌르, 출 23:16)과 동등어이다. 오순절은 보리 첫 이삭이 나오는 유월절의 50일 후에 밀 첫 이삭을 드리는 농사력 시반월(5-6월) 곡식 수확의 종결이다.

비록 구약 헬라어 70인경은 ‘칠칠절’을 여자적으로 ‘헤오르테 헵도마돈’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신구약 중간시대의 헬라어 외경 『토비트』(2:1;

¹⁰ ‘초실절’이란 번역어의 혼란을 유의해야 한다. 유월절 주간 안식일 이튿날로서 보리의 ‘초실절’(레쉬트 카찌르)과 초실절 50일째의 ‘밀 초실절’(빅쿠레 케찌르 히팀, 줄여서 하그 핫비쿠림)이 모두 동일 번역어를 사용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의해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전 2세기)¹¹와 『제2 마카비서』(12:31-32; 주전 124년경)¹²에 ‘펜테코스테’란 단어가 이미 나타나며, 요세푸스(주후 37-100년)의 『고대기』(*Antiquities* 3.10.6 252)¹³와 『유대인 전쟁기』(*Wars of the Jews* 1.13.3 253)¹⁴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신약에 ‘펜테코스테’(Pentecost; 행 2:1, 20:16; 고전 16:8)는 그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로 대체된 ‘문화어’(Kulturwort)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구약의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의 상관성

구약의 ‘칠칠절’(하그 사부오트, Feast of Weeks; 출 34:22)은 ‘맥추절’(하그 카찌르, Feast of Harvest; 출 23:16)로도 불리며, 헬라어를 국제어로 사용한 신구약 중간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순절’(펜테코스테, Pentecost; 행 2:1, 20:16; 고전 16:8)이란 용어로 대체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¹¹ “And when Esarhaddon was king I came home again, and my wife Anna was restored unto me, and my son Tobias. And at our feast of the **Pentecost**, which is the holy Feast of the Weeks, there was a good dinner prepared me; and I laid me down to dine.”

¹² “Then they went up to Jerusalem, as the feast of Weeks [Heb `šrḥ, ‘아짜라’] was close at hand. After the feast called **Pentecost**, they hurried against Gorgias…….”

¹³ “When a week of weeks has passed over after this sacrifice (which weeks contain forty and nine days), on the fiftieth day, which is **Pentecost**, but is called by the Hebrews **Asartha**, which signifies **Pentecost**, they bring to God a loaf, made of wheat flour, of two tenth deals, with leaven; and for sacrifices they bring two lambs; and when they have only presented them to God, they are made ready for supper for the priests; nor is it permitted to leave anything of them till the day following.”

¹⁴ “Now, when that festival which we call **Pentecost** was at hand, all the places about the temple, and the whole city was full of a multitude of people that were come out of the country, and who were the greatest part of them armed also, at which time Phasaelus guarded the wall, and Herod with a few, guarded the royal palace; and when he made an assault upon his enemies, as they were out of their ranks, on the north quarter of the city, he slew a very great number of them, and put them all to flight; and some of them he shut up within the city, and others within the outward rampart.”

첫째, 오순절은 ‘5순(旬)’과 ‘펜테코스테’의 단어 그대로 ‘50번째’란 뜻이다. 무엇에서부터 50번째의 날인가? 레위기 23장 15-16절은 분명히 대답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하미שמ יום)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본문의 ‘안식일 이튿날’이란 구체적으로 보리 이삭 첫 한 ‘단’(오메르, Omer)을 요제로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초실절’(레쉬트 카찌르, Feast of Firstfruits)을 가리킨다.

이 ‘안식일’이 ‘대안식일’(High Sabbath)과 ‘주간 안식일’(Week Sabbath)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는 유대인 학자에 따라 견해가 나누지만, 우리는 주간 안식일의 입장을 택하여, 안식 후 첫날(주일)인 초실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라는 성취와, 동시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는 말씀 역시 초실절의 성취로 이해한다. 따라서 오순절은 흔히 알고 있는 유월절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초실절(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성령강림주일인 동시에(유대인들의 월력은 오후 6시 태양이 지는 시각으로 다음 날이 됨을 참조), 칠칠절(맥추절)의 이튿날이지 칠칠절 자체는 아닌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초실절은 무엇인가? 레위기 23장 9-14절에 명시된 초실절 규례에 따르면, 봄철 첫 곡물인 보리수확과 결부되어 있다. 초실절은 모든 종류의 첫 곡물인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이삭 한 단의 ‘요제’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의 ‘번제’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소제’를 ‘화제’로 드림과,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의 ‘전제’로 드리면서,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것이든 생 이삭이든 새 보리는 먹지 않아야 하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초실절을 통해 어떤 정신이 강조되는가?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킨¹⁵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초실절(신 26: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레쉬트)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신 26:3, 5-10a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신 26:11)는 축제를 가졌다.

비록 성경적 3-4월 절과는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 정신이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 호에 올라 60여 일의 항해 끝에 동년 11월 20일 신대륙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Plymouth) 항에 상륙한 102명의 청교도들에 의해 재현되었다. 여러 가지 위험 속에 그해 겨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자들이 이듬해(1621년) 가을 곡식을 수확하여 그 인디언들을 초대하였고, 추수한 곡식

¹⁵ 여호수아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친 후 지킨 유월절 다음 날까지(수 5:10-12; 주전 1406년 제1월 15일) 계속되었기에, 유월절을 지켰다면 당연히 신명기 26장 1-11절이 말하는 영단번의 초실절을 지켰을 것이다.

과 채소, 과일 등을 놓고, 지나간 1년간의 살아온 과정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가짐으로 현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정신을 공유한다.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수장절(초막절)에 해당할진대, 한국교회에서 성령강림주일과 분리된 채 사라져 가고 있는 ‘맥추절’ 전통을 다시금 성경적 초실절과 맥추절(오순절)에 결부하여, 오늘 여기 나와 네가 함께 살고 있음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감사를 한국교회사적 유산을 되새기며 자녀손들 3대가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는 교회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구약 절기의 빛에서 보는 신약의 교회력(예배력)¹⁶

신약의 교회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을 현재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재현하여 은혜를 받는, 현재화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 현재화된 구속사역으로써 교회력은 과거에 대한 기념과 기억의 신학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의 신학도 포함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과거 초림부터 미래 재림까지를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전 구속역사를 예배를 통해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위한, 교회의, 교회에 의한 ‘신학화 된 월력체계’이다.

여기서 ‘신학화되었다’라는 의미는 성경적 명시적 사실이 교회력의 모든 절기를 다 고증해 줄 수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기록한 성경적 사실과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 ‘사도신경’처럼 성경에 기록된 명시적 기원을 가지지 않더라도, 교회가 예배적 목적을 위하여 역

¹⁶ 이 단락은 이기업, “교회력의 형성”, 『기독교보』 1109호 (2014. 3. 1), 2의 대부분을 우리의 논지의 흐름에 적합하여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용하는 바, 탁월한 논고를 제공하는 이기업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생성하고 신학적으로 발전시켜 온 유익한 ‘교회의 전통’이라는 의미이다. 기독교에 사도신경이 없어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지만,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및 교회에 관한 성경적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역사적이고 권위 있는 신앙 고백문이며,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를 위한, 교회에 의한, 교회의 신앙고백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는 바를 공동체적으로 공교회가 함께 고백하여 풍성한 예배생활을 누리도록 돕고 있다.

교회력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력을 지키지 않아도 성도의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독교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현재적으로 지키고 누림으로 그의 몸 된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예배공동체로 자라가도록 돕는다.

반면 사도신경과 달리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된, 즉 신약(산상설교)과 구약(시내 산 언약)에 각각 기록된 명시적 기원을 가진다. 성경적 기원을 가지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일지라도 예배에서 이것들을 실제 사용하는 문제는 성경적 지침이나 명령이 아닌, 교회 역사 안에서 형성된 예배적 전통에 기인한다.

이러한 예배적 전통으로서, 교회력은 기독교 역사 2천 년 동안을 거쳐서 발전되어 온 교회의 영성이며, 기독교의 예배적 유산이다. 그리고 교회의 신학적, 예배적 전통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력을 지키지 말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교회력은 크게 두 개의 사이클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성육신의 사건을 축하하는 ‘성탄절 사이클’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사이클’이다. 성탄절 사이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관련이 있다면, 부활절 사이클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시고 승천 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승귀하심과 관련이 있다.

1) 부활절과 그 사이클의 발현과 발전: 사순절-부활절-성령강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주간 율력의 첫째 날, 곧 ‘안식 후 첫날’(요 20:1; 참조. 고전 16:2; 행 20:7)을 ‘주의 날’(계 1:10)로 부르며, 매주 주일을 지키는 ‘주간 교회력’은 1세기 중반 전후부터 초기 교회가 지켜 왔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구원 사건과 부활의 날은 완성된 최종 형태로서의 교회력 이전의 교회력의 원시적 형태이며, 교회력의 발전의 중심축이다.

부활의 날인 ‘주의 날’로부터 주간 부활절 사이클과 연간 부활절 사이클, 그리고 교회력으로서 부활절의 온전한 형태인 부활절 사이클로 확장 및 발전된다. ‘교회력의 쌍생아’(부활절과 성탄절) 가운데 ‘교회력의 장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부활절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뒤이어서 ‘교회력의 차자’라고 부를 수 있는 성탄절 사이클이 생성되어서 교회력의 2대 사이클로 발전된다. 이것이 교회력의 발현에 대한 대략의 개요이다.

부활의 날은 매 주간 다가오는 주간 사이클의 초점으로써 ‘주의 날’을 지키는 초기 전통 안에서 연간 사이클로 발전되어 간다. 즉 ‘주간 주의 날’은 주일이며, ‘연간 주의 날’은 부활주일이다. 적어도 문헌상으로는 2세기 중반부터 부활절을 연간 교회력 안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부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주간 예배력으로서 주일은 부활 사건 후 비교적 초기에 생긴 것으로서 ‘즉각적’이라면, 연간 예배력으로서 부활절은 그로부터 약 1세기 후부터 지키게 된다.

부활절은 음력을 의존하는 유일한 교회력의 절기로서, 사도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절기였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절은 지키는 그 날에 있어서 가장 유대적이며, ‘율법적’이며,¹⁷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유월절 양’(실제 양과 예수님) 사이에 의미론

¹⁷ 또 다른 역설로서, 현재 교회력의 ‘금-주일’을 죽음과 부활의 시간표로 이해하는 것

적 연속성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기독교 유월절’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부활절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에 대하여 2개의 서로 다른 전통이 존재했었다.

하나는 모세 율법에 근거한 니산월 14일에 지켰던 ‘퀴르토데시만’(14 번째 날, 레 23:5) 전통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날을 지켰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해 오던 금식을 이날에 중단했다.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은 춘분점을 지난 직후, 보름달이 뜨는 첫 번째 날을 가리킨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무교절’은 실제로 니산월 15일에 시작되는 날이지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니산월 14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직후의 ‘주의 날’에 지키는 전통이다. 주의 날에 지키는 이 전통이 로마 및 서방교회가 지키는 날로 취하게 된다. 이 전통이 3세기 후반부터는 모두를 위한 표준의 날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을 위해 기여한 자는 아프리카의 로마 속지에서 태어난 로마의 첫 번째 주교였던 빅토리 1세(189-198)이다. 빅토리 1세는 부활절에 대한 그의 견해에 반대했던 폴리카르푸스와 같은 주교들과 제휴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기여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제기된 문제는 음력의 ‘십사 일째’의 날이 양력에서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계산법에 있어서도 차이점들이 있었다.

은 유대인의 월력과 문화와 구약의 규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여에서 초래한 것임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함께 더 연구하며 확정해야 할 주요 사안이다.

마침내 니케아 종교회의(325)는 교회들이 그날을 알렉산드리아 계산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활절의 날짜는 춘분점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직후의 일요일에 지키게 되었다(3월 22일과 4월 25일 사이). 현대 개신교회는 이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3세기 초부터는 부활에 대한 축제가 ‘50일간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4세기부터 그 이후 계속적으로 ‘50일째 되는 그날 자체’가 특별한 날로 지켜졌다. 이것은 부활절의 절기의 기간을 의미한다. 부활절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일요일이 성령강림일이 된다. 성탄절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 기간에 부활절의 주간 사이클의 하나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장사되심의 기간을 지키는 ‘거룩한 3일’(목, 금, 토)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고난 및 죽음과 장사되심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주일 직전의 한 주간 전제로 확장하여 ‘거룩한 주간’을 지키는 형태로 발전된다. 그리고 부활절 축제를 지킴에 있어서 초기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날들은 금식함으로 지켰다. 이 기간의 금식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순절을 의미하는 40일간 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확장되었다. 그래서 금식일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기를 준비하는 시간(사순절)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부활절 사이클의 절기인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로 교회력의 장자인 부활절 사이클이 완성되었다.

2) 성탄절과 그 사이클의 발현과 발전: 대강절-성탄절-주현절

4세기경에 와서, 주님의 임하심의 장엄함에 대한 ‘교회적 인식’이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예배적 의식’을 출현하도록 만들었다. 즉 이 말은 성탄절 사이클의 절기들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

절 사이클이 생긴 지 약 2세기 후에 성탄절 사이클이 생겼다. 이런 점에서 성탄절 사이클은 ‘교회력의 차자’(次子)라고 할 수 있다.

성탄절 사이클 안에 있는 절기들을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절기가 시작된 그 시초적인 의도와 목적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배를 통해 기념하는 동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가 생성되면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실제적 기원일 수도 있다. 동시에 또 다른 이유들이 상존하고 있었다. 즉 로마에서 12월 25일(이집트 1월 6일)을 태양의 위치와 관련된 동지 축제를 지켰던 이방종교문화에 대한 대안적인 방식 안에서 변증적인 의도와 목적이, 교회가 지닌 그 시초적 동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점차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는 점차 신학적으로 더욱 뚜렷한 의도와 명분으로 강화되게 된다.

이방종교문화 안에 있는 태양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비유한 태양을 언급한 성경적 표현에 의존하여 ‘신학화’ 내지는 ‘성경화’하는 작업이 교회/교부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런 시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에서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말 4:2)이시며, ‘세상의 빛’(요 8:12)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신학적 노력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도래의 절기에 대한 낱짜와 그 내용 자체를 속도감이 있게,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를 제정함으로 이방종교문화에 대한 변증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출생 및 현현으로써, 메시아의 도래의 절기 자체가 교회에 의해 더 열렬하게 수용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주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교회가 처한 역사적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교회사적 상황을 말하는가? 그것은 4세기경에 아리우스가 주

창한 기독교론에 대한 신학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인하는 니케아 신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아리안 논쟁의 역사적 정황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가 적극적으로 환영을 받은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들은, 아리안 이단을 반대하기 위한 니케아 교리를 주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안정화 작업과 더불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변증적, 신학적 동기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로서 성탄절 사이클 안에 있는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은 점차적으로 발현 및 발전하게 되었다. 시간적으로 성탄절과 주현절이 먼저 생성되었으며, 그 후에 준비의 절기로서 대강절의 절기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절기들의 발현의 순서와 달리, 이 세 절기들의 지킴의 순서는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의 순서대로 지켜왔다. 부활절 사이클의 절기들과도 비교할 때, 부활절 사이클이 성탄절 사이클보다 생성시기에 있어서 200년 정도 앞서지만, 교회력의 지킴의 순서는 성탄절 사이클의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 절기이다. 그리고 성탄절 사이클에서 복잡한 한 이슈는 주현절(1월 6일 또는 1월 첫째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그 내용이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사건을 강조했고,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사건을 강조했다.

이방종교문화적 상황에서 교회의 변증적 동기와 신학적 동기들과 함께 시작된 그리스도의 도래의 절기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되어 오늘의 성탄절 사이클이라는 교회력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5. 구약의 유월절-무교절-초실절의 모형(예언)과 신약의 사순절-고난주간-정사일(釘死日, Good Friday)-부활절의 원형(성취)

1) 유월절(페싸흐, Passover; 출 34:19-20; 레 23:5; 민 28:16; 신 16:1-2, 5-7)

(1) 역사적 배경(출 12:1-13:16)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인 유월절 기사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시작된 바로에게 시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에피소드(7:8-11:10)의 결론에 해당된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포(출 11:5)의 성취에 상당한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음에서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유월절’(12:11, 23, 27)로 명명된 특별 사건임을 설명한다.

출애굽기 12장을 따르면, 니산월 10일(3a절)에 먼저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5절)을 선택하여, 4일 후(니산월 14일) ‘두 저녁들 사이에’[벤 하아르바임, 6절; ‘두 저녁들’이란 니산월 14일 일몰(sunset)과 어둠(dark)의 사이로서, 관습적으로 오후 3시경] 가족 단위(3b-4절; 참조. 예수님과 12제자의 유월절 만찬)로 그 양을 잡되, 뼈도 꺾지 말며(46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7절),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11절) 무교병(맛쯔트)과 쓴 나물(메로림)과 함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가능한 다 먹되(8-9절),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46절), 남은 것은 먹지 못하는 부분과 함께 다음 아침 전까지 불살라야 한다(10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오트]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내가’ 넘어가리니’(우파사흐티, ‘I will pass over’)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13절).

이는 ‘여호와에 의한 (온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파수의 밤’(라엘라 라아도

나이 씬무림, 42절)으로서,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인 ‘초저녁 해질 때’(바아 레브 케보 핫쉐메쉬; 신 16:6), “너희는 이날을 ‘기념’(직카론, memorial)하여 ‘여호와와 절기’(하그 라아도나이, Feast to the Lord)를 삼아 ‘영원한 규례’(혹 카트 올람, Everlasting Statute)로 ‘너희들의 대대로’(레도로테켄) 지킬지니라”(14절, 참조. 42절). 첫 유월절 사건 기록에 사용된 탁월한 대화법은 물론, 같은 문예적 기법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해마다 7일간 무교절을 지킨다(출 12:14-20, 13:3-10). 여러 본문은 무교병과 유월절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한다(출 12:34, 39). 긴급한 출애굽 때문에 출애굽 1주년 후에야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민 9:1-14). 둘째, 무교절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된 어린 양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했다(출 12:24-27, 42-50). 첫 달 14일의 유월절은 그 달 15-21일의 무교절 기간 전날이기 때문에(출 12:18), 유월절은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이튿날의 초실절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무교절 예비일로서의 유월절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셋째, 장자의 보존을 기념하여 장래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해졌다(출 13:11-16). 이런 여러 활동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밤중에’(42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없는 집은 누구든지(만일 이스라엘인이라도) 장자를 멸하시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누구든지(비록 ‘수많은 잡족’(에레브 라브)일지라도(38절)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파수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대대로 해마다 기억하는 절기이다. ‘수많은 잡족’에 해당되는 ‘돈으로 사서 할례 받은 이방 노예’(44절)나 ‘할례 받은 이방 거류자’(48절)라도 참여할 수 있기에, 본질적으로 유월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 공동체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서 함께 감사하는 절기였다. 이스라엘의

출발 기사는 12장 42-50절의 ‘유월절’ 규례에 의해 중단되고, 이 규례는 첫 유월절은 물론 후대 기념을 위해서도(비교. 12:42) 적용된다. 이 단락은 50절이 12장 28절에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끝맺으므로 연대적 배열로 보인다. 해설자의 본문 배열순서를 따라 12장 42절-13장 16절을 함께 묶어, 출애굽을 3가지 방법으로 축하한다: 유월절 재현(12:43-49), 무교절 지킴(13:3-10), 매 장자의 성별(13:11-16).

(2) 유월절 예식의 목적

유월절 예식의 중심은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 고기를 먹는 것이다(12:6-11, 21-22). 이 예식의 세부사항은 제사 규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12:27)는 언급에서 명확하다. 물론 다른 제사들과 유사성이 있지만, 이 예식은 그 독특한 역사적 무대를 반영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이 예식은 아론 제사장 제도 이전에 주어졌기 때문에(레 8:1-9:24),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 제물들을 잡으라고 명한다(12:21). 출애굽 후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중앙 성소나 제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20:24-26, 24:4, 27:1-8). 다른 제사는 일반적으로 낮에 드려지는 반면 유월절은 ‘새벽’에 드리는 바, 이는 애굽인이 이스라엘을 착취함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달의 14일을 유월절로 정한 것은 출애굽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기에 그 달에 가장 적합한 보름달이기 때문이다.

그 양의 피를 사용하는 데 특별한 주의가 요청되어, 각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한다(12:7, 22). 어떤 학자는 이 행동의 호신적(apotropaic) 목적을 강조하여 바깥의 대적하는 세력들에서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비교. 12:13, 23), 혹자는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우슬초”(12:22)와의 관계에

서 제안한다.¹⁸

양을 먹는 중요한 예식 역시 모든 백성이 참여하며, 모든 고기를 다 먹을 만한 적당한 숫자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12:47). 그 고기를 요리하는 특별한 규례는 삶지 말고 굽는 것이다(12:9). 고기는 반드시 집 안에서 먹고 그 뼈는 꺾지 않아야 한다(12:46). 아침까지 남겨진 고기는 반드시 태워야 한다(12:10).

유월절 음식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의 아론 제사장들의 헌신 기사의 요소들과 밀접한 병행을 이룬다. 헌신례의 주요소는 숫양을 잡고, 피를 뿌리며, 그 고기를 먹는 것이다. 유월절에 참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성별하며, 그 양은 백성의 죄를 속하며, 바른 피는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며, 그 고기를 먹는 자를 성별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왕국’으로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19:6 참조).

(3) 예수님이 어떻게 유월절을 성취하셨는가?

구속 사건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유월절과 연결된다. 유월절 죽음의 시간, 유월절 음식으로서의 주 예수님의 만찬, 실제로 죽으심(요 19:36; 출 12:46의 ‘뼈 꺾지 않음의 성취’) 등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8-19절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구약은 양 제사 후에 먹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 죽음 이전에 접수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심이요, 그의 피는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이요, 새 언약의 보증인 주 예수님의 만찬(고전 11:23-32)에서 그 몸을 먹는 자를 성결케 하신다.

유월절은 보리 이삭의 첫 열매의 수확인(레 23:9-14)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일과 연관이 있다(출 13:1-10). 구약에

¹⁸ 우슬초와 정결예식의 관계에 대하여 레 14:4, 6, 49, 51, 52; 민 19:6, 18; 시 51:7을 참조.

서 유월절 절기를 지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구원사적인 의미는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능동적 의’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앞가리개’(창 3:7)를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직접 양 가족으로 만드신 ‘수동적 의’(창 3:21)의 옷을 입히심에서 출발한다. 모든 인간의 능동적 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동적 의에 비하면 ‘생리대’(사 64:6, ‘더러운 옷’(베게드 잇딤)의 원어적 의미, ‘주기들(잇딤)의 옷(베게드)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종교당국자들은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마 26:4)고 결론지었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 사 53:7)이시며,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계 5:6, 12, 13:8)이시기에, ‘반드시’(헬라어 조동사 ‘데이’; 마 16:21)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었다(마 26:2-“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의 흠 없는 어린 양(출 12:5)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고 선포한다.

김하연 박사가 지적하는 대로,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잡은 양은 각 가족의 숫자대로 잡을 때에(출 12:6) 이스라엘 백성 200-300만 명을 위한 어린 양은 20-30명당 한 마리를 잡았어도 족히 10만 마리는 잡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은 여기에 단수 ‘그 양’을 기록한다. 혹자는 이것을 ‘그 양’의 집합적 용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물이 집합적으로 ‘그 양’으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증거는 바울에게서 볼 수 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전 5:7).

율법에 통달한 바울이 깨달은 바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다.”¹⁹

(4) 교회력과 그리스도인의 개인 적용

구약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는 정확하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분명한 사건이다. 유월절 밤을 준비하고(정사의 날), 무교절 한 주간이 시작되고, 주간 안식일 다음 날(오늘날 '부활주일'), 긴 겨울을 지나 아직까지 완전히 여물지 않은 켈리 상태의 먹을 수 있는 첫 '생명의 곡식' 단오메르(Omer)을 요제로 흔들어서 초실절(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레 23:10-11). 이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20-23)로 믿은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인 것이다.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사람들은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대로 행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집에는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집 안에서 먹는 어린 양의 고기는 그 날의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모습이다.

오늘날 교회력이 제정한 사순절-고난주간-정사의 날-부활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엄숙하게 지켜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평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월력 내지 교회력의 출발점이며, 해마다 기억하고 지키는 필수요소이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모든 3대를 잇는 혈통적 가족과 교회의 구성원인 영적 가족에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천사가 볼 때 우리에게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 성찬 때에 무교병과

¹⁹ 김하연, “절기와 교회력 1”, 1106호 (2014. 2. 8), 2.

포도주를 먹는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의 언약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²⁰

2) 무교절(하그 하맛쯔트, Feast of the Unleavened; 출 23:15, 34:18; 레 23:6-8; 민 28:16-25; 신 16:3, 8)

(1)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출 12:15), 첫날(니산월 15일)과 일곱째 날(니산월 21일)에 ‘대 안식일’(High Sabbath)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며 노동하지 않아야 한다(16절). 우리는 민수기 28장 16-25절에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여 빵을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 구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누룩은 하나님과 그 가치관에 정면 반대되는 애굽의 바로와 그 가치관 아래 종살이하던 옛 삶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이 옛 누룩을 벗어 버린 새 신분과 삶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과 무교절 도합 8일간 절대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다(출 13:3, 7). 이것은 누룩을 담았던 집 안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씻고, 문지르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엄청난 주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대인 전통은 유월절 전에 가족 중 한 사람이 각 방마다 누룩 조각들을 놓고, 대청소를 끝낸 후 온 가족은 ‘누룩 찾기’ 의식에 참여하며, 가장은 축사를 하고, 해가 지면 촛불을 켜고 모든 구석과 틈에 숨겨진 누룩을 부지런히 찾아,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되, 그것에 접촉해서는 안 되며, 깃털과 솔로써 나무 스푼에 쓸어 담아 사용한 초와 함께 자루에 넣어 모두 태운다. 가장은 마지막으로 혹시 가족들이 흘려 넘긴 누룩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이제 기쁘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맞는 것이다.

²⁰ 김하연, 앞의 논고.

우리는 이 유대인 풍습 속에서 하나님이 노예근성의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끌어내어(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전환) 은혜와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며, 신분에 합당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인식하게 된다.

(2) 예수님이 어떻게 무교절을 성취하셨는가?

후대에 랍비들은 발효가 시작되기 전에(밀과 물을 반죽하여 밀 속의 누룩이 발효하는데 18분이 걸린다고 결정하여) 음식이 요리된 경우만 이 절기에 먹을 수 있다는 규정을 첨가했다. 유월절 누룩 없는 빵(마조트)을 굽는 데는 랍비들의 엄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 밀접한 감독을 요구한다. 이 특별하게 준비된 누룩 없는 ‘고난의 빵’(bread of affliction)을 먹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상처 받고, 매 맞고, 찢림 받은 것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한 연결이 자명하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bread of life)으로 무교절을 성취했다. 누룩의 부풀게 하고 스며들게 하는 특성으로 인해 그것은 종종 ‘죄’의 상징물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는 죄의 누룩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종 메시아의 위대한 예언(사 53:4-5, 8-10)의 성취를 본다.

유대인들이 무교절이 가까워 출애굽기 23장 14-17절과 신명기 16장 16절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 왔기에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다녔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이것은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보리 계절임과 보리떡은 가난한 자의 음식임을 환기시킨다)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남자만 5천 명

을 먹이셨지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요 6:1-13).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공급하신 ‘만나와 생수’의 역사적 배경 아래, 현장 목격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청중의 응답을 이렇게 증언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 6:32-33).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요 6: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은 계속 담대하고 명료하게 자신은 새로운 모세로서 온 인류에게 양식을 주실 것과, 참된 양식과 음료인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선포하셨다(요 6:47-51, 53-58).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나 심하게 맞아 사람으로서 인식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였다(참조. 사 52:14). 메시아닉 유대인 학자들의 이해를 따르다면, 예수님은 정확히 무교절 첫날의 대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지내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기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담대한 신앙 노출과 신속한 행동들에 의해 유월절 오후 3시에서 대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의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모셔다가, 당시의 관습대로 시신을 씻기고, 자세를 펴서 겨드랑이로부터 발목까지 약 100파운드의 몰약과 알로에 혼합물에 적신 세마포 띠로 단단히 감싸서 시신 보존과 잘 고정시키는 접착의 이중 기능을 갖게 했다. 얼굴은 감싸지 않았지만(요 11:44 참조) 위로 향했고, 머리는 감쌌으며(요 20:7),²¹ 양손은 포개어 가슴에 놓았다. 얼

²¹ “또 머리를 찢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즉 머리 부분)에 ‘찢던

굴, 목, 위 어깨는 노출시켰고, 머리는 베개용인 바위 돌출 부분에 놓았다. 예수님의 시신의 경우, ‘대 안식일’이 곧 시작되는 시점인지라, 정교한 매장이 가능하지 않아 여인들이 ‘주간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얼굴과 목과 어깨에 기름을 붓기 위해 왔을 것이다.²²

(3) 교회력과 그리스도인의 개인 적용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22-24)는 말씀에서 옛 사람 내지 옛 근성을 유대인들은 ‘악한 충동’이라 부른다. 이 죄성은 아담에게서 유전된 것이다. 죄를 향해 굶어지는 이 충동 내지 성향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혼에 비애와 골치를 가져오며, 우리의 몸에 병과 죽음을 가져온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성품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인정하는 대로 죄를 좋아하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는 한 우리는 외부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1-23). 우리의 이 죄짓는 욕망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되셨다. 사도 바울이 ‘벗어 버리라’는 실체는 옷이다. “옷이

대로’(엨틀릿소) 놓여 있더라.”

²² Booker는 초실절이 현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시각을 알리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요 20:1)를 바로 그 시점으로 이해한다: “Since Jesus was already gone from the tomb when Mary got there, this can only mean that He was resurrected at sunset at the close of the weekly Sabbath and the begin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ch was the Feast of Firstfruits. This was on the 17th-18th(p. 49).”

날개다”라는 말처럼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한다. 이 옷은 “육체적인 나사로의 무덤 옷”을 가리키며, ‘육체의 행위들’이라고도 부른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옛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우리는 무교절의 성취로서 예수님과 함께 죄의 옛 사람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초실절의 성취로서 새사람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옛 옷을 벗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죄의 세력이 부서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신다. 그는 우리의 성격도 바꾸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무교절이 우리의 도덕적이며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성별하시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로 무교절을 주셨다. 성경에서 애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조직을 묘사한다. 세상 철학들과 방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이다. 이스라엘이 일단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상, 그들은 다르게 살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세상 체제에서 구출된 우리는 세상의 태도와 방식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다(롬 12:1-2; 고후 6:17; 요일 2:15-17; 벧전 2:11).

유월절이 우리의 ‘칭의’ 입장과 관련되는 첫 단계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무교절은 그다음 단계로서 우리의 개성을 변화시키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라는 성화의 상태와, 초실절은 세 번째 단계로서 그 분리

의 변화가 초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시위되는 성령님의 열매, 즉 ‘헌신’과 관련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마 16:6, 11)이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마 8:15)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 그 누룩은 바로 장로들의 구전적 전통에 따른 ‘교훈들’(마 16:12)이거나, ‘외식’(눅 12:1)이었다. 사도 바울 역시 누룩을 ‘율법주의’로 이해하여, 공동체에 스며들며 악영향을 끼치게 됨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갈 5:9)고 묘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교절(오늘날의 고난주간의 정사의 날 며칠 전과 부활절 이후의 5일간)을 지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특히 무교절)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전 5:6-8)는 권면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3) 초실절(Feast of the Firstfruits, 레위트 카찌르; 레 23:9-14; 민 15:20-21, 18:13; 느 10:35; 겔 44:30)

앞서 살핀 대로 유월절이 칭의와, 무교절이 분리와 각각 관련된다면, 초실절은 헌신과 관련된다.

(1)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

초실절의 자세한 규례는 레위기 23장 9-14절에 명시되어 있다: “9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¹³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쓸 것이며¹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떼이든지 붉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초실절을 가리키는 ‘안식일 이튿날’(11절)의 ‘안식일’은 무교절 어느 요일이나 올 수 있는 ‘대 안식일’(샤바트 하가돌)이 아니라, 토요일의 ‘주간 안식일’(샤바트)이다. 따라서 지금의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초실절이 시작되어 다음 날(일요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월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이방인 신자들이 중심이 된 그레고리안 태양력에 기초한 교회력은²³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금요일 오후 3시로, 부활을 주일 이른 새벽으로 각각 설정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지켜 오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유월절-무교절-초실절의 일정표에 관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이해와 교회력이 현재 지키고 있는 사순절-고난주간(종려주일-정사(釘死)의 성금요일-부활절에 상관된 문제점을 총정리해 보자.²⁴

(1) 니산월 14일(화 오후 6시 직후): 유월절이지만, ‘유월절 예비일’이나 ‘무교절 첫날’(마 26:17), ‘무교절 예비일’(요 19:31; 참조. 눅 23:54; 막 15:42)로 불렸고, 저녁에 ‘일찍’ 유월절 만찬(세데르)을 제자들과 가지셨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출 12:15),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

²³ 영어흠정역(KJV)만이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12장 4절의 ‘파스카’[히브리어 ‘페싸흐’(유월절)의 차용어]를 이교적 전통인 새벽 여신 이스터(Easter)와 연결하여 Easter로 번역하였고, 교회력 역시 부활절을 Easter로 불러 온 것은 구약 절기의 신학 교회력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단절되어 버린 비극적인 실례이다. 부활절은 초실절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새 초실절’(Feast of the New Firstfruits)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²⁴ 참조. Richard Booker, *Celebrating Jesus in the Biblical Times* (Shippensburg, PA: Destiny Image Publishers, 2009), 45-49, 62-63, 72, 84-85.

회로 모이며 노동하지 않아야 하는 바(출 12:16), 니산월 15-21일은 ‘무교절’(레 23:5-6)이지만, 니산월 14-21일 전체 기간을 ‘유월절’, 혹은 ‘무교절’로 부르기도 했다(참조. 막 14:12).

(2) 니산월 14일(수 아침 9시-오후 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양’(코르반 페싸흐)이 성전에서 제사되는 동일한 시간인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운명하셔서,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제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이날은 (무교절) 준비일(즉, 유월절)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메갈레 헤 헤메라 에케이누 투 삼바투)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 했다(요 19:31). 여기에 명시된 ‘그 안식일이 큰 날’은 레위기 23장 11절이 가리키는 ‘주간 안식일’이 아니라, 해마다 월력을 따라 무교절 어느 요일에나 올 수 있는 ‘대 안식일’(샤바트 가둘; 니산월 15일)을 가리킨다.

(3) 니산월 14일(‘대 안식일’의 시작; 무교절 첫날; 레 23:6-7; 요 19:38-42)의 ‘실제적’ 유월절 만찬의 밤이 시작되는 수요일 저녁 6시까지 남겨진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의 새 ‘마위 무덤’(shaft tomb)에 니고데모와 함께 시신을 신속히 수습하게 되었다.

(4) 니산월 16일(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되는 ‘주간 안식일’(에레브 샤바트, Week Sabbath)의 이튿날(니산월 17일)이 되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초실절이 시작된다. 따라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 12:40, 26:2)는 예언을 정확히 이루셔서, ‘주간 안식일’(토요일)의 ‘중결 의식’(합달라, ‘분리’)과 초실절의 시작인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의 초실절(요 20:1; 참조. 마 28:1; 막 16:2; 눅 24:1)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의 해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오직 주후 30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²⁵

(5) 특별히 유대인 관습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온전한 3일(72시간) 동안 맴돈다고 믿었기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완전히 죽은 자’임을 강조한다(참조. 요 11:6, 17, 39).

다시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장사되어 무덤에 수요일(밤 1, 저녁 6시 아침 6시), 목요일(낮 1, 아침 6시 저녁 6시), 목요일(밤 2, 저녁 6시 아침 6시), 금요일(낮 2, 아침 6시 저녁 6시), 금요일(밤 3, 저녁 6시 아침 6시), 토요일(낮 3, 아침 6시 저녁 6시) 계심으로, (1)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절기의 규례들을 성취하셨고(마 5:17), (2) 요나의 ‘3일 3야’의 표적의 증거가 되셨고, (3) 영혼이 3일간 죽은 자의 몸 위에 머문다는 문화적 관습의 증거를 만족시키셨고, (4) 주후 30년의 천문학적 증거와 부합되었다는 것이다.

(2) 49일 동안 매일 ‘단’ (오메르) 계수하기

초실절에 새 보리 이삭의 한 ‘단’(오메르)을 요제로 가져와 하나님 앞에 흔든다. 한 오메르는 지금의 1/2되(갈론) 분량으로서, 어떤 보리 새 곡식을 먹거나 심지어 만지기도 전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서 성전에 가져와야 했다. 이 제물을 또한 ‘오메르’라고 부른다.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오메르 계수’(Counting of Omer)의 시간이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오메르의 첫날이요, 오늘은 오메르의 둘째 날이요, 오늘은 오메르의 50일째 날이요, 이것은 오메르에게 7주 1일이다” 등등으로 계속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동편의 기드론 계곡에 초실절 제물용 보리를 재배하는 작은 밭을 구별했다. 메시아닉 유대인 학자 에텔샤임(Alfred

²⁵ Edward M. Reingold, *Calendar Book, Papers, and Code, Calendrical Calcu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R. Booker 재인용, 48.

Edersheim, 1825-1889)에 따르면, 일몰 직전 늦은 오후에 그 보리 단을 자르는 장소에 대표자들인 리더들을 따라 수많은 예배 군중들이 모여든다. 그들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한다. 그 오메르가 추수된 후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무리들이 성전 산의 제단을 향한 경사지로 올라간다. 이제 공식적으로 ‘안식일 이튿날’이 된 것이다. 보리 이삭 단은 성전 뜰에 옮겨지고, 막대기나 줄기로 탈곡하여 바늘구멍 난 팬에서 볶아 모든 낱알이 불에 접촉되게 한다. 그 오메르는 소량의 올리브 기름과 향료를 섞어 여호와 앞에 흔들고, 한 움큼 취하여 제단에서 태운다.²⁶

이 특별한 예배의 목적은 추수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였다. 첫 열매는 모든 뒤따르는 추수를 대표한다. 첫 이삭을 성별하는 것은 모든 추수를 성별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열납하신다면, 뒤따르는 모든 소산들도 열납하실 것이다. 이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땅과 모든 소산물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청지기인 것이다.

하나님은 50일 동안 왜 이렇게 계수하도록 규정하셨을까? 들판에서 일하는 것은 그 속성상 우리의 영적 본성을 잊게 만든다. 따라서 농부는 이 규례에 의해 자신의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임을 매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림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다.

오메르 계수 규정에는 유대인 3대가 매일 두 차례(기상, 취침), 만 3세에서 임종까지 암송하는 쉼마 정신이 배어 있다. 쉼마 본문인 신명기

²⁶ Alfred Edersheim, *The Temple: Its Ministry and Services* (Peabody, MA: Hendrickson, 1994), 258-259.

11장 13-21절을 암송하자:

“¹³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¹⁴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베이트, ‘그것의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¹⁵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¹⁶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¹⁷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¹⁸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¹⁹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²⁰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²¹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쉼마 본문은 보리 새 이삭을 대표로 하는 농산물이 모든 밭에서 풍년으로 생산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명시한다. (1) 비가 와야 할 때 [‘베이트’, ‘그것(이른 비, 늦은 비, 중간 비)의 때에’] 반드시 비가 와야 하고, 절대 가뭄이나 홍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 (2) 일조량이 적당해야 한다. (3) 가축을 위해서는 들에 풀이 나야 한다. (4) 이 모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가, 또한 얼마나 주변 이웃들이 섬기는 우상을 배격하는가에 달려 있다. (5)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닫혀 비가 없고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는 언약의 저주로 인해 속히 멸망할 것이다.²⁷ 놀랍게도 우리는 레위기 26장이 명시한 저주가 북한 최근 역사의 현장에 구현되고 있음에 두려움과 놀람을 갖게 된다.²⁸

(3) 예수님이 어떻게 초실절을 성취하셨는가?

이미 간략히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성별된 영혼들의 추수의 시작의 선을 긋는 것이었다.

“²⁰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²¹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²²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²³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고전 15:20-23).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마 28:1). 여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태이 에피포스쿠세이 에이스 미안 샵바톤)라는 표현의 히브리적 의미(모짜에 샤바트)는 안식일의 끝자락의 어둠을 가리키는 것이지,

²⁷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신 11:12) 땅이며, ‘이른 비, 중간 비, 늦은 비’가 꼭 와야 할 ‘자기 때에’(베이트, 신 11:14, 28:12; 시 1:3, 104:27, 145:15; 전 3:11; 렘 5:24; 겔 34:26; 비교. 창 2:5-7, 27:27-28, 37; 레 26:4; 호 2:11; 스 10:1)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복을 전제로 한다. 대조적으로 언약 저주로서의 가뭄과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다음의 성구를 참조하라: 레 26:14-20; 신 28:22-24; 왕상 17:1; 대하 6:26-31, 7:13-16.

²⁸ 김진섭,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언약의 복과 저주’의 북한 정황적 적용”, 『성경과 신학』 40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6), 308-368;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사명—역대하 7장 14절과 한국현대사를 중심으로”, 『기독교교보』(2010. 1. 16-2. 13) 5회 연재 및 최근 예정백석 남북통일위원회 제1차 포럼(2014. 5. 29)에서 발표한 “구약성경으로 읽는 남북통일 운동—레위기 26장을 중심으로”, 『예정백석 제1회 남북북통일위원회 포럼 자료집』, 24-56을 보라.

그날이 완전히 종결된 후의 어떤 새벽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요 20:1; 막 16:9-11; 참조. 눅 23:54; 행 20:7; 고전 16:2).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향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요 20:17)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초실절 예식이 거행되는 저녁 시간에 부활하신 것이다. 마치 새 보리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어떤 보리 단도 만지지 않아야 했듯이, 부활하신 인간 예수님의 육신적 단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하늘 지성소에 자신을 아버지께 드릴 때까지는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보리 단은 함께 묶은 여러 보리 줄기들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자신을 드릴 때에, 많은 개인 성도들이 그와 함께 부활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2-53).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롬 11:16).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전 15:42-44; 참조. 51-58절; 살전 4:13-17, 5:9-11; 요 11:20-26). 옅은 벌써 이 사실을 오래전에 성령님의 감동 속에 내다보았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

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

(4) 교회력과 그리스도인의 개인 적용

무교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어 육체적 행동들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 있는 ‘옛 자아’(묵은 누룩)를 벗어 버리는 세상 방식에서의 분리를 강조한다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왕)와 진리(선지자)의 거룩(제사장)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24)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새사람’의 성품으로 옷 입는 헌신을 강조한다. 사도바울은 이 진리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고 선포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고백한다(참조. 롬 6:11-14; 갈 5:16, 22-23, 6:8).

이런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며, 감사하는 자가 된다’(골 3:15).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6. 칠칠절[샤부오트, Feast of Weeks; 맥추절(출 23:16a, 34:22; 레 23:15-21; 민 28:26-31; 신 16:9-11, 16a),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유월절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칭의’에 강조가 있고, 무교절

은 '세상 풍조와 사탄과 육체의 정욕'이라는 3대 노예(엡 2:1-3)에서 해방되고 옛 근성을 벗어 버리는 구별된 삶의 '성화'를 강조한다면, 초실절은 적극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님의 뜻과 인도에 순복하는 새사람의 '헌신'을 강조한다. 이제 오순절은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에서 동행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우리는 이미 칠칠절(맥추절)의 이튿날을 '오순절'이라 부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1)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

칠칠절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 15-21절에 가장 잘 명시되어 있다.

“¹⁵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¹⁶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함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¹⁷너희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¹⁸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 년 된 흙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온 냄새며 ¹⁹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 년 된 어린 숫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²⁰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²¹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유월절이 보리 수확의 시작을 알린다면, 오순절은 밀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이다. 이미 살펴본 대로, 초실절(니산 월 17일)에서 정확히 50일째가 오순절(시반월 6일)이다. 오순절에 주 활동

은 누룩 넣어 구운 두 덩이의 빵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것이다. 이 빵은 밀에서 조잡한 부분을 분리시키기 위해 조심스레 체질한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이다. 요제는 초실절처럼 추수와 매일 양식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몸짓 언어이며, 감사제인 것이다.

후대에 유대인들이 열방 중에 흩어져 살면서 맥추절로서의 오순절 의미는 상실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성립되고 토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내 산 오순절의 기념일로 지켜졌다.²⁹ 이 역사적 사실을 밝혀 주는 유일한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시내 산 언약'이라 부르는 모세 언약이다. 1-2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셋째 달 '그날에'(바욤 하제)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그 산 앞에 진을 치니라"(원문 직역). 니산월 14일 밤에 출애굽한(출 12:31)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 산 사이의 신 광야'에 도착했고(출 16:1), 양식이 바닥나면서 원망하는 회중에게 하나님은 '하늘 양식'(출 16:4; 참조. 요 6:33, '하나님의 떡')인 만나를 아침에, 고기로서 메추라기를 저녁에 각각 내리셨고(출 16:13), 이것은 요단 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유월절(정확히 출애굽 40주년) 이튿날까지만(수 5:10-12) 계속되었다.

본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한 날을 '셋째 달'(시반월; 5-6월) '그날'(1일)로 그들은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게 보물[리 세굴라; 참조. '보물 백성'(암 세굴라; 신 7:6; 14:2, 26:18-19)], 제사장

²⁹ 토라 613계명을 자식에게 전수하기 위해 쓰여진 13세기 스페인의 저자 미상의 「세페르 하히누크」(Sefer HaChinuch, '교육의 책')은 "히브리인이 단지 유월절에 출애굽된 것은 시내 산에서 토라를 받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고, Midrash Rabba Parashat Emor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옛 애굽을 떠나 49일째에 그들이 토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다. 민중은 출애굽이란 육체적 해방에 뒤따르는 영적 해방에 대한 기대감에서 너무나 환호하여, (50일 후) 율법 수여로 끝날 때까지 매일 (오메르를) 계수했다"고 말한다.

들의 왕국(맘레케트 코하님; 참조. 시 114:1-2), 거룩한 나라(고이 카도쉬)”(5-6절; 참조. 레 19:2)로 삼으시려는 ‘내 언약’(5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3절) 받은 것이다. 그날이 바로 시반월 2일이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장로들에게 진술하고(7절), 제3일에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8절)라고 고백한다. 제4일에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반응을 아뢰었고(9절),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 산 ‘위에서’ 함께 만나는 성결의 준비를 위해 2일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10-11절). 바로 그 3일째(11, 15, 16절)가 시반월 6일, 즉 오순절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오순절이 신정국가의 ‘헌법’에 해당되는 토라(율법)를 받은 날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Targ. Jon. to Exod. 19:16; Shabb. 86b; Pes. 68b; Yoma 4b; Ta’an 28b; Yitro 78b; 참조. Tosef. Ar. 1:9).³⁰

출애굽기 19장에서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발생하여 진전되었는가?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 산 언약은 고대근동 제국들 간의 종주권 계약(suzerain treaty)을 배경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종주권 언약만이 아니라, 손석태 박사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여호와-이스라엘 간의 신랑-신부의 혼인 언약³¹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세굴라),³² 제사장들의 왕국(맘레케트 코하님),³³ 거룩한 나라(고이 카도쉬)³⁴”라는 3중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

³⁰ 쿰란의 사해 공동체는 정통 유대교보다 오순절을 더욱 중요시하여, 시반월 15일을 연례 언약 갱신의 절기로 지켰다(1QS 13, 5:78; Jub 6:1121; Temple Scroll 18.10-19.10; 참조. HJP 2: 582).

³¹ 구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선택-언약 체결-언약 파기-언약 회복’이라는 도식화는 신랑이 신부와 ‘약혼-결혼-이혼-재혼’이라는 도식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에서, 시내 산 언약이 여호와-이스라엘 간의 혼인 언약 관계임을 논증하는 손석태,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서울: 솔로몬, 1997)을 참조.

³² 신 7:6, 14:2, 26:18; 시 135:4; 말 3:17; 참조. 딤후 2:14; 벰전 2:9.

³³ 사 61:6; 특히 롬 15:16; 벰전 2:5, 9; 계 1:6, 5:10, 20:6.

³⁴ 한글개역과 개역개정版的 ‘거룩한 백성’이란 번역은 오해의 여지가 크다. 이는 ‘거

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은 새 언약은 신랑과 신부의 혼인 언약이며, 신부로서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남편-아내’의 혼인 언약 같은 성격으로 모세(시내 산) 언약을 맺으심에는 구별된 두 단계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내 언약’(5절; 참조. 신 29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처럼(3절 참조) 믿음(9절)과 ‘순종’(5절)만을 요구하는, 즉 10계명과 기타 규정(출 20-23장)을 의도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여호와와 의도, 의와 공도’(창 18:19)의 수준으로 족장언약의 계승을 의미했다(출 3:6, 15-16; 렘 7:22-23).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산 위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두려워하여(16b절) 산기슭에 머물렀고(17, 19b절), 모세가 그 중재자로 나설 것을 간청하게 되었다(19절, 20:18-19; 참조. 신 5:2-5; 히 12:18-25). 그 결과 10계명을 중심한 ‘언약 법전’이 주어졌고(20-23장; 참조. 겔 20:19-25),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왕국’(6절)은 더 이상 사라지고, ‘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왕국’(22-24절)으로 변천되었다. 이것이 왜 출애굽기 25-40장에 성막 설계와 완공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체 분량의 38%를 차지하며, 레위기서 전체가 ‘제사장 규례’(1-16장)와 ‘거룩한 백성 규례’(17-27장)에 집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유요, 배경이다.³⁵

룩한 백성, 성민’(암 카도쉬; 신 7:6, 14:2, 21, 26:19, 28:9; 사 62:12, 63:18; 단 7:27, 8:24; 뵤전 2:9)과는 의미론적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고이’는 정치적/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한다면「참조.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은혜왕국을 가리키는 ‘큰 나라」[고이 가돌(창 12:2, 17:20, 18:18, 21:18, 46:3; 출 32:10; 민 4:12; 신 4:6, 7, 8, 26:5)], ‘암’은 혈연적 동질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 ‘네 안에서’(베카)라는 수단의 특정성과 ‘모든 족속들’(콜 미셔파호트)이란 목적의 보편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³⁵ 1절의 ‘곧 그날’(제3일)과 11절의 ‘제3일’(욥 켈리쉬)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증을 요한다. 유월절(니산월 14일)에 출애굽하여 한 달 후 엘림과 시내 산 사이의 신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 불평하는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만나를 내리시고(출

하나님의 경륜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가!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대대로 굳어진 노예근성을 가지고, 그것도 ‘중대한 잡족’(출 12:38)과 함께 섞여 나온 오합지졸들을 12가지 표적과 기사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시라’(출 19:4),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서’(신 32:10-11), 마침내 모든 민족 위에 ‘지존’(엘론, 신 28:1)을 만드시기 위하여 유월절-무교절-초실절의 절기와 함께 오순절을 제정하셨으며,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절기들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다.

(2)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시내 산 강림

이스라엘 백성이 니산월 14일 밤에 출애굽하여(출 12:31) 48일 만에 시내 산에 도착하였고(시반월 1일, 출 19:1-2), 5일이 지난 시반월 6일, 즉 오순절(출 19:11, 15-16)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산기슭에 머무는 동안(출 19:16-17; 20:18-19), 중재자 모세는 산꼭대기에서(출 19:20, 20:21)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중심한 언약법전과(출 20-23장) 제사장 제도를(출 19:22-24) 받아 공적인 신정국가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다. 비록 첫 초실절은 출애굽 40년 후(주전

16:1),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며칠인지의 질문을 남긴다. 그 여정 기간은 니산월 2주간과 그다음 달인 이얌르 4주간과 제7번째 주간을 맞는 시반월이요, 유대인 역사에 시반월 6일이 정확하게 칠칠절 다음 날인 오순절이기 때문이다. 모세 율법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창 18:19)가 있었고, 동일한 맥락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시내 산 언약이 맺어졌으나(출 19:3-8의 ‘독수리 날개 강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현(theophany)에 대한 두려움으로(출 19:16-19) 모세의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고(출 20:18-19), 그 결과 율법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온 ‘시내 산 언약과 율법’에 대한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논의에 대해 최근의 역작인 John H. Sailhamer,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Revelation, Composition and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352-354를 보라. 참조. 최근 번역된 김윤희, 『모세오경 신학: 오경의 계시와 구성, 해석과 의미들』(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1406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현되었지만(신 26:1-11),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는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정확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탄생되게 인도하심에는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20)로서 예수님이 정확히 부활하시고, 정확히 오순절에 ‘하나님 왕국’의 구현인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묘마축하신 경륜과 맞물려 있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수반된 기상학적 현상(행 2:1-4)과 즉각 뒤따른 엄청난 결과들(사도행전 2장 5절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행전)과 연계하여, ‘시내 산 신현’(Sinaitic Theophany)이 어떻게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초자연 현상과 뒤따른 결과들은 무엇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질문을 갖게 된다.

시내 산 성령 강림을 묘사하는 본문들(출 19:9, 16, 18-19, 20:18-19, 24:15-18; 신 4:10-14, 5:4-5, 22-27; 삿 5:5; 시 18:7-15,³⁶ 68:8, 144:5-7; 사 64:1-3; 미 1:3-4; 나 1:2-6; 합 3:3-15; 히 12:18-25³⁷)을 살펴보면,³⁸ “산 위에는 ‘불’(에쉬)이 붙어 ‘화염’(에쉬 레하바)이 ‘웅기가마 연기처럼’(케에센 하킵산; 참조. 단 하나의 다른 사건인 창세기 19장 28절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사용) 솟아오르며, ‘천둥’(콜로트)과 ‘질은 흑암’(아라펠)과 ‘번개’(베라킵, 랍피딤)와, 아마도 ‘폭우’(제

³⁶ “여호와와 의 (목)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시 29:7)는 시리아 레바논 산맥을 중심으로 한 천둥과 우레와 폭풍의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목소리’(콜 아도나이)로 묘사함에 서 시내 산의 인격적 임재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³⁷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쑥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히 12:18-19; 참조. 출 20:18-20).

³⁸ 시내 산 신정국가가 탄생에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 다음의 본문은 핵심적인 것이다: ① 공동체 창조: 출 13:17-14:8, 15:8-10; 신 32:6; 사 43:1-44:28; 겔 36:27-28 ② 공동체 보존: 삼하 22:16 = 시 18:16; 사 31:1-3; 시 51:11, 139:7, 143:10 ③ 공동체의 정계와 회복: 사 4:4, 32:15, 34:16, 44:3, 59:21, 63:10-11; 겔 36:27, 37:39; 욥 2:28-29; 학 2:5; 숙 4:6, 6:8. 자세한 논의를 위해, 참조.

렘; 사 5:4; 시 68:9)를 동반한 ‘뻑뻑한 구름’(아난 카베드; 출 19:9, 16)과 온 땅이 ‘크게 진동’(하라드 메오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우 큰 나팔 소리’(콜 쇼파르 하자크)로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강림을 체험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구원적 경외감’(salvific awe, 고대근동의 멜람무(melammu); 출 24:11, 18, 33:11, 22, 34:30; 살전 4:16-17; 계 22:20)과 ‘심판적 공포감’(judgmental terror, 고대근동의 풀룩투(pulutu); 출 19:16, 21, 20:18-19; 계 1:7, 6:15-17)이 병존한다(사 6장; 요 5:29).³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탄생을 알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의 묘사와 일치를 보이고 있음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문구에서, 우리는 유월절(니산월 14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정확한 시각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심)-무교절(니산월 15-21일)-초실절(니산월 17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오순절(시반월 6일;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국가와 신약의 교회의 탄생)이라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일련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의 완전성에 감동한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증거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행 2:2-3), ‘피와 불과 연기’(골 2:30의 인용인 행 2:19), ‘진동’(행 4:31) 등은 시내 산 신현에 나타난 기상학적 현상 역시 바로 성령님의 역사임

³⁹ 참조. ‘여호와/주의 날’은 구원(사 2:2-4)과 심판(사 13:6, 9)의 양면성이 있고, ‘신적 용사’(출 15:3)이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출 14:14) 싸우시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애 2:5) 싸우시는 양면성을 가지신다. ‘(하나님께서) 방문하다’(파카드)의 경우 역시, 상황에 따라 ‘돌보다’(창 21:1; 삼상 2:21)와 ‘값다, 보충하다’(출 20:5, 34:7)의 양면성을 가진다.

을 깨닫게 한다.

비록 중생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유약한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그 밤에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권면하시고, 주님은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고 재차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 기슭에 다 함께 모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보며 들었다면, 제자들 역시 이제 15개국에서 모여든 순례객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성령세례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행 1:14) 중에, 오메르를 매일 계수하면서 기도하던 ‘몇 날이 못 되는’ 10일 만인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구약 전반에서 약속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사 32:15의 인용인 눅 24:49)을 받게 된 것이다.

모세가 시내 산에 머무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인해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지만(출 32:28), 오순절 당일에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세례 받은 제자가 3천 명(행 2:41)이었다. 하나님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으나, 후일에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질 새 언약 백성의 심비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새길 것을 약속하셨다(렘 31:31-34).

(3)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잉태·탄생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한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탄생은 그것을 전후한 이스라엘의 잉태와 탄생, 보존과 심판 그리고 회복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과 더 나아가 구약이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로 확장된다.

구약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핵심 단어인 ‘루아흐’는 전체 389회 사용된 바, (1) 자연계의 ‘바람’(106회), (2) 인간의 ‘호흡, 영, 영의 상태인 감

정, 기질, 성향(슬픔, 변민, 담대 등)(150회), (3) 천상의 '영물들, 악(재앙)의 영'(29회), (4) '성령, 신적 생기와 속성(지혜,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경외)'(104회)의 네 가지 범주로 대별되며, 모두 성령님의 통전적 사역과 관련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1) '자연계의 바람'의 경우, 하나님은 바람의 창조주이시므로(암 4:13) 동풍(sirocco)을 '여호와와 바람'(루아흐 아도나이, 호 13:15)이라 부르며, 따라서 홍해를 가르 '큰 동풍'(루아흐 카딤 앓자, 출 14:21)은 바로 '당신의 콧김'(루아흐 아페카, 출 15:8), '당신의 바람'(루아하카, 출 15:10)으로 번역된 성령님이시다. '사방의 바람들'(아르바 루호트, 겔 37:9)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생기'(루아흐)의 실체는 '나의 영'(루히, 겔 37:14)이신 성령님이시다. 신약에서도 '바람'과 '성령님'은 동일한 '토 프누마'(요 3:8)이며,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급하고 강한 바람'(행 2:2)이 온 집에 가득했다.

(2) 인간의 경우, 땅의 티끌로 빚은 인간의 코로 '생기'(니셔마트 하임)를 불어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으로서 '생물'(네페쉬 하야)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다(창 2:7; 욥 32:8, 33:4, 34:14; 시 104:20; 전 3:19-21). 따라서 성령님은 인간의 육체(호흡, 건강), 정신(용기, 담대, 감동), 영혼(평안, 온전), 기질과 성품(변민, 의심, 분노, 침체)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에 목회상담학, 목회정신병리학, 치유신학에 성령님의 역할 이해를 필요로 한다.

(3) 천상의 영물들의 경우, 사탄(대상 21:1; 욥 1:6-9, 12, 2:1-4, 6-7; 스 3:1-2)과 관련된 '미혹의 영'(왕하 19:7; 사 37:7; 참조. 요일 4:6, 13(토 프누마 테스 플라네스 = 루아흐 핫토아)], '음란의 영'(호 4:12, 5:4(루아흐 제누님), '더러운 영'(스 13:2(루아흐 핫투메아)], '깊은 잠의 영'(사 29:10(루아흐 타르테마)], 여호와와 '악/재앙의 영'(삼상 19:9(루아흐 아도나이 라아)], 하나님의 '악/재앙의 영'(삼상 16:14, 15, 16, 23, 18:10(루아흐 라아)], '거짓의 영'(왕상 22:22, 23; 대하 18:21, 22(루아흐 쉘케르]) 등이다.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루아흐’의 용례(104회)는 신약의 성령론과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우주 창조-섭리-심판 (2) 우주의 중심점인 인간 창조-섭리-심판 (3) 인간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창조-섭리-심판 (4)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족장, 모세-여호수아,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 장로, 지혜자 등) 창조-섭리-심판 (5) 리더십의 중심점인 선지자와 예언 (6) 메시아 예언 속의 성령님.

우주의 경우, ‘형체가 없고’(토후; ‘혼돈’의 원어) ‘거주자가 없는’(보후; ‘공허’의 원어) 상태에 ‘하나님의 영’(창 1:2)이신 성령님이 첫 3일간에 형체를 주시고(낮과 밤(1일), 궁창과 하늘(2일), 땅과 바다와 채소와 과목(3일)), 다음 3일간은 각 공간에 적합한 거주자들을 차례로 주셨다(해와 달과 별들(4일), 어류와 새(5일), 동물과 사람(6일); 참조. 욥 26:13; 시 33:6, 104:30, 147:18; 잠 8:22-31; 사 32:15, 40:13). 인간의 경우는 앞서 이미 간략히 설명했다.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앞서 살핀 대로, 홍해를 가른 ‘큰 동풍’(출 14:21)의 실체는 성령님이시다(출 15:8-10). 후일에 이사야는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그분의 성령님’(루아흐 코드쇼)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라고 반문한다(사 63:11b-13). 동일한 이 기적을 신약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전 10:1b-2)고 이해한다.

말하자면 유월절의 홍해 도하(渡河)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 침례요 신정국가의 잉태(conception)인 셈이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은 신약교회에도 같은 원리인 것으로 이해한다: (1) 홍해를 가른 ‘큰 동풍’(출 14:21)은 바로 ‘당신의 콧김’(출 15:8), ‘당신의 바람’(출 15:10)으로 번역된 성령님이며(사 63:11b-12), (2)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 침례, 즉 중생의 성령세례 격이라는 의미이다(고전 10:1-2, 12:13; 참조. 롬 6:3-4). 즉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행 1:15)이 각자 성령님으로 ‘중생’[영적 출애굽(골 1:13); 초대교회의 잉태(요 20:22-23; 마 16:18-19)]했지만, 여전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마 28:18-20)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오순절 성령세례(행 1:5)로 초대교회가 ‘탄생’됨을 전망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에 결정적 안내자인 ‘구름기둥, 불기둥’(출 13:17-14:31) 역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핀 대로, ‘형체가 없고’(혼돈), ‘거주자가 없는’(공허) 우주의 첫 3일에 형체를 만들고, 다음 3일에 각 공간의 거주자를 만드는 우주창조에 ‘운동하고 계신’(메라헤페트 < 동사 ‘라하프’의 분사형, 창 1:2) 성령님의 이미지가 ‘독수리’라면, 동일한 성령님이 출애굽(잉태)하여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독수리 같이’(출 19:5; 신 32:11-12; 참조. 사 31:5) 보호 인도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립하셨다. 이스라엘은 전적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 탄생, 양육(심판적 징계와 은혜의 구원), 인도, 회복되었다. 참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네샤마)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루아흐)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사 42:5).

제한된 지면으로 상론할 수 없지만, 고대근동 수메르어의 ‘뽁뽁한 구름’[임(IM, 구름) + 두구드(DUGUD, 뽁뽁한)]이란 합성어는 ‘안주’(Anzu)라는 독수리 같은 신화적 새로 여기거니와, 조류의 왕 독수리의 생명은 ‘날

개'에 있기에, 지성소 휘장(출 26:1, 31)과 언약궤 위의 속죄소(출 25:18-20; 히 9:5; 참조. 솔로몬 성전(왕상 6:23-28))를 덮는 영물인 그룹(Cherub)의 날개와 연결되어(참조. 삼하 22:10-11; 시 61:4), '독수리, 그룹, 구름/불기둥'은 모두 성령님의 상징으로 이해된다.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주전 537년 봄, 즉시 성전 재건 지대만 놓고 공사부진(스 3:1-3; 주전 536-530년)과 공사방해로 인한 완전 중단(주전 530-520년)으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시고(학 1:12-15; 스 5:2; 주전 520년 9월), 봉헌(스 6:15-18; 주전 516년 3월)하게 하시는 과정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사실을 하나님은 밝혀 주신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루히 오메 데트 베틀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학 2:5). 이 본문은 ‘출애굽’과 ‘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구름/불기둥’(암무드 < ‘머물다’(아마드))을 연결시키고 있다.

느헤미야 총독 시대 역시 대속죄일(주전 444년 10월) 레위인들의 기도(느 9:19-20)에서도 이 사실을 보여준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루하카 핫토바)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불기둥’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민 9:15-23)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포진’(하나)하고 ‘진행’(나사)함을 설명한다면, 놀랍게도 초대교회를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의 모습 또한 그러하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오이코도메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포류오마이)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의 영도자 모세와 그 수행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70인의 장로 역시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먼저 모세에게 임한 ‘그 영’(하루아흐)으로부터 ‘분배하여’(아잘; ‘partition’) 70인에게 임했고(민 11:17, 25), 성막에 나가지 않고 진에 머문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므로(민 11:26)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소서’(칼라; 민 11:28)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는 놀라운 예언을 선포한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루호)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29).

이스라엘 ‘잉태’의 출애굽(유월절), 초실절에서 오순절을 향한 ‘태동’(quickenings)의 광야 여정, 오순절에 시내 산 언약을 통한 율법(토라) 수여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탄생’, 불평과 원망의 출애굽 세대의 광야 진멸과 광야 차세대의 가나안 정복 정착에서 적어도 1,400년이 흘러 마침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그 위대한 비전, 즉 “성령님을 열방의 만민에게 부어 주사,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노라”는 통 큰 메시지는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의 가슴에도 불을 던지며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보존(징계와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이미 옛새 우주창조(창 1:1-2:3)는 ‘하나님의 영’(창 1:2)이신 성령님이 첫 3일간은 ‘형체가 없고’(토후; ‘혼돈’의 원어)에 대한 해답인 ‘낮과 밤’(1일), 궁창과 하늘(2일), 땅과 바다와 채소와 과목(3일)을 만드시며, 다음 3일간은 첫 3일에 창조된 각 공간에 ‘거주자가 없는’(보후; ‘공허’의 원어) 상태에 대한 해답인 ‘해와 달과 별들’(4일), 어류와 새(5일), 동물과 사람(6일)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신정국가 잉태와 탄생에도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살폈다: (1)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 ‘큰 동풍’(출 14:21)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행 2:2)의 성령님이시다

(출 15:8-10; 사 63:11b-12). (2) ‘육지같이 건넌 것’(출 14:22, 29; 시 66:6; 느 9:11; 히 11:29)은 성령님에 의한 집단 침례와 같아서(고전 10:1b-2, 12:13),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잉태’(conception)에 해당된다. (3) 출애굽과 광야여정에 동행한 ‘구름기둥, 불기둥’(출 13:17-14:31; 민 9:15-23)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고 진행하게 하신’(행 9:31) 성령님 임재의 상징이다(학 2:5; 속 4:6; 느 9:19-20). (4) 우주 창조에 성령님의 ‘독수리 운행’(창 1:2)은 출애굽과 그 여정에 ‘독수리 운행’(출 19:4; 신 32:11-12; 사 31:5; 참조. 사 40:31; 계 12:14)과 맥을 같이한다. (5) ‘구름/불기둥’과 독수리의 ‘날개’는 천상의 영물인 그룹(Cherub)의 ‘날개’와 연결되어(참조. 삼하 22:10-11; 시 18:10) 성령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한다. 따라서 지성소 휘장(출 26:1, 31), 성막 언약궤 위의 속죄소(출 25:18-20, 37:9; 히 9:5), 솔로몬 성전(왕상 6:23-28, 8:6-7; 대상 28:18; 대하 3:11-13, 5:7-8), 이사야의 ‘스랍’ 환상(사 6:2; 참조. 계 4:8), 에스겔의 네 영물 환상(겔 1장과 10장, 3:13, 11:22)에 나타난 ‘그룹의 날개’는 성령님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바람/영의 날개’(칸페 루아흐; 삼하 22:11 = 시 18:10, 104:3; 호 4:19)와 병행되며, 마침내 만 10년 동안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려온 다윗의 체형적 고백처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삼상 20:3; 참조. 삼상 17:37, 30:6)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주(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베셀 케나페카; 시 17:8, 36:7, 57:1, 63:7; 참조. 시 61:4, 91:4; 룖 2:12; 계 12:14) 피하므로, 순교자들의 최후 순간에 맞본 것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확신하게 된다.

성령님에 의해 출애굽의 ‘잉태’와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의 ‘보호’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탄생’된 일련의 과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생했고 예수님의 3년 집중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행 1:4),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지는”(눅 24:49; 사 32:15) 오순절의 ‘성령세례’(행 1:5), ‘성령님의 기름 부음’(행 10:38)을 간구하며 기다림(요 7:39, 20:22; 행 1:13-15, 2:1)과 병행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신정국가로서의 ‘광야교회’(행 7:38)는 인간 편에서는 잉태-탄생의 과정에서부터 초대교회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 간 ‘불평/원망, 불신앙/불순종’으로 점철된 실패의 삶이었다. 초대교회의 ‘면류관’(스테파노스)인 첫 순교자 스테반(그는 결코 흔히 우리가 지칭하는 ‘집사’가 아니라, 초대교회 히브리파 제자들의 지도자인 12 사도에 필적할 만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수장이었다(행 6:5))이 요약한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행 7:51)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청받은 이방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으로 이스라엘은 ‘복 받은 자’임이 거듭 선포되었지만(민 22:6, 12, 24:19),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 음행(우상숭배)과 육적 음행(불신결혼)으로 인해(삿 3:1-6) 인접국가의 침략과 내분의 갈등이라는 ‘올무와 덫과 옆구리 채찍과 눈에 가시’(수 23:13)에 ‘7배 더 징벌’받기를 5번 당하면서도(레 26:14, 18, 21, 23, 27) 결코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 ‘전적 타락과 부패’(사 59:1-8)와 ‘전적 무능’(사 59:9-16a)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 가장 충격적인 실례가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 문턱에서 10지파의 대표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를 따르던 군중들이 철야농성과 신앙의 지도자들(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위기촉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말씀이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 하리라”(민 14:22-23). 여기 명시한 ‘열 번’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으니(출 14:10-12, 15:22-24, 16:1-3, 19-20, 27-30, 17:1-4, 32:1-35; 민 11:1-3, 4-34, 14:3), 놀랍지 않은가! 결국 38년 6개월의 허송세월적인 광야여정 동안

(민 14-20장),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매일 평균 85명꼴로 죽어나간 것이다(한 시간당 7명 시체를 매장한다면, 매일 12시간 장례하는 격; 참조. 시 90편 모세의 기도). 바로 이런 것들이 ‘말세를 만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과 경계’인 것이다(고전 10:5-11).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스스로 깨뜨리는 범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사 1:8) ‘그루터기, 남은 자’(사 6:13, 사 10:22의 인용인 롬 9:27)를 보존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주권적 역사[‘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무능’(사 59:1-16a)의 해답인 59:16b-21]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5)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보존과 성령 강림의 종말론적 약속

우리는 앞에서 다음의 사실들을 재확인했다: (1) 옛새 우주창조(창 1:1-2:3)에서 ‘하나님의 영’(창 1:2)이신 성령님이 첫 3일간 ‘형체’를 주시며(창 1:1-13), 다음 3일간 각각의 형체 속에 ‘거주자’를 주신(창 1:14-2:3) 동일한 방식으로, (2) 성령님은 홍해 도하를 통해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잉태하시고, 시내 산(모세) 언약과 토라를 통해 그 탄생(참조. 광야교회(행 7:38)에 역사하셨고, (3)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중생하고 3년간 집중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약속 하신”(행 1:4),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능력”(눅 24:49; 사 32:15)인 오순절의 ‘성령세례’(행 1:5; 참조. 10:38)로 초대교회(행 2:1-4)와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되는 신약교회가 탄생되고(고전 12:13; 참조. 10:1-12) 보존된다(행 9:31; 요 일 2:20, 27). 또한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잉태-탄생의 과정에서부터 약 1,500년 간(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끊임 없이 “항상 성령님을 거스르고”(행 7:51), ‘전적 타락과 부패’(사 59:1-8)와 ‘전적 무능’(사 59:9-16a)의 절망 속에서 불평/원망, 불신앙/불순종, 영적 음행(우상숭배)과 육적 음행(불신결혼)으로 점철된 실패의 삶이었다(참조.

삿 3:1-6).

우리는 여기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집어삼키고 쓸어 버리기에 ‘더욱 흘러넘치는’(후페르페리쎄우오, 롬 5:20)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보게 된다. 이스라엘 신정국가에 주신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로 구성된 율법(토라)은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나라’(출 19:5-6)로 삼으시기에 적합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갈 3:10)는 판단처럼,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는 원리를 따라서, 모세오경이 결론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해법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신 30:6). 그렇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령할례’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 ‘심령할례’는 예수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을 가리킨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 31:33);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심령할례’를 선지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가정을 이루는

기본단위인 3대에 걸쳐 성령님을 개인의 심령과 가정에 부어 주신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몇 구절만 살펴보자: (1)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사 32:15). 여기 “위에서부터 부어 주시는 영”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행 1:4),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행 1:5)이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눅 24:49)는 실체이다. (2) “이는 내가 갈한 (땅)에 물을 부어 주며, 마른 땅에 시내들을 (부어 주며), 너의 씨(2대)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며, 너의 새 싹들(3대)에게 나의 복을 (부어 주리라)”(사 44:3, 원문사역). (3) “나에 관한 그들과의 내 언약이 이것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네 위에 (임한)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내 말씀들이 네 입에서와, 네 씨의 입에서와, 네 씨의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59:21, 원문사역). (4)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 37:13-14). (5)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욥 2:28-29).

인류 역사에 죽은 것에게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새 창조가 일어났다. 이 새 창조는 자연계나(시 104:30), 이스라엘 민족이나(사 43:1), 열방이나(사 65:17, 66:18), 개인의 심령(시 51:10)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여(사 1:5-6), 완전히 죽은 자로 보이던 포로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물론 이방인까지도 성령님을 통

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의 사역을 선지자들은 대망했던 것이다.

(6) 예수님이 어떻게 오순절을 성취하셨는가?

지금까지 구약의 유월절(출애굽)-초실절[대맥(보리)추절]-오순절(토라와 이스라엘 탄생)의 약속이 신약의 정사일(釘死日)-부활절-성령강림절의 성취로 맥을 같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 가운데, 초림의 예수님을 왜 ‘오실 메시아’(요 4:25; 마 11:3 = 눅 7:19-20; 참조. 요 1:41, 7:27, 31; 시 118:26을 인용한 마 21:9)로, 재림의 경우 왜 ‘장차 오실 이’(계 1:4, 4:8; 특히 시 118:26을 재인용한 마 23:39)로 부르는지의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련의 대속적 사건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 죽음(유월절, 니산월 14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초실절, 니산월 17일), 특별히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에 초대교회 탄생을 향한 성령 강림(오순절, 시반월 6일)에 수반된 기상학 적 현상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의 탄생이 동일하신 성령님의 사역임을 확증한다.

예수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오순절을 성취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3-24). 이는 자신을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한 알의 ‘인간 밀’로 묘사하시기 때문이다. 칠칠절 떡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상징하는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다. 그분 안에는 어떤 조잡한 물질(죄)도 없으셨다. 밀이 빵이 되기 위해 부서지고, 체질되고, 구워지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그러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기에 죽음이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고(계 1:18), 모든 범죄한 인생과는 달리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죽음에 넘겨주셨다가 사흘 만에 도로 빼앗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요 10:17-18). 그의 완전하신 삶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오순절이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날이었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정확히 50일째 날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다.

유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7째 날(시반월 3일; 출 19:1)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다시 그 사흘 후(시반월 6일; 출 19:11, 15-16), 즉 50일째 날에 시내 산 언약과 함께 신정국가가 출범했다면, 이제 15개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율법을 주셨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바로 그 시점에, 고대근동의 70개 국가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창 10:5(야벳의 후손), 20(함의 후손), 31(셈의 후손)]으로 나뉘게 한 바빌론의 언어 혼잡(창 11:1-9)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요 20:19-22), 비록 중생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기에는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그들이었다.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고 재차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기슭에 다 함께 모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보며 들었다면, 제자들 역시 이제 각국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성령 세례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에 힘쓰는” 중에(행 1:14), ‘몇 날이 못 되어’, 오메르를 매일 계수하면서 기도하던 10일 만에,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구약 전반에 흐르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능력’(눅 24:49 < 사 32:15)을 받게 된 것이다.

이미 간략히 밝혔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2장 1-4절은 바로 시내 산 신정국가 탄생의 성령 강림 현상을 묘사

하는 출애굽기 19장 16-20절의 성취이며, 이사야가 시내 산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을 사모하며 간구하였던 기도의 응답이었다: “1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불이 쉴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주 외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5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사 64:1-5).

오순절 시내 산 성령 강림에서 비록 토라를 받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즉 ‘위로부터의 능력’의 실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돌판에 새긴 율법에 실패했기에, 임종 직전의 모세를 통해 ‘심령할례’(신 30:6)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전망했으며, 이사야 역시 ‘전적 타락과 부패’(사 59:1-9)로 ‘전적 무능’하게 된(사 59:10-16a) 언약 백성에게, “너와 네 씨와 네 씨의 씨의 입에 내 말과 내 영(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재확인했다(사 59:16b-21).

고운 밀가루 두 덩이 떡을 요제로 드렸다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새사람”(One New Man, 엡 2:15)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엡 2:18) “새로운 살 길”(히 10:20)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9)는 베드로의 선포 그대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행 6:1-4), 사마

리아인(행 8장), 이방인 고넬료(행 10-11장)로 동심원을 그리며 복음이 확산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취인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죄)을 넣어 만든 두 덩어리(죄인이지만 성령으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 떡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림이 바로 이렇게 현실화된 것이다.

(7) 교회력과 그리스도인의 개인 적용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보았다(요 1:29; 마 3:11; 막 1:8; 눅 3:16).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전자를 해결하셨다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후자를 성취하셨다. 우리는 유월절과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동시에 우리의 살아 계신 메시아, 왕, 주님을 만난다. 성령의 세례가 참으로 필요했던 대상은 비록 3년간 동행하며 배웠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요 14:12).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도 역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행 10:38; 참조. 마 3:16-17; 눅 4:14, 18-19)는 동일 원리였다.

성경이 명하는 ‘하리’ 계명의 최고봉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행 16:31; 비교, 요 16:9)와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이며(요 20:22; 엡 5:18),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기에(고전 12:3), 성령님이 아니면 파멸이라는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 계명의 최고봉 역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말며, 소멸치 말고, 거역하거나 훼방하지 말라”로 볼 수 있기에(엡 4:30; 살전 5:19; 마 12:31-32), 성령님의 신격과 사역에 관한 체험⁴⁰과 동역⁴¹을 추구해야 할 설교자에게는 사활

⁴⁰ 참조. 눅 11:13; 요 3:3, 5; 행 19:2; 유 19.

⁴¹ 참조. 마 10:19-20; 행 1:8, 2:4, 15:28, 20:28; 갈 6:8.

적인 것이다. 영국이 낳은 20세기 최대의 개혁주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M. Lloyd-Jones, 1899-1981) 박사는 이 관점에서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에,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를 에베레스트 산에 각각 비유했다.⁴²

한국교회사적으로 평양대부흥운동(1907년 1월 14-15일)은 미국의 토페가 부흥운동(1901)이나 아주사 부흥운동(1906-1913)의 방언을 성령 체험의 증거로 삼는 오순절주의자들과 관련하기보다는,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1904)과 인도 카시 부흥운동(1905)의 증인인 미국 북장로교 존스톤 선교사가 1906년 10월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도 이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누가 앞장설 것인가?”라는 도전에 장로교 목회자 길선주의 응답과 관련되었음과, 1960년대부터 강하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님의 은사운동’이나, 1980년대에 남한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교회성장학’이나, 21세기에 들어와 영적 침체와 사회적 비하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신적 동인이요 해결자이신 성령님에 대한 활발한 체험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구약의 성령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신약과 다른 신학분야에 비해 너무나 빈곤하고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출간된 저서나 논고에서 자명해진다.⁴³ 이러한 현상은 세계

⁴² D. M. Lloyd-Jones,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7), 355.

⁴³ 오순절 신학자 홀튼(Stanley M. Horton)의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Holy Spirit*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76), 영산연구원 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서울: 서울서적, 1983), 17-88을 시작으로, 해묵은 침례교 신학자 우드(Leon J. Wood)의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76), 이순태 역, 『구약성경의 성령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과 탁월한 개혁주의 필독서인 클라인(Meredith G. Kline)의 *Images of the Spirit* (Grand Rapids: Baker, 1980), 서흥종 역,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형상』(서울: 줄과추, 1999)이 각각 번역되었다. 일본 동경의 루터교 신학대학의 구약교수로서 역사적 비평학설을 수용하는 니브(Lloyd Neve)의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가 필자의 지도 아래 전철, 『구약의 하나님의 영』(M. Div. 학위논문; 서울: 기독교신학대학원대학교, 1999)으로 전문(全文) 번역되었다. 미국 오순절 소장학자인 Wilf Hildebrand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y, Mass.: Hendrickson, 1995), 김진섭 역, 『구약의 성령신학 입문』(서울: 이레서원, 2005)은 우리의 주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입문 필독서이

신학계에서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⁴⁴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주석적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신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봉사신학이 진행되는 성령신학 논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한다면,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만시지탄의 설교학적 관심은 ‘교회의 건 강한 성장과 사명’이란 변함없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활적인 것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7,487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중에서 가장 사활적이고 귀한 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임을 기억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출생’해야 하며, 이것은 ‘혼적 인간’(프수키코스, *soulish*; 고전 2:14)은 반드시 영적으로 출생하는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육적 인간’(사르카노스, *carnal*; 고전 2:1)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성장(*Help me, tell me, show me, and follow me* 4 단계로)에 성령님의 성화적 능력이 필요하며, ‘성령님적 인간’(프뉴마티코스; 고전 2:15)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의 은사적 능력이 필요하여,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어떤 수준의 신앙인이나 모두가 성령님이 절대 요청되기 때문이다.

7. 결론적 제언

우리는 본 논고에서 ‘오순절 성경강림주일’을 교회력의 풍성한 복된 다.

⁴⁴ 1990년대 이후 연대순으로 겨우 다음의 책들로 요약될 뿐이다. J. Rea, *The Holy Spirit in the Bible: All the Major Passages About the Spirit* (Altamonte Springs, FL: Creation House, 1990); Manfred Dreytza, *Der theologische Gebrauch von Ruah im Alten Testament* (Giessen: Brunnen, 1992); Michael E. Lodahl, *Shekinah/Spirit: Divine Presence in Jewish and Christian Religion* (New York: Paulist Press, 1992); Larry D. Pettegrew, *The New Covenant Ministr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Kregel, 1993, 2012); James M. Hamilton, Jr. *God's Indwell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Old & New Testaments* (Nashville: B & H, 2006); Christopher J. H. Wright, *Knowing the Holy Spirit Through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06); David G. Firth and Paul D. Wegner, eds. *Presence, Power and Promise: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11).

절기로 지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결된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1) 구약의 7대 절기는 오순절(칠칠절, 맥추절) 성령 강림을 분수령으로, 봄철 절기로서 유월절-무교절-초실절과 가을철 절기로서 나팔절(새해, 로쉬 하사나)-대속죄일(욥 키푸르)-초막절(숙코트)로 구성되어 있다. (2) 초대교회 탄생의 신호탄인 오순절 성령 강림(행 2:1-4)의 기상학적 현상급 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 “피와 불과 연기”(골 2:30의 인용인 행 2:19), 진동(행 4:31)은 정확히 동일한 성령님의 동일한 신현(theophany; 출 19-20 장, 24장의 ‘불, 화염, 천둥, 번개, 짙은 흑암, 폭우, 뻑뻑한 구름, 큰 진동, 매우 큰 나팔소리’)의 성취로서, 시내 산 언약과 토라(율법) 수여로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탄생된 동일한 시반월 6일이다. (3)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인간 편에서 ‘전적 타락과 부패, 전적 무능’의 우상숭배(영적 간음)와 이방결혼(육적 음행), ‘원망, 불평’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기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언제라도 자멸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었지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그들의 ‘납편’(호 2:19-20)으로서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셔서, 오직 성령님의 심령할례(신 30:6; 렘 31:33; 겔 36:26-27)로서만 가능한 3대를 잇는 ‘대대로’의 영원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사 32:15, 44:3, 59:21; 겔 37:13-14; 욥 2:28-29).

“아버지께서 약속하신”(행 1:4), “성령 세례”(행 1:5), 곧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짐”(눅 24:49 < 사 32:15의 인용)을 “몇 날이 못 되어(실제로 10일) 받으리라”(행 1:5)는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행 1:4; 눅 24:49)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락방’(행 1:13)과 ‘성전’(눅 24:53; 행 2:1)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배후에는 구약역사의 이런 심오한 과거의 뼈아픈 교훈과 미래에의 약속의 소망이 얹혀 있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고를 맺으면서, 다음의 두 가지 요점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레위기 23장 15-21절에 명시된 대로, 초실절(부활절)부터 49일 동안 매일 보리 ‘단’(오메르)을 계수하는 신앙적 풍습이다. 이 특별한 규례의 목적은 모든 추수가 ‘비가 와야 할 때 반드시 비를 주시는’(신 11:14, 28:12)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할 것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유월절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칭의’에 강조가 있고, 무교절은 ‘세상 풍속과 사탄과 심령의 정욕’이라는 3대 노예(엡 2:1-3)에서 해방되고 옛 근성을 벗어 버리는 구별된 삶의 ‘성화’를 강조한다면, 초실절은 적극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님의 뜻과 인도에 순복하는 새사람의 ‘헌신’을 강조한다. 이제 오순절은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에서 동행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절기로서 해마다 대망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령님이 아니면 파멸이다’라는 성령 충만의 사활성에 대한 갈망과 간구의 강조이다. 성경이 명하는 ‘하라’와 ‘하지 말라’ 계명의 최고봉이 모두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고, 인간의 영적 출생-성장-사명에의 전 인생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487개의 약속들 중에서 가장 사활적이고 귀한 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임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매년 성령강림주일을 맞을 때마다 지금까지 개관해 본 대로, 이 ‘영광스럽고 반가운 손님’이신 성령님의 충만을 온 가정과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이다. 아멘!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peruse an encounter of the Old Testament 7 Feasts with the New Testament Church Calendar, mainly focused on the Pentecost. With the introductory remarks and questions (Chap.1) the Hebrew and Greek terms related to 'Feasts' and 'Pentecost' are briefly discussed (Chap. 2). Then the inevitable relationship of the Pentecost with the Passover, Feast of the Firstfruits and Feast of the Weeks (Harvest) is surveyed (Chap. 3). The sub-theme, 'NT Church Calendar in the light of OT Feasts' is explained through the two cycles of the Easter (Lent-Easter-Pentecost) and of the Christmas (Advent-Christmas-Epiphany), respectively (Chap. 4). The types (promise) of 'Passover-Feast of the Unleavened-Feast of the Firstfruits' are compared with the Antitypes (fulfillment) of 'Lent-Passion Week-Good Friday-Easter' in terms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Fulfillment of Jesus the Messiah, and Application for the Church Calendar and Individual Christian' (Chap. 5). For the central feast of the seven feasts as well as the core of this paper, 'Feast of Weeks = Feast of Harvest = Pentecost', seven components are explained: (1) Histor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2) Theophany of the Spirit upon the Mt. Sinai at the Pentecost; (3) Conception and Birth of the Theocratic Kingdom of Israel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Spirit; (4) Preservation of the Theocratic Kingdom of Israel through the Punishment and Salvation by the Holy Spirit; (5) Preservation of the Theocratic Kingdom of Israel with the Eschatological Promise of the Spirit's Advent; (6) How did Jesus the Messiah fulfill the Pentecost?; (7)

Application for the Church Calendar and Individual Christian (Chap. 6). The final suggestive Conclusion (Chap. 7) concludes with reaffirming of the vital importance of not only 'Counting of Omer' for 49 days as a great enthusiastic expectation of the fullness of the Spirit at the annual Pentecost, but also of the daily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in relation to the Rebirth (born-again), daily sanctifying growth and fulfilling his/her own mission with the power and gifts of the Holy Spirit.

주제어(Key words)>

구약절기와 신약 교회력(Old Testament 7 Festivals and Church Calendar)
 유월절(Passover), 무교절(Feast of the Unleavened), 초실절(Feast of the Firstfruits)
 맥추절(Feast of Harvest), 칠칠절(Feast of Weeks), 오순절(Pentecost)
 성령 강림(Outpouring of the Spirit), 오메르 계수(Counting of Omer)
 이스라엘과 교회(Israel and Church), 예수님(Jesus)

항거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정성구 Chung, Sung Kuh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및 대학원(Th. M.)
 - Vrije Universiteit(Drs. Theol.)
 - Geneva College(D. Litt.)
 - Debrecen Reformed University(D. D.)
 -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Ph. D.)
- 총신대학교 학·총장, 대학원장, 신대원장, 목회대학원장
 - 대신대학교 총장·대학원장,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칼빈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약 30년 전 일이다. 국방부 주최로 3개 종파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 대학의 총장들이 함께 모여 포럼을 가졌다. 나는 첫 발제자로서 군종장교, 특히 기독교 군목이 군의 정신력 강화와 신앙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이었던 이기영 박사가 등단하여 발표를 했다. 그는 벨기에 루방 대학교에서 불교의 원효사상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철학계의 거장이며 석학이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니 ‘은총’이니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나 은총이란 말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차별 공격을 했다. 그 자리가 종교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었던 만큼 그냥 듣고만 있었지만, 이기영 박사의 논리가 사실 모든 불신세계 사람들의 논리이며, 천주교와 불교의 일반적인 사고라고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신학자들이나 성도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바울 신학과 어거스틴 신학 그리고 칼빈과 칼빈주의 신학, 즉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과 ‘항거할 수 없는 은총’이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종교가들의 일관된 생각은 자력구원(自力救援)이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진리와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필자는 이 소론에서 “항거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무슨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와 신앙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진리와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외쳐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끼치기를 소원한다.

1.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 토론의 배경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몫이며, 인간의 자유의지(will of free)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견 매우 합리적인 듯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의 대표자는 아무래도 레이덴 대학의 교수 제임스 알미니우스(James Arminius)가 중심이 된 항의파(Remonstrants)일 것이다. 그는 칼빈 사후 반세기가 지나자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학체계에 회의를 갖고, 모든 교리에 인간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도전했다. 이런 교리는 알미니우스가 사망한 후 점차적으로 퍼졌고, 당시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항의파의 교리체계가 전달되었다. 요즈음도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학은 신학이고 설교는 설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학과 교리는 반드시 설교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항의파들의 주장과 설교들은 화란개혁교회에 큰 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 퍼지고 있는 항의파들의 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총회가 이른바 도르트 총회(Dort Synod)였다. 즉 알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자 그의 후계자인 에피스코피우스(Simon Episcopius)가 레이덴 대학에서 그의 뒤를 계승하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1610년에 다섯 개의 항의조항을 발표하자, 여기에 대하여 정통개혁주의자들은 “반동항의”(Counter Remonstrance)를 주장하고 저 유명한 도르트 총회를 소집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르트 총회(The Synod of Dort)는 유럽의 관문인 로테르담에서 남쪽으로 인접한 조그마한 도시인 도르트레흐트(Dordrecht)에서 열렸다.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까지 154회의 총회와 수많은 협의회가 열렸다. 84명의 목사와 18명의 평신도 대표들이 화란의 정통 칼빈주의자였고,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 나사우, 동프리스랜드, 르브레멘 등에서 온 외국 대표는 28명이었다(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다. 프랑스는

대표파송을 약속만 하고 국왕의 출국금지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6개월의 회의 중에 화란의 장관들과 의회의원 30여 명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대로는 대규모 국제회의인데다 도르트 총회는 철저히 성경적 교리를 지켰다. 그것이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 즉 ① 인간의 전적부패(Total Depravity) ② 무조건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③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④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⑤ 성도의 궁극적 구원과 보호(Perseverance and Preservation Saints)이다. 도르트 신경(Dort Canon)에는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진리 해설과 이 진리와 다른 교리들의 오류에 대한 반박문이 첨가되었다(도르트 총회의 회의록은 1621년에 출판되었는데, 초판본이 현 한국칼빈주의연구원 내 칼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 신구약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총’이다

성경의 핵심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일 뿐 아니라 환희와 감격이다.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경륜의 비밀이며, 복음의 핵심이 된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데, 마치 우리 몸의 신경세포나 실타래줄이 머리에서 발끝, 손끝까지 퍼져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신구약 성경의 흐름을 옳게 보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의 은혜 운동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시대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창세기 6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캄캄한 어두움의 시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신·불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혼합되어 거룩한 씨가 사라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무신론적이고 유물적이며, 혼합주의 사상이 세상에 풍미하던 시대였다.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은총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다.

죄악으로 뒤덮여 전혀 소망 없는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것이다. 성경은 노아 개인의 위대함과 경건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 곧 복된 소식이 노아에게 구체화된 것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노아가 받은 은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즉 노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멸망 중에서도 방주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다. 사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창세기의 핵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족장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창세기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계시하신 것이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2)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민수기 6장 24-26절에는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신 내용이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했지만 끝까지 참으시며 ‘은혜’와 자비를 주셨다.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받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때문이었다.

3) 이사야서에 나타난 ‘은혜’의 복음

우선 이사야 49장에서 살펴보자. 6절 후반절에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했다. 하나님은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셨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궁극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빛’이 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구원’을 베풀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메시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였다. 여기서 구원의 날은 곧 ‘은혜’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곧 은혜의

복음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맥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폭이 얼마나 큰 것 인지를 보여준다. 예수님 자신은 은혜란 말을 잘 쓰지 않았지만 그의 삶, 그의 교훈,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와 죽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라는 것은 예수의 성육신(incarnation)을 설명하는 사도 요한의 증거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다. 사실 예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은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요한은 고백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이유는 이미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시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5)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 인지를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자기 부정 곧 “내가 한 것이 아니요”에서 시작하고 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은혜운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우선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8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풍성하게 되었거니와 그 ‘은혜’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6)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다. 사도 요한은 밧섬에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감격하여 마지막 대단원

의 결론을 내리면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다. 이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다. 이것은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운동이며,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한 장강대해(長江大海)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복음은 신약성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운동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이다.

3. 항거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도르트 총회에서 확정된 도르트 신경(The Canon of Dort)은 이른바 ‘TULIP’이라 한다. 그중에서도 항거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는 다섯 가지 교리가 모두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다.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이 사실이고 ‘무조건 선택’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제한 속죄’와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역시 사실이다.

중생에 대한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은 자연인의 전적 타락과 선을 행함에 무능력함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한 돌아서지 못한다. 즉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비록 희한한 이적과 기사를 볼지라도 믿지 못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장로교나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할 것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의 내용은 “구원은 인간이 하기 나름”, “축복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 자신의 결정

과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아마도 성도들의 자발적 열심과 적극적 신앙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듯하다. 즉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이 열매를 맺고, 인간의 결심과 결정이 구원과 축복의 열쇠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5세기의 이단인 펠라기안파들의 내용이고, 절충적인 반펠라기안파들의 논리이며, 또한 17세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법이다.

한편 도르트 총회가 확정한 대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방해받을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알미니안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 사이에는 커다란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알미니안주의는 사건의 순서가 먼저 인간의 신앙행위요, 그 다음이 생명의 은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사건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요, 이 은혜는 신앙인에게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심히 싫어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넣기 위한 행동대장으로 날뛰었다. 그러나 그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으로 살기등등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방법으로 바울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고 꺼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자주 장사 루디아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런 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

항력적 은혜,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도리어 감격, 감사, 확신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서 중생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 무슨 공로를 세워야 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반항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제거하시고 중생케 하시어 새사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므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사실상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요, 중심이다.

그러면 도르트 총회에서 확정한 도르트 신경(Canon of Dort)에 나와 있는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실제로 도르트 신경에는 셋째와 넷째 교리를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다. 그 교리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라는 제목 하에 17장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잘못된 주장을 배격함”이란 주제로 9절까지 내용을 담았다.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논하는 교리 제3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선행을 할 수 없고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생하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고,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 죄악에서 새롭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도르트 신경, 셋째와 넷째 교리 3장).

실제로 항거할 수 없는 은총의 진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이 전제된다. 사실 도르트 신경에서 밝힌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중생이 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르트 신경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스런 뜻을 구약시대에는 오직 택한 백성에게 제시하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여러 민족들 간에 구별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다. 이 구별은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이 자연의 빛을 더욱 잘 사용해 서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과 무조건적 사랑에 기인할 따름이다. 따라서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은 그들은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심하여 낮추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항거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과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는 논리나 합리적 이유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므로 감사하며 겸손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신자들은 불만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도르트 신경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잘못되고 그리스도께서 부족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잘못이 있다…….”

여기서도 인간의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수용 못한다 해도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부패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10장에는 보다 명쾌하게 해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한, 부름에 순종하여 돌이킨 사람들은 그것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돌이킴이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는(마치 펠라기우스의 이단들이 교만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마치 사람들 자신의 결단과 노력과 공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12장의 해설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오직 은혜(Sola Gratia)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시되 죽음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생케 하는 힘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음을 외침으로나 도덕적 권면으로 또는(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후에 인간 편에서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가장 능력 있으며,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라우며 신비스럽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욥 2:9)라고 한 고백을 떠올리게 된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선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성령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에 성도로 하여금 구세주를 믿고 사랑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결국 믿는 것은 인간이니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고 내 결단의 여하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인간의 결단의 의지를 촉구하는 데 매우 그럴듯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특히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은 더욱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엡 2:8). 여기서 다시 도르트 신경 14장을 살펴보자.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 뜻을 따라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정도의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며 영접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의지를 정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뜻이나 행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듯이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이다.”

도르트 신경은 당시에 개혁신학에 대한 도전을 의식하고, 구원은 인간의 자기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항거할 수 없는 은혜임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해설하고 있다. 도르트 신경은 결론적으로 17장

에 이르러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복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케 하는 씨앗으로 또는 영혼의 양식으로 정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사도들과 선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인간의 교만을 없애도록 교훈하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는 거룩한 복음의 훈계를 따라 성례를 지켜 나가고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도록 명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인간과 가까이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구원의 열매와 효력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 중심 시각에서 볼 때,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중심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인정할 때, 교리체계인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는 다른 네 개의 교리와 연결된 결론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5대 교리, 곧 TULIP은 어렵거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교리가 아니라 실로 가슴을 뛰게 하는 구원의 확신과 축복을 주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도르트 총회가 100명의 개혁주의 학자들이 6개월 동안 154회의 회의를 거쳐서 얻은 결론이다. 이것은 바로 신구약 66권의 진리를 간단명료하게 해설한 신경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소론을 작성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확신이 서게 되었다.

Abstract

Irresistible Grace is one of important Doctrine in Dort Canon which took at Dort Synod on 1618/1619, Dordrecht, Netherlands, Irresistible Grace link each other with total depravity and unconditional election and limited Atonement Bible and Reformed Faith taught us that salvation is not any merits of men but only grace.

The teaching of the Scripture is such that we must say that man in his natural state is radically corrupt, and that he can never be holy and happy through any Power of his own. He is Spiritually dead, and must be saved by Christ.

주제어(Key words)>

항거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도르트 신경(Dort Canon)
칼빈주의(Calvinism),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

군선교신학 제12권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¹

A Study o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ological Unity
of Reformed Church

■ 김성봉 Kim, Sung Bong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B. A.)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 Div.)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 M.)
- 독일 뮌스터 대학교 신학부(Th. D.)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현)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WCC 세계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보수 진보가 대타협을 이루어 선언문을 발표하였다.²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염려를 넘어 하나 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며칠 못 가서 물거품이 되고

¹ 본 논문은 2013년 2월 19일 사직동 양의 문 교회당에서 열린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임.

² 2013년 1월 13일에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NCK 총무이며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영주 목사, WEA 총회 준비위원장인 길자연 목사,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삼환 목사가 발표함.

말았다. 그 선언문에 대하여 보수 진보 양쪽에서 선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는데, 그러한 입장 차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학적 지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이 땅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내용들이다. 종교다원주의 배격,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반대, 개종전도 금지주의 반대, 성경 66권의 무오성 천명 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 선언문을 문제 삼는 이들에게는 신앙양심을 저버린 것이며,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사항들이라고 한다.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는 “선언문 중에 특히 개종을 강요하는 전도와 66권 성경의 무오를 주장하는 내용은 역시 21세기 인류 보편의 지성과 함께할 수 없는 반지성적인 주장일 뿐”³이라고 하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경보다 넓고, 교회보다 크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이라고 하였다.

한국문화신학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의 텍스트를 단지 문자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를 감추는 위험한 우상숭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런 성명서를 즉각 폐기시킬 것과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사퇴시킬 것을 촉구하였다.⁴ 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기독교 여성의 이름으로 낸 성명서에서는 “공동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는 4가지 주장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진영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기독교여성들이 간직해 온 신학적 양심과 신앙고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간격이다.

³ 2013년 1월 26일자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공동선언문’에 대한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의 입장에서.

⁴ 2013년 1월 28일자 WCC 총회 준비와 관련된 1월 13일 공동선언문에 대한 한국문화신학회의 입장에서.

⁵ 2013년 1월 24일자 에큐메니칼 기독교여성 성명서에서.

그동안에는 이런 신앙적인 입장 차이를 은연중에 느끼면서도 언급하지 않거나 은근히 숨기거나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번 일로 각각의 신앙 입장이 대명천지에 드러나게 되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가능한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신앙 입장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더 이상 성경에 매이지 않는 신앙 입장이다. 심지어 대놓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대하며 성경을 거슬러 행하는 신앙 입장도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에 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땅의 성경적 개혁파 교회 목회자·교인으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연합 활동에 임하여야 하며, 어느 정도의 신학의 일치성을 기대하여야 할 것인가?

1. 너무나 넓은 기독교의 범위와 최소한의 신앙의 일치

기독교란 이름 아래 로마 가톨릭, 그리스·러시아 정교회, 성공회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 사이비까지 들어 있다. 너도나도 “예수! 예수!” 부르고 십자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 기독교란 이름만 믿고 연합을 시도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연합은 좋은 것이지만 신앙고백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무분별하게 처신하는 연합은 백해무익하다.

사도신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정도를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신앙의 일치라고 여기고 싶다. 이런 최소한의 선으로도 배제되는 그룹들이 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와 증인이나 유니테리언적 기독교가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놀라운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현대 지성주의에 물든 기독교이다. 이번에 문제

가 된 선언문의 경우를 통하여 쌍방 간에 이 정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일치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벌써 한 세기 전에 메이첸(G. Machen)이 이미 이런 신앙 입장을 가리켜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라고 선언한 것은 통찰력 있는 선언이라고 여겨진다.⁶ 메이첸은 그의 책에서 “자유주의는 고립된 부분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와 상이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근간으로부터 파생한 것”⁷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그는 신앙의 시시비비를 제대로 따져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전통적 어구들의 경건한 음향만을 향락하면서 그들의 의의에는 무관하거나 혹은 ‘논쟁적’ 문제에 있어서는 외축(畏縮)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독교는 인생의 충격 속에서는 도저히 존립하지 못할 것”⁸이라고 갈파하였다. 메이첸의 때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날 전통 있는 교단들이 외적으로는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가지면서도 내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교회 일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연합의 최소한의 선도 사도신경을 문자대로 믿고 고백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다 포괄적인 신앙의 일치

사도신경 정도의 신앙고백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으로 신앙고백을 공유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보다 세밀한 내용들에 대하여 고백을 같이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개혁신교회의 전통 있는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다. 이런 신앙고백서들을 공유할 경

⁶ 메이첸, 『기독교와 자유주의』, 조동진 역 (서울: 크리스찬헤럴드사, 1972).

⁷ 메이첸, 역자 서문에서.

⁸ 메이첸, 13.

우에는 개혁신앙 중에서도 이미 엄밀한 개혁신앙에 서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이상적인 교회 연합은 이런 정도의 신앙고백을 공유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상 교회의 불완전함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이 정도의 신앙고백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선에서 신앙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어려움 없이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적한다면 신앙고백의 완전 일치를 고집하며 배타적으로 처신하는 경우이다. 화란의 캄파위스 교수는 화란 교회가 자칫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깨우치는 글을 남겼다.⁹

캄파위스 교수는 이런 주제를 믿음의 통일성과 신앙고백의 다양성이란 표현으로 다루었다. 화란 교회는 전통적인 개혁신앙의 고백들에 익숙해 있는 교회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서와 도르트 신령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후대에 이국땅에서 나온 낯선 고백서이다. 네덜란드 교회는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교회와의 교제에서 이런 문제를 느꼈고, 다음으로 동일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택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교회들과 다시 교회적인 사귀기를 갖기 시작하였다. 이런 교제의 연장선상에 한국교회(고신교단)와의 교제가 있다. 1972년의 하템 총회에 두커스 박사와 판 휘름 목사의 한국방문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기쁨으로 발견함”이라고 제목이 붙은 그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언어와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 철저한 개혁신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를 찾은 것은 우리 눈에 기적처럼 보였다. 그들은 우리를 무척 환대하였다. 우리 편에서도 그 교회들을 알

⁹ 캄파위스, 『개혁신앙 그리스도인과 신앙고백의 특징』, 2009(2판), 성약.

아가면서 매번 놀라고 기뻐하였다.”¹⁰

캄파위스 교수는 한국교회(고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 가운데 네덜란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한국의 장로교회(고신)와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¹¹

캄파위스 교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역사 초기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였던 교회들 가운데 ‘다양한 신앙고백서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신앙고백서가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자매교회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서로의 신앙고백서를 인정하였고, 신앙교육서인 요리문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었고 또한 제네바 요리문답이 있었는데, 이처럼 다양성이 확실하게 존재했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한다.¹²

캄파위스 교수는 믿음의 일치 안에 큰 다양함이 있었던 실례로 도르트 회의를 말한다. 대표를 파견하여 보낸 외국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도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하나 되는 고백서’로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주교를 수석대표로 파견한 잉글랜드 교회는 1571년에 의회가 채택한 이른바 ‘39개조’로 그들의 믿음을 표명하였는데, 이 39개조는 종교개혁이 낳은 최초의 신앙고백서들 가운데 하나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루터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인 멜란히톤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브레멘 신앙고백서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팔츠에서 온 형제들은 물론 네덜란드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소유하였지만

¹⁰ Acta Hattem(「하템 총회록」), 382, 캄파위스 37쪽에서 재인용.

¹¹ 캄파위스, 36.

¹² 캄파위스, 41.

그들은 그 외에도 불링거가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도 그들의 신앙고백서로 받고 있었다. 바젤은 그것 말고도 이미 1534년에 작성한 자신들의 오래된 신앙고백서도 채택하고 있었으며, 제네바 대표는 칼빈이 1541년에 작성한 요리문답을 자신들의 신앙고백 문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교회들과 대표자들이 도르트 회의 당시 네덜란드 교회를 지지한 셈이라는 것이다.¹³

캄파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주제를 요약하였다. “개혁교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언어가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말씀과 성신으로 그분의 백성을 모으심을 믿는 까닭에, 교회들이 서로 다른 고백서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일치가 침해될 받거나 믿음의 일치를 실천하고 유지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¹⁴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캄파위스 교수가 말하는 믿음의 일치를 보장할 수 없는 기독교가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에 있다. 앞서 언급한 선언문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이미 보았듯이, 더 이상 동질로 여길 수 없는 신앙 내용들이 기독교란 이름 아래, 심지어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란 이름 아래 공존하고 있다. 수 세기 전 도르트 회의 당시에 화란 교회를 비롯하여 각지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화란 교회 내에 새롭게 제기되었던 인본주의적 신앙에 대하여 그 이질성을 지적하고 경고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질적이라고 지적되었던 바로 그 정신과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세를 이루다시피 확산된 것이다.

3.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

성경적 에큐메니즘에 근거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¹³ 캄파위스, 44-45.

¹⁴ 캄파위스, 46.

제안하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종교개혁 당시의 불링거와 칼빈 그리고 현대의 반틸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⁵

1) 불링거(Heinrich Bullinger)의 에큐메니칼 정신¹⁶ - “Consensus Tigurinus”에 근거하여

불링거는 종교개혁 이후 계속되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개혁을 이룬 교회가 다시 분열되고, 유럽 전역에서 신학자들 간에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면서까지 맹렬한 신학적 다툼이 지속되는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다. 불링거는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유럽을 침공한 것과 관련하여 그 한 이유로 교회의 분열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불링거는 1575년 9월 17일 1년 내내 방광염과 신장염으로 인하여 완전히 여위고 힘을 잃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도 취리히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 교회를 이루며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을 호소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분열을 늘 안타깝게 여겼던 불링거의 교회연합을 위한 정신은 1549년에 칼빈과 성만찬론에 대해 합의한 “취리히 일치서: Consensus Tigurinus”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다. 당시 성만찬론의 차이로 인하여 츠빙글리주의와 칼빈주의로 분리되어 있던 스위스 내의 교회들은 이 문서를 통해서 ‘개혁주의’라는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 16세기 중반 당시 다양한 개혁주의 흐름들을 한 방향으로 이끈 매우 가치 있는 신앙고백서로 간주된다. 그 이후로 이 “Consensus Tigurinus”의 영향은 가깝게는 1559년과 1563년 사이에 프랑스, 스위스, 독일 그리고 영국에서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멀게는 동유럽의 다양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과 1648년

¹⁵ 정두영은 그의 논문에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즘을 주장한 인물로 칼빈과 반틸을 꼽고 있다.

¹⁶ 이 부분의 논의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불링거를 연구하고 귀국한 박상봉 교수의 논의에 의존한다.

영국에서 발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까지 뻗어 있다.

1529년 마르부르크 종교회의(Malburger Religionspraech)에서 합의되지 않는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성만찬론에 대한 갈등은 결과적으로 1555년 9월 29일에 체결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함께 루터주의 교회는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 재세례파(와 개신교 이단들) 그리고 유대교는 거부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협정(Augusburger Religionsfriede)을 발생시켰다. 동시에, 그 갈등은 루터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에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과 관련한 기독교론 논쟁의 전제가 되었던 1551년부터 1562년까지 지속된 처음 칼빈과 요하킴 베스트팔(Johachim Westphal) 사이에, 이후에는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 행해진 소위 ‘두 번째 성만찬 논쟁’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개신교 내의 분열로부터 먼저 개혁주의와 루터주의 사이의 고정된 신학적이고 교회정치적인 긴장관계가 발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신학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규정된 교회 정체성이 다양한 신앙고백서들을 통하여 교리적, 교회규범적 그리고 전통적으로 고착화된, 또한 종교적인 생활방식, 인간성(윤리성) 그리고 문화적 특징을 형성한 개혁주의, 루터주의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들의 숙명적인 신앙고백화(die Konfessionalisierung)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 속에서 1549년 칼빈과 불링거(취리히 목회자회) 사이의 성만찬 합의를 통해서 정리된 “Consensus Tigurinus”¹⁷는, 비

¹⁷ 원본: CONSEN / SIO MVTVA IN RE / SACRAMENTARIA MINI / strorum Tigurinae ecclesiae, & D. Io / annis Caluinis ministri Geneven / sis ecclesiae,.....TIGVRI EX OFFICINA / Rodolphi Vuissenbachij. / M.D.L.I., (Heinrich Bullinger Werke, 1. Abt.: Bibliographie, Beschreibendes Verzeichnis der gedruckten Werke von Heinrich Bullinger, bearb. Joachim Staedtke, Bd. 13, Zuerich: TVZ, 1972 (이하 *HBBibl I*), 624650; 취리히 중앙도서관: Sign. D 263 / III N 157 / Ms. S 71.); Jean Crespin에 의해 인쇄된 제네바 문서 (제네바 중앙도서관: Sign. Bc 888); 칼빈의 비서인 Charles de Joinvillier에 의해 필사된 문서 (제네바 중앙도서관: Sign. Ms. Fr. 145, S. 87r94r); 편집된 문서들: CO. VII, 733748;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hg. Peter Barth, Wilhelm Niesel und Dora Scheuner, Muenschen: Chr.

록 개신교 내에서 루터주의 교회와 완전히 단절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인식된다고 해도, 오히려 지역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는 츠빙글리주의와 칼빈주의로 분리되어 있던 스위스 내의 개혁주의 교회의 일치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고백서는 급박한 정치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면에서 칼빈이든 불링거든 당시 분열된 교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교회연합적인 노력 아래서 산출되었다는 점이 귀하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시대의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추구한 교회들 사이에서 특징지어진 교회연합적 노력들과 관련하여 표명되지 않으면 “Consensus Tigurinus”의 가치는 정확히 이해될 수 없다. 칼빈과 불링거 사이의 상호적 교회연합의 열망 속에서 교회 외교적 평화문서로서 이 신앙고백서가 도출될 수 있었음이 기억되어야 한다.

위의 전제 속에서 “Consensus Tigurinus”는 신앙고백적인 논쟁 안에서 부정적 의미 아래 놓여 있었던 ‘칼빈주의’ 혹은 ‘츠빙글리주의’라는 꼬리표를 잠정적으로 떼어낸 결과를 가져왔다. 이 성만찬 일치서는 칼빈에게 있어서 앞선 종교개혁자들의 영역 안에서 그의 분명한 위치를 찾게 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결과적으로 츠빙글리 독일 남부적 종교개혁을 소위-취리히와 함께 제네바 역시 종교개혁의

Kaiser, 1926/1959, 2, 246258; Rgistre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ve au temps de Calvin 1546/1533, Bd. 1, hg. von JeanFranois Bergier, Genve: Droz, 1962, 6472; CalvinStudiengabe, hg. Eberhard Busch u.a., Bd. 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2 (이하 CStA.), 1216; Reformierte Bekenntnisschriften, hg. im Auftra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von Heinrich Faulenbach und Eberhard Busch, Bd. 1/2 (1535/154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6 (이하 Bekenntnisschriften 1/2), 481490; Mueller E. F. Karl,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Leipzig: Deichert, 1903, 159163, Consensus Tigurinus, hg. Emidio Campi & Ruedi Reich, Zuerich: TVZ, 2009, 75170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원본) / 184268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현대어 번역본). 이 일치서가 “Consensus Tigurinus”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 때이고, 16세기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라틴어로는 “Consensio mutual in re sacramentaria”로, 독일어로는 “Einhelligkeit”로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Accord”로 불렸다. Georg Benedict Winer, Comparative Darstellung des Lehrbegriffs der verschiedenen christlichen Kirchenparteien: nebst vollstndigen Belegen aus den symbolischen Schriften derselben in der Ursprache, Leipzig: Reclam, 1824, 18.

한 중심적 도시로 자리매김 되는 ‘개혁주의적 종교개혁’(die reformierte Reformation)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다.

즉, 칼빈은 취리히와 성만찬 합의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개혁주의’(das Reformiertentum)라는 이름 아래서 츠빙글리 남부 독일 종교개혁에 편입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개혁주의 성만찬론에 대한 대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불링거는 칼빈과 함께, 또한 그의 죽음 후에는 베자와 함께 공동으로 유럽 전역의 개혁주의 교회의 확산과 안정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화란,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항상 취리히와 제네바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불링거는 칼빈과 성만찬에 관한 대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전 스위스적인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길 원했으며, 더욱이 모든 종교개혁 도시들로부터 인정받는 보편적 성만찬 신학을 정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하여 불링거에게 있어서 “Consensus Tigurinus”의 도출은 단순히 칼빈과만 이룬 성만찬 사고의 일치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츠빙글리, 외콜람파디, 부처, 무스쿨루스, 파렐 등의 성만찬 입장들의 집약, 절충과 합의를 의미한다.

위의 모든 논의들 속에서 “Consensus Tigurinus”에 근거한 불링거의 교회연합을 위한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칼빈과 불링거의 긴 신학적 대화를 통해서 도출된 “Consensus Tigurinus”에 다양한 지역들의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서명을 한 것은 그 표명된 내용이 모두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한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포기되어서는 안 될 신학적 적정선에 근거하여 동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성만찬에 대한 일치된 내용을 이루기 위해 칼빈과 불링거 사이에 신학적 절충과 합의의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 이는 모든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의 형성적 특징이기도 하다: 1580년 6월 25일에 출

판된 루터주의 교회 신앙고백들의 모음집인 『일치서』(Konkordienbuch)가 루터 사상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면, 반대로 개혁신주의 교회의 다양한 신앙고백서들 안에서는 칼빈이라는 한 신학자에게만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들은 그 기원에서부터 교회의 정통적인 신학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개혁신주의 신학자들 상호간의 교류 속에서 협의되고 절충되어 몇몇 인물들이나 공적인 회집을 통해서 정리되었다. 즉, 개혁신주의 신앙내용이 종교개혁 당시에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서 표명되고, 그들 상호적인 신학적 교류들과 영향들 속에서 뿌리내리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Consensus Tigurinus”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의 추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두 종교개혁자들의 진실된 신앙고백의 산물이다.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각자의 신학적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것이다. 즉, 칼빈과 불링거 사이에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에 근거한 신학사상의 조화와 한 교회를 추구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로부터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성만찬 합의 이면에 칼빈과 불링거 사이에 신학적인 본질(die theologische Substanz) 안에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신학적이고 교리사적인 의도(die theologische und dogmengeschichtliche Intention) 안에 놓여 있는 몇몇 신학적 사고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각자의 독립된 길을 걷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인격적 성숙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사람은 유럽과 스위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대한 신학과 교회문제들에 대해서 평생을 두고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정보공유를 시도하였다.

2) 칼빈의 교회연합 원리

칼빈은 “교회라는 명칭은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무리를 지칭한다”¹⁸고 하였다. 교회를 ‘공동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나뉘지 않는 한 여러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 한 몸이 되며 한 성령 안에 거하라”고 말한 것(엡 4:4)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결국 형제 사랑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²⁰고 칼빈은 말하였다. 즉 그가 말하는 연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리스도가 핵심을 이루는 신앙의 기본원리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교회분리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때뿐이다. 말하자면 칼빈에 있어서 교회연합의 조건은 동일한 신앙고백 즉 믿음의 일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소한 지엽적인 교리적인 차이를 빌미로 교회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는다. 칼빈에 있어서 모든 교리가 다 동일한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칼빈에 의하면 교리 중에도 “신앙의 보루”(citadel of religion)라고 부를 수 있는 교리들이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 등의 교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교리가 부정당하게 되면 목구멍이 꿰뚫리고 심장에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는 틀림없이

¹⁸ J. Calvin, *Inst.*, IV.i.7.

¹⁹ J. Calvin, *op. cit.*, IV.i.3.

²⁰ *Ibid.*

죽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리들은 필수적 교리의 요약이요 본질적인 것들이므로 모두가 이의 없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된 교리가 아닌 사소한 교리들은 폭넓게 용납되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문제들, 지엽적인 교리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갈라서는 안 된다. 인간은 다 무지로 인해 조금씩은 마음에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전체에 문제가 되지 않고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는 교리들에 대하여는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²¹

3) 반텔의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즘

반텔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큐메니즘과의 만남을 벗어날 수 없다”²²고 하였다. 반텔에 의하면 에큐메니시티의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장막과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경배하는 무리들(계 7:9) 사이에 일어났던 바와 일어날 사실을 담고 있다”²³고 한다. 그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많은 무리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무리들은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이처럼 에큐메니즘도 믿음 안에서 에큐메니즘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세상의 온 민족들이 그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될 언약준수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자’(the Remnant)”²⁴이다. 그에 의하면 “비성경적 에큐메니즘은 ‘인간적 공로에 의한 구원’에 근거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공적에 의한 구원을 근거로 한 교회는 필연적으로 ‘은혜로만 말미암는 구원’을 공언하는 자들을 배제시키게 된다.”²⁵

반텔이 보기에 현대의 에큐메니즘은 비성경적 포괄의 원칙과 비성

²¹ *Ibid.*, IV, i, 12; IV, ii, 1.

²² C. 반텔, “개혁신앙과 에큐메니즘,” 《에큐메닉스》,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편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446 이하.

²³ *Ibid.*, 447.

²⁴ *Ibid.*, 451.

²⁵ *Ibid.*, 455.

경적 배제의 원칙 모두를 가지는데, 이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흔히 인용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안에서의 하나 됨을 기원하셨다는 것을 잊는 경향이 있다”²⁶고 하였다. 그가 현대의 에큐메니즘을 비판하면서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먼저는 모든 개신교 교회들의 통일을, 그 뒤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치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 모든 종교적 신념들로 하여금 ‘불타’나 ‘그리스도’가 그 확신이 되는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공통의 이상을 향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²⁷이라고 한 것은 귀담아들어야 할 비판으로 여겨진다. 개혁신학자인 반틸은 성경적인 에큐메니즘을 주장하면서도 비성경적 포괄주의로 인해 주의 만찬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하는데,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가리켜 에큐메니즘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 즉 “역사적 개신교의 에큐메니즘관”(the historical Protestant view of ecumenism)²⁸이라고 한다.

4. 연합 활동의 바람직한 자세

에큐메니칼은 WCC 진영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 정신은 본래 성경으로부터이다. 신약은 기독교인들의 일치에 대하여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20-26절은 기독교인들의 일치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변증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즐겨 애용하는 구절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했는데, 바로 이 정의가 오늘날 에큐메니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²⁶ *Ibid.*, 460-461.

²⁷ *Ibid.*, 465.

²⁸ *Ibid.*, 458.

의 교회의 연합에 대하여 말하고, 다음으로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연합과 선교사역을 위한 교회의 연합에 대하여 말하고, 신앙고백을 확인하며 당면한 사안에 따라 포용의 폭을 조절해야 할 것과 불관용과 관용을 동시에 활발하게 발휘해야 할 것을 말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연합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서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²⁹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개념과 동일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신약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는데(고전 12:27; 엡 1:23, 4:12), 이 칭호는 교회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강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간의 연합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³⁰

로마서에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묘사가 사용될 때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고린도전서 12장 12-3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로마서 12장 4-5절의 내용을 확대한 개념으로서 교회의 단일성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굳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고전 1:12)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³¹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지체 상호 간의 관계보다 오히려 몸과 머리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머리 없이 몸이 있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으며,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가질 수

²⁹ H.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5), 362.

³⁰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545.

³¹ L. Welch, *The Reality of the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149.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³²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머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듯이, 스스로 완전하실 수 있으신 분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함께 완전하게 되시기를 원하신 셈이다.³³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개념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 개념과 만나며,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 한스 쾅이 말한 것처럼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것이지, 머리를 몸의 지체 중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는 법이다.³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몸 된 교회의 구주이시며(엡 5:23), 교회는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있다. 몸은 머리의 계획과 결정을 실천하는 도구이며, 머리의 대리자이다. 따라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계획이 실천되는 도구, 대리자, 무기,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필수불가결한 도구라는 데 교회의 영광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εν Χριστῳ)라는 개념과 만난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의 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쓰고 있다.³⁵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는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는 말씀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

³² G. Aulen, 『조직신학개론』, 김관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284.

³³ J. F. Balchin,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Church* (Illinois: Tyndale House, 1979), 30.

³⁴ H. Kueng, *The Church*, trans. Ray and Rosaleen (London: Search Press, 1971), 239.

³⁵ A. Deissmann, *Paul: A Study in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7), 140.

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뜻의 상징으로서 많은 지체를 가진 몸의 일치를 말하고 있다.³⁶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한 몸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홀로 있을 수 없으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므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2)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연합

요한복음 17장 11-23절에 나타난 대로 교회는 세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하는데, 여기서 하나 됨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교회 간의 참된 연합은 진리(성경말씀) 안에서의 일치이다. 아울러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참된 선교의 정신을 보게 된다. 선교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연합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요 17:21)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요 17:23) 하기 위한 것이다.

3) 선교사역을 위한 교회의 연합

허버트 케인에 의하면 “우리 시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19세기 선교

³⁶ J. A. Fitzmyer, *Pauline The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1967), 70.

사역의 직접적인 소산”³⁷이라고 한다.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현장에서 선교를 위하여 상호협력적인 선교대회들이 열렸으며, 이 선교대회들을 통하여 순수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다.³⁸ 1910년 6월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선교대회는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연합을 역설한 복음적인 선교대회였고, “19세기와 20세기를 가르는 세계교회사의 분수령”³⁹이었으며, “19세기 선교 및 연합 운동의 총결산이요 20세기 선교 및 연합 운동의 시발점”⁴⁰이었다.

전호진에 의하면 이 선교대회가 “개신교의 조직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⁴¹이다. ‘비기독교 세계에 복음 전달’을 주제로 다룬 제1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는 범세계적인 선교를 위해 협동과 연합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에 따라 1921년에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창립되었고, 세계복음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계교회는 유기적 일치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초기 IMC가 세웠던 교회의 선교적 자세와 임무는 건전했으며 보다 순수하고 견고한 신학적 바탕 위에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형태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⁴² 하지만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WCC 총회에서 IMC와 WCC가 통합되었고, 오이쿠메네 교회와 오이쿠메네 선교가 통합된 후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의 지도하에서 선교의 진정한 영적 목표가 변질되고 말았다.⁴³

37 J. H. 케인, 『기독교 선교 이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19.

38 정두영, *op. cit.*, 194.

39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1), 118.

40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91), 서문.

41 전호진, *op. cit.*, 118.

42 P. 바이엘하우스, 『선교정책원론 - 인간화나 복음화냐?』, 김남식 역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6), 31.

43 정두영, *op. cit.*, 196.

4) 신앙고백을 확인하며 당면한 사안에 따라 포용의 폭을 조절하여

어떤 일은 신앙고백이 같아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최소한의 신앙고백의 일치만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타 종교인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종교인이 아니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교단과 다른 한 교단이 합동하는 교단 통합과 같은 일은 신앙고백이 같지 않고는 도무지 이루지 못할 일이다. 교단 통합은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인데, 진정한 교회의 일치는 교단들이 연합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과 그 형식과 내용에서 전혀 다르다. 그 이유는 교회의 일치가 전적으로 신학의 일치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교단의 연합은 다양한 견해의 신학들을 서로 양보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교단 간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언제든지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서로 분열의 길을 가게 된다. 오늘날 한기총이라든지 한교연과 같은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⁴⁴ 예배, 기도회, 세례와 성찬 같은 종교의식은 최소한 신앙고백이 같아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제와 봉사 같은 일은 종교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5) 불관용과 관용을 동시에 활발하게 발휘하여야

캄파위스 교수는 교회 간에 연합하는 일이 관용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한다. 화란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도르트 회의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시기의 개혁교회는 항의파들이 실천하기 원하였던 인본주의적 관용에 대하여는 굳게 저항하면서도 개혁 신앙적 관용을 잊지 않고 있음”⁴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관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교

⁴⁴ 2013년 1월 26일자 「기독교 개혁신보」 7면에 송영찬 국장이 쓴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일치”에서

⁴⁵ 캄파위스, 98, 99.

혼 안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이 관용은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17세기의 화란 개혁신교회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동시에’ 불관용하고 ‘또한’ 관용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외국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르미니우스주의파의 오류를 명백하게 저지하고 조금도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단순한 신자들, 곧 혼란에 빠졌으나 배울 마음이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불관용과 관용이 동시에 활발하게 발휘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⁴⁶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신앙적 신학적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져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 당시 개혁신교회가 저지하려고 하며 불관용으로 일관하였던 대상들이 그 사이에 대세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처하고 있는 형편이다.

5.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연합 활동

1) 한장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 교단 다체제 운동

한장총에서는 지난 수 년 동안 ‘한 교단 다체제’의 기치 아래 연합활동을 해왔다. 수백 갈래로 나뉘어 있는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 될 것을 촉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 기준선으로 제시하였다. 감사하게도 명목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국 장로교 각 교단에서 표준문서로 받았다. 문제는 그 사이에 변화된 신학 입장을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각 교단들이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에도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허용하는 교단들이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면 된다. 하지만 양심선

⁴⁶ 캄파워스, 99, 100.

언을 하면 이번의 선언문 사태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교회 일치에 해당하는 교회 연합의 경우에는 신앙고백의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2) 한장총에서 주관하는 각 교단 신학교에 대한 인준

한장총 산하에 신학교인준위원회가 있어서 각 교단 신학교에 대한 인준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는 신학 사상에 대한 점검이기보다는 외적인 형식과 규모에 대한 점검이다. 일정한 규모와 수준을 갖추어야 인준해 준다는 것이다.

3) WCC 세계대회 한국 개최와 WEA 세계대회 한국 개최와 관련하여

이번에 선언문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난 대로 두 진영 사이의 신학적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문제는 신학적인 긴장 없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수많은 보수적인 입장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신학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결별하든지, 그 조직 안에 머물러 있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전체에 영향을 끼쳐야 하겠다. 이 정도의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차이는 관용의 차원이 아니다. 이제 서로의 신앙적 신학적 차이가 드러난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고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유치한 세계적인 대회를 치러야 하겠다.

4) 그 밖에도

남북통일문제에 있어서나 대정부 발언에 있어서나 타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회 특히 개신교회가 하나의 창구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 요구에 응하여 조직된 것이 한기총이었는데,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한교연이 분리되어 나오게 되었다.

나오는 말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이란 주제로 살펴보았다. 먼저 너무나 넓은 기독교의 범위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진 개신교회임에도 너무나 다양화되어 그 동질성조차 의문시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연합 활동에 있어서 신앙과 신학의 일치 문제는 당연히 요구되는 일로서 사도신경을 문자적으로 고백하고 믿는 선에서의 최소한의 신앙의 일치는 있어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보다 포괄적인 신학의 일치를 연합활동의 이상으로 그리면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연합 활동에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를 살피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군선교는 특히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하는 사역이다. 우리 모두는 성경적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당면한 사안에 따라 획일적이지 아니라 융통성 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하겠다.

Abstract

We have discussed so far about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ological unity of the Reformed Church.

First, we discussed about the broad boundary of Christianity that led to the diversity of the Reformed Church (that stands on the Reformation tradition), even to then point when its identity is put into question. The unity of the confession and theology is necessary for the ecumenical movement of the church, thus the literal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is required as the minimum standard in the

unity of confession.

Then we discussed about the reformed ecumenical movement that requires much general unity of theology as the ideal ecumenical movement.

We also looked into the desirable attitude i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listed all the demanding things in the present Korean Church.

Especially the Military Ministry is a ministry that requires clear identity of confession. We should not loose our identity as the Biblical Reformed Church, nevertheless, we should approach the present problems more flexible, rather than uniformly.

주제어(Key words)>

연합 활동(Ecumenical Movement), 신학의 일치(Theological Unity)

개혁파 교회(Reformed Church), 고백(Confession), 정체성(Identity)

폭력에서 사랑으로

From Violence to Love

■ 안명준 Ahn, Myung Jun

- 합동신학대학원(M. Div.)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 M.)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 M.)
- 남아공 University of Pretoria(Ph. D.)
-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목실장
-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2014년 6월 21일 군대에서 총기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유가 아직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왕따되었으며, 정당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윤 일병이 가혹한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혹행위로 숨진 윤 모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8월 11일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소외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비참한 폭력

은 국내뿐만 아니라¹ 외국에서 이미 자행되고 있다. 한 번씩 터지는 미국 대학의 총기사고나 유럽에서의 무차별 총기 난사가 그런 이유에서 나타나고 있다.

군대생활이란 특수적이며 명령적이며 평등하지 못한 여러 제약이 많이 있는 국가를 위하는 특수 단체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근본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굴종을 요구하는 비인격적 명령과 서로 돌보지 못하고 사랑이 결핍되어서 일어난다. 이런 일은 군대 조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암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선교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조직원을 끌어안고 돌봐 주며 서로 사랑을 통하여 군대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군대가 본연의 조직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대하여, 그리고 폭력의 원인으로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사랑의 실천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폭력의 근원과 현실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이란 어떤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상처를 준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² 다른 사람의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

¹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다. 연성진 외,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폭력에 대한 해결을 제시한 연구로는 최인섭 외,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진단과 처방』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² “폭력,”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3p3419a>. “정치학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 행사 일반을 말하고, 법학적으로는 부당 또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을 말한다. 정치학 및 사회학적 견지에서의 폭력의 개념에는 단순히 법적 고찰에 의해 정의되는 부당불법한 힘의 행사만을 뜻하지 않고, 이른바 혁명집단에 의한 국가질서의 폭력적 정복(무장봉기)이나 폭력단에 의한 완력행사 등에 대해 국가가 합법적 또는 정당하게 소유하는 군대경찰이 행하는 실력행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법학적 견지에서의 폭력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힘의 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군대경찰 등의 실력행사는 그것이 법에 의거하고 있는 한 정당화되어 폭력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또 정당방위 등의 경우, 개인에 의한 실력행사였다 해도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폭

우에도 간접적으로 폭력의 시작이 된다.³

현대의 철학자들은 폭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한다. 이들은 폭력이 인간에게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먼저 현상학적 철학의 흐름 속에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5-1995)에 의하면, 폭력을 일반적으로 다른 존재자의 침해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본래적인 폭력은 타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얼굴을 지니는 존재자, 즉 인간에게 외상을 입히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지 타자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 표상, 제도 등의 일반적인 것 안으로 타자의 타자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자아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중성적인 것’을 매개로 하여 타자를 비인칭화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한다.⁴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는 그의 저서 《휴머니즘과 폭력》에서 정치와 폭력의 문제를 성찰하였다. 그는 폭력을 인간의 불가피한 현상, 즉 실존적 문제로 보았다.

르네 지라르(Ren Girard, 1923)는 그의 저서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폭력의 원인으로서는 인간의 욕망에 주목하였다. 그는 폭력이 타인에 대한 모방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지라르에 따르면 이러한 모방 욕망은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에 대한 동경으

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³ “차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v050ma731a2>.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에 특정 기준에 따라 우월을 따져 구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성별, 성적 취향, 인종, 생김새, 국적, 나이, 출신, 사상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공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기 전까지 흑인에 대한 법적인 차별이 있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인종차별이 정책으로서 실행되었다. 사회적 차별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여성차별철폐조약 등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각종 차별은 다양한 사회에 남아 있으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https://en.wikipedia.org/wiki/Discrimination>.

⁴ “폭력”, 현상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7964&cid=41908&categoryId=41972>

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지라르는 욕망은 결국 낭만주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발적 욕망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비자발적 욕망이며, 이러한 욕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욕망을 달성하려는 짝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와 같이 욕망과 폭력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지라르는 인류가 짝패와의 갈등을 회피하고 공동의 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양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해결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희생양에 대한 이러한 폭력은 욕망의 경쟁에서 일어나는 원초적인 폭력과 구분되어야 했으므로 이를 성스러운 것으로 치켜세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종교, 문학과 같은 것 역시 이러한 희생양의 제의의 한 종류라 보았다.⁵

폭력이란 용어는 영어로 violence이다. 여기 vio는 라틴어 vis에 뿌리를 둔다. Vis는 그 의미가 힘, 활기, 권력, 에너지로 번역된다. 즉 폭력의 어원은 힘의 사용에서 온 것이다. 빌헬름 포센쿨(Wilhelm Vossenkuhl)은 인간의 생명 또는 삶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위협하거나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폭력으로 정의한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인류 최초의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타락 후 최초의 폭력에 의한 살인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한다. 창세기 6장 11절은 폭력에 관한 노아 시대의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이 저지른 폭력의 역사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력을 행한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과거의 폭력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폭력이

⁵ “폭력,” <https://ko.wikipedia.org>.

었다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을 들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일컫는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는 정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의적, 반복적, 적대적 행동을 하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와 모바일 기술, 가령 웹 페이지나 SMS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하는 행위이다.⁶

사이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즉 사이버 폭력이 최근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그 역기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이버 폭력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세계에 인신공격적인 의도로 글을 띄운 것이 화근이 되어 그 피해 당사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부모와 딸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또 채팅을 통하여 강제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채팅을 하는 남편을 살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메일로 불쾌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보내는 사이버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98년 이후 사이버 성폭력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것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오늘날 이렇게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사회적 환경에 의한 학습으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이버 세계가 사이버 폭력을 만들어 내는 주범이다. 현재 폭력적인 인터넷의 내용들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나

⁶ “사이버 폭력”, <http://ko.wikipedia.org/>.

쁜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몇몇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폭력과 음란성의 내용들을 본 청소년들은 보지 않은 청소년보다 훨씬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폭력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극과 모방으로 변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현실과 사이버의 혼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이버 폭력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실제 사이버 세계에서 폭력과 살인에 세뇌된 청소년의 경우 주위 사람을 사이버에 나오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현실에서 하게 된다.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나쁜 게임기에 의해 영향 받은 일본 청소년들의 범죄 유형 가운데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학생인 형이 초등학교생인 동생을 살해한 그 배경에서 역시 인터넷에 나타난 폭력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으며, 어떤 후회도 없다고 인터뷰를 할 정도였다.

세 번째로 이런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조직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

결국 이런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문명의 발달에 관계없이 그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행동을 늘 지향하고 있다.

3. 폭력의 원인으로서의 죄

폭력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죄의 기원을 아는 것이 폭력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1) 죄의 기원

성경은 인류 최초의 죄(원죄)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세상에 들어왔다고 한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우리 시조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원죄의 시작이며,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하는 것이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사탄이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유 6).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벧후 2:4). 뱀은 사탄의 도구로 유혹자가 되었다(요 8:44; 롬 16:20; 고후 11:3; 계 12:9). 사탄에 대하여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3장은 문자적이며 실제 사건이며, 아담은 실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신화적(Sage)으로 보는 자들은 볼트만(R. Bultmann), 톨리히(Paul Tillich)가 있다. 화란의 카이터(H. M. Kuitert)는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한 예증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실제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증으로 이해하자고 한다.⁷ 그러나 성경은

⁷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신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195.

아담을 실제적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역대상 1장 계보는 아담에서 시작하며, 누가복음 3장 23-38절에서도 하나님 이름 바로 앞에 나온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답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하였다. 마태복음 19장 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을 말 씀한다. 그리고 이혼에 관하여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 절, 2장 24절을 인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실제적 부부로, 역사적 사실로 말씀하신다.

바울도 타락 기사가 역사적임을 말한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하였고, 14절에서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1-22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여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말한다.

폭력은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대표가 되고 순종할 책임이 있는 아담에게 불순종의 경우에 사망, 순종의 경우에는 생명이라는 내용의 약속을 주셨다. 순종이 요구되었지만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선악과를 언약의 상징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언약의 조건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함축적 의미로 여기서 형벌이란 육체적, 영적, 영원한 사망이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상징과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생

명나무는 성례론적으로(잠 11:30, 의인의 열매)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영생과 불멸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계 2:7, 22:2, 14, 19).⁸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함으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행위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셨다. 로마서 5장 12-21절을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병행되는데, 아담은 그리스도와 같이 언약의 머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의와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각각 전가되는 방식이 같다(호 6:7-“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죄는 세상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⁹

현대인에게 죄(ἀμαρτία)¹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현대인들은 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문제, 가정문제, 마약, 폭력으로 죄악의 홍수를 만난 시대이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현대인이 죄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신학의 의무이다. 즉 신학이란 타락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죄의 본질을 설명하며, 그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2) 죄의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인간은 죄를 얻게 되어 하나님 주신 의,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 그리고 참된 지식을 상실하였다. 무서운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다(창 3:19; 롬 5:12, 6:23). 하나님이 주신 행위언약을

⁸ 생명나무는 성례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명을 이어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생명나무(잠 13:12-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의 몸, 생명나무의 열매(계 2:7, 22:2, 14, 19)로 나타난다.

⁹ 신복윤, “죄”, 『신학사전』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4), 647.

¹⁰ 의미는 ‘표적을 이탈하다’라는 것이다. 죄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벗어나는 것으로 구약은 묘사한다.

파괴한 결과로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며(창 3:14), 사탄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머리가 상하게 되며(창 3:15),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창 3:16), 아담은 땅에 가 시덥물이 나므로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며,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어(창 3:17-19, 24)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2-24).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철저히 멀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죄를 범한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인간 자신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폭력을 저질렀다. 살인 폭력의 시작은 바로 죄의 결과로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죄를 안고 살아야 하는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참조. 창 3:19). 그리고 범죄한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겔 18:4).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분리되어 그의 생명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속에서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4. 폭력과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죄로 인해 폭력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실천이 요구된다. 이런 실천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자.

1) 하나님의 선

소크라테스는 모든 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으며, 선을 유용함(usefulness)과 동일시했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신성과 동일시했다.¹¹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묘사하였다. 바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선이시다. 자연적, 영적, 도덕적 영역에서 모든 선의 근원(*fons omnium bonorum*)이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막 10:18).

그의 선은 행동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 곧 타자에 대한 선행에서 자체를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게 또는 친절하게 다루시도록 하나님을 자극하는 그의 완전성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자비이며 일반 은총이다(시 36:6, 104:21, 145:8, 9, 16; 마 5:45, 6:26; 행 14:17).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대상 16:34; 대하 5:13; 시 34:9). 그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의 선의 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신다는 것을 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윤리적으로 이것은 최고선(*summum bonum*)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행위의 선을 판단하는 표준으로서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에 해당된다. 그리고 선이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적합

¹¹ 헤르만 바빙크, 『개혁신의 신론』,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299.

한 행위이다(막 12:34; 마 5:16, 25, 34-비교). 선으로 해당되는 헬라어 형용사 아가소스와 칼로스는, 거의 구약의 토부(טוב)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를 지니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에 대하여(요 10:32),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생활에 대하여(벧전 3:16), 또한 그러한 데 기초하는 선한 일에 대하여 씌어져 있다(롬 13:3; 골 1:10).

2)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완전성과 그의 도덕적 형상을 지니고 있는 피조물을 생각할 때 느끼시는 기쁨을 의미한다. 이 사랑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견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특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과 또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신적 완전성들을 해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도덕적 형상을 지니고 있는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성경의 특수 용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란, 그것을 상실하고 본래 정죄의 심판하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의미한다. 죄인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 축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엡 1:6, 7, 2:7-9; 딤후 2:11, 3:4-7).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은 긍휼, 혹은 연민이라 한다. 그것은 비참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죄의 결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로 본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장 엄격한 공의와 조화하에서만 시행된다(눅 1:54, 72; 롬 15:9, 16, 17; 엡 2:4). 하나님의 사랑이 완고함과 악을 참으시는 것으로 고려될 때 그것은 오래 참으심, 혹은 관용으로 불린다. 심판을 연기하고 죄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롬 2:4, 9:22; 벧전 3:20; 벧후 3:15).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며 조건적이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서는 잘못되고 불의하며 죄 있는 그 자체까지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은 은총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포함한다. 은총 혹은 은혜란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태도도 없지만 다만 그는 대가를 원치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긍휼이란 죄의 결과로 가련한 상태에, 비참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닦아 주시며 자기의 자녀들로 받아 주시는 것이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수반란 사건 당시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 후에 안재선은 검거되어 총살형이 선고되었으나 손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또 손 목사님은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꾸며 공부까지 시켜 주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사랑의 위인이었다. 오래 참으심이란 하나님이 완고하고 악한 인간에 대하여 관용으로 대하시는 것이다. 훈계와 경고를 반복하시며,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5. 폭력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은 비폭력적 운동이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고귀한 정신을 남겨 주었다. 그런

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 기독교가 사회와 국가에 유익보다는 불의와 불법, 비리와 문제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3·1운동에서 보였던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올바르게 승화시켜 한국교회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3·1운동의 기독교적 영향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많은 도전을 준다. 이 운동을 전개시키는 방법 면에서 비폭력주의를 택한 점이다. 일제의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택하지 않고 비폭력을 통하여 정당한 의사를 밝힌 점은 우리 인류의 문명에 훌륭한 교훈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 시위와 테러가 난무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이 정신의 계승과 전파가 절실히 요구된다. 종교와 이념의 갈등 역시 바로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위도 바로 선배들의 비폭력주의의 정신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지 소렐(Georges Sorel)이나 프란츠 파농(Frants Fanon)과 같은 폭력 지지자들과 달리한 자크 엘룰(Jacque Ellul)이 말한 사랑과 기도와 믿음에 의한 사랑의 폭력을 행하여야 한다.

매스컴에 비친 우리 사회는 너무나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온갖 비리와 사회적 부패, 범죄의 난폭성, 가정의 파괴,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온 세계가 경제위기로 어두운 삶의 모습이 흉수를 이룬다.

비관적 이런 사건들과는 달리 수년 전 우리 사회에서 베풀어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어떤 목회자가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하여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 이식하게 하였으며, 또 한 전도사가 사후 기증한 뼈를 이식 받아 종양에 걸려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 초등학생이 다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가 기증한 신체조직을 통해 100명이 넘는 조직결손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의 참된 사랑의 나눔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아직도 세계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뉴욕 무역센터가 폭파되었다.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는 그들은 죽음을 강한 무기로 사용하였다. 종교의 근본주의적 세력들 사이에 나타난 갈등 구조와 충돌이 지구촌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토마스 만(Thomas Mann)의 말이 실감난다. 특히 이슬람 교도의 지하드 운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과격화되고 있다. 종교가 폭력화되면 지구촌은 끊임없이 파괴될 것이지만, 폭력 속에서도 종교가 주장하는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이다.

이슬람에 관용적인 자세를 갖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d Pannenberg) 교수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코란과 성경의 동등한 권위를 서로가 받아들일 때 화해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²

그러나 이슬람의 평화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경고한 엘룰은 이슬람을 서구에 대한 위협, 곧 “서구에 대항하는 영원한 전쟁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유럽을 파멸시키고 없애 버릴” 존재를 맞이하는 “유럽의 평화적인 침입”에 대해 언급한다.¹³ 이런 세상적인 폭력에 대하여 자크 엘룰(Jacque Ellul)은 사랑의 폭력을 주장한다. 사랑의 폭력이란 인간적인 방법을 배제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

¹² 조선일보, 2001년 11월 6일 화요일 40판. 그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 주장은 어떤 방식에서는 배타적이지만, 포용적이기도 하다. 두 가지 모두의 방식으로 그것은 기독교를 선교 운동으로서 특징짓는다. 선교의 명령은, 비록 선교사역 방법에 관해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 종교 간의 대화는 선교의 대안이 아니다. 진리와 관련된 종교 간의 대화는 기독교 선교의 한 형태이다. 그와 같은 대화의 구체적인 상황은 상대 종교에 따라 달라진다. 유대교와 기독교간의 대화의 경우는 어떤 점에서는 독특하고, 이슬람교나 불교와의 대화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한 대화는 상호 존중과 관용을 요구한다. 갈등하는 진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문제들에서의 협력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한다.

¹³ “자크 엘룰”, <https://ko.wikipedia.org/>.

에 맡기는 것이다. 사랑의 폭력이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다.¹⁴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나누는 행위는 기독교의 본질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자이시며 실천자이셨다. 우리 사회나 지구 공동체는 진정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어찌 보면 쉽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실천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나는 진정 나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가? 이것도 쉽지 않다. 참으로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는 더 어렵다. 나 자신의 참된 사랑도 어려운데,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행위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건강한 사회를 나타내는 표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 이런 사랑의 나눔은 지금 연약해져 가는 한국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스스로 자족하며 전도의 어려움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심각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불신자들의 마음은 강박해졌으며, 전도의 문이 실제로 좁은 문이 되었다.

계속되는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실책은 기독교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장기 기

¹⁴ 자크 엘룰, 『폭력』, 최종고 옮김 (서울: 현대사상사, 1974).

중이나 헌신적인 희생적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 사회는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볼 것이다. 나 있는 곳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봐 주는 사랑의 실천이 절실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IMF 이후 그리고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더 어려워진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사랑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이 세상을 희망의 세계로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문명도 아니며, 무기도 아니며, 테러도 아니다.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교회와 이웃 그리고 세계가 어울려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¹⁵ 이런 공존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회가 이웃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는 오늘날 기독교문화의 무지를 한탄하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역설하였다. 크리스토퍼 슈뢰벨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복음을 해석하고 실천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면서, “대사회적 실천 운동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¹⁶ 스위트 교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과 더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다”며,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대립하지 말고 다름과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¹⁷

전도는 개인 구원을 위하여 소리로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과 실천과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웃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함께 공존하며 나누는 행사를 통하여

¹⁵ 하워드 스나이더, 『천국의 선언』, 안명준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¹⁶ 국민일보, 2007. 3. 30, 16:07.

¹⁷ 경향신문, 생활/문화, 2007. 5. 17(목) 오후 6:18.

교회의 존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이웃을 넘어 사회로, 사회와 국경을 넘어 지구 공동체로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방문한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은 ‘지구 공동체의 윤리’(the Foundation for a Global Ethic, Stiftung Weltethos)를 제창한 바 있다.¹⁸ 물론 그의 신학적 윤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를 얻기 힘들지만 그의 주장은 좀 더 인류 공동체에 대한 갈등의 해소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도덕으로 여겨진다.

손봉호 교수는 사랑에 대한 실천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⁹ “우리 한 국교회도 한국사회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적게 손해 보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더러운 공기를 적게 마시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 적게 받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직접적으로 돕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Agnes Gonxha Bojaxhiu, Theresa, 1910. 8. 27-1997. 9. 5)는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상처와 눈물을 닦

¹⁸ “90년대 이후 한스 쿡 교수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세계 윤리’(Global Ethic)의 확립이다. 『지구적 책임성』(1991) 발간으로 시작된 그의 활동은 종교-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지구적 차원의 보편 윤리를 만드는 실천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한스 쿡은 지난 95년 설립된 독일 튀빙겐 대학의 ‘세계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세계종교의회 등 국제적인 종교연합기구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자료 출처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1/200001300263.html>. “1990년 2월에 그는 교회 안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상을 담아서 『희망의 보존: 교회개혁론』(5)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리고 교회 밖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계윤리구상』을 새롭게 내놓게 된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한스 쿡은 개별적인 종교들과 윤리전문가들이 원전에 대한 공동연구, 역사적 분석, 체계적 평가, 정치적 사회적 진단을 통하여 전 지구적 윤리를 위한 의식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세계윤리는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구상된 것이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계도덕이 없는 생존은 없다. 종교평화가 없는 세계평화는 없다. 종교대화가 없는 종교평화는 없다’(PW, 13).” 자료출처 <http://cms.ulsan.ac.kr/philos/c27-hans.html>.

¹⁹ 손봉호, “내세가 없는 종교는 윤리에 치명적이다,” *The Voice* (2012. 2. 1), <http://the-voice.tistory.com/42>.

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6. 결론

오늘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폭력의 근원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만 폭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외와 왕따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크 엘룰의 주장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복음의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를 어둡게 하는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은 섬김이라고 한다.²⁰

성경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도록 강하게 권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²⁰ 강사문,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군선교신학』 11(2013), 190-213.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 2:1-9).

Abstract

Today our nation is suffering in violence in all fields. The violence has made serious problems as suicide, estrangement and discrimin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violence, the origin and the result of sin as the reason of violence, and to present the practice of love as an alternative plan.

The many problems facing us came from the sin of Adam and Eve who disobeyed the covenant of God. They failed to keep God's commandment, then became sinners. This sin made them violence.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must practise our love. This love is not to discriminate others, but rather to help and to love them.

주제어(Key words) >

폭력(Violence), 죄(Sin), 소외(Estrangement), 차별(Discrimination)
사랑(Love), 사이버 폭력(Cyber Violence)

군선교를 위한 ‘뱃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B,A,P,T,I,S,M.’ Educational Method
for Catechumens in the Korean Military Mission Context: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Early Korean Presbyterian Documents

최석환 Choi, Sok Hwan

- 총신대 신학과 졸업(B. A., M. DIV., Th. M.)
 -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B. A.)
 - 총신대 철학박사(Ph. D.)
 - 미국 자살예방센터(SPC) 수료
- 육군 수방사 군종참모, 충성교회 담임목사
 - 한국군종목사단 선사인 캠페인 TF장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한국군상담심리교청학회 연구위원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및 협동총무



들어가는 말

본 연구자는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고자 2007년 육군 제1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여호와넷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병

사 308명에게 설문을 받아 본 적이 있다.¹ 설문 결과 신병교육대대 교회의 세례식이 세례대상자의 신앙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문제점과 세례자 교육 없이 세례를 주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² 또한 세례를 받은 병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³ 아울러 세례를 받은 병사 절반 이상이 세례자 교육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세례자 교육을 받는다고 전제해도 세례자 교육시간은 고작 1-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세례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¹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Ph. D. dissertation, 총신대학교, 2007).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제 1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여호와넷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병사 35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없는 51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08명의 설문지가 최종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로 2007년 11월 17일까지 수집되었다. 물론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대에서 2007년 하반기에 세례를 받은 병사들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고 실증적 연구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전제로 설문지를 제작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신병교육대대 진중 세례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신병교육대대 진중세례식에서 세례 받은 병사는 명확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가? 3. 신병교육대대 진중세례자 교육은 세례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연구 질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을 얻기 위해 선택형 7문항과 선택과 서술의 혼합형 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연구도구를 제작하였다. 연구도구인 설문지는 4부 15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부 기초설문(1-3), 제2부 문제점 파악 설문(4-6), 제3부 세례자 신앙고백 확인 설문(7-9), 제4부 세례자 교육 확인 설문(10-15)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² 연구대상 308명 중 89.3%에 해당하는 275명은 신병교육대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10.7%에 해당하는 33명은 기타란에 응답했다. 연구대상 308명 중 37.3%인 115명은 신병교육대대 교회에서 집례되는 세례식의 문제점으로 세례대상자의 신앙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34.1%인 105명은 세례자 교육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을 문제점으로 응답했다. 14.9%인 46명은 기타로 응답했으나, 신앙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것과 세례자 교육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을 중복으로 선택한 신병들이 절반이 되었다. 13.6%인 42명은 무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설문지 제1부와 제2부 분석결과 71.4%인 220명은 신병교육대대 교회의 세례식이 세례대상자의 신앙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문제점과 세례자 교육 없이 세례를 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³ 연구대상 308명 중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겠으며 믿지 않는다고 언급한 응답자를 합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는 38.3%인 118명,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38.3%인 118명,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41.1%인 127명이나 되었다.

⁴ 연구대상 308명 중 46%인 142명은 세례자 교육을 받았지만, 53.6%인 165명은 세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로교 초기문헌을 중심으로 문헌비교분석법(文獻比較分析法)을 사용하여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을 제안하고, 세례식 매뉴얼도 소개하고자 한다.⁵ 1차 자료는 『예수교문답』의 원판인 『그리스도문답』(1893),⁶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 『예수교문답』(1894),⁷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 『위원입교인규도』(1895),⁸ 19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 회의록인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1908),⁹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조례 『대한

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세례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142명 중 75.4%에 해당하는 107명은 고작 1-2시간 정도만 세례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12%인 17명은 3-4시간, 5.6%인 8명은 5-6시간, 4.9%인 7명은 '8시간 등'으로 응답하였다.

⁵ 장로교 초기문헌 1차 자료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신앙교육 문서로서, 『예수교문답』의 원판인 『그리스도문답』(1893),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문답서 『예수교문답』(1894), 한국 장로교 최초의 세례자 교육서 『위원입교인규도』(1895), 1907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평양 '장디재 레비당'에서 개최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노회 회의록인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1908),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와 정치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이다. 둘째, 목회학 문서로서,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 『목수지법』(1919), 콕안런(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의 『목회학』(The Work of the Pastor)(1925), 『목회학』(1936)이다. 셋째, 예식서 문서로서, 영어로 기록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1922),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1934)이다. 본 연구자가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문헌을 신앙교육 문서, 목회학 문서, 예식서 문서로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앙교육 문서에서는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 문답교육을 연구할 수 있고, 목회학 문서에서는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 집례방안을 연구할 수 있고, 예식서 문서에서는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 세례식 순서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⁶ H. S. C. Nevius, 『그리스도문답』, H. G. Underwood 역 (경성: 그리스도성서, 1893).

⁷ H. S. C. Nevius, 『예수교문답』, H. G. Underwood 역 (경성: 그리스도성서, 1894).

⁸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895).

⁹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 1908).

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¹⁰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 『목스지법』(1919)¹¹ 영어로 기록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¹²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1922),¹³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¹⁴ 콕안런(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의 『목회학』(The Work of the Pastor, 1925),¹⁵ 『목회학』(1936),¹⁶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1934)¹⁷ 등이다.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은 장로교 초기문헌을 중심으로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은 ‘뱃티즘’의 영어 철자 순서를 따라 성경(Bible), 인간(A Man), 기도(Prayer), 믿음(Trust), 입교(Initiation), 성례(Sacrament), 세례식 매뉴얼(Manual of baptism)로 소개될 것이다.

¹⁰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간인, 1910). 참고로 영문제목은 “CONFESSION OF FAITH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이다.

¹¹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스지법(牧師之法)』(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19).

¹²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¹³ 『朝鮮 예수敎 長老會 憲法』(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22). 헌법이 출판된 역사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독노회(1907)에서 ‘소요리문답’, ‘신조’, ‘규칙’(1907)을 채택하였으며, 총회 조직(1912) 후 ‘권징조례’와 ‘예배모범’(1919)을 채택하였다. 그 후 간단한 정치조례인 ‘규칙’을 폐지하고 완성된 ‘정치조례’(1922)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信經, 小要理問答, 政治, 禮拜模範, 勸懲條例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朝鮮 예수敎 長老會 憲法』(1922)이 출판되었던 것이다.

¹⁴ 『朝鮮예수敎長老會婚喪禮式書』(京城: 發行所 未詳, 1924).

¹⁵ 콕안런,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25).

¹⁶ 콕안런,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다음의 책도 참조하라. 콕안런, 『목회학』(경성: 대한기독교서회, 1955); 콕안런, 『목회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¹⁷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4).

1. 성경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 중 첫 번째는 성경(Bible)이다. 먼저 세례준비자들에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문헌에서는 세례준비자들에게 성경을 교육시키는 것이 많이 언급된다.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써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에 성경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날마다 때를 작정하여 권속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글만 읽지 말고 뜻을 알아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⁸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함을 강조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착한 행실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¹⁹ 만일 예배당이 멀거나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 갈 수 없다면 권속이나 이웃 사람이 데리고 한 달 동안에 1주 혹은 2주 정도 예배드릴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1년 동안 주일공부는 성경을 차례로 볼 수 있도록 53주 계획안을 작성하였다.²⁰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니 밋고 힘히 본분의 확실한 법례인디 다만 이밖의 업느니라”라고 언급하고 있다.²¹ ‘규칙’ 제4조 제2항을 보면 교회 당회 회원인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를 총찰하여 입교인과 원입교인을 시취하였다.²²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세칙’ 제2항을 보면 ‘조스’와 강도인도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당회 없는 지회에서 원입교인을 시취하여 세울 수가

¹⁸ 馬布三悅, 『爲願入教人規條』, 10.

¹⁹ *Ibid.*, 12.

²⁰ *Ibid.*, 14-16.

²¹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2.

²² *Ibid.*, 11.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²³

『위원입교인규도』(1895) ‘교회치리법’(敎會治理法)에 의하면 ‘조스’(助事)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 교회로 다니면서 ‘령수’(領袖)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쳤으며,²⁴ ‘령수’(領袖)는 목사와 조사를 도와 원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별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하는 역할을 하였다.²⁵ 연구한 결과 ‘조스’(助事)가 『위원입교인규도』(1895)를 교재로 삼아 세례준비자인 ‘원입교인’에게 성경을 상세히 가르쳤으며, ‘령수’(領袖)의 보고로 ‘원입교인’ 중 책별할 사항에 대하여는 당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철저하게 세례준비자 교육을 시행한 것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서도 교회 당회 회원인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를 총찰하여 입교인과 원입교인을 시취하였으며, ‘조스’와 강도인도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당회 없는 지회에서 원입교인을 시취하여 네트워크적 세례준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2. 인간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 중 두 번째는 인간(A Man)이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한 인간 아담을 뜻한다. 세례준비자들에게 한 인간 아담의 범죄 사실과 우리에게 끼치는 죄의 영향력을 가르쳐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서는 “하느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그의 형상을 의지하사 지식과 의리와 거룩함으로써 지으사 동물 위에 주창하게 하셨스니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혼 근원에서 낫스

²³ *Ibid.*, 16.

²⁴ 馬布三悅, 『爲願入敎人規條』, 27.

²⁵ *Ibid.*, 27.

즉 혼 동포형데니다”라고 창조된 인간을 언급한다.²⁶ 또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언급하기를,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톱홀 즈유능이 잇섯는디 필경 시험을 밋아 하느님의 범죄흔 지라 모든 인종들이 그 시조 아담으로부터 범상흔 세디를 니여 노력음을 인햐 그 범죄흔 속에 참여햐 흠의 싸젓스니 사름의 원죄와 밋상흔 성품을 밋은 외에 범죄흔 줄 아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잇느니 모든 사름이 금세와 립세에 하느님의 공변된 진노와 형벌을 밋는 거시 맛당햐니라”라고 피력한다.²⁷ 창조된 인간뿐만 아니라 불순종하여 범죄한 인간을 세례대상자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다.

3. 기도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 중 세 번째는 기도(Prayer)이다. 세례준비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화시켜 가르쳐야 할 것이다.²⁸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an den Vater),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durch den Sohn), 성령 안에서(im Heiligen Geist) 드리는 것이다.²⁹ 기도는

²⁶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3.

²⁷ Ibid., 3.

²⁸ 최석환,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기독교강요』 제3권 20장과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5』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7), 206-264.

²⁹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86, 88. “기도는 신학의 심장(das Herz der Theologie)이다. 기도는 믿음의 시금석이며, 기도의 신학은 모든 신학의 시금석이다”(Ebd. 88).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기본 구조는 기독교적 기도의 특성이며, 기독교적인 모든 기도에 관한 학설과 그 실제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는 예배 구절은 모든 기독교적 기도의 진정한 원천이고 또 고유한 근원이다. 예전과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을 단지 여러 방식으로 전개할 뿐이다. 예전은 예배에 따라 “기도되어지는 교리”이며 교리는 “예전의 체계적 사고 이행”이다. Gotthold Müller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구원의 경제적인(heilsökonomischen) 삼위일체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셋이며 하나인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며 기억(Anamnese), 설교(Prädikation), 간구(Epiklese) 속에서 완료된 것, 현재인 것 그리고 미래인 것을 전개시키는 것이다(Ebd. 88).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루어짐의 약속이며,³⁰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부(富)에 도달한다. 기도는 세례준비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학습 과정이다.³¹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문헌에서도 세례준비자들에게 기도를 철저히 가르친 사실들이 증명된다. 예를 들면, 『예수교문답』(1894)에는 ‘열가지계’, ‘스도신경’, ‘인죄문’, ‘천복문’, ‘주기도문’³² 등 세례준비자 교육교재 5가지를 소개했다. 이는 원입교인들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필수적 세례준비자 교육교재이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에 『예수교문답』(1894)에서 특별히 언급된 ‘인죄문’과 ‘천복문’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죄문’(認罪文)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이 죄인임을 시인하며 죄를 고백하고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이다. 주요 내용은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의 성품이 실로 악함을 고백한 후,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 주사 항상 하나님을 높이 받들게 하시며, 셋째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사 모든 잘못된 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³³

‘천복문’(千福文)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하고 구하는’ 기도문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³⁰ E. Thurneysen, *Die Lehre von Der Sellsorge* (München, 1948), 168.

³¹ TRE, Bd. XII. Das Gebet, VIII. *Dogmatische Probleme gegenwärtiger Gebetstheologie*, 87.

³² 『예수교문답』에 나타난 ‘주기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신자여네일함의거룩하심이나타나옵시며네나라히림하옵시며네뜻이하늘에서처럼자에서도일우여지이다오날우리의게일용할량식을주옵시고우리가우리게득죄한자를사하여주는것과치우리죄를사하여주옵시며우리가가시힘에들지말게하옵시고다만우리들홍약에서구하옵소서대개나라와권세와영광이네의게영원이잇스옵느이다아멘.” 『예수교문답』, 45.

³³ *Ibid.*, 41-42.

우리 기도함을 응답하소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내리사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여 우리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소서, 셋째, 우리 미혹한 것을 밝혀 주사 그릇된 길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만 하게 하시고, 천당에 올라 무궁무진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것이다. '천백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즉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고 우리 마음의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³⁴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는 '각식 도고문'(各式禱告文)을 소개하고 있다. 도고란 하나님과 사귀어 화친하고 하나님께 빌고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⁵ 또한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격하게 알고, 죄를 사하심을 구하며, 권속을 데리고 기도하며, 회당에서 교우로 더불어 기도하며, 정성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안하고 있다.³⁶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제시한 기도문은 (1) 죄를 알아 회개한 사람의 첫째 기도인 '인죄회개인도고문'(認罪悔改人禱告文),³⁷ (2)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신도묵도고문'(信徒默禱告文), (3) 권속을 데리고 기

³⁴ Ibid., 43-44.

³⁵ 馬布三悅, 『爲願入教人規條』, 4.

³⁶ Ibid., 4.

³⁷ '인죄회개인도고문'(認罪悔改人禱告文)의 전문내용이다. "지극히높고지극히올호신하늘에게신우리아바지제가죽을죄를범호줄을알고구원엇을줄을알지못호니저를어엿비녀이사구원엇는길을인도호여주옵쇼셔저는일즉죄를만히범호엿시나 지금은원통호여회기호고죄를써나하느님죄만절호고저호옵느이다제죄를다샤호여주옵시고제악호므음을변호야새사람이되게호여주옵시고제가엇더케호여야맛당히울일을하느님의뜻대로다그쳐주옵소서이것뿐아니오라하느님의아들이되게호여주옵시기를바라옵느이다구원호여주시는쥬예수그리스도의일홈으로비옵느이다아멘." Ibid., 5.

도하는 ‘솔권속도고문’(率眷屬禱告文), (4) 여러 교우가 예배 시 기도하는 ‘중교우예배시도고문’(衆敎友禮拜時禱告文), (5)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반시도고문’(飯時禱告文), (6)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유아도고문’(乳兒禱告文) (7) 주기도문인 ‘주도고문’(主禱告文) 등이다. 이 모든 기도문들은 입교를 원하는 세례준비자들에게 기도의 나침반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믿음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 중 네 번째는 믿음(Trust)이다. 세례준비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문헌에서도 이는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서는 경배 받으실 삼위 일체 창조주 하나님,³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³⁹ 성부와 성자의 보내신

³⁸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2. “하느님은 홀로 계시니 오직 이만 경배 할거시라 하느님은 신이시니 죽연히 계시고 무소부직하며 다른 신과 모든 형용물과 부동하시며 그 계신 것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시는 일에 덕히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시니라”(신경2조), “하느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신이신디 이 삼위는 홀 하느님이시니 원테도 궂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이시니라”(신경3조), “하느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유형물들과 무형물들을 창조하셨고 보호하시며 주창하시며 모든 것을 주의 덕하신 뜻대로 하신다 그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목적을 일우게 하시나 그러나 결단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라”(신경4조).

³⁹ *Ibid.*, 3-4. “하느님이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시 죄를 속하시고 상한 성품을 갚치시고 형벌을 면케 하시며 영생을 주시라 그 주의 영원한 독침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샤 육신을 일우게 하신지라 이 예수의 몸뚱이는 하느님께서 육신을 낳은 거시 업느니라 다만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능히 구원을 얻느니라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샤 전과 지금과 영원까지 위에 각 다른 두 성품을 겸하셨스니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 성신이 권능으로 잉태하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스되 오직 죄는 업는 자라 죄인을 되신하시 하느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샤 하느님의 공의에 덕당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시라 그 십자가에 도라가시고 못치셨다가 죽은 가운데서 삼일 만에 부활하시 하느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복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리로서 직강하시 죽은 자를 다시 살니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성령⁴⁰을 언급한다. 또한 한국교회 신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제시한다.⁴¹

『예수교문답』(1894)에서는 ‘열가지경계’, ‘수도신경’,⁴² ‘인죄문’, ‘천복문’, ‘주기도문’ 등 세례준비자 교육교재 5가지를 소개한다. 이중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세례준비자들에게 교육시키는 데 중요한 교육교재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문헌 중 특히 성령을 언급한 내용을 예를 들면, 『예수교문답』(1894) 제144문답에는 세례의 뜻이 마음을 밝게 하여 성령의 씻음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⁴³ 또한 『예수교문답』(1894) ‘천복문’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

⁴⁰ Ibid., 4. “성부와 성자의 보내신 성신께서 사름으로 하여곰 죄와 환난을 씻듯게 하시며 믿음을 붙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씻을 새롭게 하시고 권면하시며 복음에 귀복한 대로 감 업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받게 하시며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⁴¹ Ibid., 4-5.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복음을 택하시니 사랑함으로 그 압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깃브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당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의 아들을 삼으셨스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시로되 오직 모든 세상 사름에게 되하여는 온전헌 구원을 감 업시 주시라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느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스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는바 특별한 리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의주가 되어 하느님 아들이기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신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을 확실히 알고 기뻐할지라 성신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니라.”

⁴² 『예수교문답』에 나타난 ‘수도신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 | 텃디를몬도신전능하신충신성부불밋으며그외아들우리주예수그리스도불밋으며 | 성령으로일터하시동경너마리아의나심을밋으며본디오빌라도손에고난을밋으사십자가에못박혀죽으시고고쳐심을밋으며디옥에니사사혼날에죽은자가온디서다시살으심을밋으며하늘에오르사전능하신충신성부우편에좌당하심을밋으며더리로서산이와죽은이들심판하러오실줄을밋는다나 | 성령을밋으며거룩하고공변된회와모든성인이서로통공함을밋으며죄의사함을밋으며육신이다시살을밋으며영원이살밋는다 아멘.” 『예수교문답』, 40.

⁴³ Ibid., 29.

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다.⁴⁴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준비자들의 마음이 밝게 되며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에는 물세례와 성례세례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한다.⁴⁵ 즉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쓸데없다고 논함으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물로 세례 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십계명’(十誡命)과 ‘교회규모’(教會規模)는 자기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지킬 수 있음을 『위원입교인규도』(1895)는 역설하고 있다.⁴⁶ 이는 세례준비자들, 즉 원입교인(願入敎人)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례준비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확실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5. 입교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 중 다섯 번째는 입교(Initiation)이다. 세례준비자들에게 성경, 인간, 기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등을 교육시키고, 신앙고백을 확인 후 입교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에는 입교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는 입교자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입교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⁴⁴ *Ibid.*, 43.

⁴⁵ 馬布三悅, 『爲願入敎人規條』, 17.

⁴⁶ *Ibid.*, 24.

를 구주로 믿고, 모든 거짓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것이다.⁴⁷ 또한 입교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를 볼 것이며, 십계명(十誡命)과 교회규모(教會規模)를 보고 입교한 사람이 순종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⁴⁸

특히 '교회규모'는 교회 밖의 사람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교회로 들어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준행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 밖의 사람이 입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강조한다. '교회규모'는 일곱 가지로 되어 있다. 즉 조상제사도 지내지 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공경할 것, 주일을 정성으로 지킬 것, 부모 생전에 정성으로 공경할 것, 한 남편에게 한 아내일 것, 자기 집사람을 권하여 한마음으로 주를 믿고 섬길 것, 일하고 먹을 것이며 바른 사업을 힘쓸 것, 술과 아편연과 잡기를 금할 것 등이다.⁴⁹

특이사항은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유아세례, 입교)에서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10장을 참조하여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교과과목을 언급한 것이다.⁵⁰ 한국초기 장로교의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 교과과목을 정리하자면 첫째, 요리문답(要理問答), 사도신경(使徒信經), 주기도문(主祈禱文) 독송(讀誦)이다. 상기한 세 가지를 모두 읽고

⁴⁷ Ibid., 2.

⁴⁸ Ibid., 20-21.

⁴⁹ Ibid., 22-23.

⁵⁰ 『朝鮮예수교長老會婚禮式書』(京城: 發行所 未詳, 1924), 11-12.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5.

암송시키는 것이다. 둘째, 기도방법(祈禱方法)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삶 속에 기도를 실천케 하기 위함이다. 셋째, 죄증오방법(罪憎惡方法)이다.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신애경순종방법(神愛敬順從方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론(教會論)이다. 성년이 된 후에 출생하면서 얻은 특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우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입교식(入敎式)과 성찬식(聖餐式)이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증거하고, 성찬 참여할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세아(乳洗兒)는 성장하여 당회 허락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때는 반드시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공식선언한 후에 입교하게 하고 출생 시부터 교회에 특수한 관계가 있던 것을 표하여 깨닫도록 설명한다.

이러한 유세자교육 후 유세아는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선언한 후 입교를 한다. 이는 한국교회가 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6. 성례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 중 여섯 번째는 성례(Sacrament)이다. 세례대상자들이 입교를 했다면 성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도록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문헌에는 이러한 면이 강조되어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예수교문답』(1894) 제142문답에 의하면 예수교에 오직 두 가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있음을 강조하였다.⁵¹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

⁵¹ 『예수교문답』, 29.

임을 강조한다.⁵²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의하면 세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강조되어 있다.⁵³ (1) 세례는 목사가 집례한다. (2)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거하여 베풀다. (3)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 (4) 세례는 물로 씻어 세례준비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언약한 은혜 입는 것을 밝게 증거하는 것이다. (5) 세례는 또한 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교회로 들어오기를 기쁘게 여기는 맹세이다. (6) 세례, 곧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안으로 성령이 죄를 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표적이다. (7)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식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상하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성례로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샘플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성찬의 뜻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신경' 제9조에 의하면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세 가지 방도는 성경말씀과 성례와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다.⁵⁵ 이 중에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한다.

『목스지법』(1919)의 '제18공과 목사와 성례'는 로마 가톨릭의 7성례와 예수교회(耶穌教會)의 2성례를 비교하며,⁵⁶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의 도리의 심장(心腸)임을 강조하며,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특권과 영광을

⁵² 馬布三悅, 『爲願入教人規條』, 17.

⁵³ *Ibid.*, 17.

⁵⁴ *Ibid.*, 18-19.

⁵⁵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5.

⁵⁶ 『목스지법(牧師之法)』, 307.

인식시킨다.⁵⁷ 이 모든 초기문헌들의 언급은 성례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7. 세례식 매뉴얼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 중 일곱 번째는 세례식 매뉴얼(Manual of baptism)이다. 세례식 매뉴얼은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을 중심으로 세례 집례방안, 세례식 순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세례 집례방안

(1) 세례의 집례자는 목사이다.⁵⁸

(2) 목사는 신경과 예배모범의 묻는 말을 암송하고, 책이 없어도 세례를 집례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⁵⁹

⁵⁷ Ibid., 343-344. 『목수지법(牧師之法)』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의 신경 제10조 내용을 인용하며 세례의 정의를 내린 후, 세례의 5대 의의를 진술하고 있다 (Ibid., 310-311). 첫째, 예수께서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 된 표이며, 둘째, 하나님의 식구로 입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는 표이요, 셋째,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로서,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않고도 군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군복을 착용하면 더욱 애국심 있는 군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다. 넷째, 우리가 복을 받을 능력이 생기는 대로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표이며, 다섯째, 세례대상자가 맹세하여 몸을 드려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표이다.

⁵⁸ 『목수지법(牧師之法)』(1919)에서는 세례를 집례하는 자는 오직 목사임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조선 장로교회의 1907년에 채용한 정치 책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 제2조와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과 한글판(1934) 예배모범 제9장 1조에도 언급된 것이다. 출판시기가 앞선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도 세례와 성찬의 집례의 권이 목사에게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목수지법(牧師之法)』, 308;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9;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4;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1934), 232-233; 『爲願入敎人規條』, 17.

⁵⁹ 『목수지법(牧師之法)』에서 광안련은 세례와 성찬 집례자인 목사마다 장로교회 신경 제10조, 예배모범 제9, 10, 11장, 장로교회 정치문답 조례 139문에서부터 150문까지 자세히 알고, 특별히 장로교회 신경과 예배모범에 있는 예배의 뜻과 묻는 말을 외우도록 공부하고, 책이 없어도 그 예식을 잘 행하도록 공부할 것을 명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목수지법(牧師之法)』, 307-308. 이는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의 철저한 실천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타 교단의 세례 인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⁶⁰ 장로교회는 평신도가 행한 세례를 세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로마 가톨릭에서 온 자의 경우에는 당회가 시험하여서 이치를 알고 진실히 믿는 자로 알면 그냥 세례인으로 받을 수가 있고, 긴요한 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한 줄로 알면 얼마 동안 학습으로 있다가 세례를 다시 주든지, 어린 때에 세례 받은 자처럼 물세례 없이 맹세로만 받을 수 있다.

(4) 세례의 형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따른다.⁶¹ 즉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로 그 사람의 얼굴에 붓든지 물방울을 떨어뜨림으로 세례를 주고 다른 예식을 더하지 아니한다.⁶² 보통 기독교는 물을 떨어뜨리는 방침대로 한다. 또한 '삼번식'(三番式)과 '일번식'(一番式)의 문제로서, 세례를 베풀 시 손을 세 번 물에 넣어서 세 번 물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보통 한 번 식으로 해도 별 관계가 없으며, 목사가 자기의 결의대로 할 수 있다.⁶³ 성인에게 세례 줄 때에는 '삼번식'으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여 좋고, 유아에게는 '일번식'으로 하여 어린아이를 너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세례기와 성찬기는 함께 보관하며 다른 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60 『목수지법(牧師之法)』(1919)과 『목회학』(1936)에서는 타 교단의 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논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목수지법(牧師之法)』, 312; 『목회학』, 134.

61 『목수지법(牧師之法)』에서는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제9장 6조를 언급하며 세례 형태를 논하고 있다.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5.

62 보통 기독교는 물을 떨어뜨리는 방침대로 한다. 그러나 목사가 교육하여 세례의 의의를 가르친 후라도 침례를 원하면, 감리회나 장로회가 침례를 허락하고 목사가 그대로 베풀지라도 책망이 없으리라고 『목수지법(牧師之法)』에서 언급하고 있다. 『목수지법(牧師之法)』, 313.

63 *Ibid.*, 314. 『디다케』와 『사도전승』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삼번식'(三番式)을 추천하고자 한다. 『디다케』 7:3처럼 만약에 물 다 없다면, 즉 '살아 있는 물'도 '다른 물'도 없다면, 혹은 '찬물'도 '더운 물'도 없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부었다. "Εάν δὲ ἀμφοτέρα μὴ ἔχης ἔκχεον εἰς τὴν κεφαλὴν τρεῖς ὁδοὶ εἰς ὄνομα πατρὸς καὶ υἱοῦ καὶ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물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부으시오." "Διδαχὴν 7:3; "Traditio Apostolica", x xi.

세례식에 사용될 물은 아무 그릇이든지 담을 수 있지만, 좋은 기명(器皿) 한 벌을 사서 성찬기(聖餐器)와 함께 두고, 다른 일로 사용하지 않으며,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물 그릇 상하에 눈같이 백수건(白手巾)이 있게 하고, 물그릇을 채움이 맞게 적은 소반(小盤)에 두어 거행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⁶⁴

(6)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세례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오게 한다. 이때 장로들과 권사들이 목사를 도와 세례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안내한다.⁶⁵

(7) 유아세례를 시행할 때 당회의 세례 전 부모 문답을 필히 한다.⁶⁶ 유아세례 전 당회가 그 부모들을 불러서 유아세례의 뜻에 대하여 문답을 한다. 부모 문답을 통해 유아세례의 뜻과 부모들의 담당할 것을 깨닫게 한다. 유아세례 시 그 모친이 유아를 데리고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그 부친도 강대상 앞에 나온다.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 그 친족 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한다.⁶⁷ 세례식에서 서약하게 아니하면 유아세례 후에 모친을 반대하든지 일가나 외가 중에 누가 그 아이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유아세례 나이는 예배모범의 지침대로 무고히 지체하지 않도록 만 2세 이하로 한다.⁶⁸

(8) 유아세례식이나 어른 세례식 시작 전에 목사는 세례대상자들의

⁶⁴ 『목스지법(牧師之法)』, 314.

⁶⁵ *Ibid.*, 315.

⁶⁶ *Ibid.*, 316.

⁶⁷ *Ibid.*, 316.

⁶⁸ 광안련은 『목스지법(牧師之法)』(1919)에서 유아세례 나이를 6세 혹은 7세로, 어른 세례를 14세로 제안하였다. 『목스지법(牧師之法)』, 322. 그러나 연구한 결과 광안련은 『목회학』(1936)에서 유아세례의 나이를 5세로, 어른 세례를 15세로 조정하였다. 유아세례는 예배모범의 지침대로 무고히 지체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어른 세례는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교육기간을 갖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회학』, 137.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이름표를 부착하게 한다.⁶⁹ 만약 세례대상자의 이름표가 없을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녀 된 자여'라고 부른다.⁷⁰

(9) 설교와 세례식을 병행하기 위하여 목사는 설교를 미리 준비 잘 하고 조금 짧게 한다.⁷¹

(10) 세례식 순서는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세례, 어른 세례, 입교식으로 한다.⁷²

(11) 어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날부터 교회원이며, 유아세례를 받았던 자는 출생 시부터 교회원이 되지만 입교예식을 한 날에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⁷³

(12) 이명증서(移名證書)를 구비한 교인 영접은 유아세례, 어른 세례와 입교예식을 행한 다음 바로 행한다.⁷⁴ 목사가 호명(呼名)하여 기립하게 하고 온 교인으로 영접하게 한다.

(13) 세례와 성찬은 공예배 시 집례되며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두 예식을 당회의 결의대로 집 안에서도 행할 수 있다.⁷⁵ 교회

⁶⁹ 『목سخ지법(牧師之法)』에 의하면, 유아세례식이나 성인세례식 시작 전에 목사가 종이 조각, 즉 지편(紙片)을 많이 예비하였다. 각 조각에 세례 받을 자의 성명을 하나씩 쓰고, 시작할 때에 먼저 성명지편(姓名紙片)을 각 세례대상자에게 나눠 주었다. 세례대상자가 주머니나 혹은 책 안에 넣지 말고 손에 들고 있게 하였다가 목사가 세례를 주기 위하여 돌아다닐 때에 각 사람이 차례로 목사에게 자기의 성명지편(姓名紙片)을 드리면, 목사는 많은 성명 중에 그의 성명을 잊었어도 그 성명지편을 보고 세례를 줄 때에 바로 성명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하면 목사가 자기의 명부록책(名簿錄冊)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여도 되며, 세례식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목سخ지법(牧師之法)』, 317.

⁷⁰ Ibid., 318.

⁷¹ Ibid., 320. 광안련은 강도보다 세례식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세례식과 강도를 같은 시간에 행하지 못하겠다고 그날 강도는 정지(停止)함이 가하다고 권면하고 있다.

⁷² Ibid., 320-321.

⁷³ Ibid., 321.

⁷⁴ Ibid., 321-322.

⁷⁵ Ibid., 321-322.

로 가지 못하는 어른이나 약하고 병든 아이가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본가(本家)에서 행할 수 있다.⁷⁶

(14) 세례의 횟수는 분기 1회로 한다.⁷⁷

(15) 목사는 평생에 단회적으로 받는 세례를 위해 세례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여 세례의 의의를 분명히 설명한다. 또한 목사는 교육을 받은 세례대상자가 분명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세례를 베푼다.⁷⁸

2) 세례식 순서

세례식 순서를 유아세례식, 어린 입교식, 유세자 입교식과 어른 입교식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⁷⁹

(1) 유아 세례식

① 세례 전 부모 문답

유아세례 전 당회가 그 부모들을 불러서 유아세례의 뜻에 대하여

⁷⁶ 『목사지법(牧師之法)』, 322-323.

⁷⁷ 세례는 흔히 ‘주일대예배회’ 말에 행하지만, 특별시간(特別時間)을 내어 주일 오후 5시나 해가 떨어지는 일락시(一落時)에 행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곽안련은 생각하였다. 참조하라. *Ibid.*, 323.

⁷⁸ 곽안련은 세례의 횟수와 관련하여 전임목사가 있는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으며, 혹 6개월에 한 번씩 행할 것이며, 전임목사가 없는 순행구역(巡行區域)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목사지법(牧師之法)』, 323-324). 곽안련은 세례를 너무 자주 베풀면 미숙한 자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만 행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으며, 세례를 베푼 후에 그 성명을 즉시 명부록(名簿錄)에 올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다(*Ibid.*, 324). 그러나 곽안련은 『목회학』(1955)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세례를 주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으며, 학습은 1년에 2차, 3차 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참조하라. 『목회학』(경성: 대한기독교서회, 1955), 143.

⁷⁹ 곽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 1878-1961)은 『목사지법(牧師之法)』(1919)에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그의 저서 『목회학』(1936)에서는 세례대상자 교육을 강조했다. 즉 상기했던 세례의 다섯 가지 의의를 목사가 세례를 집례할 때마다 분명히 설명하라는 것이다. 즉, 세례는 예수께서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 된 표요, 하나님의 식구로 입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는 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요,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표이며, 세례대상자가 맹세하여 몸을 드려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표임을 세례대상자에게 확실하게 교육시키라는 것이다. 세례는 평생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받는 것이므로 세례의 의의와 유익을 받는 그날에 모른다면 유감스러운 일임을 말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목회학』(1936), 134.

문답을 한다. 부모 문답을 통해 유아세례의 뜻과 부모들의 담당할 것을 깨닫게 한다.⁸⁰

② 착석

세례 받을 유아의 모든 부모가 강대상 앞에 나와 앉는다.

③ 설명

그 후에 목사가 간단하게 그 부모들과 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유아세례의 뜻과 그 부모의 직임과 본분과 맹세의 뜻을 설명한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며,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영향을 끼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 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합니다.”⁸¹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의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장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⁸²

⁸⁰ 『목사지법(牧師之法)』, 320-321.

⁸¹ *Ibid.*, 316.

⁸²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④ 기도

세례식 의의 설명 후 하는 기도는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Coram Deo) 기립하여 있음을 각오하게 하는 것이다.⁸³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시여! 이제 세례의 뜻과 부모의 직임과 본분과 맹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이 온 맘을 다하여 정직하게 서약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⑤ 문답(서약)

기도 후 기립하여 목사의 묻는 대로 대답한다. 그 모친이 유아를 데리고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그 부친도 강대상 앞에 나온다. 만약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친족 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하도록 권한다.⁸⁴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그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까? (2) 그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3)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4.

⁸³ Ibid., 74; 『朝鮮예수敎長老會婚喪禮式書』(京城: 發行所 未詳, 1924), 8을 참조하라.

⁸⁴ 곽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8.

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장성하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⁸⁵

⑥ 유아세례식에 대하여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린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시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맘을 드려 정직하게 서약했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아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사 성장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⑦ 그 후에 목사가 아이의 성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며 물로 그 아이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⁸⁶

⑧ 간단한 기도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시여!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⁸⁵ 『목사지법(牧師之法)』, 316. 유아세례식에서 그 친족(親族) 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外家)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서약하게 하지 아니하면, 유아세례 후에 모친을 반대하든지 일가(一家)나 외가(外家) 중에 누군가 그 아이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⁸⁶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5;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京城: 發行所 未詳, 1924), 9-10.

(2) 어른 입교식

어른 입교대상자는 학습인이나 교우 중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지원한 자이다. 이때 당회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를 순종하며 충성된 신앙의 형편의 유무를 문답하여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목사가 교회 앞에 공식으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세례를 준다. 어른 입교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어른 입교대상자가 회중에 기립한 후 목사가 설명한다.

“사랑하는 입교대상자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당회가 공식으로 그의 받은 은혜와 믿는 증거를 인정한 후에 입교케 하는 고로 지금 모모 씨에 대하여 몇 가지 서약조례를 물은 후에 주님의 세우신 예법대로 세례를 주어 같이 성도 된 것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기길 원합니다. 이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과 주와 연합하는 표이며 인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대들이 더욱 신중히 하여 하나님과 교회로 더불어 체결한 언약을 준수할 줄로 압니다.”⁸⁷

② 입교식 의의를 설명한 후 기도한다.

“사랑하는 입교대상자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입교대상자들이 세례의 뜻과 맹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입교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교대상자들이 온 맘을 다하여 정직하게 서약하게 하옵소서. 세례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⁸⁷ 참조하라. *Ibid.*, 75; 『朝鮮예수敎長老會婚喪禮式書』, 10.

③ 어른 입교대상자에게 목사가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로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①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②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뿐이신 줄로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③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 길을 버리고 보이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④ 그대들이 이 교회의 헌법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배우며 의무와 책임을 담당하기로 허락하십니까?”⁸⁸

④ 어른 입교식에 대하여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린다.

“사랑하는 입교대상자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입교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맘을 드려 정직하게 서약했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입교대상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입교대상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⑤ 기도 후에 목사가 물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름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세례를 베푼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모 씨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⁸⁸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6.

세례를 주노라 아멘.”⁸⁹

⑥ 목사가 기도하고 마친다.

“사랑하는 입교인 여러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은 이 입교인들을 하나님께 부탁 드립니다. 이 입교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어른 입교식과 유세자 입교식

어른 입교식과 유세자 입교식을 혼합하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 순서는 회중 앞에 기립,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유세자 입교인을 위한 목사의 설명, 어른 입교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기도, 문답,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 된 유세자 입교인들을 위한 권면, 기도, 어른 입교대상자들을 위한 세례집례, 기도의 순이다.

①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유세자 입교인을 위한 목사의 설명이다. 성년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공식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자 중에 모모 씨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담부할 자 되기를 원함으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변하는 지식을 문답하여 가납

⁸⁹ 참조하라. *Ibid.*, 76-77.

합니다.”⁹⁰

② 어른 입교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이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모모 씨를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일에 대한 저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을 사실하여 인정한 고로 지금 성도와 동반되는 것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깁니다.”⁹¹

③ 입교식 의의를 설명한 후 기도한다.

“사랑하는 입교대상자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입교대상자들이 세례의 뜻과 맹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입교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교대상자들이 온 맘을 다하여 정직하게 서약하게 하옵소서. 세례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④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유세자 입교인들과 어른 입교대상자들 모두가 공식으로 신앙고백을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목사가 각인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공식으로 신앙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그대들은 다 다음의 선언과 허락을 승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부터 엄중한 언약을 맺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하

⁹⁰ 참조하라. *Ibid.*, 77.

⁹¹ 참조하라. *Ibid.*, 76.

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2)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3)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4)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⁹²

⑤ 문답 이후에는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유세자 입교인들에게 짧게 권면한다.

“사랑하는 유세자 입교인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공식으로 신앙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례교인으로 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유세자 입교인 여러분은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⑥ 어른 입교대상자에 대하여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린다.

“사랑하는 입교대상자 여러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입교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맘을 드려 정직하게 서약했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입교대상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입교대상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

⁹² 참조하라. *Ibid.*, 76;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4), 239.

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⑦ 기도 후에 목사가 물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름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세례를 베푼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모 씨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⁹³

⑧ 목사가 기도하고 마친다.

“사랑하는 입교인 여러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은 이 입교인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입교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는 말

본 연구자는 군인교회들 중에서 세례대상자의 신앙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문제점과 세례자 교육 없이 세례를 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로교 초기문헌을 중심으로 ‘뱁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을 제안하고, 세례식 매뉴얼도 소개하였다. ‘뱁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은 ‘뱁티즘의 영어 철자를 따라서 성경(Bible), 인간(A Man), 기도(Prayer), 믿음(Trust), 입교(Initiation), 성례(Sacrament), 세례식 매뉴얼(Manual of baptism)로 구성되어 있다.

‘뱁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첫 번째는 성경이다. 먼저 세례준비자들

⁹³ 참조하라. *Ibid.*, 76-77;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240-241.

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문헌에서는 세례준비자들에게 성경을 교육시키는 것이 자주 언급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인간이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한 인간’인 아담을 일차적으로 뜻하며, 이차적으로 모든 인간을 뜻한다. 세례준비자들에게 한 인간 아담의 범죄 사실과 우리에게 끼치는 죄의 영향력을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는 기도이다. 세례준비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화시켜 가르쳐야 한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an den Vater),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durch den Sohn), 성령 안에서(im Heiligen Geist)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루어짐의 약속이다. 기도는 세례준비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학습 과정이다.

네 번째는 믿음이다. 세례준비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한국교회 장로교 초기문헌 중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1910)에서는 경배 받으실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의 보내신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입교이다. 세례준비자들에게 성경, 인간, 기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등을 교육시키고, 신앙고백을 확인한 후 입교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성례이다. 세례대상자들이 입교를 했다면 성례에 대한 신비스러운 비밀을 깊이 깨닫도록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세례식 매뉴얼로서 세례 집례방안, 세례식 순서를 제안하였다.

군선교를 위한 ‘뱃티즘’(B.A.P.T.I.S.M.)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의 결과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해군·해병대 교육단, 공군 교육사를 포함한 각종 훈련소와 부대에 있는 약 1,000여 동의 군인교회의 세례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아울러 모든 군인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기를 소망한다.

Abstract

My study has distinctive value. There has not been any research on the educational methods for catechesis in military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early Korean Presbyterian documents.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308 soldiers who were baptized at Jehovah-Nissi Church in the training camp of the 15th Infantry Division between August and November of the year 2007.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responses, it was found that baptism in the training camp was administered without making sure the catechumens' genuine confession of faith and even without any catechumenal education; that the catechumens' confession of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was not clear enough; that the hours spent for catechesis were only one to two hours, in case a session was offered that there were catechumens who did not rightly understand how Christians should live following baptism or even those who had a negative view about the Christian duties.

I have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ptismal practices of the Korean military churches by an application of the early Korean Presbyterian documents. Ye-soo-gyo-moon-dahb(1894), the first catechism in the Presbyterian history of Korea, provided an education for catechumens and the children of Christian families. Wee-won-ihp-gyo-ihp-gyoo-dyo(1895) is the first catechism for the candidates of baptism in the Korean Presbyterianism. As an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 faith and as a manual for catechumens,

it includes a detailed account on the definition of Christianity and Christian Church guideline for the initiated guideline for prayers Bible study preservation of the Christian Sabbath guideline for worship service; treatise of sacraments guideline for church communities polity guideline for offering hymns; etc. Mok Sa Ji Beob(Pastoral Theology, 1919) is the first work in the area of pastoral theology, just as its name, in the Korean Presbyterianism. It mainly discusses how to lead the baptismal service.

In summary, the early Korean Presbyterian documents testifies that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es in the country had a thorough and complete process in preparing their candidates for baptism. In comparison to this heritage, the Korean military churches, along with the contemporary non-military churches in the county, appear to neglected catechesis.

For a solution to the mentioned problems with the baptismal practices within the Korean military churches, I propose the 'B.A.P.T.I.S.M.' method which is my unique and creative approach to catechism, based on the rich traditions found in the early Korean Presbyterian materials. It, following the acrostic of baptism, consists of Bible, A Man, Prayer, Trust, Initiation, Sacrament and Manual of baptism. The latter includes resources for catechesis and a proposal for how to organize a baptismal service along with a suggested order. I hope that my proposal of B.A.T.I.S.M. will contribute to a proper practice of catechesis in the military settings as well as the non-military settings in Korea and ultimately to the restoration of the body of Christ in the country.

주제어(Key words)>

세례(baptism), 세례자교육(catechumens), 입교(initiation)

군선교(military mission), 한국장로교(Korean Presbyterian)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 (On Ps. 38. 13)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A Spirituality of Augustine's Prayer with
“Your very desire is your prayer” (On Ps. 38. 13)

■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 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대학원(Ph. D.)
- (예)육군군종목사
-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계명대학교,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출강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및 편집위원



1. 들어가는 말

어거스틴은 기도에 관한 책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어거스틴은 여전히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다. 어거스틴은 철저히 초대 기독교의 영성¹을 계승하며 놀라운 영감과 신학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더욱 풍성하

¹ 정용석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영성은 크게 다섯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종말론적 영성(eschatological spirituality), 둘째, 예배 영성(liturgical spirituality), 셋째, 공동체적 영성(communal spirituality), 넷째, 순교 영성(martyrdom spirituality), 다섯째, 수덕적 영성(ascetic spirituality). 기도와 관련한 어거스틴의 영성은 초대교회의 예배 영성과 궤를 같이한다. 초대 기독교는 철저히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고 공고하게 발전시킨다.

기도에 대한 어거스틴의 영성은 ‘갈망’(desire)이라는 개념으로 특화된다. 레베카 웨버(Rebecca Weaver)에 따르면, 기도의 특성과 목적에 대한 어거스틴의 견해들은 영원한 행복을 향한 순례자로 묘사된 기독교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²

헤이즐턴(Roger Hazelton)에 따르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항상 ‘여행 중인 사람’(homo viator)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타는 열망에 자극받고 형언할 수 없는 약속에 매혹되어 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정해진 순례의 길을 간다.³ 어거스틴에 의하면,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불멸의 선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과 연합된 하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즐거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밝힌다.

“이성적 존재가 그 합당한 목표로서 갈구하는 행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이성적 존재는 불변하는 선 곧 하나님을 아무 지장 없이 즐기며, 동시에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무 의심이나 그릇된 판단의

공동체였다. 그들의 예배는 성경봉독, 설교, 기도, 찬송, 평화의 입맞춤, 애찬, 축도의 순서로 1부 예배가 끝난다. 2부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참석하며, 성찬식을 하고 주기도를 함으로써 끝난다. 특히 기도는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 요소이다. 존 크리스소스톰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강조한 이래 초대교회는 기도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 정용석, “초대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 1997), 34-66.

² Rebecca H. Weaver, “Prayer,” *Augustine: through the Ages*, Ed., Allan D. Fitzgeral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9), 671.

³ Roger Hazelton, “경건의 삶”,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현재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470. 순례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됨은 지위가 아니고 운동이며, 지점이 아니고 과정이다.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고정된 만남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그 본질이다.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⁴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영원한 행복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순례에 있어 기도의 기능은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끝인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의 갈망을 형성하고 강화함으로써 그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이에 어거스틴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시 38:9)를 주해하면서 이렇게 읊조린다.

“‘나의 모든 갈망은 하나님 앞에 있사오며’(시 38:9). 이것은 그 마음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갈망을 열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이다. 당신의 갈망이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있게 하라. 당신의 진정한 갈망(소원)이 당신의 기도이다.”⁵

이처럼 어거스틴에게 있어 기도는 영원 곧 갈망의 문제이다. 특히 갈망으로서의 어거스틴의 기도는 그의 『시편 상해』(*Enarrationes in Psalmos*) 38. 13에 적시된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Your very desire is your prayer)에 집약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라는 명제로 대변되는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의 요체(要諦)를 해명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투사하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기도에 대한 어거스틴의 용법

1) 주요 저작에서의 기도의 예

어거스틴은 이성과의 대화라는 독특한 형식인 『독백』⁶을 저술함에

⁴ Augustine, *The City of God*, 11. 13, tr., Marcus Dods,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Printing Company, 1993). 이하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는 NPNF로 표기함.

⁵ Augustine, *Expositions on the Book of Psalms*, 38. 13. NPNF., Vol., VIII. 이하 *Expositions on the Book of Psalms*는 *On Ps.*로 표기함.

⁶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 386년 9월부터 387년 3월 초 사이에 카시키아쿰(Cassiciacum)

있어 먼저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히 추구한다고 고백기도를 드린다. 이 기도에서 어거스틴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나로 하여금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악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주님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자들까지도
멸망하기를 허락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눈이 아주 아름답다고 보는 이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시기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진리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악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사악한 면이 있어도

에 소재한 베레쿤두스(Verecundus)의 별장을 빌려 일종의 퇴수회를 가진 어거스틴은 그곳에서 『아카데미 학과 논박』, 『복된 삶』, 『질서론』과 함께 『독백』을 저술하였다. David E. Roberts, “The Earliest Writings,” Roy W. Battenhouse,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125. 메리 클라크(Mary T. Clark)에 따르면, 『독백』은 참된 진리를 기초로 하는 영혼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독백』에서 다루는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기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과 그 불멸성에 관한 것이다. 어거스틴이 추구한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아는 것에 관한 것이다. Mary T. Clark, “Augustinian Spirituality,” *Augustinian Studies* 15 (1984), 86.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완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선과 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절대적인 부조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의
 비열함, 사악함, 오류에 의해서도
 주님은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와 지혜의 아버지시여,
 참되고 완전한 생명의 아버지시여,
 복과 선과 미와 지성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시여,
 우리를 조명해 주시어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약속의 아버지시여,
 주님을 불러 기도합니다. 아멘.”⁷

389년, 어거스틴은 그의 고향인 타가스테(Tagaste)로 돌아와 그의 친

⁷ Augustine, *The Soliloquies*, 1, 1, *NPNF*, Vol., VII. 어거스틴에 따르면, 자기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자기가 추구할 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하여 자기가 발견한 어떤 진리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는 이성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은 이성과 자기 사이의 대화를 시작한다.

아들 아데오다투스(Adeodatus)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책으로 편집했다. 바로 『교사론』(*De magistro*)⁸이 그것이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기도의 자리에 대해 언급한다.

“말하는 자는 발설하는 소리로 자기가 원하는 것의 외적인 상징을 주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적인 영혼의 비밀스러운 곳, 곧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찾고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자기의 성전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신다. 사도 바울에게서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그리스도께서 속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엡 3:17) 선지자의 글에서 보지 못하였느냐. ‘심중에 말하고 자리에서 괴로워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주를 바랄지어다’(시 4:4-5). 의의 제사는 마음의 전에서 그리고 심중의 침상에서가 아니라면 어디서 드린다고 생각하느냐? 제사가 드러져야 하는 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필요, 그러니까 발언할 수 있는 말은 필요가 없다. 사제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의 상징을 주려고 말을 사용하는 것을 빼고 말한다면 말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기억하게 되어서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⁹

⁸ 어거스틴의 『교사론』은 ‘학생들이 그의 교사들로부터 진정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기호가 갖는 교육적 의미로부터 시작되는데, 기호는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언어도 크게 보면 하나의 기호이다. 그러면 가르침이란 전적으로 기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해, 학생이 전에 그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했더라도 그 단수 기호를 통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기호의 의미를 상대방이 알고 있지 못했다면 어떠한 기호로도 상대방이 가르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saraballae라는 단어를 들어 기호의 예를 삼고 있다. Augustine, *The Teacher*, 7, 19-20,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V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5). 이하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는 LCC로 표기한다.

⁹ Augustine, *The Teacher*, 1, 2, LCC, Vol., VI.

397-401년 사이에 어거스틴이 저술한 『고백록』(*Confessiones*)은 그의 기도의 보고(寶庫)이다. 고백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쓰여 있다. 이렇듯 어거스틴은 기도의 형식으로 책을 써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렸다.

“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징계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기에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나를 그릇된 길에서 구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따르던 모든 달콤한 유혹보다

더 달콤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소서.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심으로

모든 유혹의 위협에서 마침내 나를 구해주소서.

주여, 주님은 진실로

나의 임금, 나의 하나님이니

소년 시절에 배운 모든 유용한 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게 하시고

말하고, 쓰고, 읽고, 셈하는 모든 것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¹⁰

어거스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고 가 주소서”라고 기도드린다.

¹⁰ Augustine, 『고백록』, 1, 15, 24, 선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이하 『고백록』은 *Conf.*로 표기한다.

“오, 우리 주 하나님이지여,
주님의 날개 밑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고 가 주소서.
주님은 우리가 어릴 때나 또는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는 정말 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우리의 힘뿐일 때에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선함은 영원히 주님 안에 근거해 있사오니
주님을 싫어해서 떠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왜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감으로써
다시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은 선 자체이시므로
우리의 선은 주님 안에서만
위험 없이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다 스스로 그 집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거기에 거하지 않아도
허물어지지 않사오니
그 집은 주님의 영원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¹¹

387년 가을, 어거스틴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스티아(Ostia)에서 배를 기다리는 중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게 될

¹¹ Conf., 4. 16. 31.

때 장엄한 ‘임종의 기도’를 드린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말과 마음과 글로 섬기고 있는 나의 형제들인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스승들에게 감화를 끼치소서. 또한 내 고백록을 읽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화를 끼치소서. 그들이 이 책을 읽고 당신의 여종인 모니카(Monica)와 남편이었던 파트리키우스(Patricius)를 당신의 제단에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당신은 이 두 사람의 육신을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 두 사람 즉 이 무상한 세상에서는 나의 부모님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교회와 아버지가 되시는 당신 안에서는 형제가 되며, 당신의 백성들이 출생 시부터 그곳을 향해 한숨 쉬며 순례를 하고 있는 저 영원한 예루살렘에서는 같은 시민이 되는 이 두 분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그럼으로써 어머니가 임종 시에 나에게 부탁했던 그 요청이 내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보다는 내 고백록을 읽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¹²

400년에 시작하여 20년에 걸쳐 완성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De Trinitate*)은 그의 심리학적인 식견과 삼위일체의 상호내재(co-inherence)라는 통찰(perception)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묶는 띠로 성령을 파악한 점에서 탁월한 논문이자 걸작이다. 어거스틴은 어렵고 애매한 주제인 삼위일체 속에 놓인 하나님의 진리를 살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 내 청을 들어주셔서 당신을 찾는 일에 지치지 말게 하소서. 항상 더욱 열성으로 당신의 얼굴을 찾게 해주소서. 찾는 힘을 주께서 내게 주소서. 당신이 찾아지게 하

¹² *Conf.* 9, 13, 37.

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갈수록 보다 완전한 지식으로 당신을 찾아 만나리라는 희망을 내게 주신 이도 주님이시나이다. 나의 힘과 나의 약함이 당신 앞에 놓여 있나이다. 힘은 보존하시고 약함을 낮게 하여 주소서. 나의 앎과 나의 모름이 당신 앞에 놓여 있나이다. 나에게 문을 열어 주신 그곳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문을 닫으신 그곳에서는 내가 두드리거든 열어 주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포옹하고 당신을 사랑케 하여 주소서.”¹³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맨 마지막은 이런 기도로 끝맺는다.

“오, 주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것인 이 책에서 제가 한 말을 당신의 백성이 인정하기를 원하나이다. 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의 용서를 비나이다. 아멘.”¹⁴

416년, 어거스틴은 요한일서에 대한 10개의 설교를 묶어 『요한일서에 대한 설교』(*Ten Homilies on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St. John*)를 간행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설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할 수는 없습니까? 주교들이나 위정자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간구할 수는 없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골 4:3). 사도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은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

¹³ Augustine, *On The Trinity*, 15, 28, 51, *NPNF.*, Vol. III.

¹⁴ *On The Trinity*, 15, 28, 51.

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¹⁵

또한 어거스틴은 ‘요한일서에 대한 그의 여섯 번째 설교’에서 ‘항상 응답되는 기도’에 대해 강조했다.

“7……여러분은 사탄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고후 12:7)가 응답되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이것이 그에게 선(good)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그 자신의 선(good)에 귀를 기울였으나, 그의 소원(desire)에 따라서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신자인 여러분이 이해하고 유혹 가운데서 언제나 기억했으면 하는 커다란 신비입니다. 성자들의 기도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선을 위해서는 응답되었습니다. 즉 언제나 그들의 영원한 선(eternal good)에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언제나 응답되었습니다.

8이처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을 주심을 이해해야 합니다.”¹⁶

어거스틴의 생의 최후를 곁에서 지켜본 포시디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430년 8월 29일 77세를 일기로 임종하던 시점에서도 어거스틴은 의사가 독서를 금한 연고로 ‘참회의 시편’을 적은 종이를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생을 정리했다.

“그분께서는 아무리 세례를 받고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나 사제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땅하고 적합한 참회 없이 세상을 떠

¹⁵ Augustine, “First Homily(I John 1:1-2:11) 8,” *Ten Homilies on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St. John*, LCC, Vol., VIII.

¹⁶ Augustine, “Sixth Homily(I John 3:19-4:3) 7-8,” *Ten Homilies on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St. John*.

나서는 안 된다고 가족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돌아가시게 될 마지막 병환 중에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참회에 관한 다윗의 시편을 짧게 옮겨 적게 하시고 그 종이를 벽에 붙이게 하신 다음 침대에 앓아누워 계시면서 날마다 그것을 꼼꼼이 되새기고 읽었으며, 뜨거운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셨다. 육신을 떠나기 열흘 전쯤부터 당신께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 곁에 있던 우리에게 요청하시어 의사들의 왕진하는 시간과 음식을 날라 오는 시간 외에는 아무도 당신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지켜 행하였고 그분께서는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셨다. 당신의 마지막 병환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힘차게 맑은 정신과 건전한 판단력으로 설교 하셨다. 육신의 모든 지체를 온전히 보존하셨고 시력과 청력도 건강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 쓰인 대로 행복한 만년을 보내시다가 당신 성조들과 함께 잠드셨다.”¹⁷

2) 기도의 용어 분석

웨버의 연구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기도에 관한 다양한 용어들을 채용했다. 이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에 부합되는 용법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호환성(interchangeability)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기도의 용어 채택에 대한 어거스틴의 유연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실제적인 고려의 결과이다. 특히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기도의 특별한 유형을 지칭하는 그리스어의 특징적 용어들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자주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라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성경본문의 저자에 의해 채용된 그리스 용어가 진정한 뜻대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기도라는 말을 쓰는 여러 어휘들 중

¹⁷ Possidius,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31. 1, 이연학, 최원오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8).

에서 특징적 구별을 지어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oratio*와 *laus*의 경우이다.¹⁸

*oratio*는 청원(탄원)하는 기도(petitionary prayer)를 지칭할 때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oratio*의 영역 안에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간청이 포함된다. 그 형식이 어떠한가에 인간의 비통한 상태에서 이러한 형식이 일어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 30:2-3).

위 시편 기자의 부르짖는 기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극심한 불확실성과 그 자신의 죄에 당면한 기도의 간청자는 그 자신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웨버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청원과 탄원의 성격인 *oratio*와 유사한 다음 세 가지 단어 곧 *deprecatio*, *intercessio*, *invocatio*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먼저 *deprecatio*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고통 받는 자의 외침(the cry of the distressed for divine mercy)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낸다.¹⁹ 이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주기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¹⁸ Rebecca H. Weaver, *op. cit.*, 671.

¹⁹ *Ibi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deprecatio*의 기도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악을 피하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다음으로 *intercessio*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는 측면에서 *deprecatio*와 유사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특성이 강하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시 17:9-10).

기도에 관한 *deprecatio*와 *intercessio* 이 두 형태는 고통의 삶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invocatio*는 비록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지만 어떤 은혜(이익)를 단순히 청원하는 것을 넘어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도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흡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시 144:5-6).

invocatio 유형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하나님께 간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초대하는 것(To invoke

God is to invite God into oneself)이다.²⁰

“그러면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를 내 안으로 오시라 구하는 것인데 내 안에 내 하나님이 들어오실 무슨 자리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까?……내가 비록 지옥에 있지 않아도 당신은 거기에도 계심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만일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당신은 거기에도 계십니다(시 139: 8).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를 통해 있사오니 나도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²¹

이처럼 *invocatio*의 기도는 단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은혜, 은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다.²²

어거스틴이 사용한 *laus*의 기도는 *oratio*와 그것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기도의 특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절망적인 곤경의 삶에서 도움을 구하는 외침과 신음과 참 행복(팔복)의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속한 찬양’을 포괄한 기도라는 특성을 보인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이 모든 찬양이 천국에 있는 성자들에게는 제한받지 않는다. 심지어 여기 땅에서 즐거운 심령은 말로(언어로), 노래로, 악기로, 그 즐거움에 맞는 삶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언어를 뛰어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²³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²⁰ *Ibid.*

²¹ *Conf.*, 1, 2, 2.

²² Rebecca H. Weaver, *op. cit.*, 671.

²³ *Ibid.*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
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시 92:1-5).

이 *laus*의 기도는 이 삶에서(이생에서) 성도들의 찬양은 필연적으로
간구와 섞여 있고, 반면에 오는 삶(내생)에서 그것은 그들의 독점적이고
끊임없는 직함(임무, 사역)이 되는 특성을 강하게 함유한다. 그런데 전체
적으로 보아 기도에 대한 어거스틴의 진술은 대개 *oratio*의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다.²⁴

3. 어거스틴과 갈망으로서의 기도

1) 갈망으로서의 기도의 본질

어거스틴은 일생 동안 갈망하며 살았다. 특히 어거스틴은 행복을 갈
망했다.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한때 육체적 쾌락과 행복을 동
일시하여 육체적 욕정에 불타오르기도 하였다. 마니교에 심취하여 행
복을 가로막는 악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기도 하였다. 어거스틴은 악의
원인에 대한 마니교의 가르침의 한계를 인지하여 아카데미아 학파의
회의론에 접하게 되어 이성적 정신이 혼탁해지고 온갖 오류와 거짓된
견해들이 삶을 혼미케 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만이 행복
자체이심을 확신하였을 때 그의 삶의 일관된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행
복을 갈망하며 추구한다고 고백했다.

“이제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로 전향하게 하셨으니, 나는 아내
나 세상의 어떤 다른 희망도 찾지 않기로 하였습니다.”²⁵

²⁴ Ibid.

²⁵ Conf., 8, 12, 30.

회심한 어거스틴이 추구한 행복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표명되는데, 이는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향성이다.

“인간이면 예외 없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행복이다. ‘전쟁에 나가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행복해지기 원하는가?’라고 물으면 누구나 ‘예’ 하고 대답한다. 이 땅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있다. 분명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²⁶

유진 포타일(Eugene Portalie)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인간의 내적 영혼에는 행복을 위하는 저항할 수 없는 갈망(irresistible yearning)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자명하다.²⁷ 어거스틴의 사고 경향은 특히나 단순한 경향성보다는 실존적 문제를 지향한다. 다르키(M. C. D'archy)에 따르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인간은 실존적으로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이다.²⁸ 인간의 육체가 보다 성숙해지기 위하여 자양분을 필요로 하듯이 인간의 영혼 역시 그 성숙을 위해서는 자양분을 필요로 한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행복 추구는 흔들리는 실존적 인간이 영원불변의 존재이신 하나님에게서 안정을 얻으려는 갈망이다.

토마스 핸드(Thomas A. Hand)의 평가에 의하면, 선한 그리스도인의 통전적 삶은 ‘하나의 거룩한 갈망’(a holy desire)이다.²⁹ 어거스틴 또한 예

²⁶ Augustine, *De Beata Vita: A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0 tr. Ruth A. Brown (Cleveland: John T. Zubal, Inc. 1984).

²⁷ Eugene Portalie, *A GUIDE TO THE THOUGHT OF SAINT AUGUSTINE*, tr., Ralph J. Bastian (Westport: Greenwood Press, 1975), 271.

²⁸ M. C. D'archy, *St. Augustine: His Age, Life and Thought* (New York: Meridian Books, 1964), 227.

²⁹ Thomas A. Hand, *Augustine on Prayer* (New York: Catholic Book Pub. Corp.,

외가 아니다. 순례자를 자처한 어거스틴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았기에 ‘미충족된 갈망’(the unsatisfied yearning)을 마음에 품고 그의 마음의 갈망의 소리를 드높인다. 그 갈망의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이르도록 관통하는 유일한 것이다.

“갈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비록 그의 혀가 침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노래하는 것이며, 만약 그가 갈망이 없이 기도한다면 비록 그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소리를 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병어리에 불과하다.”³⁰

어거스틴의 진술에 의하면, 기도는 소리의 반향(reverberation)이 아니라 사랑의 조음(調音)이다.

“대개 사람들의 귀는 당신의 입술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귀는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이 침묵을 지키는가!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웅변적이다(eloquent).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듣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시끄러운 함성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떠나 버렸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애착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We ought to pray, then, with our affections).”³¹

어거스틴이 보기에 우리의 기도는 입술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핸드의 평가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보기에 기도자는 사실상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기도자의 목소리는 마음의 갈망이다. 이 기도자의 소리

1986), 20.

³⁰ On Ps., 86. 1.

³¹ On Ps., 119. 9.

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강렬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귀에는 외침처럼 들린다.³² 실제 어거스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시 3:4)를 주해하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이것은 공기의 반향의 소리가 외형화된 육체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이다.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으로 써 하나님과 함께 내는 소리이다.”³³

핸드의 분석에 의하면, 시편 기자는 기도자가 그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시 31:22). 다시 시편 기자는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시 66:19). 그리고 다른 시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supplication)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시 140:6).³⁴

어거스틴은 시편 140편 6절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이것은 간단한 진술이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단히 말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가 마치 그의 마음의 애착을 좀 더 강조하면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표현하면 좀 더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즉 나의 기도의 삶, 내 기도의 영혼(the soul of my prayer)은 단지 내 말에서 소리들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언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모든 다른 생명이 없는 소리들은 말이 아니라

³² Thomas A. Hand, *op. cit.*, 21.

³³ *On Ps.*, 3, 4.

³⁴ Thomas A. Hand, *Ibid.*

소리들(sounds)로 불릴 수 있다. 말은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나 그에 관한 올바른 사고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의 소리를 가질지 모른다. 그러나 기도의 목소리는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³⁵

결국 갈망으로서의 어거스틴의 기도는 이렇게 정리된다. 하나님께로 고정된 마음이 없이 신체의 목소리만이 하나님께 토로된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드러진 그 외침이 헛되이 들린다. 그러나 만약 그 기도들이 육체적인 소리로 들리지 않고 마음에서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서는 벗어나 보일지 모르나 그 기도들은 하나님의 주목하심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육신)의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든지 혹은 침묵 속에서 주님께 외치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외쳐야 한다.

2) 갈망의 기도로서의 ‘주기도’

클리프 에르마틴거가 집약한 바, 어거스틴에게 있어 기도는 그 본질이 매우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호흡(the breath of the soul)에 비교될 수 있다. 기도는 거룩한 제단으로 피어오르는 향과 같다. 세상 어디에도 기도의 향기 이상의 향수는 없다.³⁶

의심의 여지 없이 기독교인에게 있어 기도의 모본인 주기도(the Lord's Prayer)에 대한 어거스틴의 주해는 그가 393-396년경에 집필한 『산상설교』(De sermone Domini in monte)의 2권 4장에서 11장 사이에 위치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5장 1-12절에 위치한 ‘복이

³⁵ On Ps., 140, 9.

³⁶ Cliff Ermatinger, Ed., *St. Augustine Answers 101 Questions on Prayer* (Manchester: SOPHIA INSTITUTE PRESS, 2009), 7.

있나니……’(Blessed are……)를 팔복이 아니라 칠복으로 구분했다. 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앞의 ‘칠복’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³⁷ 아마도 어거스틴은 그의 수사법적 기법의 차원에서 ‘칠복’과 주기도문의 ‘일곱 탄원(청원)들’(seven petitions)을 병치시킨 것이라 사료된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는 응답해 주실 분이 친히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 의해 가르쳐진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위해서(for) 기도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 것을 얻는 것(방법)에 대한 것이다.”³⁸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을 통해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웨버에 따르면, 주기도문의 간구들은 신자가 마땅히 구하고 간구해야 할 방향과 한도를 구축한다.³⁹ 주기도의 각각의 간구는 소위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에게 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우리를 양육하였으나 사람들은 그에게 대항하고 거역하였다”(사 1:2).⁴⁰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공적들(our deserts)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영원한 상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

³⁷ Augustine,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1. 3. 10, *NPNF.*, Vol., VI.

³⁸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4. 15.

³⁹ Rebecca H. Weaver, *op. cit.*, 672.

⁴⁰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4. 15.

들이 ‘아바 아버지여’(Abba, Father)라고 기도할 수 있다.⁴¹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일러 준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늘에 계신”(in heaven, i.e. in the holy and the just) 분이다.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세상에서 최고 높은 부분이 하늘이라는 장소라고 믿는다면 새가 우리보다 높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차라리 겸손한 자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의로운 자들’(a righteous man)이라 불리는 하늘에 계신다. 죄인이 땅이라면 의인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도들 사이에 계시며, 또한 성도들의 영혼 안에 계신다. 영적인 면에서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물리적인 면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비유(similitude)는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⁴²

“우리가 기도하려고 일어설 때, 우리는 하늘이 시작되는 동편을 향해 서서 기도하곤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간적인 위치 때문이 아니다. 땅에 속한 육체가 보다 더 뛰어난 육체, 즉 하늘에 속한 육체를 지향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보다 나은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깨우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의 불편하는 영혼의 존엄성은 천상의 육체의 그것보다도 탁월한 것이므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요컨대 하나님은 성도들 사이에 계시며, 성도들의 영혼 안에 거하시기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God is

⁴¹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4, 16.

⁴²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5, 17.

attracted to dwell in the soul).”⁴³

어거스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간구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거룩하게 품도록 하기 위한 간구이다.

“시편 76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만 큰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은 존경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일컫는 모든 곳에서 위대하다. 복음이 열국에 전파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⁴⁴

어거스틴에 의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는 주님께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때 최후의 심판 날이 임하실 것’이라는 복음서의 가르침처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마 24:14)은 그분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현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나라가 인간에게 드러나게 되시오며’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을 다스려 오셨다. 눈이 멀었거나 눈을 감은 사람에게 빛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독생자가 이해(understanding)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신인(the Divine Man)의 인격으로 가시적으로 오셨기

⁴³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5, 18.

⁴⁴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5, 19.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⁴⁵

어거스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에 대해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도리어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⁴⁶

특히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와 모든 죄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원수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에게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기도한다.”⁴⁷

어거스틴에 의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는 중요한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간구는 각자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 의인의 최종적인 구원과 죄인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편 ‘하늘과 땅’을 영혼과 육체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육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듯

⁴⁵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6, 20.

⁴⁶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6, 21.

⁴⁷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6, 22.

이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저항하지 않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하늘과 땅’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에게서처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비록 역사적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또한 ‘하늘과 땅’은 남자와 여자로 이해 가능한데, 만약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아내와 남편이 된다면 이는 이 또한 땅이 하늘로부터 열매를 맺어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도 적합하다.”⁴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daily bread)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일 수도 있다. 또는 주님께서 “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요 6:27)라고 하신 말씀이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요 6:41)에서 볼 수 있듯이 ‘영적인 양식’(the spiritual food)일 수도 있다.⁴⁹

어거스틴에 의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마 6:25)고 하셨다면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후에 이것들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의 나라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셨다. 요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한다.⁵⁰

어거스틴은 일용할 양식을 성만찬으로 이해하는 것은 존중해야 하

⁴⁸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6, 23-24.

⁴⁹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7, 25.

⁵⁰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7, 25.

지만 일용할 양식을 성만찬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성만찬을 매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만찬을 받은 그날에는 또다시 주님의 몸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하루의 끝 시간에 성만찬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⁵¹

어거스틴은 일용할 양식을 ‘매순간 먹고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영적인 양식으로도 해석한다.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다(요 6:27). 지상에서의 잠정적 삶이 계속되는 한 이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불릴 수 있다.……육체가 배고픔을 느낄 때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이 일시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는 열망이 약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섭취함으로써 소생함을 받아야 한다.”⁵²

이에 어거스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시했다.

“육체에 필요한 양식, 주님의 몸의 성만찬, 하나님 말씀의 보이지 않는 떡. 이 세 가지는 가시적인 거룩한 떡이자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데, 우리는 이 연결된 모든 말씀을 다 취하여야만 한다.”⁵³

어거스틴에 의하면,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뿐이라

⁵¹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7, 26.

⁵²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7, 27.

⁵³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7, 27.

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여기 빚들은 죄를 의미한다.……'우리에게 빚진 자들'은 곧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의미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듯이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갚을 돈이 없거나 정신적으로 가난해서 욕심이 많아 갚을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탕감해 주지 않고는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또한 빚은 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지른 모든 죄들을 의미한다. 특히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수 없다. 분명히 용서는 금전적 빚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돈의 빚뿐만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죄의 모든 빚을 해결하는 증명서(reference)이다."⁵⁴

실제적 견지에서, 어거스틴에게 있어 용서는 죄의 용서와 더불어 금전적 빚의 탕감까지도 포함된다.

여섯 번째 주기도의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이다. 어거스틴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본에는 “악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And bring us not into temptation)로 되어 있으나 의미는 같다.⁵⁵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에 들도록 인도하지는 않으신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어도 마땅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실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 ‘시험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being brought into temptation)과 ‘시험을 당하는 것’

⁵⁴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8, 28.

⁵⁵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9, 30.

(being tempted)을 내버려두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전에 우리를 아신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신 13:3)는 이 구절은 그 경우의 최종 국면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He may make you know) 의미이다.⁵⁶ 이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시험(test)을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temptation)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로 시험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불에 닿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불이 삼켜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요셉은 시험(test)을 받았으나 유혹(temptation)에 빠지지 않았다(창 39:7-12). 수잔나는 시험(test)을 당하였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욕을 보라.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사탄은 신성모독적인 입을 날름거리며 하나님께 욕으로 하여금 유혹에 직면하도록(tempted) 해보야 한다고 간청했다.……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나누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모르고 욕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타락한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는 본성의 덕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빛 때문이다. 곧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 때문이다.”⁵⁷

“시험은 사탄의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벌하시거나 성도들에게 믿음을 확신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허용하시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시험에는 종류가 많다. 주님을 판 유다의 시험은 베드로가 두려운 나머지 주님을 부인한 시험과는 다르다. 유다는 주님의 피를 흘리도록 이미

⁵⁶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9, 31.

⁵⁷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9, 32.

작정된 사람이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인간적인 시험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전 10:13).……따라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든다. 그러나 현생의 번영이나 환난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에도 번영의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환난의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는다.”⁵⁸

일곱 번째이자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우리는 이 악에 이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이미 이끌려 들어간 악으로부터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무서운 일도 닥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해야 할 어떤 시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므로 당장 진면목을 볼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롬 8:24). 현생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지혜란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간절히 구하고, 피하라고 하신 것은 단호하게 피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이생에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행복이 나중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⁵⁹

어느 면에서 주기도에 있어 일곱 번째 간구는 ‘악한 자’(the Evil One)인 사탄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것보다는 ‘악’(evil)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간구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때때로 공포(nerve)와 안전함이 서로

⁵⁸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9, 34.

⁵⁹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9, 35.

줄을 당기는 긴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웨버에 따르면, 주기도에 대한 어거스틴의 주해는 갈망으로서의 주기도의 본질을 극명히 보여준다.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간구에서 순례자는 이생에서 시작되지만 영원에서 완성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간구한다. 마지막 네 간구에서 순례자는 하나님께 이 여행에 적합한 행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간구한다. 이 모든 간구들은 한 목적을 향해 방향 지어져 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획득할 것이라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각의 탄원은 저 열렬히 갈망해 온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인내를 간청하는 것’이다.⁶¹

4. 기도의 영성을 증진시키는 법

웨버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제안한 기도의 영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된다.⁶²

첫째, 시간을 정해서(the use of set hours) 기도하라. 어거스틴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영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세속적 일에 몰두해 버리는 것을 정기적으로 막아 준다. 갈망이 불처럼 꺼지지 않으려면 연료를 더 넣어 주어야 한다.⁶³

둘째, 기도자가 동쪽으로 향하는 것같이 “마음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행동”을 실천하라. 간청자로서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세를

⁶⁰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9, 35.

⁶¹ Rebecca H. Weaver, *op. cit.*, 672.

⁶² *Ibid.*, 673.

⁶³ Augustine, *Letters of St. Augustine*, 130. 9. 18, *NPNF*, Vol., I. 이하 *Letters of St. Augustine*은 *Letters*로 함.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기도에 있어 열정을 강화할 수 있다.⁶⁴

셋째, 짧은 기도들(short prayers)을 드려라.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갈망의 강도와 지속성이다.⁶⁵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지속될 때 완성된다.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 만약 당신의 갈망이 계속된다면 당신의 기도도 계속되는 것이다.”⁶⁶ 쉬지 않는 기도의 상태는 그의 행동이 이러한 갈망에 순응하는(일치하는)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갈망에 솔직한 삶의 문제이다.

넷째, 찬양과 간구를 강화하고 행동의 진실성(진정성)을 심화시키라. 한 사람의 찬양과 간구의 진수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찬양과 간구에 일치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많은 기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기도의 언어에 일치하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전체가 그 말씀에 일치하기 위해 갈망과 행실 모두에게 선생님(tutor)이 된다. 이러한 일치를 통해 기독인은 사도들이 명한 것을 성취한다.

다섯째, 기도자는 용서(forgiveness)와 자선(almsgiving)이라는 두 가지를 일치시키도록 힘쓰라. 용서는 마음(내부)의 행위, 자선은 외부적인 행위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용서와 자선 둘 다 모두 죄에 대한 치료책이며, 이웃과의 화평을 얻는 방법이자 기도에 있어 진정성을 시험해 보는 시험대이다.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기도에 대한 어거스틴의 영성의 특질은 “당신

⁶⁴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2, 5, 18.

⁶⁵ *Letters*, 130, 10, 20.

⁶⁶ *On Ps.*, 38.

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On Ps. 38. 13)로 집약되고 특화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존재 입증을 선행적으로 요구하는 기도에 관한 글을 한 편도 쓰지 않았다. 다만 어거스틴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글을 썼다. 기도로부터 나오는 어거스틴의 글들 속에 스며 있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를 동력으로 삼아 영적 여정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갈망은 기도에 대한 어거스틴의 영성의 본질적 키워드이자, 기도의 갈망은 순례자의 삶을 특성화한다.

Abstract

Augustine wrote no treatise on prayer. However, Augustine has left a wealth of insights on prayer throughout his treatise, sermons, and letters. The perspective of Augustine on the character and purpose of prayer were inseparably intertwined with his view of the christian life, which he portrayed as a pilgrimage toward eternal happiness.

Prayer on Augustine is a matter of yearning or desire. Especially Augustine confessed “Your very desire is your prayer”(on. Ps. 38. 14). As the cry of the Affections, it arises from the heart. At this point, Prayer is the heart’s longing for God.

주제어(Key words) >

어거스틴(Augustine), 기도(Prayer), 갈망(Desire)

기도의 영성(Spirituality of Prayer), 주기도(The Lord’s Prayer)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Free drawing technique as Family art therapy

■ 김상만 Kim, Sang Man

■ 예)육군군종목사 소령

■ 예술심리상담사

■ MEAK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정책전문위원



1.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동기, 제한점 등을 서술한다. 본 연구는 난화기법이 가족미술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내담자 4명을 선정하였고, 각각에게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총 7회기를 진행했으며, 내담자의 그림과 진술을 통해 난화가 가족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했다. 본 연구는 미술치료 영역에서 흔히 쓰는 기법인 난화그리기를 가족치료에 적용했을 때¹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실험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었고, 연구결과 또한 실험적 차원의 진술임을 밝힌다.

¹ 김동연 외 2명 편저, 『가족미술치료』 (대구: 동아문화사, 2000), 100.

물론 가족미술치료사인 Kwiatkowska는 매우 적극적으로 난화를 통한 가족미술치료를 시행했고,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한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 스스로가 Kwiatkowska가 사용한 난화 기법을 선정된 내담자를 통해 시도해 봄으로써 난화기법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또한 밝힌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먼저 직접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가족을 선정하고 그 가족의 역할을 특정해 내담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난화기법을 통한 가족미술치료의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데 그쳤다. 또한 개인 미술치료에서 흔히 쓰는 난화기법을 가족치료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연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난화기법을 통한 가족미술치료가 갖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가족미술치료를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난화기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난화기법을 적용한 가족미술치료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서술한다.

2. 난화기법

난화기법은 파울라 엘키시(Paula Elkisch)와 플로렌스 케인(Florence Cane)에 의해 처음으로 어린이들의 미술과업에서 사용되었다. 체계적인 미술치료를 실시한 나움버그(Naumberg)는 자신의 성인미술치료를 통해 난화는 무의식으로부터 심상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다.³

난화는 부정하거나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데 효과

² Ibid., 100.

³ Ibid., 101.

적이다. 난화기법은 미술치료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난화는 모방적이든 고정관념적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자극기법이다.⁴

난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유로운 팔의 움직임을 통해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난화를 그리는 동안 모양과 선들을 계획적인 것으로 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눈을 감고 그리도록 지시한다. 난화를 그림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은 각자가 난화를 처음 본 순간에 연상된 이미지를 포함하기 위해 본래의 선들을 무시하거나, 더 많은 선들을 첨가하거나 색깔을 사용한 것까지 포함한다. 난화의 모양과 선들은 심상을 연상하도록 자극한다. 이처럼 자유로운 형태의 난화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을 심상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⁵

Kwiatkowska는 가족미술치료에서 개인에게만 사용하던 난화를 가족화에도 사용했다. 본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난화기법을 통한 가족미술치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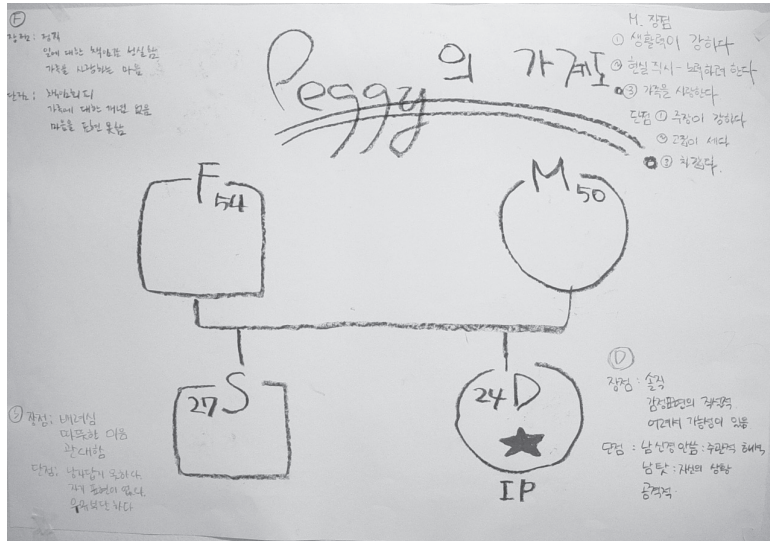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이미 밝힌 대로 난화기법이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상의 가족을 선택했고, 4명의 내담자에게 각각 가족구성원의 특징을 설명하고 역할을 맡게 했다.⁶ 폐기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보웬의 가계도에 사티어의 가계도를 합쳐서 각 가족구성원들의 특징을 적었다.

⁴ *Ibid.*, 100.

⁵ *Ibid.*, 100-101.

⁶ 본 연구의 가상의 가족은 위의 책 p. 93에 나오는 폐기의 가족을 선택했다.



4인 가족은 아버지이며 남편인 윌리엄 씨, 그의 부인, 24세의 딸 페기, 아들 필립이었다. 페기는 IP(Identified Patient)로서 만성적인 미분화 형태의 편집증적인 특징을 가진 정신분열증이었다. 윌리엄 부인은 딸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기를 싫어한다. 가족미술치료 중 자신은 재능이 없어서 어떤 것도 제대로 그릴 수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일부러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회피했다. 페기는 어머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화를 냄으로써 어머니를 공격했다. 윌리엄 씨는 표면상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는 모녀 간의 빈번한 마찰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그 같은 그의 태도는 윌리엄 부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그 같은 상황으로부터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윌리엄 부인은 페기의 지독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 윌리엄 씨는 직장과 질병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치료에 저항했다. 페기는 갈색의 곱슬머리, 푸른 눈과 맑고 깨끗한 용모의 24세 여자로 주의산

만, 강박관념, 의심, 환청과 회피 등의 정신병 증상들이 증가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거나, 낄낄 웃거나, 분노와 편집증세로 인해 2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입원했다. 필립은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며, 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탐색에 필수적인 감정은 무시하고 쓸데없는 지적인 문제에만 지나치게 생각했다.⁷

폐기 가족의 가계도를 중심으로 내담자 4명을 선정하고 각 내담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겼다. 내담자는 전원 여성으로서 미술치료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림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학력은 대졸이상이었으며, 직업은 주부, 직장인, 학생 2명이었다.

〈내담자 특징〉

내담자	역할	나이/성별	학력	직업	MBTI
내담자1	아버지: 윌리엄	40대 초 여성	대졸	주부	ENTJ
내담자2	어머니: 부인	20대 말 여성	대졸	직장인	ENFP
내담자3	아들: 필립	20대 초 여성	원생	학생	ISTJ
내담자4	딸: 폐기	20대 초 여성	원생	학생	ISTP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총 7회기로 난화를 통한 가족미술치료 회기를 구성하였다. 전체 회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체 회기 내용〉

1회기	개인 난화
2회기	역할 정한 후 난화
3회기	선택1 - 아버지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
4회기	선택2 - 어머니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

⁷ Ibid., 93-97.

5회기	선택3 - 폐기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
6회기	선택4 - 필립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
7회기	최종 가족 합동화

회기 진행은 먼저 1회기로서 사전 설명 없이 자유롭게 난화를 그리도록 했다. 위밍업을 통해 내담자가 자유롭게 난화를 그릴 수 있도록 했다. 2회기는 위에 제시된 폐기 가족의 가계도를 설명했다. 그리고 각자가 맡고 싶은 역할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내담자1은 아버지, 내담자2는 어머니, 내담자3은 필립, 내담자4는 폐기 역을 맡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갖도록 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난화로 그리도록 했다. 3회기는 난화를 그린 후 가족 회의를 통해 한 장의 그림을 택하도록 했다. 처음 선택된 것이 아버지의 난화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 아버지의 난화가 주는 느낌을 그리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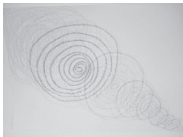

4회기는 아버지 난화를 제외한 나머지 중 하나를 고르게 했고, 어머니의 난화를 가족회의를 통해 선택했다. 선택된 어머니의 난화를 보고 3회기와 마찬가지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5회기는 나머지 두 장의 난화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폐기의 난화를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폐기의 난화에 대한 가족들의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했다. 6회기는 나머지 한 명인 필립의 난화를 바탕으로 가족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출하도록 했다. 7회기는 이제까지 가족 난화를 통해 느낌 감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역시 이때도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서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4. 연구 결과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난화를 통한 가족미술치료의 연구결

과를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내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림을 그린 후 각 내담자들이 느낀 감정과 변화를 서술함으로써 난화가 주는 가족미술치료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1회기 개인 난화〉

내담자1	내담자2	내담자3	내담자4
			

내담자1은 편안한 마음에서 낙서를 했고, 하다보니 개구리-바나나-성기가 보였다.




내담자2는 너무나 자연이 그리웠고, 평화롭다. 힘이 없고 그저 자연스럽게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잠재되어 있었다. 제목은 풀꽃이다.

내담자3은 뭔가에 빠졌다가 나오는 느낌이었다.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는 두 가지 느낌이었다.

내담자4는 현실과 억압, 지향(이상)향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성과 현실(억압)의 답답함이 드러났다.

이미 위해서 밝힌 대로 각기 난화를 그린 후 각자의 느낌을 표현하게 했고, 이후 폐기 가족의 상태를 설명하고 질문과 답을 통해 각 내담자가 자신이 해보고 싶은 역할을 선택하게 했다.

〈2회기 역할 정한 후 개인 난화〉

내담자1-아버지	내담자2-어머니	내담자3-필립	내담자4-폐기
			

같은 내담자가 그린 난화이지만 역할을 정하기 전과 역할을 정한 후의 난화의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다만 내담자4는 1회기와 2회기의 난화에서 색의 선택에서 약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내담자4의 진술에서 나온 바대로 폐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담자1은 아버지 윌리엄의 역할로서 난화를 그린 후 약간은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어 했다. 꽃을 그린 이유는 꽃 어딘가 희망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대로 뭔가 집 안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에서이다. 그래도 밖으로 나가면 좀 기분이 나을 것 같아서이다. 생각하기 싫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내담자2는 어머니 윌리엄 부인 역할로서 난화를 그린 후 분노와 엉망진창, 쓰레기 등등 희망이 없는 가족환경과 그 상황들……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들, 제목은 “선인장의 가시”이다.



내담자3는 오빠 필립 역할로서 난화를 그린 후 오빠로서 동생을 돌봐야 하는 느낌과 결국에 동생을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느끼면서 각자 서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받아들인다.

내담자4는 IP인 폐기 역할로서 난화를 그린 후 나와 동일시했다. 분노, 급격, 속도 지향적, 여림, 아빠 노랑, 엄마 빨강.

각기 역할이 정해진 후 각 내담자는 맡은 역할에 충실했다. 내담자4는 역할 진술을 통해 볼 때 정해진 역할의 가족과 자신을 심하게 동

일시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담자 1, 2, 3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역할의 동일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내담자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3회기 아버지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

아버지 난화	합동화
	

2회기 후 가족회의를 통해 그림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가족화를 그리도록 했다. 위의 가족 합동화에서 F(Father)는 윌리엄 씨를, D(Daughter)는 폐기를 나타내고, M(Mother)은 윌리엄 부인을, S(Son)는 필립을 나타낸다. F는 좌측 하단에, D는 우측 하단에, S는 좌측 상단에, M은 우측 상단에 위치한다. 이후 모든 가족 합동화에서 가족들의 위치는 같다.

내담자1은 아버지 역할로서 내 그림이 먼저 지정되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화가 났다.



내담자2는 어머니 역할로서 회피하는 무능력한 남편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쿡쿡 찢어 보고 싶은 욕구였다. 제목은 “화 좀 내봐”이다.

내담자3은 오빠 역할로서 제목은 “자유”이다. 집안일에 회피하는 아빠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오빠는 집에 대해서 자유롭다

내담자4는 IP인 폐기 역할로서 답답함, 왜 저렇게 사냐? 그건 자신만의 삶이 아니다. -피해 주는 것-잠재적 증오

아버지 난화에 대한 영향을 아버지 역인 내담자1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내담자도 아버지 난화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회기 어머니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

어머니 난화	합동화
	

4회기에 어머니의 난화가 선택되었다. 어머니 난화의 패턴을 모든 내담자가 따르고 있으나 특히 어머니역을 맡은 내담자2의 그림이 매우 유사하다.

내담자1은 아버지 역할로서 부인이 뭔가 화를 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담자2는 어머니 역할로서 여전히 강하고 차갑고 독선적인 엄마의 모습이다. 제목은 “날카로움”이다.



내담자3은 오빠 역할로서 엄마가 동생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정리해서 어두운 부분을 날려 버리고 좀 더 여유 있게 바랐다.

내담자4는 IP인 폐기 역할로서 엄마는 인정, -포기(화려, 말 다함)-그대로 악의가 없다.

4회기의 그림 패턴을 볼 때 3회기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영역이 존재

하고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 특히 내담자4는 포기, 인정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5회기 폐기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

폐기 난화	합동화
	

5회기는 폐기의 난화를 놓고 가족 합동화를 그렸다. 4회기에서 보였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조화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색과 그림의 방향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내담자1은 아버지 역할로서 내가 너무 집안에 무관심했던 것 같고, 진짜 내가 나의 역할을 못해서 집안이 이렇게 된 것 같아 반성했다.

내담자2는 어머니 역할로서 반성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조금은 둥글게 그려 본다.



내담자3은 오빠 역할로서 동생의 문제를 좀 더 감싸 주어야겠다는 느낌과 부모님에게 더 다가가야겠다는 느낌으로 그렸다.

내담자4는 IP인 폐기 역할로서 본래는 하트처럼 악의가 없다. 그러나 나의 본질, 기질은 어쩔 수 없으니.

5회기의 내담자 진술을 통해 볼 때 가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담자1과 2는 반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내담자3은 가족에게 다가간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각각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내담자4는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자신의 문제는 본질 또는 기질이라 표현하면서 가족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6회기 필립의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

필립 난화	합동화
	

6회기는 오빠인 필립의 난화를 통한 가족 합동화이다. 각기 난화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1은 아버지 역할로서 모두들 열심히 그려서 보기만 해도 뿌듯했고,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내담자2는 어머니 역할로서 이젠 나를 죽이자. 내가 양보하고 내 ‘기’를 좀 감추자. 제목은 “목소리를 낮추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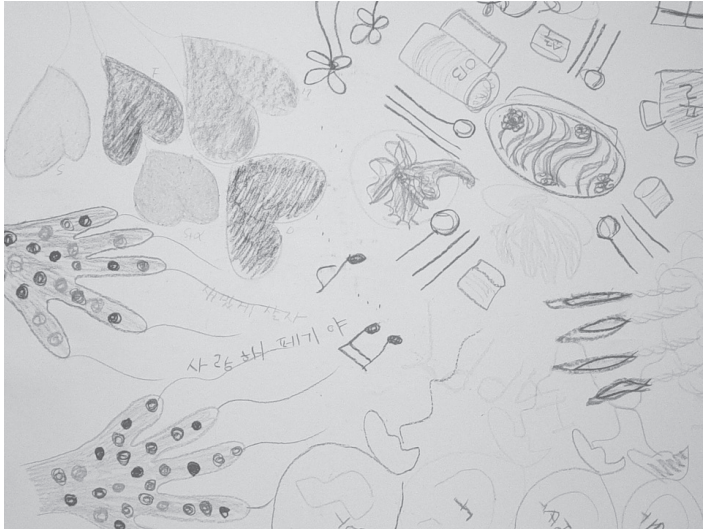
내담자3은 오빠 역할로서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그렸다.

내담자4는 IP인 폐기 역할로서 생명의 나무처럼 건설적으로 우리의

일을 해결해 나가자.

〈7회기 최종 가족 합동화〉

가족 합동화



7회기는 이제까지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최종적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다. 초기 가족 합동화보다 매우 변화된 장면을 볼 수 있다.

내담자1은 아버지 역할로서 다들 협력해서 잘살아 보자는 의도는 보이거나 아직은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림이 어색했다.

내담자2는 어머니 역할로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맛있는 요리였다. 딸이 먹고 싶다는 골뱅이와 기타 음식들을 그렸다. 제목은 “Party”이다.

내담자3은 오빠 역할로서 서로가 개성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내담자4는 IP인 폐기 역할로서 행복 파티, 그러나 내 기질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 내 문제는 나에게서 해결.

각각의 진술을 통해 볼 때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족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각각 주어진 역할에서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가족의 변화를 위해 각자가 해야 될 변화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5. 결론

본 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내담자들의 입을 통해 진술되는 난화를 통한 가족미술치료의 효과를 알아본다.






내담자1은 아버지 역할로서 그림에서 가족들의 감정을 알 수 있었고, 계속 그리면서 더 명료하게 되었고,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 가상 가족에 충실해서 난화를 그렸고, 그림에서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 자신과 동일시되는 느낌은 없었다. 원래 나는 덜 적극적이다.

내담자2는 어머니 역할로서 그림에서 사실대로의 역동이 그대로 나타난다. 마음이 답답하다. 파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함이 남아 있다.

내담자3은 오빠 역할로서 역할이 주어졌지만 역할에 상관없는 '나'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내담자4는 IP인 폐기 역할로서 나는 폐기와 어찌면 비슷하다. 그러나 온 가족과 동일시되었던 것 같다. 그림 안에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 나 자신의 문제는 가족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하지만 내 문제만으로 끝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화해된 것을 보니!

〈5장의 가족 합동화 순서를 통해 본 가족 구성원들 간의 변화 정도〉

가족 합동화1	가족 합동화2	가족 합동화3	가족 합동화4	가족 합동화5
				

이상에서 가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 각각의 상태와 역할을 통한 가족의 상태가 혼돈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난화의 특징이 가족 합동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래 내담자 진술을 통해 난화를 통한 가족미술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내담자1은 난화가 없었다면 먼저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다. 그러나 난화로 표현하니 감정 상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알리고 알게 되는 것 같았다. 말로는 “미안하다”는 식의 말을 하기 힘들지만 그림으로는 좀 더 쉽게 가족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다.

내담자2는 난화를 그리지 않고 말로만 했다면 힘이 들었을 것이다. 직설법이어서. 상처도 받고. 등등. 난화를 통해 드러난 각자의 감정을 보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 간의 화해도 쉬웠다.

내담자3은 특정한 제시어 없이 난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면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었다.

내담자4는 그림이 없었다면 비유적 표현이 어려웠을 것 같고 공격성이 드러날 것 같았다.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의 난화를 통해 몸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일 수도 있는 또는 꿈처럼 거짓이 없는 표현이었다는 생각이다.

추가적인 진술을 통해 내담자1은 먼저 난화를 그리면서 한번 감정, 기분 등을 정리하고 말하니까 더욱 생각이 명료화되는 것 같았다.

내담자2는 난화가 없었다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어떤 공격이 있을지 두렵기도 했다. 난화를 통해 나타난 나의 형상이(엄마의 입장에서) 뼈죽하게 나왔을 때 남편이 그 날카로움에 두렵다고 했다. 정작 나는 몰랐던 충격이자 사건이었고, 나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내담자3은 난화를 보고 생각했던 이미지들을 그리고 말로 표현함으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적절한 상호 피드백은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던 것 같다.

내담자4는 난화를 그리고 그것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을 명료화하게 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비롯한 군대와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난화기법을 적용할 때 위 연구결과와 같이 집단 응집력과 친화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단원 각자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Abstract

This is on research on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free drawing technique as family art therapy. I selected four clients for this research who played as a family members with identified patient who is peggy. When I adjusted the free drawing technique for family are therapy, I want to know how powerful influence to the family even if there are not real family.

The result of my study shows it was meaningful transformation

after free drawing activity with family. Each combined drawings announced the slight change toward intimacy each family members. Therefore if group such as military, teams and units use this free drawing technique, they will be more strong and powerful one.

주제어(Key words)>

가족치료(Family Therapy), 가족미술치료(Family Art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난화기법(Free Drawing Technique), 집단치료(Group Therapy)
군상담(Military Counseling)

군선교신학 제12권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¹

-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Relationship for Forming Good Self Representation
-with focus on object relations theories and pastoral care

■ 김현택 Kim, Hyun Taek

- (예) 공군군종목사
- 한세대 상담학(Ph. D.)
- 한세대 겸임교수
- 해병2사단 상담관



1. 서론

1) 문제 제기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부모로부터 잘못 양육되어서 부정적인 자아상²(자

¹ 본 글은 논자의 2009학년도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상담학)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² James F. Masterson은 *The Search for the Real Self*(참 자기)에서 손상된 참 자기로 인해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 자기를 가지고 삶의 현실에 피상적으로 적응하면서 자기 파괴적 행동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James F. Masterson, *The search for the real self* (New York: The

기표상, 자화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 자기확신(self-confidence), 자존감(self-esteem) 등이 병리적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군에서 공군 군종장교³와 국방부(해군, 해병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⁴으로 많은 젊은 장병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상당수의 신세대 장병들이 이미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군에 입대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⁵

즉 자살하는 장병, 군생활에 부적응을 호소하는 장병, 부모와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장병, 애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장병 등의 심리검사⁶를 해보면 대다수가 부정적인 자기표상(자화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군 입대 전에 이미 병리적인 자기표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병리적인 자기표상들을 지닌 장병들을 보면, 대체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역기능적인 가정⁷이란,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한 가정, 가정 안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정, 폭력적인 가정, 각종 중독에 빠진 가정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면 어른으로 성장하여도 여전히 아이의 성향을 나타내는 성인아이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병리적인 자기표상(자화상)은 대물림(세대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즉 병리적인 자기표상을 지닌 사람이 또다시 자녀세대에 병리적인 자기표상을 물려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부모세대에서 각종

Free Press, 1988), 7-10.

³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하성교단 소속 공군 1호 군종목사로 재직함.

⁴ 2009년 1월부터 현재 해병대 2사단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재직 중.

⁵ 김현택,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2005), 87.

⁶ MBTI(성격유형검사), 군장병 문장완성검사, 우울증 수치검사, 교류분석검사, 군장병인성검사 등.

⁷ 고병인, 『역기능 교회와 역기능 가정을 위한 목회와 상담』(서울: 예인, 1996), 5.

중독, 폭력성, 도박 등의 병리적인 것들이 자녀세대에서도 그대로 각종 중독, 폭력성,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전수된다는 것이다.

대상관계이론⁸에서는 초기 중요한 양육자(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와 자기표상이 형성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대상(object)과 관계경험의 결과로써 타자와 구별되는 자기표상⁹(self representation)이 형성되는데, 나쁜 자기표상으로 인해 병리적인 자기표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리적인 자기표상을 건강한 좋은 자기표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리적인 자기표상은 좋은 내적 대상¹⁰을 통해서 새롭게 수정 받을 수 있다. 좋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병리적인 자기표상을 다시 새롭게 좋은 자기표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롭고 좋은 자기표상을 형성하면 궁극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리하면, 좋은 자기표상을 형성한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건강한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로

⁸ 이디스 제이콥슨(Edith Jacobson)에 따르면, 유아가 생물학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보다 어머니가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해주었느냐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유아의 인격화 작업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 인격화 작업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어머니의 인격 전체를 마음속에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자기체계’(Self System)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Jay R. Greenberg & Stephen A. Mit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307-308. 재인용.

⁹ 자기표상은 아이의 환경 안에 있는 대상이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험됨으로써 형성되는 자기의 정신적인 표현이다. 자기표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집약한 기억체계로서 자기상(self-imag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존감, 정서, 대인관계를 비롯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내적 대상의 이미지의 집합체로 타자와 구별되는 ‘자기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자기표상화는 ‘한 개인이 어떻게 타자들과 세상과 관계를 가지는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¹⁰ 성장 초기에 주요 양육자와 가졌던 관계경험의 흔적, 성격 안에 형성된 심리구조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내적 대상은 자기의 일부분이다. ‘대상’은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한다. 반대로 나쁜 자기표상을 형성한 사람은 심한 우울증, 자기에적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강박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리를 표출하면서 자신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좋은 자기표상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좋은 내적 대상관계를 경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기표상 형성에 관한 대상관계이론가들이 제시한 성장 초기 병리적으로 형성된 심리 발달의 회복으로 임상관계에서의 답아 주고, 안아 주는 환경, 공감적 관계성 등의 치료관계를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목회적 돌봄의 자원(설교, 예배, 기도, 목회상담)을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내적(internal) 관계의 측면에서 재해석하여 새롭게 제시할 것이다.

2. 임상에서의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

대상관계이론¹¹이란 자기표상과 어머니로 대표되는 타인표상 간의 특질로 요약된다.¹² 대상관계이론가들은¹³ 최초의 부모-자녀관계, 즉 영·유아와 그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상관계

¹¹ 대상관계이론을 일반심리(상담) 치료와 정신과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정서를 변화시키는 물리적 방법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담자(환자)의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모든 대상관계이론에서 자기와 대상은 어느 정도 상호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대상관계이론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N. Gregory Hamilton, 『심리치료에서 대상관계와 자아기능』, 김진숙 외 역 (서울: 학지사, 2008), 187, 216, 222.

¹² 정방자, 최경희, 『대인관계와 정신역동』 (서울: 이문출판사, 2001), 38.

¹³ 대상관계이론가는 인간을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주된 동기인 존재로 생각한다. 그리고 대상관계이론뿐만 아니라 자기심리학이론에서도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장하면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를 내면화한다고 주장한다. Ana-Maria, Rizzuto, *The Birth of the Living God*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54-84. Rizzuto는 대상표상에 따른 인간의 심리적 기능을 설명한다.

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하면, 한 개인이 실제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그가 맺는 내적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 내적 대상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들과 그 이론들의 측면을 가리킨다.¹⁴

다시 말한다면, 대상관계¹⁵이론은 어릴 때 부모 또는 주요 인물과의 ‘관계’가 현재 우리 주변의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대인관계 경험은 향후 모든 관계 형성의 틀을 구성하며,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상관계치료에서는 관계 병리를 매우 강조하므로 ‘관계’¹⁶ 그 자체가 치료의 초점이 된다.¹⁷

1)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치료관계

내담자(환자)의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서 치료자(분석가, 상담자)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¹⁸와의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자기가 치료되고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관계’¹⁹는 전문적인 조력²⁰을 제공하는 맥락에서 기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

¹⁴ Stephen A. Mitchell & Margaret J. Black, *Freud and Beyond* (New York: Basic Books, 1995), 12-13.

¹⁵ 대상관계는 관계를 내면화하고 외현화하는 것과 임상가가 정서적으로 조율된 방식으로 내담자를 이해한다. 해밀턴은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자아기능을 소개하며, 자기에 대한 경험과 자아기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순간 순간 변동한다고 함.

¹⁶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치료도 받는다.

¹⁷ Sheldon Cashdan, 『대상관계치료』, 이영희 외 역 (서울: 학지사, 2006), 3.

¹⁸ 자기의 구도(self-constellations)와 대상의 구도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실제 사람(외부 대상)이 필요하다.

¹⁹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란 내재화가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내재화(introjection)란, 원시적인 수준의 병적 동일시로서 자신과 타인을 막연히 구분하는 중에 대상의 특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는 자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자기 이미지를 형성한다.

²⁰ 정신분석적 기법은 치료자가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환자의 내면세계, 즉 내적인 자기이미지와 대상이미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달려 있다. 개인적인 관계는 치료자가 환자의 삶에서 외부대상으로 기능할 때 이루어진다. 전이와 투사 및 투사적 동일시는 이러한 내적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가려내는 데 필

소를 모두 포함한다.

‘관계’ 속에서의 치료²¹는 말을 통해 치유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²²에 있어서 내담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든 내담자의 유익을 위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1) 담아내기(담아 주기)와 담기는 관계성

내담자의 감정을 담아내는 것²³은 상담자의 중요한 일이다. 담아내기(담아 주기)란²⁴ 다른 사람이 담고 있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이러한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넘쳐흐른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자신 안에 담아 두지 못하고 흘러보내는 현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다룰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으로 인식한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리하면, 치료에서 조용하게 경청하는 것, 방해받지 않는 시간, 조

요한 기술적인 용어이다.

²¹ 정신분석적 치료자들이 지향하는 치료목표에는 정신병리적 증상의 제거나 완화, 자기이해나 통찰의 증진, 주체의식의 고양, 자기정체감의 형성 및 강화, 현실적인 자기존중감의 증진, 감정의 자각 및 조절 능력의 향상, 자아강도 및 자기통합성의 향상, 사랑하고 일하며 타인에게 적절하게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의 확장, 즐겁고 평온한 경험의 증진 등이 있다. Nancy McWilliams, 『정신분석적 사례이해』, 권석만 외역 (서울: 학지사, 2006), 34.

²²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은 자기, 정서 및 감각, 내적 또는 외적 대상 혹은 자아기능이다.

²³ 대상관계접근에서는 혼란되고, 혼란을 유발하는 내적인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상담자가 전이를 해석하는 것, 둘째, 개인적인 관계에서 담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 등이다.

²⁴ Patrickj Casement, *Learning form the Patient* (New York: The Guilford London Press, 1985), 112-113.

절된 관심을 보여주는 반응은 환자의 감정을 담아내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것은 개인적인 상호작용 관계의 일부가 된다.

영국의 대상관계이론가인 비온(Bion)은 치료와 육아에서 담아내는 것(the container)²⁵과 담기는 것(the contained)의 개념을 개발 제시하였다. 유아는 극단적이고 조절되지 않은 감정에 의해 압도되고, 그들의 얼굴 표정과 울음 그리고 웅얼거림을 통해 이런 감정을 전달한다. 주의 깊은 부모는 경청과 관찰을 통해 유아가 전하는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조절하며 변화시킨 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유아에게 되돌려 준다. 유아는 결국 이러한 과정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방법을 배운다.

생애 초기에 유아는 불쾌감을 느끼면 비명을 지를지도 모른다. 부모는 유아가 우는 소리를 듣고 불편해진다. 마치 유아의 불쾌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부모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들은 그들의 유아보다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함을 생산적인 행동으로 바꾸고, 유아를 들어 올려 진정시키고 어르는 소리를 내며 흔들려 준다.

“그래, 그래. 기분이 정말 안 좋구나”라고 어르는 말을 하며, 유아의 고통을 언어와 공감적인 위로로 바꿀 수 있다. 후에 유아가 잠깐 동안 자기 자신에게 어르는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발달단계에서 걸음마를 하는 유아는 화를 내며 떼를 쓰고 발길질을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 부모는 유아의 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로 바꾸어 “그래, 저런, 화가 났어? 많이 실망했구나”라고 말해 준다. 때때로 유아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유아는 그저 자신이 진정되는 동안 부모가 주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받아 주는

²⁵ 부모나 상담자가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공감하고 내면화하는 행위. 그런 경험을 심리적으로 소화하는 것. 그 경험을 변형시키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뜻함.

것만을 원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유아는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귀중한 물건을 부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발버둥치는 유아를 들어 올려 말 그대로 그와 그의 조절되지 않는 감정을 그들의 팔 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부모가 꽤 단호하다 해도, 그들의 물리적 개입은 바닥에서 뒹구는 유아보다 훨씬 더 잘 조절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아는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가 유아의 불쾌한 감정만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유아는 또한 그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의 성취를 함께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주며, 칭찬을 해주는 것, 즉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좀 더 유쾌한 담아내기 기능을 필요로 한다.

(2) 안아 주는 환경과 충분히 좋은 어머니 관계성

상담자는 내담자를 신체적으로 안아 주지는 않지만 그들의 관심으로 환자를 안아 준다. 안아 주는 관계는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아 주는 행동을 떠오르게 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아 주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²⁶

품에 안아 주는 정서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아기에게 편안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먹을 것을 주며, 몸을 씻어 주고,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며,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일반적으로 안전한 느낌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관계양식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엄마는 아기가 자라나고 관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애착²⁷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부모 중 한 사람이나 자신을 주로 돌봐 주는 양육자와 독특하고 특별한 애

²⁶ Jill Savege Scharff, David E Scharff, *Object Relations Individual Therapy* (Northvale: Jason Aronson, 1988), 255-256.

²⁷ 아기와 양육자 간에 생후 1년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함.

착관계를 형성한다. 안아 주기의 질은 각각의 상황과 안아 주는 일차적 대상에 따라 다르다. 부모 쌍 자체가 유아와 아기에게 좋은 안아 주기의 질적 요소를 제공해 준다.

치료과정에서 환자(내담자)가 치료자(상담자)를 마음속에 안아 주지 못할 때 치료자는 부서지기 쉽고, 위험한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느낀다. 안아 주기는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구성해야 하는 상호적인 과제이다. 두 사람은 안아 주는 환경 전이에 영향을 주는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과거-거기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여기에서의 전이 경험을 한다. 이러한 ‘안아 주는 환경’(the holding environment)에 대한 개념은 위니캇(Winnicott)²⁸이 제시한 것이다.

위니캇이 안아 주는 환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을 때, 그는 공생 단계²⁹에서 신체적으로 안아 주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유아에게 필요한 안아 주기는 서서히 진화한다. 유아가 크면 곧 엄마의 팔에 안기는 것보다 엄마의 관심 속에 안기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만지기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이와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학령기에는 자기가 학교에 있다거나 허락을 받고 친구 집에 있다는 것에 대해 엄마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괜찮은’ 혹은 ‘충분히 좋은’(good-enough) 엄마는 위니캇이 설명한 것

²⁸ 위니캇은 부모가 아동의 감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서 과도한 순응을 요구할 때, 아동은 진정한 친밀감에 대해 단념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순응적인 거짓 자기를 발달시킨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한다면, 거짓 자기 기능이 초기 아동기에 부모의 보살핌이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좋지 않았던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확립할 때 아이가 피상적으로 부모의 기대에 순응하려는 것이 아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보다 우세할 수 있다). 거짓 자기 기능에서는 진짜 자기와 대상 간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²⁹ 생애 초기에 구강적 만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프로이트(Freud)가 발견한 이후,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생후 1년간 수유를 엄마-유아 간의 주된 상호작용으로 지나치게 강조했다.

에 의하면, 충분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안아 주기를 제공한다. 그녀는 아이에게 무관심하지도 않고 아이의 세계를 침범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지도 않는다. 위니콧은 안아 주기의 정도와 종류가 완벽할 필요가 없고 단지 괜찮은 정도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육아에 관한 문헌에서 보이는 완벽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흔히 최적의 육아에 초점을 두는 현상은 아이를 부모가 이상화하려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부모가 스스로에게 실수를 허용하지 않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런 이상화는 아동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아동에 대한 이상화는 이 작은 유기체가 부모의 요구와 실수에 적응하는 능력이 실제보다 적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치료자 가운데 완벽한 상담자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내담자를 과대평가하고 동시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내담자에게는 괜찮은 혹은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상담자(good-enough therapist)가 필요할 뿐이다.

(3) 공감적 관계성

상담자의 공감적인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공감³⁰은 치료적 관계에서 안아 주는 측면과 담아내는 측면에 기여해 준다. 공감은 의사소통의 양면적인 도구가 된다. 공감의 기능에는 내담자로부터의 의사소통, 내담자에게 하는 의사소통, 개인적 관계에서의 역할 등이 있다.

해밀턴(Hamilton)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담자 내부에서 느껴지는 경험³¹을 과학적 사고과정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귀납적 과정

³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처지에 두거나 혹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공감은 서로 분리되지만 동시에 동일하다고 느끼는 감각이다.

³¹ 이런 의미의 공감은 대상관계이론의 독특하고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치료자의 내면적 경험은 내담자가 타인과 의사소통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며, 치료자는 자신 내면의 경험을 자료로 삼아 내담자를 이

으로 세세하게 나누어 생각한다. 공감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관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치료자의 관찰, 유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 그러한 관찰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해밀턴은 이런 병렬적인 과정을 관계성(relatedness)이라고 부른다.

한편, 코헷(Kohut)은 자기에적 장애가 어머니의 공감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했다. 유아에게는 유아 자신의 욕구를 공감하고 반응할 줄 아는 성숙한 부모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부모는 유아의 과대한 과시 행동에 대해 기뻐할 수 있다. 몇 분 후 자기과시가 유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유아와 공감적으로 잘 조율하는 부모는 현실적인 태도를 갖고 유아의 과시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코헷이 변형적 내면화라고 부른 과정을 통해 유아는 부모의 이런 공감적 반응을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건강한 자기 이미지의 일부로, 또한 자기 자신을 공감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능력으로 내면화한다.

만성적으로 부모가 공감해 주지 못하면 유아는 자기에에서 취약성을 갖게 되며, 이후 상담자가 공감적 반응을 제시함으로써 내담자가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공감에 대한 코헷의 개념은 자기에적 성격장애 환자와 자기에적인 취약성을 가진 강박적이거나 히스테리 특성을 가진 일부 내담자에게 유용하다.

공감을 정리하면, 내담자가 특별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당신은(내담자) 지금 특별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의식하도록 반응을 상담자가 하는 것이다. 진정한 공감은 적절하게 반영해 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인데, 공감은 경청과 함께해야 그 효과성이 크다.

해하고 공감한다는 의미이다.

(4) 잔잔하게 머물러 있는 집중의 관계성

잔잔하게 머물러 있는 집중의 관계성(free-floating attention)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향해서 가져야 할 일종의 태도를 의미한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내담자에게 제안하고 해석³²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한다. 상담자는 치료관계에서 내담자와의 관계를 지향(intention)하는 내적 성향(an inner disposition)³³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상담자는 내담자와 치료관계 형성에서 내면적 지향(internal intention) 행위를 가져야 한다. 더불어서 상담자는 내면적 지향에 주의 깊게 경청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

홀즈(U. T. Holmes)는 내면적 지향에 있어서의 경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청이란 집중을 모으지는 않으나, 그 사람의 내면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종의 직관적인 들음(an intuitive hearing), 혹은 뚜렷한 느낌의 사고(felt thinking)이다.”³⁴

정리하면, 상담자가 해야 하는 것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며 행동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치료관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상담자로서 자신의 내부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는 내면의 지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상담자는 잔잔하게 머물러 있는 집중의 관계성을 내담

³² 프로이트(Freud)는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를 전이와 저항이라고 함.

³³ Urban T. Holmes III, 『목회와 영성』,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39. Holmes는 “영성이란 현상을 초월해 있는 본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내적 성향이며, 기도란 이것을 구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며, 지향적 행위를 제시한다.

³⁴ Holmes는 Spirituality for Ministry에서 내적 지향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가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목회적 돌봄

앤드류 레스터(Andrew D. Lester)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과 특권이 인간에게 희망을 주어 절망과 싸우는 일³⁵이라고 제시한다. 종교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상처 입어 치유가 필요할 때, 당황하여 격려가 필요할 때, 소원해져 화해가 필요할 때, 뒷에 걸려 해방이 필요할 때, 희망과 절망은 중요한 심리학적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목회와 상담은 역사적으로 치유, 지도, 격려, 화해, 해방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³⁶ 그래서 목회와 상담은 여러 가지 많은 작용을 해왔다. 하지만 목회에서의 상담은 단회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상담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돌봄의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을 ‘목회적 돌봄’³⁷이라고 칭한다.³⁸ 돌봄(care)은 ‘보호’, ‘간호’, ‘인도’라는 뜻³⁹인데, 이 말은 걱정, 불안, 슬픔, 괴로움을 가진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한다면, 돌봄 사역⁴⁰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돕는 프로그램인데, 성도들

³⁵ Andrew D. Lester, 『희망의 목회상담』, 신현복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11.

³⁶ William A. Clebsch and Charlse R Jae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A Jason Aronson Book, 1994), 32-66에서는 4가지 목회적 기능을 healing, sustaining, guiding, reconciling으로 제시한다.

³⁷ Carroll A. Wise,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6), 8-9. Wise는 목회적 돌봄을 목회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관계라고 제시한다.

³⁸ 김경수, 『돌봄』 (서울: 서로사랑, 2006), 4.

³⁹ *Ibid.*, 6.

⁴⁰ 돌봄사역의 창시자는 미국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상담학 박사인 케넨스 헉크(Kennenth Hauk)다. 그는 1975년에 교회에 상처가 깊은 사람들을 돌볼 필요성

의 문제를 들어주면서 돌보는 위로의 치유사역이며, 목회상담(Pastoral Counseling)을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실천적 적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적 돌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본다.

1) 설교를 통한 좋은 자기표상 형성

설교⁴¹는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설교야말로 목회사역 가운데서 가장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설교의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듣는 성도(청중)들로 하여금 전인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다.⁴² 설교는 전체 공동체에 선포되면서도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전해져서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다.

교회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경험 중에 설교는 듣는 청중(성도)에게 일방적인 면이 있으나, 짧은 시간 안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청중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설교⁴³는 목회자의

을 느끼고 9명의 평신도를 돌봄자로 양육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 그는 처음 돌봄사역을 시작할 때 스테반 집사의 이름을 붙여서 ‘스테반 사역’(Stephen Ministry)이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테반은 집사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의 구제로 인하여 히브리파와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불평 세력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일곱 집사들이 교회를 돌보았는데, 교회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케넬스 헉크 박사는 이 모습을 보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돌봄이라고 보았다. 사실 스테반 집사는 본래부터 순교자가 아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요 돌보는 자다. 그래서 케넬스 헉크 박사는 이 사역을 돌봄자인 스테반 집사의 이름을 따라 ‘스테반 돌봄사역’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Ibid.*, 12.

41 설교(Kerugma)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그것을 들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리스도교 진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로 옮기는 것이다.

42 이창안, 『뉴 패러다임의 파워 설교를 위한 설교 스피치』(서울: 도서출판 성림, 2006), 187.

43 설교학은 기독교의 성서신학과 조직신학, 역사신학과 교의학 등 신학 일반에 대한

존재이며, 목회자의 전문적인 분야이다.⁴⁴ 설교는 목회자의 가장 기본이 되며, 목회자의 모든 역량이 설교를 통해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교란 목회자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대한 해석과 풀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 설교의 역할은 듣는 청중(성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결해 준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 병리적인 자기표상이 건강한 자기표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과 청중(성도)과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역동적인 작업은 일회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지속적, 정기적⁴⁵으로 매주 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통 상담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주 이루어지는 설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포되는 그 내용을 통해 청중(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상담설교⁴⁶(치유설교, 대화설교)로 가능하다. 오규훈은 “설교에서 설교자는 성도들의 심리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내용을 말해야 한다”⁴⁷라고 강조한다.

지식 이상을 요구한다. 해석학과 심리학, 사회학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통찰 없는 설교는 현장성을 갖지 못한다. 설교가 일종의 ‘종교적 연설’임을 염두에 둔다면 수사학적 지식과 훈련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이해를 간과할 수 없다. 말하자면, 선천적인 재능뿐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설교다. 정인교, 『설교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5.

⁴⁴ *Ibid.*, 6-7.

⁴⁵ 기독교(개신교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한 주간에 새벽기도, 수요일배, 금요일기도회, 주일대예배, 소그룹모임, 특별집회 등에서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

⁴⁶ 설교 중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담적 설교이다. 즉, 설교에서 대화적 요소(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심리적 흐름)가 있어서 성도들이 설교자와 실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심리적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⁴⁷ 오규훈, “대화의 시각에서 살펴본 설교의 상담적 효과”, 『장신논단』 29(2007), 191.

상담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중(성도)을 상대로 하는 집단상담이 된다. 즉, 하나님 앞에 고민을 안고 있는 인간들이 대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상담설교이다.

상담설교의 실제 구상⁴⁸은 먼저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알고 성경 속의 교리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와야 한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게 한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며, 과연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문 선택은 문제의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며, 설교를 전개할 때는 강해설교⁴⁹의 스타일로 성경 본문의 세계 속으로 청중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상담설교의 구체적 전개방식은 서론에서부터 주제와 제목이 제시되고 성도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간결하고 분명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주제에 대한 회중의 필요를 채워 줄 원리들을 본문에서 하나하나 찾아내어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상담설교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제시되는 원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는 성도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의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권면, 격려, 위로, 책망, 도전 등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요약, 강조, 예화, 성구 인용, 결단, 초청 등으로 한다. 이와 같이 설교가 주는 영향력은 많다.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목회적 돌봄 중에서 설교를 정리하면,

48 주영철, “전인 구원을 위한 치유 목회의 이론과 실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1995), 126.

49 강해설교란 성서의 한 구절이나 몇 구절에서 주요 사상을 취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실제생활에 적용시키는 설교이다. 강해설교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설교자의 권위를 세워 주며 성서의 깊이를 드러내는 데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본문설교에 비해 연설적 요소를 가미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회중에게 흥미 있는 설교 전달이 가능하다. 정인교, *op. cit.*, 286.

설교는 인간⁵⁰의 존재에 대해 재해석해 주며, 기존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과 사상을 제공해 주는데, 특별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지를 마음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설교의 기능과 역할로 인해 병리적인 자기표상의 사람이 건강한 자기표상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특별히 희망을 주는 설교, 마음을 치료하는 설교,⁵¹ 인격을 존중하는 설교, 칭찬이 있는 설교, 용기를 주는 설교, 꿈과 환상을 주는 설교,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 긍정적인 설교,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삶으로 본이 되는 설교 등이 건강한 자기표상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2) 예배를 통한 좋은 자기표상 형성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신비한 만남이다.⁵²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신비한 만남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사 40:30-31).

예배는 다양한 음악과 여러 가지 순서⁵³를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예배의식이 갖는 중요한 점은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유를 통한

⁵⁰ 기독교 인간관은 하나님께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다. 인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우연적 존재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삶의 시종(始終)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인간이해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이다. 신학적 인간이해의 측면에서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여야 하는 존재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정체성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며, 말씀에 응답하여야 하는 존재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7), 14 참조.

⁵¹ 조용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서울: 서울말씀사, 1996), 205-206.

⁵² *Ibid.*, 205-206.

⁵³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간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 봉독, 설교, 축도 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찬송, 기도, 헌금 등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좋은 자기표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와 지친 몸과 상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심령의 상처를 싸매어 치료하신다.⁵⁴ 예배⁵⁵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다. 예배는 인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행위이다. 자신의 일체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행위이다. 예배는 고립된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행위이다. 예배는 경건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주(主)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 행위이다.⁵⁶ 서로의 개성과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신앙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연대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는 목회적 돌봄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행위를 위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호 간의 만남을 갖게 된다.

예배는 그 성격⁵⁷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동적인 측면도 있다. 공동적인 예배⁵⁸란 그리스도인 개인의 개별적 행위의 집적(集積)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 전체의 공동적 행위라는 것이다. 교회의 예배 참석자는 개인 한 사람이고 예배의 모든 행위에 참여하는 이도 개인이지

⁵⁴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출판부, 1990), 270.

⁵⁵ ‘예배’라는 말은 영어의 ‘worth + ship’에서 온 말이다. 뜻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완성되고 죄인이 개종하는 데 이른다. 성경 “우리 주 하나님이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계 4:11). 김소영, 『현대예배학개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2002), 37, 44.

⁵⁶ 황성철, 『예배학』(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79.

⁵⁷ 예배의 성격에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영적 예배, 아름다운 예배, 자유로운 예배, 공동적인 예배, 기쁨의 예배, 질서의 예배, 성경적 예배 등이 있다. *Ibid.*, 45-56.

⁵⁸ *Ibid.*, 52-53.

만 예배는 교회 공동체⁵⁹의 전체적 행위이다.

예를 들면, 모래알은 수만 개가 있어도 하나하나 그대로 존재하지만 뭉쳐지지는 않는다. 개체로서 그대로 존재할 뿐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모래알도 시멘트 가루를 섞어서 물을 부으면 아주 강한 시멘트 벽돌이 된다. 이같이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섞어 놓으면 아주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는 백성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꺾 수 없는 강한 공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공동적 행위이다. 개인주의는 예배의 정신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함께 모인 하나님 가족의 공동적 행위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됨을 인식하기 위하여 각 성도가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함께 모여 있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혼자보다는 오히려 단체, 즉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단체, 즉 공동체⁶⁰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예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59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worshiping community)이다. 그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형성되고, 그 생명력은 지속적인 예배의 순수성에 비례하여 보존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교의 예배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사명은 다양한 사회계층 전체를 포함한다. 모든 지위의, 모든 가정의 사람들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누어짐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제신학연구원, 『교회와 예배』(서울: 서울 말씀사, 1997), 81.

60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듣고, 하나의 기도를 올리는 교회의 회중은 하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중은 하나이다. 같은 신앙고백을 행하는 교회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며, 공동적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그리스도도 한 분, 성령도 하나, 성령도,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적이다.

예배는 인간 안의 교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함께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예배는 또한 여러 가지의 함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 좋은 대상으로서 역할을 해준다. 특별히 경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예배에서는 소리 내어 하는 기도(통성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이 있어 내면에 응어리진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정리하면, 역동적인 예배⁶¹는 고통 가운데 있는, 병리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한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3) 기도를 통한 좋은 자기표상 형성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이다.⁶²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즉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⁶³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내면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되고 나면 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해결되고 치유된다. 어반 홈즈(Urban T. Holmes)는 “기도는 자기의 더 깊은 심층적인 지평에 다다를 수 있는 한층 더 직접적인 가능성(a more immediate

⁶¹ 역동적인 예배 안에서 네 가지의 선물을 받는다. 첫째, 예배는 우리의 삶에 힘을 준다. 즉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한다. 둘째,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 특히 신앙공동체를 형성케 한다. 예배 안에서 신앙공동체의 풍부하고도 충만하며 의미심장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 셋째, 예배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준다.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 중심이 무엇인지를 지각하게 된다. 넷째, 예배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준다. 역동성 있는 예배 안에서 과거의 기억이나 슬픔이나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박은규, 『21세기의 예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06-108.

⁶² 이재철, 『새신자반』 (서울: 홍성사, 1999), 217.

⁶³ 기도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개인기도, 대표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묵상기도 등이 있다. 조용기, 『새신자 신앙성장을 위한 일대일 양육교재』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새신자 관리실, 1998), 29.

possibility)이다”⁶⁴라고 말한다. 기도는 우리 내면의 깊은 심층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역사한다. 특별히 관계적인⁶⁵ 기도는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기초를 제공해 준다.

보통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의 손상된 감정은 단순히 치유되지 않는다. 깊이 있는 영성에 따른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권적인 개입을 하실 때에만 회복될 수 있다. 자신의 쓰라린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⁶⁶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특히 관상기도⁶⁷는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즉 관상기도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아주 다른 태도를 형성시켜 준다.

관상기도에 대해 토머스 키팅(Tomas Keating)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대화가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일치로 이끌어지는 내적 변형의 과정이다. 관상기도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언어로 나타난 것이다. 관상기

⁶⁴ Urban T. Holmes, 『목회와 영성』, 김외식 역, 1998.

⁶⁵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나눌 수 있다. 방언기도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다. Yonggi Cho, *How to pray* (Korea: Seoul Logos co., Inc, 1997), 78.

⁶⁶ 평온을 비는 기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온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인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라인홀드 니버). 고병인, 『자아회복그룹』(서울: 한국회복사역연구소 2005), 교재안 참조.

⁶⁷ 관상은 전혀 인간의 지적 요소를 피하고 사고와 상상과 감정과 기억을 넘어서서 무아의 상태로 하는 것이다. 관상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그 관계를 키워 나가는 수련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운동이다.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넘어서 그분과의 통공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인 침묵에 습관 들이게 한다.

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사고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선택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의식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식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관상기도는 우리가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줄 수 있게 우리를 내적으로 정화시켜 주는 과정이다. 관상기도는 우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실재를 각성하는 하나의 길이다.”⁶⁸

기도를 통한 자기표상 형성을 정리하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 순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용서한 후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는, 열정적인 기도를 하면 기적적으로 내면의 치유를 받는다. 특별히 관상기도와 치유적⁶⁹인 기도는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기초적인 것을 제공한다.

4) 목회상담을 통한 좋은 자기표상 형성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상담은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억은 “목회상담에 참여하는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 자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목회

⁶⁸ Tomas Keating,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엄무광 역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7), 16, 67, 195.

⁶⁹ 치유기도문 예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 람을 기억나게 하시고,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급이 가 고 상처 난 부분을 싸매어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명하노니 ○○○를 괴롭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무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같은 부분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담은 자기발견을 형성케 하는 중요한 돌봄이 된다”⁷⁰라고 제시한다. 목회상담은 목회(교회)의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문제⁷¹를 목회자⁷²가 상담해 주는 과정이다.⁷³

목회는 인간의 영혼⁷⁴을 돌보아 주는 일인데,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육체적, 도덕적, 영적인 차원이 하나가 된 전인적인 돌봄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목회자의 목회상담은 영적 구원과 영적 치유로서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목회자⁷⁵는 무엇보다도 성직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조건과 위치에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가장 위급한 순간에 목회자(성직자)를 찾게 되는데, 목회자로부터 일반상담에서 주지 못하는 근원적인 영적인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 이럴 때 목회자는 영적인 차원의 좋은 대상의 상담자로서 내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목회상담에서는 일반적인

⁷⁰ 이상억, “치유에 대한 분석적·비평적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상담의 정체성 연구”, 『장신논단』 30(2007), 333.

⁷¹ 실제로 문제화되는 것으로는 신앙에 관한 문제와 교회생활에 관한 문제,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문제,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문제, 윤리·도덕적인 문제,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⁷² Carroll A. Wise, *Pastoral Counseling it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1), 11. Wise는 상담자로서의 목회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⁷³ 이원박, 『목회상담학 총론』 (서울: 목양서원, 1992), 22.

⁷⁴ 영혼이란 고전적인 그리스도교의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내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중심점이다. 영혼이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고 알게 되며, 의지를 갖게 되며, 또한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몸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생명은 이 땅의 죽음을 면치 못할 영역을 초월한다. Thomas C. Oden, op. cit., 319-320.

⁷⁵ 관계신학을 제시한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관계야말로 실존의 범주요, 남을 맞아들이려는 준비태세이며, 혼의 틀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존재를 ‘관계’로 인식하였다. 즉,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나-너’라는 기본어와 ‘나-그것’이라는 기본어 안에 있는 ‘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관계 좋은 대상으로서 성도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Martin Buber, *I and Thou*, W. Kauffmann trans. (New York: Scribners, 1970), 54. 재인용.

상담과는 달리 영적인 부분⁷⁶이 먼저 선행된다. 하지만 목회상담에서 영적인 부분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목회상담은 내담자를 전인적인⁷⁷ 차원에서 접근하여 총체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제공한다. 전인적인 차원이란 육체적(일시적), 도덕적(의지적), 영적(영원한 관심) 이 세 가지가 서로 창조적이고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 목회상담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목회상담이 이루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계’를 형성시키는 목회심방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진다. 심방은 목회자가 성도를 방문하는 것인데,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끌어서 영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목회심방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감정의 문을, 그들의 불안과 소망, 한계의 문을 열도록 초청하고,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또한 영적으로 폐쇄된 사람들을 소생하게 하며, 슬피 우는 자에게 위로를 제공한다.

목회적 돌봄에서의 목회상담도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확실한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 새로운 자기발견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자기표상은 현재 어떠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다시 형성시킬 수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경험은 그 효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목회상담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대체로 이루어진다.

⁷⁶ 목회상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대표하는 사절로서, 내 모든 관심을 당신과 우리의 관계에 쏟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의 깨어진 인간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당신은 나의 주목과 돌봄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Gerald G. May, 『영성 지도와 상담』, 노종문 역 (서울: IVP, 2006), 155.

⁷⁷ 예수님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의 통합체로 보셨다.

정리하면, 목회상담자⁷⁸는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조건을 직면하도록 도와줌으로 내담자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 목회상담⁷⁹은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데, 목회자의 인격을 또 다른 인격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결국 다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영혼을 돌보는⁸⁰ 성직자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자⁸¹로서의 역할을 통해 좋은 자기표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결론

1) 요약

본 논문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의 증진에 있어서 어떤 관계성이 좋은 자기표상을 형성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심리적(인성적인 측면에서)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표상의 이해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방법론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표상 형성은 대상관계의 결과물인데, 임상관계와 목회적 돌봄에서의 담아 주고 안아 주는 관계성이 좋은 자기표상을 형성하게 하고, 결

⁷⁸ 목회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우려면 특별한 정보, 특수한 훈련, 특수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상담자는 숙련된 사람이어야 하나 기술자여서는 안 된다. 지식과 정보에 익숙하여야 하나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여야 하나 조작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상담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권수영 외, 『목회상담입문 기초편』 (서울: 도서출판 목회상담, 2007), 214.

⁷⁹ 목회상담은 상담자의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Ibid.*, 300.

⁸⁰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정 가운데서, 가까운 형제와 가족의 친근함 속에서, 터놓고 지내는 일차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인간관계의 접촉을 통해서 돌보아 주는 일을 의미한다. Thomas C. Oden, 『목회와 영성』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45.

⁸¹ 이예스더, 『상한 심령을 품어 주는 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175.

국에는 공동체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본 논문의 방향성으로 ‘첫째, 좋은 실제 대상 경험은 좋은 자기표상을 형성할 것이다. 둘째, 좋은 내적 대상 형성은 좋은 자기표상을 갖게 하고, 좋은 자기표상은 공동체 속에서 창조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셋째, 심리치료에서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치료적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로 정리된다.

2) 제언

본 연구를 마치며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좋은 자기표상 형성에 있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양육자)인데, 태교를 포함하여 유아기(적어도 5세까지) 때 부모로서의 역할교육⁸²을 지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단순히 의미 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준비 없이 출산하고, 출산 이후에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의 양육적인 태도 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⁸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실히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자란 아이야말로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며,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⁸² 건강한 가정의 특징들에는 열린 대화가 있는 가정(식사시간에 대화가 있는 가정), 서로의 인격과 개인성이 존중되는 가정, 사랑과 섬김을 가르치는 가정,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가정,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 가치·도덕·윤리·정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가정, 놀이와 유머가 있는 가정, 여가를 같이 보내는 가정, 책임감을 나누는 가정, 문제가 있을 때 직면하여 대처하는 가정(도움을 구하는 가정) 등이 있다. 정규훈, 『인간관계론』(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04), 282.

⁸³ ○○○와 ○○○는 이런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아 주겠습니다. 많이 웃어 주어 아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겠습니다. 칭찬을 자주 하여 아이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겠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에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갈 세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아이에게 규칙은 함께 살아갈 세상의 기본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이를 일관된 가치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항상 화목한 부부의 모습으로 본모기를 보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2일 ‘제10회 임신부건강부부캠프’(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주최/ 탁틴맘 임신부센터 주관)에서의 가족 연약식 내용 참조.

더 행복하게 성장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둘째로,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신건강을 쉽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의료보험 등)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외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한 반면에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현대인에 대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셋째로, 학교에서는 자기(자아)정체감을 생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 초·중, 고교의 학습은 좋은 자기표상(인격) 형성을 위한 자율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색 있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이고 편협한 획일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학생은 더욱더 도태되어 결국에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자기표상에 맞는 ‘대상’들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세확장을 위한 종교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사회의 종교인에 대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종교인들의 상당히 편협적인 사고와 생활방식으로 오히려 비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아니면 종교인 서로 간에도 극단적으로 병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성직자들이 우선 솔선수범하여 질적인 돌봄에 대한 종교교육과 양육을 할 때라고 본다. 다섯째로, ‘관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상담은 사람의 인생을 다루면서 사람의 변화를 돕는 과정의 활동이며 학문인데, 좀 더 새롭게 현대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이론을 개발하고 정립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현대인이 새로운 좋은 대상관계를 통해 ‘좋은 자기표상

을 형성하여' 외면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균형이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좋은 내적 관계의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is about what relationship forms good self representation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modern human beings who have bad self representation by psychopathology because self representation is formed as a result of experience of relations to the object,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s. The container and the holding relationship of clinical relationship and pastoral care of object relations theories forms good self representation, finally has good influence in the community and leads them to live creative lives. That is the essential point.

Chapter II explain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and the counselor to form good self representation in the clinical way; the relationship of the container and the contained; the relationship of the holding and good-enough mother; the relationship of empathy; the relationship of free-floating attention.

Chapter III presents forming good self representation through preaching, forming good self representation through the church service, forming good self representation through praying, and forming good self representation through pastoral counseling for pastoral caring among resources in the churches to form good self representation.

In conclusion, the foundation in forming good self representation is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l relationship with the initial fosterer(parents). When this does not work, they need to experience new good object relations and make good self representation. For good object relations experience, it suggests that parents' role education to bring up children, building up mental health check-up facility in the community, education to build self identity in schools, qualitative education for religious people of narrow-mindedness, establishing counseling theory to promote relatedness are required.

주제어(Key Words)>

좋은 자기표상(good self representation), 나쁜 자기표상(bad self representation)
내적 관계성(internal relationship), 대상(object)
대상관계이론(objectrelations theories),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 과제

- 군선교신학 논문(1~11권) 내용을 중심으로 -

Intellectual Property and Future Task of the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MEAK)

■ 신중훈 Shin, Jong Hoon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역학 재학



I. 들어가는 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군복음화를 위해 인적·물적·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초교파적 결사체이다. 연합회는 ‘비전 2020운동’과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역동적인 군선교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과 추진력의 근간에는 군종목사, 신학교수, 상담·심리학 전문가, 기타 전공자들의 지식 공유 및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2002년 연합회 부설기구로 조직된 세계 유일의 ‘군선교신학회’는 2004년부터 매년 1-2권씩 「군선교신학」이라고 하는 연구논문 책자를 발간하여 군선교의 이론적 중

요성과 정책적 논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예컨대 군선교의 전형적 패턴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장병들의 진중세례 구상, 자대배치 정착 프로그램 개발, 자살·폭력방지 프로그램 적용, 민간교회 교류 확대, 동성애 문제, 병역거부 문제, 국가관 확립, 이단종교 대응책, 여성의 역할론 등이 제시되었다. 마침 2014년은 「군선교신학」 책자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지 횡수로 10년차가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본고는 연합회의 지적 자산인 군선교신학회의 전체(1-11권)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요약·검토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지면의 제약 때문에 생략된 부분도 있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장은 문제제기 및 전체 내용의 윤곽을 담아 보았다. II장에서는 시기별 현황으로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방정책에 따라 군선교 전략도 어떻게 연동되어 변화를 추구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해보겠다. III장에서는 2004년 1권부터 2013년 11권까지의 주제별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겠다. IV장은 군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논점을 전제로 향후 군선교 과제를 모색하겠다. 끝으로 V장은 군선교 대내외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필요성을 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시기별 현황

1.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

우리 헌법 제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하는 선서로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

히 선서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은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 평화 통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한국정부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여 법제화시켰다.² 법제화의 성공은 선진국의 추세인 군사변환을 한국에 도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적 특성에 맞는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 국방개혁의 수준은 국방정책 차원, 군사전략 차원, 작전 전술 및 작전 차원이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네 가지 분야로서 효율화, 민주화, 정보화,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군 조직 개편을 양적 조직에서 질적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군 내부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 개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효율화·민주화 부문에 있어 군 병력 감축 및 병영생활의 신뢰구축(장병 기본권 및 병영생활 개선)은 군선교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방부의 구조개편과 정책변화는 곧 군복음화의 전략적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신학적 담론 제시 및 정책적 모색으로 귀결된다. 이를테면 군선교 신학 4권, 5권, 6권에서 병역제도와 안보관, 모병제인 군종제도, 21세기의 군종목사 및 군종병의 역할, 군선교 2020전략, 군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 장병들의 자살방지를 위한 예방책, 신세대

¹ 국방개혁 3단계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개혁추진 본격화: 선진국방 운영기반 구축, 부대구조 개편 및 병력 감축, 합참 기능 강화, 대북 전쟁억제능력 확충, 새로운 병영문화 개선, 2단계 개혁 심화: 선진국방 운영체제 정착, 합참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대북 전쟁억제능력 확보,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3단계 개혁 완성: 선진국방 완성, 새로운 군구조 완비, 방위 충분성 전력 확보, 병영문화 지속 발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희망한국을 향한 성찰의기록』(서울: 미다스북스, 2006), 196.

²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방개혁(2011-2030)’을 입법화시켰다.

³ 한용섭, 『국방정책론』(서울: 박영사, 2012), 399.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방안 등이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이론적 담론과 실무적 임상연구 성과물은 한국 군 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 과연 사람에 의한 인치의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인가, 아니면 총체적인 문제인가를 총론·각론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거 국방개혁의 논의는 역대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의제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정책입안자의 개혁의지 부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감안한 연합회의 기민한 움직임은 군 개혁과 혁신에 있어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2.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3)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론은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집약할 수 있다.⁴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일방적 ‘포용정책’⁵이 아닌 국익을 바

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천 달러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의 기본방향은 첫째,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림, 둘째, 9·19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 조성.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서울: 북마크, 2007), 197.

⁵ 남북관계에서 적대적 대결상태를 벗어나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역대 남한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이다. 포용정책을 영어권에서는 ‘Engagement Policy’ 혹은 ‘Sunshine Policy’라고 부르며 중국은 ‘양광정책’(陽光政策), 일본은 ‘태양정책’(太陽政策)이라고 부른다.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3대 추진 원칙이 있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다. 둘째, 흡수통일 배제이다. 셋째,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이종석, 『통일을 보는 눈』(서울: 개마고원, 2012), 204.

탕으로 실리외교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 정책과 동북아 균형 외교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하였다.⁶ 그리고 선택한 것이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 강화, 일본과의 군사 협력 모색이었다.⁷ 또한 정보·기술 중심의 최첨단 전력구조 전환, 군 구조 및 편제 조정, 병사들의 전문성, 신세대 병영생활 및 복지 개선 등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장병 정신교육(무형전력) 차원에서 군의 국민정신교육과 국가관 및 주적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과 2010년 10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한 단계 강화시켰던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으로 한국사회는 전쟁위기로 홍역을 치러야 했고, 이런 맥락에서 연합회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국가관과 신앙관 그리고 전쟁론을 고찰하기 시작했다.

「군선교신학」 9권, 10권을 살펴보더라도 수록된 대부분의 어휘와 문법은 애국심, 전쟁윤리, 국가관, 민족주의, 신앙관, 요한계시록 등으로 축약되어 있다. 아울러 장병들의 건강한 병영생활을 돕고자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및 세부 실천사항을 본격적으로 실행시켜 나갔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은 단지 일회성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일상적 병영생활 속에서 선임과 후임이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신앙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장병들의 정신적 상담을 돕고자 임상목회 상담에 관한 여러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무형전력 차원의 안보교육과 애국적 신앙관은 휴전협정⁸을 유지하

⁶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시도했다. 그중에서도 대북정책은 10년 만의 보수정부가 가장 부인하고자 했던 영역이었다.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 정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영되었다. 당선자 시절 이미 통일부를 폐지하려 했고, 전임 정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모든 개념과 단어는 자취를 감춰야 했다.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파주: 한울, 2011), 14-15.

⁷ 한반도평화 포럼, 『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서울: 삼인, 2012), 117.

⁸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조인함으로써 끝났다. 하지만 이 휴전협정

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더욱 중요시되는 대목이다. 만약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한국사회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단호히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교회사를 보더라도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했던 대표적인 기독교인으로서 김구, 여운형, 이동휘, 손정도, 윤봉길, 장준하, 안중근(천주교) 등이 있다.⁹ 이들은 나라 사랑을 곧 하나님 사랑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쳤던 인물들이다. 때문에 전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패권적인 종교가 아닌 이상 평화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라면 평화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방어적 전쟁은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일 뿐이다.¹⁰ 혹자는 “안보는 마치 공기와 같아 매우 중요한 무형가치”라고 하였다.

3. 박근혜 정부 시절(2013-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귀결된다.¹¹ ‘신뢰, 균형, 진화’라는 3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튼튼한 안보

협상 과정에서 남한은 단순한 전투행위의 종결은 또 다른 진화의 불씨를 남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협정조인은 유엔군 총사령관인 클라크 대장과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팡덕회 사이에 이루어졌다.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45.

⁹ 김삼웅, 『백범 김구 평전』 (서울: 시대의 창, 2014); 강덕상, 『여운형 평전-1』 (서울: 역사비평사, 2007); 김창수, 『해석 손정도 생애와 사상연구』 (서울: 넥서스, 1999);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서울: 채륜, 2010); 박경수, 『장준하』 (파주: 돌베개, 2003); 김강녕, 『윤봉길의 민족사상과 상해의거』 (서울: 이경, 2008).

¹⁰ 전쟁은 항상 이득이나 장점보다 더 많은 해악과 피해를 끼친다. 앤스콧은 인간의 자만심, 악의 및 잔인성은 매우 흔한 것이어서 전쟁에서는 대부분 양편 모두가 사악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쟁은 합법적으로 생명을 살해하는 잔인한 행위이기에 처음에는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되지만 전쟁이 진행될수록 더 폭력적이며 잔인하게 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종원, 『기독교윤리로 보는 현대사회』 (서울: 북코리아, 2012), 325.

¹¹ • 3대 목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 3대 추진 원칙: 균형 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 • 추진기조: 1.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 2.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 3.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¹²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구상은 2011년 8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에 소개된 당시 박근혜 의원의 글에서 처음 소개된 내용이다. 남북한 사이의 약속과 국제적 합의 준수가 ‘약속과 파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 간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³ 이 구상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발현되었으며, 당선된 후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구체화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이라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 사건’으로 당국 간의 신뢰관계가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대결구도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국방부는 튼튼한 안보의식을 한 단계 고취시키기 위해 유형·무형 전력화 훈련(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연합회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기독교장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국가관, 애국관, 전쟁관, 안보관, 신앙관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넓은 의미에서 ‘미전2020실천운동’의 영혼구원 전도사역과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된 군사들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살림의 정신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증인들이다.

그런 점에서 박종화(2004)는 “한반도의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냉전체제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쟁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의 주역으로서의 국토방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

¹² 박영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와 과제」(한국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 2013), 2.

¹³ 성장환, 「최근 국제질서의 특징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제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43집, 2013), 234.

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군선교신학」 11권을 보더라도 ‘비전2020 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중간평가 및 제안 그리고 군선교에 있어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 연구는 본래의 군선교의 취지와 목적을 반추하여 미래 군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아울러 연구위원 논문에서는 정치, 경제, 상담, 치료, 신학, 정책평가 등 다양한 장르의 연구 성과물들이 등재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폭 넓은 군선교의 접근 방법론을 제공해 주고 있다.

끝으로, 새로운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규칙이 요구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구조의 틀을 과감히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군선교의 패러다임 및 모델 또한 예외라고 볼 수 없다. 구태의연한 낙관주의적 편향성의 결과는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Ⅲ. 주제별 연구성과 검토

1. 인물사적 신학연구

이규철(2004-2012)은 어거스틴의 결혼관, 대화록, 사상적 영향, 마니교의 반박,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고백록』의 반향, 정당한 전쟁, 우정이란 주제로 총 7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특정 인물의 신학적 입장은 그 당대의 시대적 풍경을 살펴보고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한다. 또한 특정 주제를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고민과 사색을 하도록 폭 넓게 제시해 주었다.

¹⁴ 이 패러독스에 이름을 빌려 준 제임스 스톡데일(James Stockdale)은 베트남 전쟁 때 해군 폭격기 조종사로 하노이 힐턴 포로수용소에 갇혔던 미국 중 최고위 장교였다. 그는 잘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끝까지 직시하며 대비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반면, 다른 포로들 중 곧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낙관주의자들은 대부분 상심을 못 이겨 죽고 말았다. 강준만, 『세상을 꿰뚫는 50가지 이론』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3), 188.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인문학적 고전 읽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과거 선인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자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다양한 인물들을 선정하여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사상과 사고구조 분석은 특정 종교인들만의 사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여백을 제 공해 준 셈이다. 아울러 한국교회(군부대 교회 포함)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세력으로부터 조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어거스틴의 신학사상과 경건생활은 곧 이단과의 전쟁에서 자신과 교회를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고전인물의 신학적 사상과 행적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새로운 회심과 변혁을 촉구하는 데 기폭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고찰과 주장은 신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고전의 순기능을 밝히는 데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

오덕교(2006)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란 제목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신앙의 균형은 바른 교회 운동의 기초라고 언급하면서 에드워즈의 대각성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광신주의와 합리주의자들의 문제점을 간파하여 믿음의 본질을 고찰하였다. 양극단의 치우침 있는 신학과 신앙은 곧 개인과 교회의 질서를 교란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관한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진술을 촘촘히 정리하였다. 즉 믿음과 구원, 성화의 단계로 연결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모를 운동사적 맥락에서 두루 접근하였다. 특히 한국교회가 향후 어떤 인식과 태도로 신앙운동을 모색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바로 ‘균형감’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환(2007)은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 『기독교강요』 제3권 20장과 소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믿음

과 기도, 칭의와 기도, 교회론과 기도, 성례와 기도, 종말론과 기도 등을 연구하였다. 과거에는 기도신학이 체계화 내지 정립되지 못한 채 소논문 형식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정점으로 기도신학의 정립과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칼빈의 기도신학에 기초한 논자의 기도 실체는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임상적 결과물이기에 목회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섭(2013)은 “여호와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이란 제목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순신 생애를 히브리 성경에 비추어 신학적 담론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면서 창세기(1-3장)와 요한계시록(20-22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조)타락)구속)완성 구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여부, 세속과 인간의 관계, 영적 싸움의 본질, 심판과 회복을 서사 형식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신학적 해석과 이순신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레 구속사적 개념과 맥락에서 새롭게 풀어나갔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웅적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과 동시에 과거에 이순신 같은 믿음의 인물이 있었다는 점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반추해 주었다.

김수진(2013)은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이란 제목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불행한 역사가 있다. 물론 신앙적 본분과 민족적 양심에 따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임을 완수했던 무수한 기독교 민족지도자들도 동시에 존재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이름조차 모르는 순교자들이 한국근현대사에 사장되어 있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박연세 목사에 대해 실증적 역사발굴을 통해 그의 역사적 행적과 흔적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활동했던 익산 고현교회, 황등 동련교회, 목포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그에게서 남겨진 문

헌기록과 유품 등을 찾아 보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목포·대구지방법원에서 작성한 재판기록은 한 인물을 평가하거나 상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곧 한국교회사 및 향토교회사에 뜻 깊은 사례를 남겨 주었다.

2. 이단에 관한 신학연구

박영관(2004-2009)은 이단종파 정의, 성경에서 나타난 이교와 이단, 군소(群小) 이교(異敎)와 이단종파들 고찰, 한국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내외의 군소(群小) 이교(異敎) 집단들 고찰,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으로 총 6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전통신학과 이단의 속성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성서적 입장과 역사적 흔적을 두루 분석하였다. 이는 분명한 차이점과 구분 그리고 분별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여러 사례를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를테면 이단 종파인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와 ‘다락방운동’(류광수)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여 군인교회가 더 이상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론을 설파하였다. 어디까지나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후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다.

김광호(2006)는 “우리나라 군내(軍內)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와 예방론 고찰”이란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군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종파들의 침투력과 이에 따른 군인교회의 예방책은 과연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예컨대 국방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단종파들의 침투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이단종파들은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의한 합법성 내지 정당성 확보를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에 따른 예방책으로써 군 내부의 병영 생활과 신앙의 인격화, 군종감실의 대내외적 정책 수립, 한국기독

교군선교연합회의 2020비전을 제시하였다.

3. 여성의 역할에 관한 신학연구

이광순(2009)은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거시적 맥락에서 여성시대, 양성평등 시대, 군대의 보수성과 폐쇄성의 해결책 모색, 고용창출, 여성차별, 군선교의 전략적 구상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여성의 리더십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향후 법·제도적 지위향상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여성의 자질과 능력은 곧 국가경쟁력에도 큰 보탬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군선교의 전략적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은 우선 여성부서관, 장교 인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상담과 돌봄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여성의 생물학적 모성애와 섬세함은 남성 장병들에게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군목은 남성 중심의 군대문화 개선 및 조직력 강화 그리고 무형전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윤(2009)은 “여군목 제도 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란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구약성서에서 여성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성의 역할과 흔적을 추적하였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 과정에서 여성을 바라본 인식과 태도 그리고 몇몇 여성들의 역할은 당대의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파격적인 행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바울의 선교여행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함께 동참한 여성들의 흔적을 반추하여 여성 사역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21세기를 향한 선교사역을 위해 여성의 힘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군선교에 있어서도 여성의 지위를 한층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여군의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

로 예측한다면 이에 따른 여성의 외연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리고 성차별은 복음 전파에 아무런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주연중(2009)은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란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군선교 현장에서 여성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여성 사역의 문제부터 현재 한국교회의 여성 사역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방개혁안에 명시된 미래 군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였다.¹⁵ 아울러 군종목사 및 장병들에게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여성사역의 극대화를 모색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목회보다는 상담에 초점과 무게를 두고 있기에 이외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양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상담과 심리치료에 관한 신학연구

김상만(2004)은 “군인교인 신앙 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군인교회 프로그램을 보다 새롭고 창의적

¹⁵ 국방개혁에 의한 군선교의 전략적 검토에 관한 3편의 연구논문은 아래와 같다. 「군선교신학」(2007) 5권에 수록된 윤병국의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의 연구논문은 군 구조 개편의 원인을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국방환경의 변화, 사회학적 환경의 변화라고 보았으며, 이에 관해 한국 군선교 전략 또한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예컨대, 비전2020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사회의 토양이 복음을 수용하는 옥토가 되도록 토양을 새롭게 기경하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군선교 사역을 위한 통합적인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한편 「군선교신학」(2008) 6권에 수록된 김성룡의 “병역제도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의 연구논문은 국방개혁으로 야기되는 병역제도와 국가안보에 관하여 제도적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하였다. 이를테면 강제적 징병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성들의 참여를 막는 제도적 제한 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비전2020실천운동 역시 시대정신과 상황논리에 부합할 수 있는 ‘포용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군선교신학」(2006) 4권에 수록된 허영식의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 2020의 전략: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의 연구논문은 미래 군의 변화가 군선교에 있어 어떤 영향과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관해 겉혀히 정청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총론적 군선교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장병들의 심리분석, 프로그램 개발, 정책적 지원, 타 종교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을 제언하였다.

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예술치료’(형상화, 상징화, 의사소통, 관계성)를 도입한 후, 이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물을 제시하였다. 신앙심 함양, 친밀감 확인, 자아성찰 및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시도와 접목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러 긍정적 변수를 살펴보았다. 이를테면 첫째, 장병과 군인교인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둘째, 신앙적 함양을 위해 ‘예술치료’라는 프로그램 도입 긍정, 셋째, 자살과 이탈 그리고 분노 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 긍정적 가능성, 넷째, 기독교 신앙 형식과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그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예상해 보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안남기(2005)는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 CARE 4단계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신세대 장병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엄격한 통제와 규율이 존재하는 군 조직생활은 장병들의 문화적 충돌 및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 또한 역기능 가정의 배경에서 생활했던 장병들의 심리상태는 군 복무에 있어 비전투 손실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회 돌봄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그런 점에서 CARE 4단계 프로그램은 군 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치유 돌봄 프로그램으로써 고찰된 연구 결과물이다. 부대 특성상 그리고 장병의 지속적인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비록 26개월의 짧은 군목 임기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적화된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보인다.

박기영(2006)은 “기독교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이란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장병들의 자살률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극한 상황에서 과연 종교생활은 자살사고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심층면접)·사회과학분석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집단 상담활동 프로그램도 있지만 '신앙'과 '자살'이란 주제로 양측의 역학관계를 살펴본 연구 성과물은 처음이다. 이러한 예측분석 결과는 곧 군종목사가 본연의 종교 활동으로도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즉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자살률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이다(세례 여부, 구원의 확신 여부, 예배출석 빈도 여부, 신앙체험 여부,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 여부). 결국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종교인보다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이 덜하다는 점을 밝혔다.

김동연(2013)은 “ACT(수용전념치료) 소개: 기독교와의 만남”이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ACT는 지난 15년간 인지행동적 접근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우울증, 강박증, 분열증, 만성통증, 중독회복, 기분장애 등을 치료하여 큰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묵상이란 부분에 있어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심리치료에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 주력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와의 만남으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 보았다. 그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적인 4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진정으로 경험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둘째,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고 겪어 보는 것, 셋째, 소명을 확인하는 것,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5. 기독교 윤리학(생명윤리)

이규철(2005)은 “양심적 병역 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적 양심의 비판”이란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그들의 사상의 기본적 구조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를 검토

하였다.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내포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군대의 순기능 결여, 즉 군대의 바른 인식 부족, 둘째,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특수성 오류, 즉 반사회적·반국가적이다. 셋째, 그들이 주장하는 ‘양심에 따른’이란 용어와 문법에 관한 몰이해와 왜곡, 넷째, 이단성에 관한 침묵이다. 그래서 신앙공동체의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반기한 처사라고 보았다. 아울러 양심, 생명윤리, 평화라는 개념을 교회사적·성서 신학적 접근으로 논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주의자의 행태가 곧 신학적 편견과 모순에 기인됨을 규명하였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일관된 변론은 우리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마치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형사법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여 반론 제기의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왜곡된 신학적 사고방식과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향적 역사성을 비판함에 있어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다.

채수일(2005)은 “생명윤리와 신앙”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교 윤리, 생명윤리, 그리스도교 생명윤리, 그리스도교 생명윤리의 과제 등을 다루었다. 윤리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성서와 교회사적 전통에서 찾아 그리스도교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교회 공동체의 전통이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초”라고 하였다. 물론 성서 자체는 모든 시대의 윤리적 질문에 관해 답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근본주의적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죽음의 문화를 어떻게 생명의 문화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우선 몇 가지의 문제점과 해결의 가능성 여지를 나열하였다.

첫째, 냉소주의이다. 공공성보다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죽음의 문화는 곧 인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더 중요한 부분은 사회구조적인 병폐를 직시하여 문제의 실마리

를 꼼꼼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파국론이다. 즉 위기가 총체적으로 닥칠 때에 인간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지만 생명의 가치와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구상하여 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박종화(2012)는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선사인 캠페인)이란 주제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확고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으로써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양적 부흥과 성장논리가 아닌 질적 부흥과 내실을 강조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찾아오는 성도를 기대하기보다 실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성서 본문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강도 만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으며,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머리가 아팠던 게 아닌 “가슴이 아파했다”는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성서해석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였다. 향후 군인교회가 ‘선한 주막’이 되고, 군목이 ‘신학 주막 주인’이 될 수만 있다면 병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잠재적’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올 것으로 관측하였다.

최석환(2012)은 일련의 군부대 내의 총기 사고, 집단따돌림, 자살, 폭행사과 등에 관한 획기적인 예방책 차원에서 “선사인 캠페인 실천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선사인 캠페인의 정의, 추진 경과 사항,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5대 실천사항, 5대 세부 실천사항, 실천사례, 의의와 발전방향과 과제를 논하였다. 먼저, 선사인 캠페인의 정의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

아인'을 의미한다. 둘째, 병영 문화를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의지로써 캠페인의 TF팀 구성 및 5대 세부 실천사항을 제시하여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이 아닌 실체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임을 열거해 주었다. 이를테면 5대 실천사항으로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또한 선사인 캠페인 실천사례를 소개함으로 척박한 현장 속에서 어떻게 기대효과를 끌어 올릴 수 있을까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풀어야 할 병영문화 개선 차원의 과제를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

IV. 군선교 논점과 향후 과제

1. 군선교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사회는 소득·교육 양극화 심화, 수도권 과밀화·지역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왕따·자살, 안보불안·남남갈등, 동북아 정세 변화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조 및 국방정책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탐색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 라인에 있어 군 개혁 2020을 기점으로 전군의 지휘체계 변화, 병력감축, 전문성 강화, 장병인권에 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복음화라는 명분으로 조합된 군종부와 연합회는 어떤 군선교 패러다임을 추구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과거에는 '양적 부흥'에 무게감을 실어 진중세례, 위문공연, 초코파이 전도, 성경보급, 상담 프로그램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질적 부흥'에 무게감을 두고 먼저 찾아가는 복음전도, 지속가능한 내면치료상담 프로그램 정착, 지휘관의 의사소통 구조 확립, 위기상황 매뉴얼 개발, 설명이 아닌 표현으로써 생활신앙

축구, 통일조국에 관한 평화교육, 타 종교 군종장교 간에 유대관계 형성,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군종목사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는 과중한 행정업무 스트레스와 군선교의 본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동의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는 일선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의 입장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현실주의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군선교에 관한 여러 통계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장병 세례자 수 감소, 기독장병 정착률 감소, 종교활동 만족도 낮음, 총기사고·폭행·자살·탈영 증가, 장병들의 애로사항과 군선교 전략의 괴리 등 여러 분석 자료가 다양한 채널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캠페인’은 비록 계몽적 차원의 계도운동이지만 시기적절하게 태동하여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박종화(2012)는 한 걸음 더 진전시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펼치려 하는 군인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에서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로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 말하자면 강도 만난 자들을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동체’(a church inside-out)로의 탈바꿈이다. 주일의 교회에서 주간 의 교회로 말이다. 특별한 날의 교회에 일상의 교회로 말이다. 교회 모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병영 현장 중심의 ‘생활신앙’으로 선교와 전도의 틀이 옮겨 가야 한다.”¹⁶

군종목사든 장병이든 우리 모두는 제복을 입은 ‘시민’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조직의 특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

¹⁶ 한국군선교신학회,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군선교신학』 10 (서울: 쿰란출판사, 2012), 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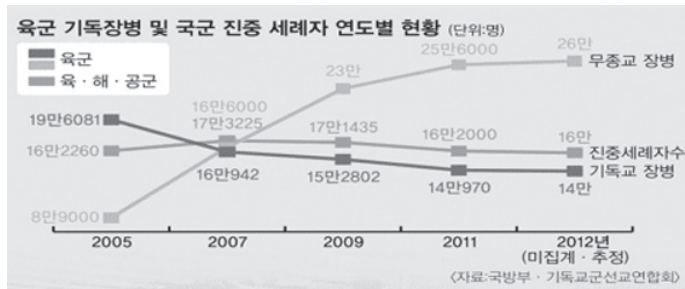
관한다면 이는 예수의 가르침과 우리 헌법의 가치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다. 개인구원이 우선이든 사회구원이 우선이든 간에 신학적 진영논리를 떠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색하는 진영만이 진정한 메시아 운동의 산 증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감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

2. 향후 과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관찰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소득·교육 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 자살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민영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고충과 피로감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군복음화의 지속성장에도 직결되어 심각한 외부 변수로 작용하였다. 2013년도 2월 국방부 및 예장통합총회 군·농어촌선교부의 <육군 기독장병 및 국군 진중 세례자 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육군 장병 가운데 무종교인은 26만 명으로 추정되었다.¹⁷ 2005년(8만 9,00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독장병 수의 경우, 2012년 말 14만 명 선으로 2005년(19만 6,081명)과 비교할 때 약 3분의 1이 빠져나갔다. 따라서 최근 신세대 장병들은 개인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종교적 신념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보다 다른 이외의 요소들에서 찾고 있다. 즉 종교에 관한 기대심리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반동이기도 하다.

¹⁷ 박재찬, “진중세례자 수는 같은데 기독장병 수 줄어드는 이유는?”, 『국민일보』(2013년 2월 18일자).

〈표-1〉 육군 기독장병 및 국군 진중 세례자 연도별 현황



그렇다면 어떤 중장기적 안목으로 군선교 전략 로드맵을 재구상할 것이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먼저 사회과학적 측면인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국방정책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선교지에서 들려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예상통합 군·농어촌선교부 총무 서광욱 목사의 주장이다.

“진중세례식에 초점이 맞춰진 선교방식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진중세례 무용론이 아니라 세례 이후의 장병 양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 중심의 진중세례식은 자칫 복음이 값싼 은혜로 폄하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 위주, 또는 전시성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선한 행위가 진정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군종목사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표적인 군선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¹⁸ 박재찬, “낮은 자세로 현장 누비며 소통에 힘쓸 터”, 『국민일보』(2013년 2월 13일자).

는 몇 가지 시도와 노력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첫째, 선한 행위(누가 군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겠는가?)가 요구된다. 군부대에서는 여전히 병사와 병사 사이에서 혹은 병사와 간부들 사이에서 구타, 자살, 탈영, 총기사고, 따돌림, 사생활 침해, 인격무시, 성희롱 등의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다.¹⁹ 문제는 장병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연일 되풀이되고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군종부와 연합회는 어떤 군선교적 세계관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물론 이전부터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집단상담 심리치료, 자살방지 대책, 위문공연, 캠페인 등을 시기적절하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²⁰ 하지만 사건사고의 예방, 대응, 수습 차원에서 군종부와 연합회는 장병들을 위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혹은 지속 가능한 맞춤형 돌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신세대 장병들의 기본권²¹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현재의 패턴과 인식으로는 대중요법 정도의 일회성 돌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치료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김창제(2009)는 그의 저서에서 현 군선교의 문제점을

¹⁹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은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열악한 근무환경, 선임병과의 갈등, 제대 후 진로 부담, 사생활 보장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병영생활의 누적은 정신적 과잉 스트레스로 분출되어 폭력과 자살로 귀결되고 만다.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52.

²⁰ • 군대 사망사고와 자살사고 현황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망자(명)	359	273	248	230	182	164	158	150	135	124	128
자살자(명)	103	92	102	101	82	66	79	69	67	64	77
자살/사망(%)	28.7	34	41	44	45	40	50	46	50	52	60

출처: 김희수·송문호, 『군 인권법』 (서울: 진원사, 2009), 247, 재인용.

²¹ 기본권은 인간의 동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되기까지는 엄청난 투쟁이 있었다. 기본권은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그 목록을 확대하여 왔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기본권의 의미와 기능”, 『민주법학』(통권 52호, 2013), 107.

“전문성 결여, 개교회주의, 실적 위주, 1회성 행사”라고 비판하였다.²²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현직·전직 군종목사 및 군종병들 사이에 일관되게 언급했던 부분이며, 동시에 언론보도와 시민사회단체(군인권센터)에서도 예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²³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군선교 위기관리 매뉴얼 연구 및 각 부대만의 군종백서를 제작·축적시켜 이를 토대로 미래 군선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²⁴

둘째, 군종목사후보생·군종목사의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따른 설문조사(심층면접) 연구자료 및 실용적인 정책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이미 주연중(2006)은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연구논문에서 군종교장 선발, 양성, 임무수행의 일원화, 정책 채택 순환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신종훈(2013)은 “군종목사후보생의 인권교육”이란 연구논문에서 선발과 정부부터 임관 전까지 이론과 실무(임상)를 병행하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장병인권에 적합한 인권교재 개발, 시청각 교육의 개발, 이해관계자와의 만남 정례화, 실무중심의 임상적 자기체험 학습이 있다. 또한 실무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사례중심 토론, 역할극 재현, 외부특강, 전방부대 방문, 선임과의 만남, 수감자 방문, 군인병원 환자들의 만

²² 김창제, 『군선교』 (서울: 대서출판사, 2009), 247-248.

²³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인권 개선을 위한 군선교 과제”라는 제목으로 향후 군종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언급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Cu7RcPuqBi8>(검색일:2014.6.16); 신상목, “진중세례 및 위문집회만 하는 군선교 옛말”, 『국민일보』(2011년 3월 25일자) 참고.

²⁴ 장병뿐만 아니라 여성장교 및 부사관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해 군종목사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013년 10월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성 관련 범죄는 총 61건이 발생했다. 육군 40건, 공군 10건, 해군 9건, 국방부 2건이다. 그런데 61건의 군내 여군 상대 성범죄 중 단 3건에만 실형이 선고되었다. 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처음부터 덮여 버린 경우는 39건이다. 정희상, “군은 여군에게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나”, 『시사IN』 제342호(2014년 4월 5일자), 17.

남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실무경험의 효과는 임관 후 자대배치를 받아 실전에 투입될 때 업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군종목사들은 연 2차례 전체모임을 가지면서 각 부대 사건사고를 발표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정신의학, 법사회학, 집단심리학, 치료상담학, 문화인류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문제의 해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다. 문제는 기존의 원칙론이 새로운 해법에 관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갈등’이라는 용어만을 놓고 현재 한국사회를 재조명한다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국교회 상황 또한 변칙적 세습, 성 스캔들, 공금 배임·횡령, 재정 불투명성, 불법 정관개정, 교회건축 부도, 소모적 해계모니 쟁탈전, 전근대적 상명하복 의사소통구조, 소득세(종교세) 등으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총체적 갈등과 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증폭·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중에는 여전히 힘의 논리에 의해 ‘봉합’되거나 일부는 ‘승리’하거나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²⁵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다면 신속하게 당사자주의 입장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양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양보 그리고 타이밍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합리적·실용적 연구가

²⁵ 정주진(2010)은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갈등에 대한 우려만 있고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해의 부족이다. 둘째,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셋째,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이다. 한편 총회·노회·개교회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면피 수준에서 개혁과 쇄신을 외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각기전투 식으로 자신들만의 해법을 찾기에 쌍방 간의 대화와 합의는 애당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사고구조이다.

절실히 요구된다. 예컨대 기독교 사회윤리 차원에서 군선교(군종부, 연합회, 교단)의 내부결속 강화 내지 원만한 의사소통구조를 위한 비판, 성찰, 개혁, 쇄신, 갈등이란 주제로 연구논문이 발표되어야 한다.

V. 나가는 말: 제언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는 군 내부에 반인권적인 적폐를 척결하고자 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써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군 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통합인권 시스템 구축, 대대급 이상 인권 교관 배치, 고충처리제도 개선, 초급간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및 군법교육을 강화, 인권교육 내실화 및 실효성, 국방인권 협의회 신설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권익위원회와의 협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측은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국방 옴부즈맨 제도’에 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군종의 역할도 이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기존의 군선교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작 장병들이 내무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혹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본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군종정책과장 이호열 대령은 C채널 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국방부장관이 군종장교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해 전군 군종장교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진단하고 병영문화 쇄신을 위한 군종장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우수 대학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 군종이 상담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례자 수보다는 장병들을 돌봄으로써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향후 군선교에 있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와 군종목사단은 매우 긴밀한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의 중심이자 협력 동역체이다. 마치 한쪽은 후방에서 병참기지 역할을, 다른 한쪽은 최전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투요원과 같다. 때문에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수평적 역학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지속되는 군부대 구타·폭력, 사망사고를 경험하면서 두 조직체의 유기적 공조 및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두 조직체가 분명한 원칙과 목적 그리고 목표가 동일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왜곡과 불신으로 인해 당초 목적했던 바와 다르게 인식하거나 행동한다면 한국교회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점검과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황금어장인 군선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이 5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합회-군종목사단-민간교역자를 동반자 내지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여 ‘만남의 정례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운영 및 정책 등에 관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이해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군종목사 ‘전문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임관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군부대 지역 교회와 상시적 유대관계 및 지속가능한 연합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연합회 전국지회 사역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섯째, 「군선교신학」 논문 수록을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힌다.

Abstract

This thesis aims at defining contemporary meaning and strategic task of military missionary work in the future by synthetically reviewing and classifying relevant theses which are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In particular, this thesis covers the meaning and value of military missionary work by considering its theological discourses in continuation with the defence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insta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has necessarily caused the defence policy to be altered macroscopically or microscopically. In this process, the Military Religious Affairs Department and the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have produced a wide number of theses coupled with theory as well as practice, in order to establish mental education and basic rights in terms of intangible military strength of military personnels. This is a painful effort in responding smartly to questions on various issues within the military.

In the past, military missionary work was limited to baptizing, putting on a show for soldiers at the front, and providing snacks. But today it systematically approaches concerns and problems of soldiers, and reestablishes specific methods for prevention of beating, assault, harsh treatment, suicide, desertion, firearm accidents, and so on. Military commanders expect that the Military Religious Affairs Department will be sanctioned to play an expanding role in preventing and solving these unfortunate incidents and accidents. The Military Religious Affairs Department has presented a medium

and long term road map which demands that military chaplain candidates as well as military chaplains take relevant classes in clinical education. Surely, this urgently calls for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policy makers should remain constant in working with principles and in carrying out their tasks.

The strategies and visions of military missionary work, which are designed to spread the Gospel to the military, do not belong only to the Military Religious Affairs Department and the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For this reason, sustainable trust-building process should be established to maintain and develop reciprocal and close cooperation. Therefore, meetings on a regular basis are needed. Moreover,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extended and assured gradually lest unnecessary suspicion and charge be raised.

What follows are conclusions. First, this thesis has presented various theological discourses which are directed at realizing intangible military strength and basic rights of military personnels. Second, this thesis has concluded that the spirit of today and the defence policy require the current paradigm of military missionary work to change. The final conclusion is that the Military Religious Affairs Department and the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should play a role in improving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for the sake of reformation and innovation.

주제어(Key word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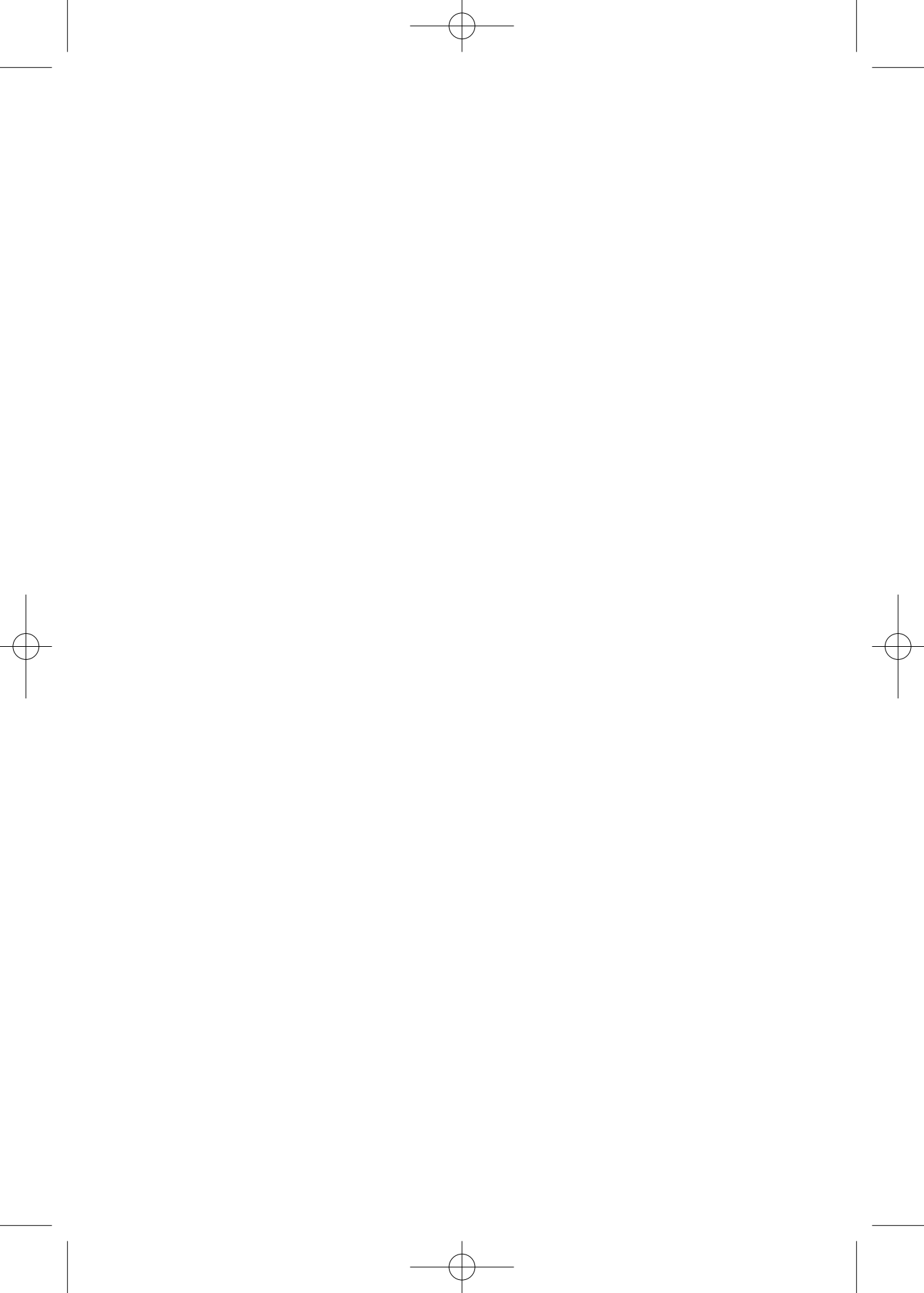
군인에 대한 복음의 전파(Spreading the Gospel to the Military)

군인 인권(Human Rights of Military Personnel)

무형전력(Intangible Military Strength)

상호신뢰 관계성(Reciprocal Relationship of Trust) 방위정책(Defence Policy)

년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소계
책권	1-2	3	4	5	6	7	8	9	10	11	
이단	1	1	2	1	1	1					7
진중세례	1		1	3	1		3			2	11
장병교육					1	1	1	1	2		6
윤리학	2	2	1					3	2	3	13
인권	1									1	2
국가관			2		1			2			5
비전2020 (군선교)	3	1	2	1					1	4	12
리더십	1							1		1	3
병영문화	1						1		1		3
인물신학	1	1	2	3	1	2	1		1	1	13
여성						4					4
상담/자살	1	1	1	1		2	1		2	2	11
다원주의	1					1	2				4
군중제도	2	1		1	1		1				6
군인교회 발전		1	1		1						3
교회사							1	2		1	4
성서학								1	1		2
국방정책			1		2						3
기타				1			1				2



판 권
소 유

군선교신학 12

2014년 10월 1일 인쇄

2014년 10월 7일 발행

발행처 | 한국군선교신학회(부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 쿼란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TEL | 02-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 | 02-747-1004, FAX / 02-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rbooks@gmail.com

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책임교정교열 | 이규철 목사·김대덕 목사·심미숙 팀장·박종민 간사

값 15,000원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